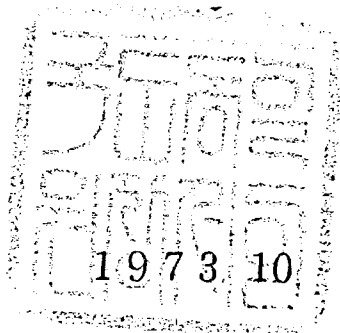


국통 73-6-144

統一教育教授要綱

— 高級用 —



國土統一院

目 次

二 体 概 要	1
I. 統一教育体系 再確立의 要請	3
II. 統一教育理念와 一般目標	5
III. 統一教育을 위한 一般指針	6
IV. 教育目標	7
V. 教育内容 組織	8
VI. 教授指針	10
单元別 教授要綱	17
单元 I. 民族主体意識와 国家論	19
单元目標	20
内容概要	21
小单元 1. 民族主体意識의 成長	22
教授目標	22
教授要目	24
詳 細	36
小单元 2. 文化伝統의 繼承와 發展	41
教授目標	41
教授要目	43
詳 細	47

小单元 3 . 韓國의 正統性	56
教授目標	56
教授要目	58
詳 細	60
单元 II . 民主主義 政治理念斗 体制	67
单元目標	68
内容概要	69
小单元 1 . 民主主義 政治理念	70
教授目標	70
教授要目	72
詳 細	77
小单元 2 . 民主主義 成長過程斗 政治体制	83
教授目標	83
教授要目	85
詳 細	93
小单元 3 . 韓國民主主義斗 成長過程	103
教授目標	103
教授要目	105
詳 細	109
小单元 4 . 民主的 生活樣式斗 生活態度	117
教授目標	117
教授要目	119
詳 細	122

单元Ⅲ. 共產主義 理論斗 實際	125
单元目標	126
内容概要	127
小单元 1. 共產主義 理論斗 그 批判	128
教授目標	128
教授要目	130
詳 細	148
小单元 2. 北韓의 現實	191
教授目標	191
教授要目	193
詳 細	205
小单元 3. 共產主義의 戰略戰術	232
教授目標	232
教授要目	233
詳 細	237
单元Ⅳ. 南北關係斗 統一問題	239
单元目標	240
内容概要	241
小单元 1. 祖国의 分析斗 南北關係의 變遷	242
教授目標	242
教授要目	243
詳 細	254
小单元 2. 祖国統一의 要請斗 要件	261
教授目標	261

	教授要目	262
	詳 細	265
小单元 3 . 統一原則斗 南北의 統一政策		268
	教授目標	268
	教授要目	269
	詳 細	276
小单元 4 . 南北關係發展의 方向斗 展望		295
	教授目標	295
	教授要目	297
	詳 細	301
单元 V . 國際社会斗 韓国		313
单元目標		314
内容概要		315
小单元 1 . 國際關係의 本質斗 最近趨勢		316
	教授目標	316
	教授要目	317
	詳 細	323
小单元 2 . 世界의 韓国		340
	教授目標	340
	教授要目	341
	詳 細	346
小单元 3 . 國際社会斗 南北關係		366
	教授目標	366
	教授要目	367

詳 細	372
单元 VI. 国家發展의 未来像과 國民의 使命	377
单元目標	378
內容概要	379
小单元 1. 国家發展의 要請	380
教授目標	380
教授要目	381
詳 細	384
小单元 2. 國家의 當面課題	394
教授目標	394
教授要目	395
詳 細	401
小单元 3. 國民의 使命	407
教授目標	407
教授要目	408
詳 細	410

全 体 概 要

- I. 統一教育体系 再確立의 要請
- II. 統一教育의 理念과 一般目標
- III. 統一教育을 為한 一般指針
- IV. 教育目標
- V. 教育内容組織
- VI. 教授指針

全 体 概 要

I. 統一教育体系 再確立의 要請

理 念 的 要 請

韓 国 民 主 主 義 思 想 的 伸 張

- 民主主義 基本價値의 優越性 再認識
- 民族主体性에 의한 民主主義 土着化
- 創造的 最善我 實現을 위한 社会体制의 發展
- 自由, 正義, 福祉社会의 實現

民 族 國 家 同 一 體 意 識 的 確 立

- 民族主体性 確立
- 民族正統性의 繼承과 發展
- 民族 國家意識의 伸張
- 個人, 民族, 國家 同一體意識 強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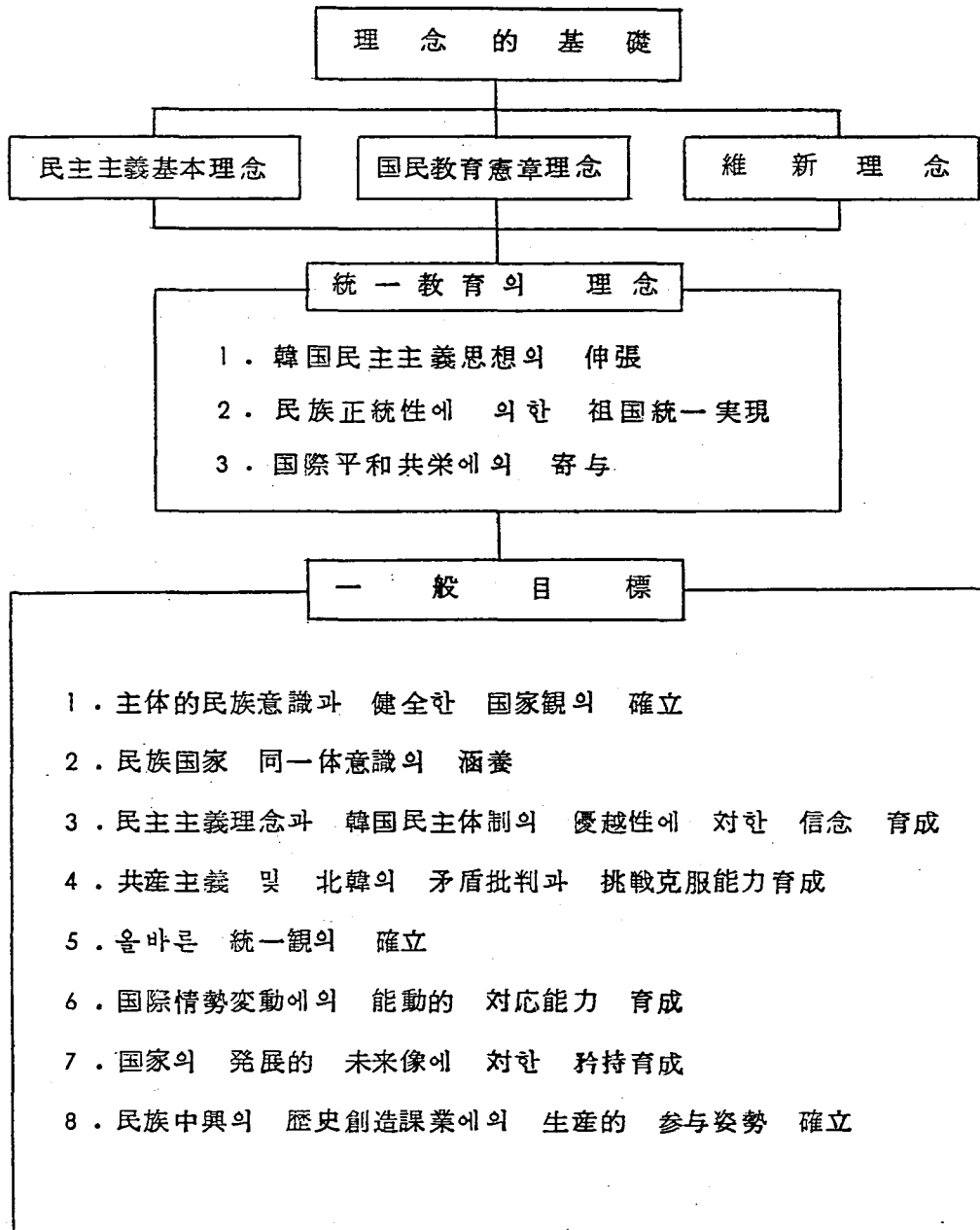
올바른 祖 國 統 一 觀 確 立

- 民族正統性에 의한 民主的 統一
- 平和的 主体的 統一

現 實 的 要 請

現 實	要 請
<p>1. 國際的 現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脫이데올로기적 實利追求 • 緊張緩和와 現狀固定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情勢變動에의 主体的, 能動的 対応
<p>2. 北韓의 現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赤化統一 原則固守 • 思想의 赤性化 強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產主義 및 北韓挑戰克服 • 民族正統性에 의한 韓國民主主義 思想強化
<p>3. 우리 의 現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論統一 基盤未洽 • 民族主体意識未洽 • 統一에 관한 幻想論과 悲觀論 • 統一教育의 散発性과 断片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總和形成 • 民族 國家觀確立 • 統一課業에의 國民總和的 支持 • 統一教育의 一元化

II. 統一教育理念和一般目標



III. 統一教育을 위한 一般指針

一 般 指 針

1. 政治思想教育은 自主, 團結, 繁榮, 平和統一의 精神을 具現하는 國家的 要請을 充足해야 한다.
2. 政治思想教育은 個人的 健全한 發達의 要求를 充足해야 한다.
3. 政治思想教育은 知的, 情的, 行動的 特性을 均衡있게 開發해야 한다.
4. 政治思想教育은 眞實을 바탕으로 理念, 體制 및 現實의 比較批判을 強調해야 한다.
5. 政治思想 教育은 學校를 비롯하여 家庭 및 社會 모든 生活領域에서 調和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6. 政治思想教育은 全體的인 一般教育과 有機的인 體系下에 이루어져야 한다.

IV. 教育目標

1. 主体的 民族史觀을 바탕으로 한 健全한 國家觀을 確立케 한다.
2. 國家正統性에 대한 信念과 衿持를 갖게 한다.
3. 民主主義理念과 韓國民主主義體制에 대한 優越性을 確信케 한다.
4. 共產主義理論의 矛盾을 批判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
5. 北韓共產集團의 政治的, 社會的 現實과 挑發性을 理解하고 이에 対応할 수 있는 能力과 態度를 기른다.
6. 南北關係의 本質을 理解하고 올바른 統一觀을 갖게 한다.
7. 國際情勢變化에 대한 國家의 能動的 対応의 必要性을 理解하고 이에 적극 協力하는 國民的 態度를 기른다.
8. 國家의 發展的 未來像에 대한 衿持를 갖고 國民의 總和的 努力에 積極 參與하는 姿勢를 確立케 한다.
9. 民族中興의 歷史創造에 生産的으로 參與하는 使命感을 鼓吹한다.

V. 教育內容組織

大單元	小單元	內 容 組 織	強 調 點
I. 民族意識과 國家觀	1. 民族主体意識의 成長 2. 文化傳統의 繼承發展 3. 韓國의 正統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民族國家의 形成過程, 國難克服史, 民族思想의 形成 (儒學의 民族思想, 實學의 民族思想), 近代民族主義의 展開 (東學思想, 獨立協會運動, 斥邪運動, 對日抗爭), 民衆의 役割, 民權運動, 社會保障運動 韓國人의 民族性 (人間尊重性, 平和愛護性), 民主主義政治傳統, 藝術文化의 傳統, 外來文化의 受容過程, 文化의 正統性, 政治의 正統性, 國際的正統性, 國家觀의 形成過程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民衆總에 의한 歷史發展過程을 통하여 民族主体性을 부각 民主的 要素로서 歷史發展을 위한 民衆役割의 重要性 強調 民主的 理念要素와 相通되는 人本, 平和思想을 強調 韓國의 民族傳統의 繼承을 強調하고 北韓의 傳統文化의 破壞를 부각, 올바른 國家觀과 國家共同體意識 強調
II.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體制	1. 民主主義의 政治理念 2. 民主主義의 成長過程과 政治體制 3. 韓國民主主義의 成長過程 4. 民主主義生活樣式과 態度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民主主義 基本理念 (人間의 尊嚴性, 最善我實現) 民主主義 基本條件 (自由, 平等, 責任, 協同) 民主政治의 原理 (自決權, 主權在民) 西歐 民主主義의 成長過程 政治體制 (代議制, 立憲制, 三權分立制, 選舉制度, 複政黨制) 多樣한 政治體制 (議員內閣制, 大統領中心制) 政治文化의 背景 (和尙制, 國相制度, 都黨制, 開化期民權運動) 民主主義 成長 阻害要素 發展을 위한 課題 (10月維新, 民族主体性 確立, 國民總和, 國力培養) 生活樣式으로서 民主主義 民主的 人間의 行動特性 問題의 民主的 解決過程 	<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存하는 理念과 體制중에서 民主主義가 最善의 것임을 強調, 民主主義理念과 條件과의 區分을 明確히 할 것 民主主義는 理念具現을 위한 發展的인 努力過程임을 強調 理念具現을 위한 體制的 多樣性을 強調 우리의 條件에 알맞는 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努力의 重要性을 強調 民主的 生活態度와 實踐의 重要性을 強調
III. 共產主義 理論과 實際	1. 共產主義理論과 二 批判 2. 北韓의 現實	<ul style="list-style-type: none"> 理論發生의 背景 (社會的, 思想의 背景) 哲學理論批判 (論證法的 唯物論, 唯物史觀) 政治理論批判 (階級鬭爭論, 革命論, 「프」 獨裁論, 前衛黨論) 經濟理論批判 (勞動價值說, 剩餘價值說, 資本主義崩壞論) 北韓共產主義의 特殊性 金日成의 <主体思想> 批判 政治實態 (權力構造와 權力行使方式의 特徵) 經濟實態 (體制, 政策, 部分別 實態) 軍事實態 (軍事戰略, 戰爭準備狀況)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共產主義 理論自體의 矛盾性, 虛構性, 政治的 煽動性, 時代的 制限性, 獨斷性, 閉鎖性 밝히는데 批判의 焦點을 둘 것. 北韓共產主義는 어느 共產國家보다도 好戰的, 獨裁의 임을 強調

大单元	小单元	内 容 组 織	强 调 点
IV. 南北關係와 統一問題	3. 戰略戰術 1. 祖國分斷과 南北關係의 變遷 2. 祖國統一의 要請과 要件 3. 統一原則과 南北의 統一政策 4. 南北關係의 發展과 方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戰略戰術의 類型 • 戰略戰術의 形態 • 北韓의 對南 戰略戰術 • 祖國分斷(分斷의 背景, 他律性) • 南北理念과 體制의 比較 • 우리의 統一努力과 北韓의 挑戰 • 要請(民族史的, 人道的, 國家發展的, 國際的 要請) • 要件(民族 國家 一體感, 民主力址, 社會正義고양, 國力培養) • 南北對話의 理論的 分析(效果期待值, 目標) • 統一原則, 統一方案 • 南北의 統一目標과 政策 • 南北關係의 發展方向(民族同質性 回復, 相互理解와 信賴) • 南北의 體制競爭 • 韓國의 主導的 役割 • 國際關係의 本質: 國家利益의 追求 • 새로운 國際關係(冷戰에서 共存時代로 理念에서 實利追求로, 兩極에서 多極체制로) • 地政學的 位置(日, 美, 中, 蘇) • 周辺強大國들의 對韓半島政策과 10月 維新 • 韓國의 外交目標(安保, 經濟發展, 統一 成就) • 國際平和와 韓國의 役割 • 南北問題의 國際性(強大國들의 利害關係 東西勞力 均衡) • 統一을 위한 國際協調와 外交의 課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脆弱點 露出 • 祖國分斷의 他律性과 우리의 統一努力이 北韓의 妨害로 實現되지 못함을 強調 • 統一에 대한 信念을 갖고 努力하는 態度強調 • 올바른 南北關係의 方向을 提示하고 國家安保와 發展을 위한 努力을 強調 • 國際關係의 本質을 分明히 하고 새로운 國際政治潮流에 國家의 能動的 反應의 重要性 強調 • 統一問題의 國際性과 이의 成就를 위한 우리 外交의 課題를 強調
V. 國際社會와 韓國	1. 國際關係의 本質과 世秩序 2. 世界속의 韓國 3. 國際社會와 南北關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家發展의 基本方向: 民族傳統의 繼承과 發展, 民主理念의 具現, 福祉社會 建設 • 國家發展要件: 發展意志, 勤勞精神, 公益精神, 淸富思想, 安保, 社會倫理 •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制度的 基盤 造成 • 民族主義意識과 國家一體感形成 • 統一基盤造成과 努力 • 國力培養과 國家安保確立 • 韓國의 發展의 未來像 • 統一後의 榮光된 國家未來像 • 民族中興의 使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問題의 國際性과 이의 成就를 위한 우리 外交의 課題를 強調 • 우리의 發展의 未來像에 對하여 自負心을 갖고 國家의 課業成就에 積極參與하는 歷史的 使命感 鼓吹에 力點
VI. 國家發展의 未來像과 國民의 使命	1. 國家發展의 要請 2. 國家의 當面 課題 3. 國民의 使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家發展의 基本方向: 民族傳統의 繼承과 發展, 民主理念의 具現, 福祉社會 建設 • 國家發展要件: 發展意志, 勤勞精神, 公益精神, 淸富思想, 安保, 社會倫理 •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制度的 基盤 造成 • 民族主義意識과 國家一體感形成 • 統一基盤造成과 努力 • 國力培養과 國家安保確立 • 韓國의 發展의 未來像 • 統一後의 榮光된 國家未來像 • 民族中興의 使命 	

IV. 教授指針

1. 目標 및 教育內容組織

1) 目標陳述

本教授要綱에는 水準을 달리하는 四個群의 目標가 陳述되어 있다. <一般目標>는 教育對象水準에 關係없이 統一教育(政治思想教育)의 全領域에서 達成되어야 할 最上의 基本目標이다.

<教育目標>는 一般目標를 土台로 對象水準을 고려하여 導出된 目標이다. 對象은 初級, 中級, 高級으로 区分하였다. 本要綱에서의 <教育目標>는 高級을 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거의 一般目標와 類似하다.

<單元目標>는 教育目標를 土台로 導出되었으며 同質的인 目標들을 한데 묶어 單元을 設定하고 各單元的 앞部分에 提示하였다. 單元目標는 單元的 目標, 內容, 指導方法의 가장 基本的인 案内指針이다. 單元目標는 內容次元과 行動次元의 要素로서 陳述되는 樣式을 扞하였다. 行動은 學習이 끝난 후, 被教育者가 示顯할 수 있는 可觀的 非可觀的 行動을 모두 말하며 內容은 被教育者로 하여금 그 行動을 배우게 하는 수단과 資料를 意味한다. 單元目標는 어떤 內容을 가지고 어떤 行動을 길러내야 될 것인가를 教授者가 알 수 있도록 진술된 것이다.

<教授目標>는 單元目標를 土台로 導出된 가장 具體的인 最下位 目標로서 行動次元과 內容次元을 고려하여 被教育者의 立場에서 陳述되었다.

行動特性은 <知識> <態度> <批判能力>의 3領域으로 区分하였다. <知識>은 事實, 概念, 原理等の 理解를, <態度>는 感情, 價值, 信念, 態度等の 心理的-情意的인 行動特性을, <批判能力>은 原理 概念의 適用, 分析, 比較, 評價, 綜合能力等の 行動特性을 포괄한다.

教授目標은 各單元을 몇개의 小單元으로 区分하고 各小單元마다 앞머리에 提示하였다.

水準을 달리하는 四個群의 目標은 一貫性을 가지면서 水準에 따라 具体化되었다. 教授者는 內容을 파악하기 이전에 먼저 目標에서 意圖하는 方向을 分明히 把握할 것이 要望된다.

2) 教育內容組織

教育目標을 土台로 教育할 內容이 選定되고 組織되었다.

本高級用은 6個의 單元과 20個의 小單元을 設定하고 各單元마다 V. <教育內容組織>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內容을 選定 組織하였다.

그리고 各 단원의 取扱에서 留意할 強調點도 指摘하였다.

各單元마다 <單元目標>를 提示한 뒤에 그 單元 全体에서 取扱해야 할 <內容概要>를 表로 要約 提示하였다. 單元的 <內容概要>는 <教育內容組織>과 관련시켜 파악함으로서 統一教育(政治思想教育) 全体속에서 그 位置를 把握해야 한다.

3) 單元 및 教授要目的 組織

앞서 教育內容組織에서 提示한 바와 같이 本高級用 教授要綱은 6個의 大單元과 20個의 小單元으로 構成되어 있다.

各單元的 組織은 먼저 <單元目標>가 提示되고 다음에 <內容概要>가 提示되어 있다. 內容概要는 그 單元에 포함되는 小單元名과 主題, 그리고 內容要素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要約 提示하였다.

單元的 <內容概要>에 提示된 順序로 小單元이 나오며 各 小單元에는 먼저 그 小單元的 <教授目標>가 行動特性別(知識, 態度, 批判能力)로 陳述되고 다음에 <教授要目>과 <詳細>가 나온다.

教授要目에는 取扱될 內容의 講義題目과 主題가 提示되고 이 主題에 따른 教授內容이 要約 提示되었다. 그리고 教授內容의 取扱上에

있어 留意해야 할 點과 方法, 強調點等이 <方法 및 留意點>欄에 提示되었다. <教授內容>欄에 提示된 概念, 原理, 事實等의 教授內容을 補充하는 資料가 <教授要目>뒤의 <詳細>에 提示되었다.

<教授要目>의 <資料>欄에는 <詳細>에 補充資料의 有無를 表示하였다.

<詳細>에는 教授要目에 제시된 主題에 관련된 內容의 補充資料가 수록되었다. 각 小單元을 取扱하면서 教授過程中서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利用하면 된다.

<詳細>의 補充資料로서도 不足하거나 <詳細>가 없는 경우에는 教授者가 適切히 必要한 資料를 準備한다.

2. 教授要目の 活用方案

1) 目標의 確認

教授者는 教授要目에 依한 教授案을 作成하기 以前에 <教授目標>를 分明히 把握해야 한다. 教授目標는 <單元目標>속에서 그 位置와 比重을 分明히 把握해야 되며 單元目標는 全体<教育目標>속에서 그 位置와 比重을 把握해야 한다. 上位目標와 下位目標들간의 縱的一貫性이 把握되면 같은 水準의 目標들간의 橫的關係도 分明히 파악해야 한다. 特히 教授目標에 있어서 <知識>, <態度>, <批判能力>의 行動特性은 便宜上 区分하여 陳述한 것에 不過하며 실제 教授活動에 있어서는 이들 行動特性이 同時에 統合적으로 達成되어야 할 것이다. 知識의 기반없이 批判能力은 길러질 수 없으며 知識의 기반없는 信念이나 態度는 무너지기 쉽다. 이런 點에서 知識의 目標達成은 <態度>와 <批判能力>을 기르는 기초로서 가장 重要한 目標이다.

튼튼한 知的能力을 土臺로 態度와 批判能力을 길러야 한다. 이런 點

에서 教授者는 縱的 橫的인 面에서 目標에 對한 깊은 認識이 있어야 한다.

2) 教育對象과 教育時間에 따른 教授要目の 조정

教授要目에 提示된 教授內容은 <時間配當>에 대한 考慮없이 最少限度의 內容을 組織한 것이다. 따라서 教授者는 事前에 時間配當에 對한 充分한 檢討를 하고 時間計劃을 세워 內容을 取扱해야 時間의 過不足에 대한 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 것이다. 教授者는 다음과 같은 點들을 고려하여 教育對象特性과 教育時間의 過不足에 따라 伸縮性있게 教授要目を 調整·活用할 수 있다.

① 小單元의 教授要目內의 어떤 主題를 좀더 仔細히 取扱하거나 強調, 또는 縮小하거나 省略하고자 할때에는 教授者는 <教授目標>를 充分히 檢討한 다음 目標의 優先順位를 決定하고 그 優先順位에 따라 補強, 縮小, 省略을 決定해야 한다.

이때 目標의 優先順位와 重要度の 決定은 教育對象의 必要性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配當된 時間이 充分하더라도 教授者가 目標들의 重要度を 事前에 把握하는 것은 緊要하다.

② 單元內에서 어느 小單元을 좀더 仔細히 取扱하거나 強調, 또는 縮小하거나 省略하고자 할 때에는 教授者는 <單元目標>를 充分히 檢討한 다음 目標들간의 優先 順位와 重要度を 決定하고 이들 目標에 對應하는 小單元을 決定해야 한다.

決定된 小單元들은 優先順位에 따라 教授內容을 補強, 또는 縮少하고 時間配當을 決定한다.

③ 6個의 單元中 어느 單元을 特別히 仔細히 取扱하거나 強調, 또는 縮小, 省略하고자 할때에는 <教育目標>에 대한 充分한 檢討후에 目標의 優先順位와 重要度を 決定하고 이들 目標에 對應하는 單元을 決定한다. 單元的 優先順位에 따라 時間配當을 하고 教授內容

을 補強 또는 縮小하는 教授要目の 再調整作業을 해야 한다.

3. 教授方法

各單元을 取扱함에 있어서 留意할 点이나 強調해야 할점은 教育 内容組織表에 簡略히 提示하였다. 그리고 各小單元을 取扱함에 있어서 教授過程上에 留意点, 方法, 強調点是 主題의 흐름에 따라 <教授要目> 의 <方法 및 留意点>欄에서 仔細히 提示하였다. <方法 및 留意点>欄에 提示한 留意点, 強調点, 方法 등은 具體的 授業展開技術이나 形態, 方法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内容의 指導要領이나 原理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授業者는 <方法 및 留意点>欄의 指導要領에 留意하면서 多様な 授業形態, 技術 方法을 驅使해야 한다.

目標陳述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本教授要綱은 知識目標를 爲主로 作成되었기 때문에 自然 講義式 授業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方法은 講義와 더불어 併行될만 하다.

1) 討 議

事前에 問題(主題)를 提示하여 教材나 다른 文獻등을 조사토록하여 各者의 見解에 따라 討議를 하게 한다. 이때 授業者는 討議를 指導하고 結論을 分明히 내려야 한다. 討議의 進行을 指導할 때에는 討議의 흐름의 焦點을 教授要目에 提示한 内容의 흐름과 留意点에 맞도록 各別히 注意할 必要가 있다.

2) 内容의 圖表化

教授要目에 提示된 内容 혹은 詳細에 提示된 要素를 簡略히 차드化하여 利用한다.

3) 슬라이드 및 映画의 利用

国土統一院, 中央情報部, 反共聯盟을 비롯한 反共機關에서 製作 普及하고 있는 Slide 와 簡單한 映画들은 本教授要綱을 取扱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4) 各種 視聽覺的 方法의 利用

슬라이드나 映画以外에도 必要性和 効果性を 充分히 考慮하여 여러 가지 視聽覺教具를 利用할 수 있다.

單元別教授要綱

單元

- I. 民族主体意識과 国家觀
- II.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体制
- III. 共產主義의 理論과 實際
- IV. 南北關係와 統一問題
- V. 國際社会와 韓國
- VI. 国家發展의 未來像과 國民의 使命

單元 I

民族主体意識과 國家觀

小單元

1. 民族主体意識의 成長
2. 文化傳統의 繼承과 發展
3. 韓國의 正統性

單 元 目 標

1. 民族史의 形成과 創造에 있어서 民衆의 役割과 參與態도의 必要性과 重要性을 理解시킨다.
2. 他律史觀이나 階級史觀을 극복하고 民族主体史觀 確立의 重要性을 歷史的 證據를 通하여 理解시킨다.
3. 民族文化에 對한 自負心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한 民族主体意識과 民族一體感을 갖게 한다.
4. 民族的 自主性의 重要性和 그 成長過程을 歷史를 通하여 理解시킨다.
5. 大韓民國이 民族文化傳統의 繼承者임을 理解시킴으로서 韓國의 正統性에 對한 信念을 갖게 한다.
6. 國家와 個人과의 關係에 對한 새로운 認識을 通하여 올바른 國家觀을 갖도록 한다.

內 容 概 要

小 單 元	主 題	內 容 要 素
1. 民族主体意識의 成長	1) 民族自主性의 確立 ① 民族國家의 形成過程 ② 困難克服 ③ 民族思想의 成長 ④ 近代民族主義의 展開 2) 民族進步의 過程 ① 民權運動 ② 社會運動 ③ 技術의 進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新羅, 高麗, 李朝 • 麗隋, 麗唐戰爭, 三別抄亂, 壬辰倭亂 • 高麗의 民族史定立, 儒學과 實學의 民族思想 • 東學思想, 獨立協會, 斥邪運動, 3.1 運動 反托運動 • 高麗身分制에 對한 反抗운동, 李朝의 晉州民亂, 東學亂 • 高麗와 李朝의 社會保障制度, 日帝時의 啓蒙運動, 反共運動, 새 마을 運動 • 高麗音韻, 訓民正音, 實學思想
2. 文化傳統의 繼承發展	1) 韓國人과 民族性 2) 民本政治傳統 3) 藝術文化의 繼承과 創造 4) 文化의 受容過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間尊重思想, 平和愛護思想 • 會議制 (和尙制) 權力의 規制制, 權力의 牽制制, 民衆意思疎通制 • 文化의 創意性 (自主), 自然性 (人道), 實用性 (進步) • 自主的 創意的受容
3. 韓國의 正統性	1) 韓國의 正統性 2) 國家觀의 確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化: 平和, 人本思想, 美風良俗의 正統性 • 政治: 民本政治의 正統性 • 民族主体史觀을 바탕으로 한 國家觀, 主權在民思想, 個人과 國家와의 責任義務關係

小單元 1 . 民族主体意識의 成長

教 授 目 標

<知 識>

- 1 . 單一民族으로서 우리民族의 特徵을 안다 .
- 2 . 우리民族意識의 形成過程을 原始部族時代, 三国時代, 統一新羅時代 高麗時代, 李朝時代로 区分하고 그 特徵을 理解한다 .
- 3 . 우리民族의 自主意識과 團結意識을 對外抗爭의 國難克服歷史를 通하여 說明할 수 있다 .
- 4 . 儒學과 實學에 나타난 民族의 自主性을 說明할 수 있다 .
- 5 . 東學運動, 獨立協會運動, 斥邪運動 抗日運動을 通하여 表現된 近代民族主義思想을 說明할 수 있다 .
- 6 . 우리 歷史를 三国時代, 高麗時代, 李朝時代로 区分하고 民衆參與을 위한 民主主義的 政治體制의 傳統을 指摘할 수 있다 .
- 7 . 高麗中期以後 3.1 運動期까지 나타났던 民權運動의 主要한 歷史的 事件을 指摘하고 民主主義와 관련시켜 說明할 수 있다 .
- 8 . 民衆을 위한 社會保障制度 및 社會保障運動의 傳統을 高麗와 李朝의 歷史속에서 指摘하고 그 特徵을 民主主義와 관련시켜 說明할 수 있다 .

<態 度>

- 1 . 하나의 統一된 民族으로서 우리가 지켜온 悠久한 歷史에 對하여 民族的 衿持와 自負心을 갖는다 .
- 2 . 單一民族으로서 民族形成過程의 歷史를 通하여 民族一體感을

높인다.

3. 国難을 克服했던 자랑스런 對外抗爭의 歷史를 通하여 民族的 自主意識과 團結意識을 높이고 愛國心을 鼓吹한다.
4. 民本主義 政治傳統의 歷史를 通하여 우리民族이 民主的 價値를 尊重해 왔다는 傳統에 對하여 自負心을 갖게 한다.

<批判能力>

1. 우리의 歷史속에서 民本主義 傳統을 指摘하고 民主主義와 關連시켜 그 長短點을 批判할 수 있다.
2. 우리의 近世史를 通하여 일어났던 民權運動과 西歐에서 루네상스以後 일어났던 民權運動과의 差異點과 共通點을 比較할 수 있다.
3. 國家發展과 歷史發展에 있어서 차지하는 民族主体性의 重要性을 歷史的인 事實을 例擧하고 說明할 수 있다.
4. 民族意識과 國家意識을 比較 說明할 수 있다.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1. 民族自主性の 確立過程</p> <p>1) 基本概念</p> <p>2) 民族形成의 基盤</p>	<p>① 民族</p> <p>人種과 國民의 概念과는 다른 것으로 歷史와 文化上의 共同体意識을 基반으로 규정된다. 人種은 生物学上으로 國民은 行政上으로 규정된다.</p> <p>② 우리民族 概念의 特性</p> <p>우리民族은 歷史와 文化上으로는 물론 人種의으로나 行政的으로도 合致된 世界에서 稀少한 民族國家 (單一民族國家)</p> <p>③ 主体性과 自主性</p> <p>歷史와 文化의 形成過程에 民族이 主体가 되어 異質文化에 흡수되거나 혼합됨이 없이 우리民族 固有의 것으로 創造한 의미강조,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民族은 主体性이 강했고 自主性이 强했다고 할 수 있음.</p> <p>① 韓民族의 발상은 오래나 民族形成의 母體가 되는 民族社會의 구성은 新石器時代</p> <p>② 新石器時代에 여러 民族들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토tem신앙, 生産양식, 法俗관계 등이 같은 同一文化의 기틀이 形成되어 있었다.</p> <p>③ 古朝鮮時代에 도 여러 部族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토tem신앙, 태양숭배 무속신앙, 天君思想, 政教一致등 같은 文化를 基반으로 하고 있었다.</p> <p>④ 支石墓등으로 보아 族長이 統治者</p>	<p>우리民族의 自主性 및 主体性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에 앞서 “民族”과 “主体性”의 概念을 분명히 할것이 필요하다 이들 概念을 설명한 다음 우리의 民族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民族의 主体意識이 형성되고 表現된 史的 事實을 例示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p> <p>民族形成의 歷史는 오래 이나 民族文化形成의 基반은 三國時代에 와서 굳어지게 되었음을 전체로 하고 三國時代以前의 民族形成과정은 몇개의 事實을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된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3) 民族意識의 抬頭</p> <p>4) 民族文化의 結末</p>	<p>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鐵器文化의 유입은 政治体制를 聯盟체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p> <p>⑤ 西紀 1世紀경 高句麗, 百濟, 新羅의 古代國家 건설은 이러한 部族聯盟體를 기반으로 하였다.</p> <p>⑥ 三國은 서로 다투우며 統一의 盟主가 되려 노력했으며 그 接近方法은 佛敎의 도입, 國史책의 편찬, 敎育의 強化, 농업의 장려등 서로 비슷했음을 볼때 같은文化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p> <p>① 三國이 자기 忠孝思想을 中心으로 하는 國家意識을 고취하여 단결을 도모하고 있었다.</p> <p>② 新羅의 統一은 行政의 統合이 라기 보다 民族統一의 의미가 더 크다.</p> <p>③ 統一新羅는 三國文化를 융합하여 民族文化를 創造하였다. 鄉歌, 音樂, 佛敎, 美術등 三國의 共同關心事의 集約</p> <p>④ 高麗에 의한 再統一은 신라文化의 계승과 創造에 박차를 가하였다.</p> <p>⑤ 高麗의 北進政策은 自主의 民族防禦心과 國家意識의 결합으로 표면화된 것임.</p> <p>⑥ 國家意識의 고취는 民族意識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檀君神話에 의한 民族意識과 國家意識고취)</p> <p>① 高麗末期와 朝鮮初期는 民族形成의 內的 忠實을 기한 시기</p>		<p>3) - ① <詳細 1> 三國敎育기관의 例</p> <p>3) - ② <詳細 2> 보충 설명</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点	資 料
<p>2. 學國의 國難克服</p> <p>1) 韓半島의 地政學的 位置와 外侵</p> <p>2) 高句麗時代의 國難克服</p>	<p>② 그 代表的인 例가 世宗朝에 꽃핀 民族文化: 한글의 創製를 필두로 測雨器, 印刷術 등 科學, 技術이 크게 발달하였다.</p> <p>③ 각종 文化事業 즉 法典과 國史의 편찬, 유교적 社會규범의 적용 등은 單一民族을 바탕으로 하는 國家建設의 기틀 구축을 위한 事業</p> <p>④ 三國의 歷史편찬, 高麗의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李朝의 東國史略, 東國通鑑, 東史綱目 등의 편찬은 自國史의 인식으로 民族意識의 고취를 위한 것</p> <p>① 韓半島는 大陸勢力의 東進과 海洋勢力의 北進을 위한 교량적 위치에 있어 外侵을 자주 받게 됐다.</p> <p>② 수많은 外侵에도 불구하고 外勢를 물아내고 國難을 學國의 으로 克服하여 民族과 國家를 維持 發展시켜 왔다.</p> <p>① 漢나라의 東方政策으로 韓半島北部에 四郡(樂浪, 臨屯, 玄菟, 眞蕃)을 設置하였으나 高麗의 廣開土王때 漢四郡을 물아 내어 北部의 우리領土를 회복하고 방어하는데 성공했다.</p> <p>② 隋(581-618)와의 오랜 싸움에서 快勝한 것은 高句麗인의 기상인 요 民族의 햇불이었다. 隋는 高句麗와의 싸움에서 지쳐 唐에 政權을 넘기는 정도로 國力을 소모했다.</p> <p>③ 唐(618-907)은 高句麗를 5년간</p>	<p>韓半島의 地政學的 位置 때문에 平和愛護의 民族인 우리先祖들은 수 많은 外侵을 받게 되었다는 進게를 한다음, 그러나 外侵을 당하는 國難이 있을때마다 學族의인 노력으로 克服하여 民族과 國土를 방어했음을 강조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學族的 國難克服의 例를 時代別로 事件中心과 人物中心으로 설명하면 充分的 보충설명이 될 것이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高麗의 北進 政策과 祖國 守護</p> <p>4) 李朝時代의 外 交政策과 民族 的 國土守護精 神</p>	<p>세차레나 侵略했으나 失敗하였고 新 羅와 결합하여 高句麗, 百濟를 滅亡 시켰으나 新羅의 힘에 의하여 물러 났음.</p> <p>① 北方의 遼, 女真, 몽고등의 계속적 인 侵略을 받았으나 끈질긴 北進政 策으로 祖國을 수호했음.</p> <p>② 各大戰에서 승리로 이끈 事件과 功을 세운 人物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p> <p>㉠ 對契丹戰과 徐熙, 康兆, 姜邯瓚</p> <p>㉡ 女真征伐과 尹璽</p> <p>㉢ 몽고침입과 三別抄</p> <p>㉣ 倭寇의 약탈행위와 崔茂宣</p> <p>① 李朝時代의 事大交隣主義나 事大外 交政策은 일종의 外交戰略이었으며 民族主体性이나 國家自主性을 喪失한 것은 아니다.</p> <p>② 事大外交政策의 成果는 四郡六鎮의 開拓과 倭寇의 根拠地인 對馬島征伐 을 可能케 했다.</p> <p>③ 壬辰倭亂은 開化期에 접어든 民族 文化의 發展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이에 對抗할 수 있었던 것은 武力 이 아니라 精神文化로 團結된 民族 魂이었다.</p> <p>④ 倭亂과 胡亂등의 國難에 孥族의 克服努力은 義兵, 僧兵, 여성들에서 까 지 나타나 國土守護의 主体는 兵士 를 包含하는 大衆이었음을 볼때 民族意識은 底辺까지 擴大되어 있었다.</p>		<p>3) - ② <詳細3> 보충 설명</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点	資 料
<p>3. 民族思想의 成長</p> <p>1) 高麗時代의 民族意識</p> <p>2) 儒學의 民族思想</p> <p>3) 實學의 民族思想</p>	<p>① 三國時代나 統一新羅時代에는 共同體意識이 강화되고 血緣과 文化의 交叉를 이루어 가고 있었으나 民族思想이 政治意識으로 승화되기 시작 한 때는 高麗時代에 와서 이다.</p> <p>② 高麗의 北進政策은 民族意識을 國家意識으로 승화시켜 단결을 促求한 例이다.</p> <p>③ 高麗祖의 檀君神話는 民族意識을 승화하기 위한 教材였다.</p> <p>① 世宗朝에 꽃핀 民族文化는 統治手 段으로서가 아니라 民族生活의 안전 과 民族國家의 안전을 위한 知的探 究의 結果이었다.</p> <p>② 한글, 古典, 地理表, 法典, 科學등에 관한 研究는 儒學과는 無관한 것이 지만 民族과 國家의 同一視를 위한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p> <p>③ 忠孝思想은 民族意識을 國家意識으로 승화한 思想이었다.</p> <p>④ 性理學에서 강조한 民本主義思想은 政治意識을 높이는 한편 爲民의 政治의 바탕을 구축하려 한 努力의 基本을 마련하였다.</p> <p>①實學은 形而上學的 本質論에서 벗어나 民族의 實生活이나 國家制度의 改革을 主張한 것으로 民族과 國家의 關係를 對象으로 한 것이다.</p> <p>② 實學思想은 事實求是, 利用厚生이외 에 自我의 각성을 부과하고 있었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4. 近代民族主義의 展開</p> <p>1) 開化思想과 近代化</p> <p>2) 東學思想의 民族主体性</p> <p>3) 獨立協會의 民權運動</p>	<p>③ 實學者들의 國史研究로 中國史의 에속에서 벗어나 三韓正統論을 主張</p> <p>④ 庶民文學, 白磁, 風俗圖 등 大衆藝術은 民衆의 작성을 促求하는 한편 民族文化創業에의 參與를 積極 勸獎하였다.</p> <p>① 開化運動者들은 實學의 影響으로 民族意識을 國家主義에 연결시키려 했다.</p> <p>② 開化思想이 開國과 海外知識을 넘혀 技術의 進歩를 主張하여 1890年代의 國家獨立과 民權思想의 대두에 影響을 주었다.</p> <p>③ 急進的 開化派가 甲申政變에 成功하지 못한 것은 大衆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外國勢力을 이용하려 한 것에 기인된다.</p> <p>① 東學思想은 濟世求民에 기반을 둔 것으로 大衆의 호응으로 舊秩序에 도전하고 外勢를 배격하는 民族主体性을 發揮하였다.</p> <p>② 東學은 “民本”을 내세운 社會改革運動이며 民衆에 의한 民族國家主義의 회복運動이었다.</p> <p>① 最初의 近代式 政治集團의 性格을 갖춘 獨立協會는 日本의 開化, 中國의 自強, 西歐의 民權등의 思想을 배워 이를 調和하여 大衆의 生活意識 底辺을 改革하는 啓蒙運動을 展</p>	<p>傳統的 民族意識위에 近代民族主義를 형성하게 된 것은 開化思想의 展開 이후 民權運動, 3.1運動의 抗日鬪爭過程을 거쳐 이룩된 것이다. 그 形成過程을 重要한 事件을 中心으로 說明하는 것이 좋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4) 斥邪運動과 自主改革	<p>開시켜 차츰 大衆의 政治啓蒙, 그리고 政治的 改革으로 發展시키려 했다.</p> <p>② 이러한 民權思想을 中心으로 한 民衆啓蒙運動은 傳統的 民族意識위에 近代的 民族主義를 形成하는 基盤을 구축하게 되었다.</p> <p>③ 獨立協會는 親美的 경향이 농후하다하여 淸·日·露의 干涉을 받게 되었고 日本의 對淸, 對露戰에서 勝利한 것과 日本의 侵略에 굴하게 된 國恥로 反植民地的 民族主義로 轉換시켜 계속 獨立運動을 展開하였다.</p> <p>① 開港과 外夷의 出入을 反對한 儒生들은 大衆의 輿論을 代表한 것이며 民비사건과 斷髮令등에 일제히 봉기하게한 主刀을 形成하였다.</p> <p>② 倭亂때의 仙徒의 봉기, 3.1運動에 정신적 기반이 된 東學등은 民族意識의 團結된 表現이다.</p> <p>③ 斥邪運動은 國民의 총화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民族主体性의 발로였다.</p> <p>④ 斥邪論은 開化를 찬성하면서 洋夷를 배척한 自主的 開化思想에 터한 것이다.</p>		
5) 對日抗爭	<p>① 乙巳條約이후의 義兵운동은 學族的 抗日운동이었다.</p> <p>② 義兵運動의 中心思想은 排他와 自存이었으며 近代的 民族主義의 발상이었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5. 民族的進歩의 過程</p> <p>1) 民衆의 參政과 政治體制</p>	<p>③ 3.1 運動은 抗日의 소극적 의미보다 近代獨立國家를 이룩하려는 拳族의 民族運動이었다.</p> <p>④ 開港이 후 (1876) 30年間은 抵抗民族意識이며 乙巳 (1905) 이후는 傳統이라는 自己保有時期였고 3.1 運動 (1919) 은 바로 近代의 國家創立을 爲한 創造力發揮期였다.</p> <p>⑤ 日帝下에 우리의 政治的 自主性이 外形的으로는 중단되었지만 內在的으로는 계속되었으며 더욱기 民族自主性은 조금도 굴함이 없이 계승되었다.</p> <p>① 우리의 古代民族내지 部族社會에서 是 種族評議會가 있어 問題를 論議決定하고 代表를 選出하였다. 이러한 遺風이 후에 계속되어 三國時代의 統治體制에 반영되고 社會的으로는 지금도 볼 수 있는 門中會議, 宗中會議등으로 계승되고 있다.</p> <p>② 新羅의 和尓制度, 高句麗의 大尓盧制, 百濟의 政事殿등은 모두 共通性이 있으면서 各기 特殊性을 지닌 代議的, 議會的 性格을 띤 機關이었다.</p> <p>③ 三國의 초기에는 氏族長들이 代表로 各機關에 參與하며 宰相을 選出하고 王位계승문제까지 論議하는 議決機關으로 近代의 意味의 代議制와</p>		<p>5 -1) -②</p> <p><詳細4></p> <p>概念說明</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2) 民權運動	<p>議會制와 같은 것이다.</p> <p>④ 三國(西紀初)이 모두 이러한 統治體制를 採擇한 것은 그 당시 西歐의 것에 비하면 월등히 優秀한 것으로 우리의 遺制로서 계승된 것이다.</p> <p>⑤ 李朝때의 議政府나 備邊司같은 것은 高麗의 都堂制의 계승이며 이로 보아 우리나라의 政治體制의 基本姿勢는 古代의 種族評議會의 遺制인 合座기관인 운영에서 찾아 볼 수 있다.</p> <p>① 高麗中期에 民權意識은 싹트기 始作했다.</p> <p>② 流民, 賤民등이 部分的인 叛亂을 일으켰다.</p> <p>③ 部分的이기는 했으나 叛亂民들은 地方勢力과 結託하여 高麗의 身分制의 秩序에 反抗하는 形態를 取했다.</p> <p>④ 李朝때 역시 部分的 民亂은 流民 火賊의 양상을 띠우다 晉州民亂과 같은 規模가 큰 組織的 움직임으로도 나타난 바 있다.</p> <p>⑤ 東學亂은 傳統的인 民權意識이 近代의 감각과 결부되어 일어난 民權運動의 하나다.</p> <p>⑥ 東學은 韓國型 民權意識의 原型이며 國家나 王에 대한 反抗에서 보다 社會革命을 앞세운 것이었다.</p> <p>⑦ 甲午更張은 外國의 干涉下에 이루어진 政治制度의 改革을 目的으로</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社会運動의 展開</p>	<p>한 것으로 自主性を 잃고 大衆의 支持를 얻지 못하여 失敗하였다.</p> <p>⑧ 獨立協會가 보여준 民權運動은 西歐的 民權意識의 影響으로 近代의 意味의 民權思想을 싹트게 했으며 自由와 獨立思想을 高취할 啓蒙運動으로 展開되었다.</p> <p>⑨ 旧韓末부터 3.1 運動에 이르기까지의 꾸준한 抗日鬪爭은 民族國家의 近代化를 爲한 理念구현이 國權回復의 要求와 병행한 民權운동이었으며 民族意識과 政治意識을 高취한 歷史추진의 主体가 되었다.</p> <p>① 高麗조에 들어와 流民과 賤民들이 늘어나 叛亂을 일으키는 例가 있어 그 救濟策으로 여러制度가 發達하였으며 貧困과 疾病을 防止하는 機關과 社会育英기관도 設置운영 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恤民政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賑倉 및 義倉 ○ 育英政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學堂, 廣學堂, 濟危堂 ○ 醫療救濟政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悲院 <p>② 李朝때 鄉約과 같은 制度의 樹立으로 傳統的인 相互扶助의 精神을 高취시키려 했다.</p> <p>③ 世宗大王때의 農業政策은 租稅의 合理的 徵收와 農民生活의 향상을 기했고 이러한 精神은 實學에서 다시 復活되었다.</p>		<p>5-3)-① <詳細5> 보충설명</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4) 生産力과 技術의 進歩	<p>④ 各가지 民亂은 身分制와 稅制의 문란으로 일어났으며 그 代弁者로서 東學運動이 일어났다.</p> <p>⑤ 3.1 運動을 그 정점으로 한 抗日 運動은 民衆의 자각에 의한 民族解放 運動과 民族의 民權의 회복을 爲한 社會운동으로 展開되었다.</p> <p>① 商工業을 경시하고 農業만을 중시하여 일어난 經濟的 不振이 韓日合併의 勳을 당한 原因이었다는 植民地史觀은 잘못된 것임.</p> <p>② 古代國家의 水利事業의 發展은 그 規模나 이용이 컸었다. 現存하는 貯水池는 신라의 技術과 国力을 말해주는 증거다.</p> <p>③ 李朝때 勸農政策으로 농업서의 刊行, 曆學의 발달, 天文器의 發明등을 보게 되었으며 이러한 技術의 발달은 農業生産과 直結된 것이다.</p> <p>④ 農業技術은 品種, 地耕, 備穀, 二毛制, 輪作, 水利, 果樹, 소재, 病蟲防止 등 다양한 것으로 당시 日本의 農業發展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바 있다.</p> <p>⑤ 金屬活字의 발명등 印刷技術이 크게 발달하여 知識, 技術의 보급과 衆智를 모아 더욱 發展할 수 있는 기본 基架가 되었다.</p> <p>⑥ 倭亂과 胡亂후 황폐된 農村의 再開發展을 위하여 知識層이 研究하고 參與한 사실은 큰 意義가 있는 일</p>	<p>士農工商의 階層的 意識은 中世封建社會의 支配的 思考양식이었으며 비단 우리 韓國史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科學, 技術 및 生産力發展을 時期別로 例示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로서 그 例는</p> <p>ㄱ. 李栗谷의 農具제작</p> <p>ㄴ. 柳儒孫의 農土利用論</p> <p>(7) 實學者中 朴齊家, 朴世源 등은 양반의 農耕장려, 農村敎導, 농구개량, 종자개량을 科學化하였고 丁若鏞은 이를 集大成하여 果樹, 養蠶, 養蜂, 藥草, 紡績등을 勸奨하고 月會歌까지 만들었다.</p> <p>(8) 李朝後期の 重工業의 発達은 商業資本家를 出現시켜 身分制에 變動을 招來했으며 生産의 增大가 近代社會로 이끄는 原動力 역할을 하게 되었음.</p>	<p>※ 結論的으로 民族의 進歩는 政治의 安定과 國民의 總和에 의하여 促進된다 는 事實을 우리 民族史에서 배워야 함을 強調할것</p>	

詳 細

<詳細 1> 三国教育機關의 例 1-3) -①

新羅의 花郎

新羅때 靑少年으로 組織된 民間修養을 위한 教育団体, 이는 心身を 단련하고 教養을 쌓아 社会生活의 規範을 가르쳐 必要한 境遇에는 戰鬪員이 될수도 있는 社会의 中心人物을 養成하는 곳으로 伝統을 尊重하고 協同精神과 信義, 勇敢性を 培養하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보다 具體的 教育目的은 ① 위로는 國家를 爲하고 아래로는 벗을 爲하여 죽으며, ② 大義를 尊重하여 義에 어그러지는 일은 죽음으로써 항거하고, ③ 病席에서 죽는 것을 꺼리고 國家를 爲하여 勇敢히 싸우다 戰死함을 찬양하며, ④ 오직 앞으로 나갈뿐 뒤로 물러섬을 부끄럽게 여겨 敵에 敗하면 자결할 망정 포로됨을 수치로 아는 등 장렬한 기백과 씩씩한 기상을 함양, 재래의 共同社会의 理念위에 새로운 儒仙精神을 가미하여 새 時代가 要請하는 靑年을 養成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花郎의 指導와 顧問으로 승려도 많았는데 花郎인 貴山 攄항(筵項)에게 가르친 円光法師의 世俗五戒는 新羅花郎의 指導理念을 代表하고 있다.

高句麗의 鏡堂 (屨堂)

高句麗의 私學機關으로 太學이 上流層의 子弟를 教育하는 官學機關인데 대하여 平民을 對象으로 한 것이다. 文武一致 教育주의로 經典과 宮術을 敎育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평양천도 이후 전국 각처에 설치하였다.

<詳細 2> 新羅의 三国統一의 意義
1-3)-②

1. 三国의 境界가 近接하여 가면서 7世紀의 衝突개시는 民族統一에의 烽火였으나 三国의 싸움은 霸者의 다름이 있을뿐 屈服을 위한 征服은 아니었다.

2. 新羅가 統一한 후, 高句麗와 百濟에 대한 禮遇나 統一新羅의 地方行政区劃 또 軍制를 볼때 다른 外侵을 받았을 때와 比較하면 그것은 統一事業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三国의 軍隊가 合同하여 唐軍을 몰아내는데 長期間을 보냈다는 사실은 單純히 三国貴族의 領土慾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立証하여 주는 것이다.

4. 新羅의 三国統一은 血緣關係와 同一文化圈에서의 오랜 歷史가 가져다 준 民族統一의 成果이다.

<詳細 3> 高麗의 北方經營
3)-②

1. 對契丹戰

高麗는 北進策과 淸안의 東侵政策의 충돌로 자주 마찰이 있었다. 淸안은 993 ~ 1019 年 사이에 3次에 걸쳐 高麗를 侵略.

第1次侵入: 993年에 淸안은 돌연 高麗를 侵入해 들어왔다. 이때 80萬大軍을 이끌고 기세를 울리며 侵入하자 高麗는 당황하여 侵入의 眞意를 타진하게 되었는데 淸안은 無條件 抗服을 要求하였다. 徐熙는 항복내지 강화의 안에 반대하여 淸안과 싸웠으며 후에 강화에 나서 그들이 要求한 땅을 잃지않는데 成功하였다.

第2次侵入: 1010年 淸 年 再 侵 의 機 會 를 보 면 淸 年 高 麗 從 王 康 兆 의 政 變 이 일 어 난 틈 을 타 40 萬 大 軍 을 거 느 리 고 侵 入 해 왔 다 .

이때 康兆는 잡혀 죽음을 당하고 기세를 올려 開城을 占領하는등 南侵을 繼續하였다. 高麗王의 來朝를 要求하면서 人質로 하여 撤軍하였다.

第3次侵入： 高麗王의 來朝를 要求한 高麗의 要請을 거부하고 江東六州의 返還要求도 거절하자 1018年 다시 10萬의 軍을 이끌고 再侵하였다. 이때 高麗는 姜邯瓚을 上元師로 하여 20萬軍事를 動員하고 高麗에 應戰하였다. 교묘한 戰術로 高麗軍을 擊退내지 擊破하여 結局 高麗軍 數千名이 살아 돌아가는 정도의 勝戰을 하였다. 姜邯瓚이 高麗軍을 龜州에서 大破한 찬란한 勝利를 龜州大捷이라 부른다.

2. 女真征伐과 尹瓘

滿州東部に 位置한 女真族들이 高麗의 北方을 매우 蹂躪해 왔음으로 1107年 尹瓘등은 9城을 쌓고 그들의 防禦에 全刀하였다.

3. 몽고侵入과 三別抄

三別抄란 高麗 崔氏執權때 組織한 私兵軍, 1270~1273年에 몽고勢力에 對抗하여 反亂을 일으켰던 것이 三別抄亂으로 알려져 있다.

4. 倭寇의 약탈행위

高麗中期以後 李朝初期에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人命과 財産을 해치고 또 약탈해간 日本의 海賊을 倭寇라 한다. 倭寇의 약탈행위는 계속되고 그 規模와 方法이 늘어나 한때 5백여척의 배를 몰고 온 왜구를 崔茂宣은 화통과 화포를 고안, 그 全部를 擊破한 일도 있다.

<詳細 4> 三國의 統治體制
5-1)-②

1. 新羅의 和尙制

新羅時代의 일종의 會議制度, 독특한 古代의 氏族共同社會의 種族 評議會의 遺制로서 群官이 모여 政事를 논의하고 연결하던 機關이다.

여기서 한사람의 反對가 있어도 會議의 決定을 보지 못하는 滿場 一致를 原則으로 하고 있었다.

和尙의 原則은 新羅 全社會에 널리 行하여 新羅國家의 完全성을 增加하는 要因이 되었으며 後日에 南堂會議로 發展하였다.

2. 高句麗의 大對盧

初期에 高句麗의 最高官職의 하나였으나 뒤에 宰相들이 모여 國事를 議論하고 決定하는 會議을 갖는 制度로 發展하였다.

3. 百濟의 政事殿

百濟의 政治를 論議하고 宰相을 選出하는 곳, 百濟後期의 首都인 泗沘部近에 있는 虎巖寺에 政事殿이란 바위가 있어 國家에서 宰相을 選出할때 當選자격자 3~4人의 이름을 봉합하여 바위위에 두었다가 얼마후에 펴보아 이름위에 印跡이 있는 자를 宰相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 制度는 오늘날의 選舉方式과 같은 것이었으며 이장에서 宰相을 選出하는 이외에 國事를 論議하고 議決하는 일까지 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詳細 5> 救 民 政 策
5-3)-①

1. 恤民政策

高麗때에 飢民을 구제하기 위한 政策으로 平時에 穀食을 貯

藏하여 두었다가 凶年때 貧民을 구제하는 国立救護機關을 設置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政策의 一環으로 黑倉, 義倉등이 設立되었다.

- 黑倉과 義倉

高麗태조가 黑倉을 두었다가 986年 성종때 義倉으로 改稱하여 여러 地方에 이를 設置하였다.

- 濟危寶

貧民, 行旅의 救護와 疾病을 말아 본 官庁

2. 育英事業

高麗때 國家에서 學校教育을 獎勵하기 위하여 設置한 育英財團으로 學寶, 廣學寶 등이 있었다. 930年 태조가 西京의 學校獎學基金으로 穀 100섬을 내려 준것이 그 始初로 이를 대여하여 그 이식으로 學校를 運營하였다.

3. 醫療救濟政策

仙敎의 福田思想에 의하여 設置된 醫療救濟機關으로 大悲院을 設置 病者, 貧者, 行旅者들에게 治療해 주며 飲食과 衣服을 주어 救濟하였다.

小單元 2 . 文化傳統的 繼承과 發展

教 授 目 標

<知 識>

1. 文化와 民族文化의 概念을 說明할 수 있다.
2. 人間性尊重의 傳統과 平和愛護의 傳統이 韓民族의 民族性임을 歷史的인 事實을 들어 證明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民本主義 思想內容과 그 思想具現을 위해 이루어진 政治制度를 指摘하고 說明할 수 있다.
4. 韓國文化傳統的 特徵을 여러가지 藝術文化作品의 分析을 통하여 說明할 수 있다.
5. 外來文化 受容過程에서 表現된 우리民族의 自主性과 獨創性을 여러가지 歷史的인 藝術文化의 例를 들고 說明할 수 있다.

<態 度>

1. 우리民族의 人間尊重思想과 平和愛護思想에 대하여 自負心을 가지며 이러한 文化傳統을 高陽시키려는 態度를 갖는다.
2. 우리文化傳統的 獨創性과 優秀性에 대하여 矜持를 가지며 이 같은 文化傳統을 發展시키려는 態度를 갖는다.
3. 傳統과 改革의 調和를 바탕으로 獨創的이고 自主的인 外來文化受容의 態度를 갖는다.

<批判能力>

1. 우리나라의 民本主義思想과 西歐民主主義 思想의 差異點과 共通點을 比較할 수 있다.
2. 韓國文化傳統의 特徵을 民族思想 및 民族性과 關聯하여 說明할 수 있다.
3. 韓國文化傳統의 長點과 短點을 指摘하고 앞으로의 文化發展을 위하여 必要한 改善方向을 말할 수 있다.
4. 外來文化 受容에 대한 우리民族의 姿勢를 批判하고 自主的 外來文化受容을 위한 方向을 指摘할 수 있다.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1. 韓 族 的 民 族 性</p> <p>1) 人 間 尊 重 思 想</p>	<p>① 각 시대를 통하여 宗教思想이 思考方式이나 生活樣式을 지배하였던 것은 人間性 優位의 民族性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p> <p>② 우리의 전통적인 思考나 價值觀은 唯物論的이 아니며 人間的인 것이었다.</p> <p>③ 우리의 전통적 敎育目的은 全人的 敎養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p> <p>小学에 나타난 生涯의 學習過程이나 學習의 內容이 人間의 수양을 전제로 한 綜合敎育이었다.</p> <p>④ 儒學의 民本思想은 人間尊重思想의 表現이다. “賢君을 기대하는 政치는 國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기다린다”의 爲民政治의 원리로 까지 전개되었다.</p> <p>⑤ 孝의 概念은 家族內의 人間秩序維持의 기본덕목이며 이것이 忠의 概念으로 전개되어 社會내지 政治 規範으로 삼았다.</p> <p>⑥ 崔宗의 社會規範은 世俗五戒이다. 花郎의 忠, 孝, 信, 勇, 仏心은 忠과 孝의 順位를 바꾸어 놓은 전통적 가치觀의 계승이다.</p> <p>⑦ 三綱五倫과 李之龜의 九道는 모두 人間性을 중심으로 하는 人間關係秩序의 規範으로 上下 수직적 關係를 強調시한 것이다.</p> <p>⑧ 유교의 理念的 人間型은 君子이다. 德을 앞세우는 人間性에 강조를 두었</p>	<p>韓民族史에 人間尊重思想을 역력하나 秩序를 앞세운 上下 수직적 人間關係를 強調시하여 個性의 伸張과 自我發見의 기회를 淸澈시 킨점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위하여 ⑤~⑧를 利用하되 그 나뉠음으로의 의미도 충분히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연할 것은 우리의 人間尊重思想은 家族關係를 중심으로 하는 社會規範에 정착되어 西歐의 宗教改革 프랑스革命등과 같은 血戰 없이 잠잠한 상태에서 지속되었다는 점이다.</p>	

主 題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平和愛護思想</p> <p>2. 民本主義의 政治傳統</p> <p>1) 種族評議會</p> <p>2) 合 坐 制</p>	<p>으나 儀禮와 形式에 흐르는 階級도 없지 않았다.</p> <p>① 한민족이 平和를 사랑하는 民族이라는 것은 古來를 통하여 外國을 침략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입증된다.</p> <p>② 農耕爲主의 安着民族이 갖는 특성과 韓半島의 地學的인 요인으로 他國과의 戰爭이나 侵略의욕을 温和하게 한 것도 사실이나 外侵을 당했을 때는 양보없이 民族的으로 싸워 國土와 民族을 방어한 예로 보아 平和愛護의 특성을 가진 것은 확실하다.</p> <p>① 우리의 民本主義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相通하는 理念을 갖는다. 다만 차이가 크게 난 것은 우리의 民主主義는 政治哲學으로 머물고 西歐의 民主主義는 政治體制와 制度에 크게 반영된 점이다.</p> <p>② 民本主義는 共產主義를 容納하지 않는다.</p> <p>① 古代의 氏族社會의 통치를 위한 의결기관의 형식의 하나로 代表들이 모여 의논하고 氏族長을 선출하는 곳.</p> <p>② 이러한 古代의 遺制로 三國시대의 政治制가 형성되었다.</p> <p>예 : • 新羅의 和白制 • 高句麗의 大對廬 • 百濟의 政事堂</p> <p>① 한국의 전통적 政治制의 기본정신은 合坐制이다. 合坐制는 三國의 政治制의 기본이며 高麗와 李朝의 南堂, 都</p>	<p>2) - ②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시기별로 事件과 人物중심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보충설명을 위한 자료는 詳細에 제시해 둔다.</p> <p>合坐制 기본은 代表들이 國政을 의논하고 의결하는 代議的 그리고 議會</p>	<p>1</p> <p>1-2)-(2)</p> <p><詳細 1></p> <p>보충설명</p> <p>2 - ②</p> <p><詳細 2></p> <p>보충설명</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民衆의 參政</p> <p>3. 文化의 계승과 創造</p> <p>1) 藝術文化의 전통</p>	<p>堂, 重房, 議政府, 備切司로 이어져 왔으며 韓國政治가 專制政治이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제도였던 것이다.</p> <p>② 國王에 대한 견제기관으로 大司諫 春秋官, 實錄編纂등이 있어 國事를 신중히 의논하고 重臣會議에서 의결하였다.</p> <p>① 民衆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인 申開鼓, 上疏文制度는 민중의 政治參與의 기회를 확대시킨 것이다.</p> <p>② 世宗의 農事直說, 田分六等, 年等九分法등은 지방의 실정이나 官吏들의 지혜와 창의적 事例를 集成한 것으로 널리 民衆의 의견을 모아 政策에 반영한 것이다.</p> <p>③ 科學制의 합리적 운영으로 人才등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王族 및 貴族의 專制政治의 단점을 보완하였다.</p> <p>① 韓國文化는 농업적이며 순박하고, 樂天的이고, 自然的이며, 人間的인 것이 그 특징이다.</p> <p>② 文化의 단순성과 획일성은 民族構成과 民族性과 관계가 있다.</p> <p>③ 韓國文化에 階級性이 없다는 것은 우리文化創造의 主体가 知識者와 大衆의 호응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p> <p>僧侶, 花郎, 謠者, 學者들이 主動者가 되고 이에 民衆이 호응하여 文化를</p>	<p>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시대에 따라 여러가지 形態로 나타난 점을 강조할 것.</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2) 外來文化의 受容</p>	<p>창조하였다.</p> <p>④ 韓國美의 創造는 의상, 건축, 工藝, 조각등 우리 생활주변에 남아 있는 것으로 모양, 선, 색채, 무늬등 自主的 創造物이다.</p> <p>⑤ 古代로 부터 우리 민족은 歌舞와 假舞를 즐겨 발달시켰으며 그 특색은 타민족의 모방이 아닌 독창적 民衆藝術이다.</p> <p>① 어느 民族文化의 형성과정에서도 그러하듯이 우리의 地政學的 위치는 外國과의 교류로 처잡은 外來文化의 영향을 받게 하였다.</p> <p>② 그러나 맹목적인 모방의 경우는 적고 外國의 것을 受容하되 自主的인 독창성을 가하여 더욱 발전시켰다.</p> <p>③ 言語, 風習, 의상, 건축, 宗教, 價值 社會規範등 수많은 外國文化의 受容過程에 接變, 傳播등이 있어 모든 外來文化의 受容過程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나 그 대표적인 예는 제시될 수 있다. (詳細참고)</p>	<p>3-1)-④와 ⑤에 관한 보충적 파로는 詳細를 참고로 할것.</p>	<p>3-1)-④-⑤ <詳細3> 보충설명</p> <p>3-2)-③ <詳細4> 보충설명</p>

詳 細

<詳細 1> 外侵時에 나타난 平和愛護思想
1-2)-③

1. 高句麗는 滿州一帶에서 敵에 包圍되어 있었기에 積極的으로 外敵과 싸웠고 그들의 氣像은 山間地帶의 遊牧民의 特性이 있었다.

2. 新羅의 花郎은 戰士이기에 앞서 健實한 中堅指導者들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 精神은 姜邯瓚, 妙淸, 崔瑩, 李舜臣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3. 高句麗는 戰爭에 이기고 政治에 敗北한 例라고 할 수 있다.

4. 高麗의 李資謙과 같은 故事가 平和愛護가 아니고 政權慾을 維持하기 위한 外勢에의 屈服이며 이것은 李完用의 경우와 相通하는 점이 있다.

5. 妙淸의 建元稱帝論은 이에 對항하는 積極論者이고 政府에 反抗하였지만 그가 平和의 破壞者는 아니다.

6. 平和의 維持는 民族의 總和와 國論의 統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民族의 分裂에는 平和가 없다.

7. 越南派兵은 이런 意味에서 侵略이 아니라 破壞者에 대한 共同守護라는 의미에서의 十字軍이며 征服事業이 아니라 防禦態勢이다.

8. 朝鮮의 事大外交는 平和守護의 한 政策이었다. 明의 自尊心을 滿足시켜주는 代價로 世宗 世祖때 民族文化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9. 壬辰 丙子의 兩亂은 國論이 分裂된 狀態에서 일어난 悲劇이다 蒙古의 侵入때와 또 다른 狀況에서 겪은 苦難이었다.

10. 士禍는 韓民族의 派党性을 나타내는 첫번째 事件이다. 고려시대의 宮廷內의 對立이나 寄生貴族사이의 分규가 아니라 在野士林을 包含하는 것으로 公公연한 派黨의 論爭이며 敗者는 반역자로 地位박탈을

당하는 싸움이였다.

11. 政治制度의 모순은 官僚의 수효와 兩班人口와의 不均衡에서 온것으로 儒學은 이를 政黨政治로 昇華시키지 못하고 派爭을 學閥地方色으로 擴大시키고 말았다.

12. 朱子學의 空理空論은 黨派의 論爭點을 禮學으로 이끌어가서 非政治的 對立을 政治現像化하였기 때문에 近代化過程을 찾지 못하였다.

13. 東洋의 平和主義는 佛敎의 影響도 컸지만 非暴力主義였기 때문에 反正이라는 이름밑의 「구테타」가 있었을뿐 王에 대한 忠誠이 前提가 되는 싸움이였다.

14. 李成桂의 易姓革命, 東學革命, 3·1운동의 三大事件도 平和主義的인 性格에는 共通點이 있었으며 中世社會에 있어서도 西洋의 治者級에 比하면 刑具나 処罰에 있어 매우 寬大한 편이다.

15. 人乃天思想은 古來부터 내려오는 民心이 天心이라는 人間本位의 思考方式을 宗教理念化시킨 것이다.

<詳細 2> 우리의 民主政治傳統과 共產主義 2 - ②

1. 韓國의 政治文化的 傳統과 政治意識은 民本主義에 基本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傳統은 共產主義와는 容納될 수 없는 것이다.

2. 韓國史를 階級斗爭史로 敘述하려는 사람들이 부닥치는 隘路는 西洋社會와 같은 階級意識이 民衆들 사이에 없다는 점이다. 中世의 階層構造가 없고 부르조아지가 없어 革命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3. 東洋의 停滯性은 이러한 隘路를 合理化시키려고 하였다. 東洋을 除外한 世界史의 通則이 맞지 않는것과 같이 아프리카의 人類

史를 世界史에 넣으려면 唯物史觀은 또다른 理論이 必要할 것이다.

4. 西洋史의 發展段階가 典型的인 것이고 東洋史는 特殊한 事例라는 생각은 없어야 民主制度가 借用文化가 아닌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5. 우리나라의 民主制의 시초를 和尙에다 두고 있으나 그리스나 新羅의 万場一致制는 氏族社會의 遺制이고 다만 그 이름을 빌려다가 데모크라시라고 한 것이다.

6. 韓國의 政治制의 根本精神은 合座制에 있다. 南堂, 都堂, 重房 議政府, 備邊司로 이어온 合座制는 韓國政治가 專制政治이면서 그것을 克服하려는 制度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7. 國王에 대한 견제機關은 大司諫, 春秋官, 實錄編纂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들앞에서는 國王이 언제나 자중하였으며 每事는 重臣會議에서 決定한다.

8. 民衆과의 意思疏通을 위한 制度를 마련하는것도 政治參與의 기회를 擴大시킨 것이다. 申聞鼓, 上疏文制度는 地方의 知識層이나 一般大衆에게 意見을 널리 듣고자하는 意圖이다.

9. 자칫하면 權威意識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교적 社會規範에서의 사소통을 위한 기구가 必要하였다.

10. 널리 意見을 모아 政策에 反映시킨 例도 많다. 世宗의 農事直說이나 田分六等, 年等九分法은 地方의 實情이나 官吏들의 知慧와 創意的 事例들을 集成한데서 이루어진 業績이다.

11. 官吏任用制에 있어 科擧制의 合理的 運營이나 實力主義의 행사 그리고 署經制로서 身元을 確認하는것 등은 專制政治의 短点을 補完하는 制度이다.

12. 交通 通信이 發達하지 못한 地方을 統治하는데 暗行御史制는 權力을 規制하고 民生을 보호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13. 歸屬性이 강한 政治文化에 대한 견제책으로 歸鄉制는 일종의 처벌과 같은 것이었으나 中央集權을 유지하기 위한 制度이다.

14. 이러한 制度들이 모두 長點만을 갖는것은 아니다. 歸鄉制가 賜田이 私田化하여 農莊을 形成하고 科擧制가 에리트 意識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上疏文이 投書의 習慣을 길러주기도 하였다.

15. 民衆의 抗拒도 時代發展에 공헌하였다. 哀奴, 萬積의 亂은 史書가 전하여준 最初의 것이지만 洪景來, 晉州民亂등도 그 例이다.

16. 東學亂은 이러한 政治的 傳統위에서 솟아나온 民衆의 부르짖음이었다. 이는 또한 3·1운동, 6·25동란으로 繼承되는 것이다.

17. 爲政者에 대한 直言의 기회가 얼마나 賦與되었느냐에 따르면 韓國人의 政治意識이 非但 一部 貴族이나 特殊層에게만 局限되었던 것은 아니다.

<詳細 3> 藝術文化의 傳統 3-1)-④-⑤

1. 兩班文化뿐 아니라 大衆性있는 庶民文化에 대한 關心은 높아야겠다. 李朝 白磁나 風俗面는 上流階層에 限定된 것이 아니라 民族全體로 擴大普及된 民族文化로서 그 素朴함과 清楚함을 자랑할 수 있으며 直線的이고 單調로운 特性이 있다. 四君子, 墨面 또한 美를 創造하는데 독특한 術法이 있다.

2. 韓國의 美는 自然的이라는 特徵을 찾을 수 있다. 金弘道의 그것은 자기 주변의 自然에 눈을 들렸을뿐 아니라 生活 주변, 社會에 대해서도 깊은 흥미를 기우리고 종래 畫家들이 경시했던 人物의 動作寫生에 新局面을 개척하였다.

3. 中國書畫의 形式만을 위마르던 李朝의 병폐를 통감하고 배격한 金正喜는 이른바 秋史體를 만들어내었다. 線의 太細, 線의 曲直,

墨의 濃淡 등으로 하나 하나의 글자를 構成하고 力學的인 調和의 美를 찾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書芸는 非具象繪畫요 抽象芸術이라고 할 수 있다.

4. 韓國芸術의 調和의 美는 工藝, 書芸 기타에 거의 適用되는 것으로 獨創的인 곳에는 自然美와 調和(綜合)의 美가 반드시 깃들여 있다.

5. 高麗時代와 新羅時代에 활발하였던 芸術活動이 李朝時代에 들어서 沈滯한 것은 非單 儒學의 影響뿐 아니라 所謂 兩班層만이 文化를 獨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李朝美術은 前時代에 없던 韓國의 特性이 나타나서 模倣性을 버리게 된 까닭은 佛敎에 의한 美的制約이 없어졌기 때문이며 芸術이 兩班보다도 常民에 의하여 自發的이고 소박하면서도 세련미가 豐足한 것을 만들어 냈다.

6. 李朝文化에 實用性이 더 많은 것은 이런 데 起因한다.

7. 李朝時代의 美術이 가장 韓國的이며 그것은 自然의 美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글 創製로 보아도 뚜렷하다. 卽 前代의 傳統위에 한국적인 類型을 形成하였고 宗教(外來)의 影響없는 純粹性이 강하다

8. 三國時代부터 내려오는 自然主義는 紋樣에 있어서 되도록 人工의 흔적을 줄이려는데서 볼 수 있다.

9. 白色의 崇尚은 人工의 排除이고 自然에 대한 恍惚의 表現이다 日本의 美는 庭園과 같이 人工的 自然, 第二의 自然이며 中國은 技術과 技巧가 未, 淸의 자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完璧에 가까운 技術의 極致를 자랑한다.

10. 時調文學 稗官文學은 李朝文學의 創意性이 人間生活에 素材를 求함이고 4·4 調의 別曲體는 春香傳에 까지 影響을 주었다.

<詳細 4 > 外来文化의 受容過程
3-2)-③

1. 外来文化의 導入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도 偏見이오, 外国文化가 언제나 우세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옳은 생각은 아니다. 文化受容은 必要한 자에 의하여 選擇한 것이기 때문에 受容過程에 強制性이 있을 수 없다.

2. 固有文化를 고집하고 固有性만 찾으면 原始時代의 衣食住의 生活文化에 風土的樣式을 들 수 없다.

3. 그러나 独自の인 言語, 風習이나 建築, 衣裳등에 固有한 獨創性이 또한 많이 있다. 韓國의 窓살무늬는 獨創的인 것이지만 窓은 어느 建築에나 있는 것과 같다.

4. 仏教는 外来宗教이다. 그러나 仏教는 우리에게 最初로 具體的인 倫理의 기준을 준 思想이다.

5. 韓國文化가 仏教를 알고난후부터 그 真理의 實現과 理解의 과정에서 文化的 創造의 努力이 활발해졌다.

6. 韓國仏教는 民族文化의 傳統을 形成하여 오는 過程에서 深奧하게 도달된 世界性和 더불어 風土性을 들어내게 하였다.

7. 土俗宗教와 쉽게 融合하는 仏教의 歷史야말로 韓國人의 文化受容의 態度를 잘 表現하여 준 것이다. 現世的이며 政治的이고 文化的인 性格은 三國時代 仏教의 特性이다.

8. 九雲夢이라는 小說이나 金오신화가 中國小說의 모티브를 모방하였다지만 春香伝이나 興夫伝은 韓國的인 해학과 孝와 民生과 價值觀을 豊富히 나타내는 土着化作業으로 이루어졌다.

9. 이 土着化는 고려 자기에 있어서나 繪画, 書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結果를 가져왔으며 民族의 特性이 나타난 李朝의 美術은 白磁과 繪画가 代表的이다.

10. 新羅의 鄉歌는 中国文字를 導入하여 民衆의 歌謠로 옮겨놓은 文化創造의 업적이며 吏讀文에서 다시 한글로 發展하며 鄉歌는 長歌別曲體로 大衆化한다.

11. 樂器에 있어서도 中国音樂이나 東北巫의 影響이 컸으나 이미 新羅의 玉宝高의 가야금, 玄樂琴이 나왔으니 이는 晉의 七絃琴을 改良한 것이다.

12. 東國通鑑은 資治通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면서도 韓國史를 정리한 것은 三国史記의 模倣型에 比하여 훨씬 獨創性이 있다.

13. 外来文化와의 접촉은 놀라움과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新文學의 경우에도 新小說이 在來文學에 대한 恣意的인 蔑시와 卑下感에서 西歐文學의 思潮나 手法에 다 影響을 받았지만 이 時期의 교량적인 役割은 어느 時期나 어느 分野를 막론하고 거쳐야할 過渡期이다.

14. 文化의 研究에서 外来文化와의 접촉에서 부터 民族文化로 融解되기까지의 時間的 거리와 融解劑가 된 傳統的 要素를 찾아내어야 한다.

15. 民主主義가 西歐的인 것이기는 하나 民族的 價値가 어떤 形態로든지 受容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機械文明에 있어서도 取捨選擇에 優先順位를 決定하는 것이 價値觀이다.

16. 外来文化는 傳統文化로 昇華될 수 있고 民族文化發展에 促進이 될 수 있으나 잘못 導入할 때는 破壞, 混亂을 일으켜 創造를 沮害할 수도 있다.

17. 韓國文化는 시베리아文化에서 요람기를 보내고 漢文化圈에서 배우고 印度文化圈에서 成就하여 李朝社會에서 民族化하고 20世紀에 世界潮流와 合쳐 나갔다.

18. 仏敎와 土俗信仰이 合致된 要素는 無限模想力의 神秘的 性格이 共通하였기 때문이다.

19. 儒敎의 主知主義的 政治文化는 政治制度, 形式敎育, 文字를 통한

疏通등으로 精神文化이기 보다는 知性文化(倫理的, 規範的)로서 받아들여졌다.

20. 고려는 仏敎, 李朝는 儒敎가 아니라 新羅이후 現世까지의 仏敎와 儒敎는 共存하여 왔으며 다만 時代가 받아들이는 態勢에 따라 비중이 달랐을 뿐이다.

21. 시베리아文化(地方文化)는 주로 生存에 영향을 주어 民衆生活속에 潛在해 들어갔으며 食器, 衣裳, 木刻工藝, 家屋構造 등에 깃들여 있다.

22. 東洋文化의 二大主流와 시베리아文化와의 融合이 이루어진 李朝의 文化위에 海洋文化가 들어왔다. 淸과 日本을 통하여 西洋의 物質文明을 받아들여 經濟面에 着眼하려는데 日帝侵略을 당한 것이다.

23. 西歐文化의 빠르고 강한 영향력은 傳統文化와의 葛藤이 심한 것으로 당황하고 있으나 儒學이 新羅이후에 徐徐히 들어와서 李朝에 土着化한 것에 比하면 李朝中期부터 접촉이 시작되어 旧韓末에 강하여졌다가 다시 解放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24. 경계해야 할 것은 西歐文明이 日帝以後 日本의 여과작용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폐단이다. 日本이 選択한 西歐文化를 배운 旧世代가 그것이 마치 우리의 傳統社會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25. 西歐文明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儒敎式일때 倫理的 規範的 新價值로 받아들여려고 하며, 基督教을 잘못 받아들이면 仏敎나 儒敎까지도 迷信으로 돌려버리지만 巫俗의 本質도 迷信은 아니다.

26. 西洋文化를 技術文化로 断定하여 버리고 東洋文化를 精神文化로 규정하는 데서 오는 오해도 없어야 한다. 利用厚生이나 實事求是는 東洋의 전통에도 있으며 合理的 思考는 西歐가 近代化의 武器로 사용한 한 樣式이었음을 이해할 必要가 있다.

27. 日本은 韓國統治에서 自國의 固有한 것을 強要할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西歐文明을 강요한 것에 不過하다.

28. 現在속에도 日本文化가 西歐의 тал을 쓰고 스며들어오는 것은 防禦해야할 必要는 아직 남아있다.

29. 韓國文化가 家族倫理를 바탕으로 精神史를 전개시켜 왔다는데는 異論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大家族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依存度나 坐食層의 發生, 門閥意識등을 들어 大家族制를 나쁜 習性이라고 斷罪할 수는 없다. 韓國의 老人들이 他民族에 比하여 얼마나 幸福한가도 중요한 일이며 大家族안의 人間關係 訓練이 일종의 政治訓練이나 教育機能이었음도 지나칠 수 없는 일의 하나이다.

30. 韓國의 가족제도는 중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었는데 日本이 자기의 民法를 적용하게 되면서 傳統에 혼선이 왔으며 同姓同本의 不婚이나 女性이 結婚후에도 實家姓을 유지하는 風習이 없어지지 않는 것등 現속까지 남아 있는 文化受容의 態度중에 두드러진 例이다.

小單元 3. 韓國의 正統性

教授 目 標

<知 識>

1. 正統性의 개념을 예로들어 說明할 수 있다.
2. 우리民族의 文化傳統을 大韓民國이 繼承하고 있다는 것을 傳統文化의 몇가지 要素를 들어 說明할 수 있다.
3. 北韓 共產主義가 우리民族의 文化傳統을 破壞하고 있다는 것을 證據를 例示하고 說明할 수 있다.
4. 우리의 民本主義 政治傳統이 民主主義와 共通되는 點을 指摘할 수 있다.
5. 우리의 民本主義 政治傳統이 共產主義와 相反되는 點을 指摘할 수 있다.
6. 國際平和와 人類共榮의 目的에 비추어 大韓民國이 正統國家라는 것을 證據를 提示하고 說明할 수 있다.
7. 民族意識과 國家意識의 關係를 說明할 수 있다.
8. 우리나라의 國家意識은 民族意識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民族形成의 歷史를 利用하여 說明할 수 있다.
9. 우리나라의 民族意識은 血緣共同體 意識에서 文化共同體意識으로, 나아가서 共同體意識으로 發展되어 왔다는 것을 民族史 發達過程을 利用하여 說明할 수 있다.

<態 度>

1.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確信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에 對하여 자랑스런 마음을 갖는다.
2. 民族意識과 國家意識의 成長過程을 通하여 民族과 國家의 一體感을 갖는다.
3. 民族繁榮과 受難의 歷史를 通하여 個人과 國家의 一體感을 갖게 한다.

<批 判 能 力>

1. 우리 民族의 民本主義 傳統을 民主主義가 계승 더욱 發展시키는 데 반하여 公산주의는 이를 抹殺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을 比較 批判할 수 있다.
2. 우리에게 알맞는 民主主義 發展을 위하여 우리의 傳統中에서 民主的인 要素를 가려내고 이를 發展시킬 수 있는 方向을 말할 수 있다.
3. 北韓 共同體意識으로 階級史觀的 國家觀을 批判하고 民族主体史觀에 의한 國家觀의 正當性을 說明할 수 있다.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1. 文化的正統性	<p>① 正統性이란 民族史 전체를 통하여 계승 발전된 우리 고유의 文化傳統을 歪曲함이 없이 다시 계승 발전 시킬을 뜻한다.</p> <p>② 이러한 뜻에서 大韓民國이 우리의 傳統文化를 계승하고 있음을 자부하고 이를 더욱 발전 시켜야 할 民族的 責任의식을 강조하게 된다.</p> <p>③ 우리의 民族文化史에서 강조된 人間尊重思想, 祖上崇拜, 종교, 倫理, 家族關係, 藝術 등은 우리가 계승하고 있으며 北韓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를 抹殺시키고 있다.</p> <p>(具體的 事例는 詳細참고)</p> <p>④ 北韓政權이 시도하는 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個人的 神格化나 唯物論을 위하여 祖上崇拜思想을 말살. • 孝의 思想이 倫理의 基本이 되고 있는 社會規範과 民族文化를 否定 • 우리 고유의 家族關係 破壞 	<p>正統性的 개념을 설명한 다음 고유의 우리 民族 傳統文化를 계승한 것은 우리 大韓民國이며 北韓 政權集團이 아님을 강조 할것.</p>	<p>1 - ③ <詳細 1> 보충 설명</p>
2. 政治的正統性	<p>① 韓民族은 社會主義化나 共產主義化의 가능성이 적은 文化 전통 및 정치정통을 가지고 있다.</p> <p>② 政治理念이 民本主義로 일관되어 있다.</p> <p>③ 韓國의 政治的 正統性은 民主主義 指向的이었다.</p> <p>④ 이러한 事例로 앞서 제시된 바 있으며 그 보충을 위해 <詳細>에 기록해 두었다.</p>		<p>2 - ④ <詳細 2> 보충 설명</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3. 國際的正統性	<p>① 國際社會에 등장한 것은 民族統一 國家를 세운 新羅統一때의 對唐外交에서 부터이며 唐세력 구축으로 政治的 獨立을 확보하였다.</p> <p>② 여러 시대동안 外國과의 접촉으로 다양한 형태의 外交관계가 수립되었으나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중요한 外交관계의 예를 시기별로 詳細에 수록하였다. (詳細참고)</p> <p>③ 유엔이 1948年 12月 大韓民國이 唯一合法政府임을 승인하여 韓國의 正統性을 인정받은 外交的 勝利이다.</p>		<p>3 - ② <詳細 3> 보충설명</p>
4. 國家觀의 定立	<p>① 民族意識을 國家意識으로 승화시키게 된 것은 新羅가 三國을 統一했을 당시부터 이다.</p> <p>② 古代로 부터 계속 계승 발전된 民族意識이 바탕이 되어 있어 國家意識으로 승화시키는 유리한 터전이 마련되어 있었다.</p> <p>③ 血緣共同體意識에서 文化共同體의식으로 그리고 다시 政治的 共同體意識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우리의 民族史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요지는 單元들에서 제시된 바 있으나 다시 요약해서 詳細에 수록했음.</p>		<p>4 - ③ <詳細 4> 보충설명</p>

詳 細

<詳細 1> 우리의 文化的 正統性 1 - ③

1. 傳統文化를 繼承한 것은 大韓民國이지 北韓集團들이 아니다. 北韓에서는 우리의 美風良俗을 破壞하고 全体主義的 統治方法을 使用하기에 편리하도록 꾸몄다.

2. 個人的 神格化나 唯物論을 위하여 우리들의 祖上崇拜思想을 파괴하였다.

3. 固有한 信仰의 기반위에 外來宗教를 받아들여 土着化시키는 民族文化의 特性에 비해 一部 共產圈의 制度를 直輸入하여 그대로 適用하는 것은 傳統에 위배되는 일이다.

4. 孝의 思想이 倫理의 基本이 되어있는 民族文化를 否定하고 社會構成員으로서의 役割만을 강조하는 것은 既存 秩序나 道德規範을 무시하는 일이다.

5. 家族制度의 좋은 점이나 家庭의 愛情이 西洋에 比하여 優越한 것임에도 不拘하고 集團農場, 幼兒의 集團收容과 같은 施設의 強要는 勞動力을 利用하는 手段으로서 지나치게 人間性을 無視하는 일이다.

6. 태교로부터 父母의 教育을 시작하라는 傳統文化를 저버리고 幼兒 때 부터 全体主義思想을 注入하는 것은 人間기계를 만드는 政策이다.

7. 韓國의 文化는 精神文化에 있어서나 藝術에 있어서 民族文化를 繼承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民俗舞, 宗教의 自由, 祭 등 美風良俗을 길러 가고 있으나 北韓에서는 民族文化보다는 政治理念을 注入시키는 文化政策을 쓰고 있다.

8. 平和를 사랑하는 民族에게 戰爭을 위한 準備에 모든 희생을 강요하는 北韓은 民族性을 바꾸어 놓으려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

<詳細 2> 우리의 政治的 正統性
2 - ④

1. 韓民族은 社會主義化의 可能性이 적은 文化傳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歷史속에서 찾을 수 있다.

2. 歷代의 政治理念이 民本主義로 一貫하였고 福祉社會를 위하여 各時代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우렸다. 寶, 倉, 院, 局 등의 이름이 붙은 여러 제도는 恤民政策을 위한 機關들이다.

3. 王室의 權限을 견제하는 機關을 적절하게 設置하여 專制정치를 예방하였고 理想的 政治는 德治主義이었다.

4. 民衆의 輿論을 듣고자 하는 制度와 좋은 人材를 登用하려는 方法의 모색에서 各時代가 노력한 흔적이 많다.

5. 專制政治에 대한 民衆의 反抗의식도 높았고 民亂이나 義拳는 곧 政治에 반영되었다.

6. 不義에 대한 信念은 死六臣과 같은 古事로 상징될 것이다.

7. 이러한 例들은 韓國의 政治史가 階級斗争史가 아니었음을 말하여주는 것이며 사랑으로 和親하며 不義에 용감하였다는 民族性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8. 韓國의 政治的 正統性은 民主主義指向性이었다는 데서 北韓이 民族의 繼承者가 아님을 알 수 있다.

9. 우리民族이 超階級的 民族國家를 건설하여 왔음은 對漢, 對唐 對女真, 對蒙古, 倭亂, 胡亂, 斥邪운동, 抗日운동등 對外斗争史를 통하여 超階級性 抗争으로 나타났다.

<詳細 3> 우리의 國際的 正統性
3 - ②

1. 國際社會에 등장한 것은 民族統一 國家를 세운 新羅統一 때

의 對唐外交에서 부터이며 唐세력 구축으로 政治的 獨立을 確保하였다.

2. 고려시대의 國際的 地位는 宋, 女真, 金과의 外交關係가 순조로웠으나 蒙古세력에 강한 干涉을 한때 받았으며 恭민왕의 정책이 自主性을 회복시켰다.

3. 朝鮮의 事大外交는 屈辱的인 것이기 보다는 平和유지책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時間이 흐름에 따라 中國依存의 態度로 변한 것은 잘못이다.

4. 事大外交의 效果는 四郡六鎮의 회복, 民族文化의 성숙등 初期를 장식 하였으나 儒學과 黨爭이 심하여 지면서 民族精神에 龜裂이 가기 시작하였다.

5. 對明外交가 事大主義로 흐르자 國際的 眼目이 不足하여 對倭政策이 不充分하였으니 高麗朝와 李朝初에 比하여 國際社會속의 자기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6. 對淸外交에 있어서도 事大主義를 계속 維持하여 나갔으나 이것은 外交政策이었지 宗主國의 關係는 아니었던 것이다.

7. 19世紀에 들어와서 日本과의 開港부터 歐美諸國과의 通商條約에서 國家的目標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행동하였던 점을 볼 수 있다.

8. 國際情勢에 어두웠던 原因은 對淸一辺倒의 文化導入이었다는 데 있으며 淸에 대한 過信도 作用하였다.

9. 大院君의 鎖國政策에만 그 責任을 돌릴 것이 아니라 國內의 權力싸움이 日, 淸, 露三國과의 外交와 더불어 展開되었음을 批判하여야 한다.

10. 韓日合併의 國際政治史的 解釈을 加함으로서 淸, 露와 그 背後에 있었던 英, 仏, 美의 態度도 같이 생각함으로서 自主性 教育을 강화시켜야 한다.

11. 어떤 努力이 不足하여 乙巳條約이 일어났던가를 생각할 때 婦

着되는 것은 政治指導者들의 國際的限目과 自主精神이다.

12. 海牙密使의 파견은 國際社會에 韓國의 主權을 呼訴하는 方法이었다.

13. 三一運動이후 大韓民國 臨時정부의 수립은 近代式 共和政治를 亡命政府로서 實施한 의미를 갖는다.

14. 巴里講和會議에 金奎植을 派遣한 것은 國際的 地位를 確保하려는 方法이었다.

15. 1944年에 프랑스는 大韓民國 臨時정부를 승인하고 이듬해 2月에 臨時정부는 독일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는 것은 光復軍의 抗日투쟁과 더불어 外交活動이 있었기에 우리가 解放을 마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16. 8.15解放은 聯合軍이 勝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民族文化와 民族精神을 간직하여 온 國民들과 國際무대에서 활약한 지도자들의 功勞가 있었기 때문이다.

17. 三八線으로 南北이 갈리고 北韓이 共產勢力下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大韓民國을 국제연합이 1948年 12月 唯一合法政府로 승인하였다는 것은 外交的 勝利이며 韓國의 正統性을 인정한 것이다.

18. 1948年 5月 10日의 制憲國會에서 以北을 위한 議席을 남겨두고 以北 五道庁을 두고 있는 것도 韓國의 主權下에 統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詳細 4> 國家觀의 確立過程
4 - ③

1. 新羅가 三國을 統一하였을 당시에서부터 國家意識이 成立할 때 가지는 상당한 時間이 걸렸고 그 變化過程이 있었다.

2. 우리나라의 國家意識은 單一民族이라는 共同体意識이 속히 形

成될 수 있었던 有利한 점이 있었다.

3. 血緣共同体意識에서 文化共同体意識으로 進展하는 과정을 歷史속에서 찾아야 한다.

4. 統一新羅의 官制나 身分制속에는 政治組織을 갖추어감으로서 國家形態를 정비하여 나가는 民族의 固有性이 있다.

5. 貴族의 共同支配体制의 性格이 강하였던 고려시대는 王의 專制權力을 견제하기 보다는 統治方法에 더 노력하였다.

6. 花郎과 같은 身分이나 花郎精神은 國家를 意識하고 孝보다 忠을 世俗五戒에서 앞세우는 價值觀을 갖게 되었고 이 정신이 고려때 까지 계승하였다.

7. 高麗시대에 建國神話를 새롭게 인식하여 民話나 說話를 體系化시켜 民族意識을 形成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8. 檀君神話와 三國의 建國神話와의 연관성을 갖게 된 것은 金, 蒙古와 같은 外勢의 侵入에 대한 民族意識이 國家觀을 定立하려는 意圖에서 나온 文化創造이다.

9. 朝鮮時代에도 東國通鑑과 같은 책은 本國史를 더 중히 여기자는 의도에서 나왔으며 內容에 檀君神話를 기재하였고 童蒙先賢이라는 教材에도 수록하였다.

10. 朝鮮朝에 있어서도 國家觀의 定立을 위하여 初期에는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泰平時가 지속하자 國家觀이 해이하여지고 社會規範의 形式化로 기울어졌다.

11. 朱子學에도 國家意識이 없는 것이 아니다. 朱子學 자체가 未이 塞外民族에 시달림을 받을 때 大義名分과 王道를 연구하는 學問이 었기에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한것이 趙光祖이다.

12. 朱子學理論속에 있는 排佛論을 이용한 권근, 정도전이 있는가하면 宇宙論에 기울어진 中期의 學風과 後期에 禮學으로 기울어졌기 때

문에 國家主義에 대한 貢獻度가 弱化하였다.

13. 實學의 國家意識이 政治學的으로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朱子學의 남은 것을 버리고 經濟뿐 아니라 地理, 歷史, 科學, 産業 등 거의 모든 方面에 關心을 가졌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14. 朝鮮時代의 經國大典以來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의 법전편찬은 法治國家로의 면모를 갖추는데 대한 爲政者들의 노력이었다.

15. 近代的 國家主義는 國際舞臺에 등장하면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急激한 變化에 대처하는 國民의 態度가 어떠하여야겠는가를 배울 教材가 十九世紀史이다.

16. 처음 反應은 鎖國主義로 나타났다.

大院君의 정책의 可否는 고사하고 全國民이 이에 呼應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17. 다음 開化主義者의 出現이다. 外國의 文物을 受容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政權慾과 결부된 사람과 國家的立場에 선 사람과를 区分할 수 있다.

18. 斥邪派들의 主張은 단순히 保守主義者로만 볼 것이 아니라 政權慾이 적고 傳統的이면서도 改革에는 反對하지 않는 立場이었다.

19. 東學思想은 民衆들의 呼應을 받은 運動이다. 兩班出身의 開化나 斥邪와는 달리 社會改革을 부르짖는 部類들이 固有한 宗教의 형태를 나타냈다.

20. 이 三者는 모두가 새 時代를 느끼고는 있지만 見解와 立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對立 또는 反目하였다. 이들이 外勢에 迎呑한 것이 아니라 外勢가 이 變化를 利用하려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다.

21. 獨立協會는 西歐式 近代國家를 꿈꾸던 사람으로서 近代化方法이 또 다르기는 하지만 自主性을 강조하는 立場은 開化나 事大의

派党보다 강하다는 점이 東학과 비슷하다.

22. 日帝는 半世紀쯤 앞서 近代化作業을 시작하였음에도 不拘하고 韓國을 植民地化할 수 있을 정도로 国力을 길렀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깊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敗戰国이면서 미국과 經濟경쟁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와도 비교할 수 있어야겠다.

23. 日帝時代를 통하여 國家意識이 조금도 減少한 것이 아니라는 自負와 꾸준한 抗爭 臨時政府의 수립등은 他民族에 비해 우수하다.

24. 国土兩斷을 他律에 의하여 당하였으나 統一에의 念願으로 이를 克服하는 努力을 계속하여 왔다. 6.25 이후 또다시 새로운 國際社會에 대한 識見을 必要로 하는 時代가 되었다.

25. 共產圈의 多元化, 中立國勢力의 增大, 冷戰樣相의 變化, 平和무드속의 경쟁등에 대하여 韓國의 立場도 날로 변하고 있다.

26. 이 시대는 國家主義時代로 國際間的 경쟁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國家優先임을 관찰할 수 있다.

27. 國家優先主義의 이유는 個人生活이 国力과 直結되어 있기 때문에 個人과 國家와의 關係가 過去와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28. 個人이 共同体(民族, 國家) 속에 살고 있지 않으면 그 保護를 잃게 된다는 사실은 곧 生命을 잃는 것과 같다.

29. 個人의 權利와 義務는 國家社會와의 調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個人과 國家와의 正當한 關係를 理解하여야 한다.

單元 II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体制

小單元

1. 民主主義 政治理念
2. 民主主義 成長過程과 政治体制
3. 韓國民主主義의 成長過程
4. 民主的 生活樣式과 生活態度

單 元 目 標

1. 現存하는 모든 政治理念과 体制중에서 民主主義가 最善의 것임을 確信케 한다.
2.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爲한 制度的 形態의 多樣性을 理解시킨다.
3.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한 여러나라의 具體的 努力過程上의 어려움을 通하여 民主主義發展을 위한 忍耐와 努力의 重要性을 理解시킨다.
4. 우리나라 民主主義 成長過程에 對한 反省을 通하여 우리에 맞는 民主主義發展을 위한 課題를 理解시킨다.
5. 우리에 맞는 民主主義發展을 위한 國家的努力에 보람과 衿持를 가지고 建設的으로 參與하는 態度를 기른다.
6. 우리의 民主主義 發展에 威脅이 되고 있는 共產主義에 대한 批判能力과 그 挑戰에 對應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

內 容 概 要

小 單 元	主 題	內 容 要 素
<p>1. 民主主義 政治理念</p> <p>2. 民主主義의 成長過程과 政治体制</p> <p>3. 韓國民主主義의 成長過程</p> <p>4. 民主主義生活樣式과 態度</p>	<p>1) 民主主義基本理念</p> <p>2) 理念具現을 위한 基本條件</p> <p>3) 民主政治의 原理</p> <p>1) 西歐民主主義의 成長過程</p> <p>2) 統治体制</p> <p>3) 多樣한 統治体制</p> <p>1) 政治文化的背景</p> <p>2) 民主主義成長의 沮害要因</p> <p>3) 民主主義發展을 위한 課題</p> <p>1) 生活樣式으로서 民主主義</p> <p>2) 民主的人間의 行動特性</p> <p>3) 葛藤의 民主的解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間의 尊嚴性, 最善我實現 • 自由, 平等, 責任, 協同, 個性尊重等 • 自決權, 主權在民, 共產主義와의 比較 • 아테네의 代議統治体制, Rome 法, 自然法, 英國大憲章, 近世人權運動, 美國의 獨立, 불란서革命, UN 人權宣言 • 代議制度, 立憲制度, 三權分立制度, 選舉制度, 複數政黨制度 • 議員內閣制, 大統領中心制, 大統領優位制 • 種族平議會, 和白制, 群公會議, 國相制度 都堂制度, 開化期民權運動 • 形式置重, 主体性欠如, 制度的欠陥 • 10月維新과 體制改革, 民族主体性確立, 國民總和, 經濟發展, 国力培養 • 人道主義, 個性尊重, 公開社會, 多元社會, 合理性과 集團知優位社會, • 自律性, 創意性, 協同性, 學科的態度, 社會的責任性 • 民主的 問題解決過程의 要素: 輿論, 妥協 合理的 科學的 問題解決

小單元 1. 民主主義 政治理念

教 授 目 標

<知 識>

1.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基本條件을 区分할 수 있다.
 - (1) 人間의 尊嚴性和 最善我實現에 最高의 價値를 부여하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說明할 수 있다.
 - (2) 民主主義理念具現을 위한 基本條件을 指摘하고 그 概念을 說明할 수 있다.
 - (3) 民主主義 基本條件들간의 建設的인 調和를 위한 制度的措置의 必要性을 說明할 수 있다.

<態 度>

1. 共產主義와의 比較를 通하여 民主主義의 優越性에 對한 確固한 信念을 갖는다.
 - (1) 共產主義와 民主理念의 比較를 通하여 民主理念에 對한 信念을 確固히 갖는다.
 - (2) 政治經濟體制를 中心으로 共產主義와의 比較를 通하여 民主体制의 優越性에 對한 確信을 갖는다.

< 批判能力 >

1. 共產主義의 人間觀을 批判하고 民主主義理念의 人間的 妥當性을 說明할 수 있다.
2. 政治, 經濟, 社会体制를 中心으로 共產主義와 民主主義를 比較하고 民主体制의 長點과 共產体制의 短點을 指摘할 수 있다.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1. 民主主義의 基本理念</p> <p>1) 民主主義의 本質</p> <p>2) 基本理念</p>	<p>① 民主主義의 本質은 다음과 같은 두 側面의 綜合으로 規定된다.</p> <p>ㄱ. 基本理念 ㄴ. 統治體制</p> <p>② 本質規定</p> <p>“民主主義의 本質은 民主主義의 理念的 바탕이 되고 있는 人間의 尊嚴性과 最善我實現에 대한 基本信念과 그 信念을 具現하기 위한 手段이 되는 統治體制와의 綜合으로 規定된다”</p> <p>③ 民主主義라는 概念의 定義도 理念과 理念具現을 爲한 手段과의 綜合으로 規定된다.</p> <p>例: Henry B. Mayo 의 定義</p> <p>“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信念을 具現하기 위한 社會生活의 原理 내지 政府形態”</p> <p>이 定義에 내포된 두 側面:</p> <p>ㄱ. 理念: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信念 ㄴ. 手段: 政府形態</p> <p>人間의 尊嚴性과 最善我實現에 最高의 價値를 부여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이다.</p> <p>① 理念的目標</p> <p>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높이고 사람이 갖는 潛在可能性을 最大限으로 發揮하여 스스로의 幸福한 生活을</p>	<p>理念和 體制의 두 側面에 의하여 民主主義의 本質이 規定된다는 요지를 說明하면서 어느 한 側面만으로 民主主義의 全 畧을 闡發할 수 없다는 點을 強調할것</p> <p>또한 理念具現을 위한 手段이 되는 統治體制로서의 政治形態는 多樣할 수 있다는 요지를 強調하고 이 問題에 關해서는 뒤에 취급할 것임을 주지시켜 本主題에서는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만을 說明하고 있음을 分明히 할것</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点	資 料
<p>3) 民主主義의 基本價值와 下位價值</p>	<p>영위할 수 있게 하는것</p> <p>②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信念 人間을 모든것의 優位에 두고 目的으로 待接하며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뜻.</p> <p>③ 最善我實現에 대한 信念 人間 各者의 個性을 尊重히 여기고 각자가 갖는 可能性을 最大限으로 발휘하여 스스로의 滿足한 生活을 할 수 있는 能力의 所有者로 믿는다는 뜻</p> <p>① 民主主義의 最高價值 人間의 尊嚴性, 最善我實現</p> <p>② 最高價值를 土臺로 파생되는 下位價值 人間의 目的性, 人間本質의 性善, 真理의 相對性, 自由와 平等, 人間의 基本權利, 個性尊重, 自決能力, 人間의 潛在可能性, 知性優位와 合理性, 人道主義等等</p> <p>③ 民主主義의 最高價值와 下位價值들과의 關係 (詳細)</p> <p>④ 民主主義基本理念의 下位價值</p> <p>① 人間의 目的性 다른 모든 것이 人間을 위한 手段으로서 犧牲될 수 있으나 人間은 다른 모든 것을 위해서 手段化될 수 없다는 信念</p> <p>② 人間取扱에서 있어서 共產主義와 民主主義의 相反性</p> <p>• 民主主義 : 人間을 目的視</p>		<p>1-3)-③ <詳細1></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理念具現을 위한 基本條件</p> <p>1) 理念과 條件의 區別</p> <p>2) 基本條件들의 概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產主義： 個人은 全體를 위한 手段 ㉞ 自由와 平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由의 限界와 相對性 • 平等의 意味 • 自由와 平等과의 關係 ㉟ 潛在可能性에 對한 信念 <p>人間의 無限한 可能性을 믿고 이를 最大限 實現하고자 하는 信念 (最善我實現)</p> <p>① 理 念 民主主義가 指向하는 理想으로서 最高價値가 부여되는 目的</p> <p>② 條 件 民主主義 理念具現에 必要不可欠한 過程 및 手段으로서 最高理念의 下位價値들</p> <p>① 自 由</p> <p>㉞ 自由의 消極的意味 外部로부터의 不當한 拘束이나 統制에서 解放하는 것</p> <p>㉟ 自由의 積極的意味 여러가지 可能性에서 自意에 따라 選擇하는 思考와 行動</p> <p>㉞ 自由와 責任 個人과 社會에 影響을 미치는 自由行動은 制限되며 責任을 갖는다</p> <p>㉟ 自由의 種類 • 市民의 自由</p>	<p>理念과 條件과의 區分을 分明히 함으로서 民主主義의 解釋과 適用에서 오는 混同을 막고 條件의 重要性에 對한 優先順位를 明白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理念과 條件과의 區分은 明白히 취급해야 한다.</p>	<p>2-1)-① <詳細 2></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政治的自由 經濟的自由</p> <p>㉔ 市民的自由：主權의 主体者로 서 國民 個個人이 누리는 基本 權的自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身體的自由 • 精神의 自由 • 財產權의 自由 • 自由權의 基本權 • 生活權의 基本權 <p>㉕ 基本權의 自由</p> <p>㉖ 生活權의 基本權</p> <p>㉗ 政治의 自由</p> <p>㉘ 經濟의 自由</p> <p>㉙ 基本權 保障을 爲한 基本權</p> <p>② 平 等</p> <p>個人이 차지하는 社會經濟的地位, 人種, 文化的, 教育的 背景 및 性別 의 차이없이 동등한 人間으로서의 價值와 尊嚴性을 認定받고 대우를 받는 것.</p> <p>㉚ 自由와 平等의 相對的關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由의 無制限 追求는 他人의 自由를 侵害함으로 平等破壞됨. • 平等을 절대시하여 個人差를 무시하고 外部의 壓力에 의한 平等規制는 人間의 自由를 拘束 하게 됨. <p>㉛ 自由와 平等의 調和를 위한 國家 權力의 介入과 그 限界</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民主政治의 原理</p> <p>1) 民主政治의 理念的基礎</p> <p>2) 民主政治의 原理</p>	<p>㉔ 社会的責任과 協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個人的 自覺的인 責任的, 協同的 行動 • 責任과 協同을 위한 社会的 国家的規制 <p>ㄱ. 法에 依한 事前統制</p> <p>ㄴ. 法에 依한 事後處罰</p> <p>民主政治의 理念은</p> <p>①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인 人間의 尊嚴性과 最善我實現에 있다.</p> <p>② 政治制度는 모든 民主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基本임.</p> <p>③ 民主政治制度와 其他 모든生活樣式과의 關係</p> <p>民主政治의 原理</p> <p>① 個人的 自決의 能力에 對한 信念 國民個個人的 힘과 努力에 依하여 수립운영되는 政府形態가 最善의 것으로 믿는것</p> <p>② 國家權力의 國民歸屬에 對한 信念 國家主權의 在民信念</p> <p>③ 共產主義特性과의 比較 民主原理에 對比하여 본 共產主義特性</p> <p>① 真理의 絶對性</p> <p>㉕ 物質의 必然的決定</p> <p>㉖ 人間의 尊嚴性否認</p> <p>㉗ 個性의 無視</p> <p>㉘ 平等의 絶對視와 自由의 抑壓</p> <p>㉙ 國家權力의 絶對性</p> <p>㉚ 暴力의 必須性</p>		<p>3 - 1) < 詳細 3 ></p> <p>3 - 2) < 詳細 4 ></p>

詳 細

<詳細 1> 民主主義의 最高價值와 下位價值와의 關係 1-3-③

民主主義의 最高價值와 下位價值들과의 關係성을 밝히기 위해 먼저 일괄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즉 人間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人間을 모든 것의 優位에 두는 目的으로 삼으며 다른 어떠한 目的을 위해 人間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人間の 本質을 善한 것으로 믿으며, 각 개인은 자기나름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的 能力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民主主義는 개인의 成長과 思考와 活動에 의부로 부터의 不當한 抑圧이 가해져서는 안되는 것으로 믿어 自由와 平等, 그리고 人間の 基本權利를 허용하고 장려하려 한다. 또한 人間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人間을 理性的 存在로 믿으며 개인의 知的 成長可能性을 장려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의하여 設定된 真理의 絶對性을 부인하고 真理의 相對性의 長점을 믿는다. 따라서 모든 個人의 知性과 合理的 理性을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發展을 가능케 하는 創意的인 真理의 探索的 노력을 장려하여 知的 活動의 自由를 권장하며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集團知의 優越性을 받아 들인다. 또한 人間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人道主義와 人間愛를 권장하며 他人을 귀중히 여기는 道義的 責任의 重要性을 강조한다.

<詳細 2>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그 理念 具現을 위한 基本案件 2-1)-① 과의 区分

1. 人間の 尊嚴性과 最善我實現에 最高의 價值를 부여하는 民主主義 理念과 그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基本條件과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흔히 理念과 條件을 혼돈하게 되며 條件을 絶對視할 우려마저 있다. 理念과 條件과를 혼돈하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바와 같은 現實悲觀論이나 過激한 極端的인 改革論에 빠지기 쉽다는 前提도 理念具現을 위한 條件을 理念과 구분하여 이해할 것을 要求한다.

2. 理念具現을 위한 基本條件으로 自由와 平等, 人權과 個性尊重 그리고 社会的 責任과 協同, 그리고 이들 條件의 調和를 위한 制度的 조치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理念具現을 위한 條件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絶對視할 수 없고 균형과 調和를 이룰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그 調和를 위한 制度的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먼저 이들 概念을 설명하면서 이들 조건들의 조화를 위한 制度的 조치의 필요성과 상호관련성을 밝힌다.

<詳細3> 民主政治의 理念的 基礎
3-1)

民主政治의 理念的 바탕은 말할 것도 없이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인 人間의 尊嚴性和 個人的 最善我實現을 가능케 함에 있다. 모든 유형의 政治制度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구현하기 위하여 만든 統治制度인 것이나 民主主義의 기본이념은 비단 政治制度에서 뿐 아니라 社会的 모든 制度和 生活樣式에서 具現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바탕인 것이다. 따라서 政治制度를 樹立함에 있어 혹은 民主政治制度의 本質을 이해함에 있어 기반이 되는 民主政治의 原理를 이해할 것이 필요하다.

<詳細 4> 民主政治의 原理
3-1)

1. 個人의 自決的 能力에 대한 信念

民主主義는 個人의 價値와 尊嚴性을 믿고 이를 더욱 신장시켜 國民個人의 最善我實現을 可能하게 하려는 것이 그 理念的 目的임을 앞서 여러번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부합되는 統治體制인 政府는 國民 스스로에 의한 政府라야 할 것이다. 國民에 의한 政府의 수립은 國民 個人의 自治的 能力을 믿기 때문이다. 國民 個人은 그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的 能力을 가진 것으로 믿는 것이 民主主義의 기본이념과 一致하는 下位價値 中の 하나임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信念에 더하여 個人의 自治的 能力을 믿는 信念이 도출된 것이며 이러한 信念에 더하여 民主政治의 原理로서 國民에 의한 政府의 樹立과 運營을 理想視하는 것이다. 國民 個人의 自治的 能力을 믿기 때문에 國民 스스로의 힘과 努力에 의하여 수립 운영되는 政治形態를 國民을 위한 가장 좋은 政治가 될 것으로 믿고 또 바라는 것이 民主政治의 理念的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國民의, 國民에 의한, 그리고 國民을 위한 政治"라는 民主政治의 定義 中 民主主義의 政治的 理念的 核心을 표현한 귀절은 "國民에 의한 政治"인 것이다. 政治의 形態가 形式上 "國民의 政治"이고 表面上 "國民을 위한 政治"라도 그것이 "國民에 의한 政治"가 아니면 民主政治의 "國民의 自治的 能力을 믿는 信念에 맞지 않으며 따라서 國民에 의한 政治가 아니면 民主政治라고 할 수 없게 된다.

2. 國家權力的 國民歸屬에 대한 信念

民主政治는 모든 政治的 權力 내지 國家權力이 國民에게 있음을 믿는다. 즉 主權在民과 國家權力的 國民歸屬에 대한 信念이 民主政治의 理念的 原理인 것이다. 그말은 모든 政治的 權力은 國民에

의하여 결정되며, 國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國民의 意思에 의하여 政府를 수립하고 또한 國民의 必要에 따라 正當한 法的 節次에 의해서 既存의 政府를 改革하고 變化시킬 수 있는 權限을 國民이 갖는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原理와 이에 터한 다른 原理들을 간략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人間은 自己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自治的 能力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

② 國家의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 부터 나오며 國民에게 歸屬된다.

③ 公務員은 國民公僕으로서의 責任을 갖는다.

④ 國民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正當한 法的節次에 의하여 政府를 改編 내지 變化시킬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⑤ 政府는 社會福祉를 증진시켜야 할 義務와 責任을 진다.

⑥ 政府는 爲民的 良心을 가지고 國民의 最善我實現을 가능하도록 하는 責任을 진다.

⑦ 政府는 사람의 恣意에 의해서가 아니라 法에 의하여 運營된다.

國民의 自治的 能力을 믿기 때문에 國民의 自治的 政府가 民主主義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理想的 政府形態일 것이나 實際에 있어서 國民 모두가 政府를 運營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따라서 現代의 民主國家들은 政府를 運營할 사람을 國民이 選출하여 國民의 權限을 委任케 하는 代議制度를 택하고 있으며 國民의 權限을 委任받은 代表가 그 權力을 恣行할 危險性을 排除하기 위하여 그 運營을 法에 의하도록 하는 法治主義를 택하고 있다. 이들 民主政治의 理念的 바탕과 制度 및 그 運營과의 關係에 관해서는 뒤에 따로 설명될

것임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3. 共產主義 特性과의 比較

- ① 真理의 絶對性
- ② 物質의 必然的 決定論
- ③ 人間의 尊嚴性 否認
- ④ 個性의 無視
- ⑤ 平等의 絶對視와 自由의 抑壓
- ⑥ 國家權力의 絶對性
- ⑦ 暴力의 必須性

여기에 제시한 共產主義의 特性 이외에도 많은 특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別個의 單元에서 상세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民主主義의 理念과 民主政治의 原理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시하는 共產主義의 特性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제시하면서 共產主義의 特性과도 비교를 했으나 여기서 몇가지를 더 첨가하여 비교하는 것은 民主政治의 理念的 바탕의 優越性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 의미가 있을 것이다.

共產主義는 人間의 尊嚴性을 인정하지 않으며 個性 또한 무시한다.

그것은 物質이 만물을 결정한다는 物質의 必然的 決定論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르크스-레닌등이 제시한 空想的 理想國家論과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暴力革命論, 階級國家論등에 의한 政治理論(이들 개념들에 대해서는 다음 單元에서 설명되고 있어 參考하기 바람)등을 絶對的 真理라고 믿고 있어 여하한 知的, 合理的 批判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특성이다. 이에 反하여 民主主義는 真理의 相對性을 믿어 지속적인 發展을 위한 知的 活動을 허용하고 장려한다. 理想으로서는 平等을 絶對視하나 實際에 있어서는 平等없는 階級을 형성하고 있으며 平等을 絶對視하는 名分으로 個人의 自由를 억압하며 일

체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앞서 지적인 民主社会에서 존중되는 私生活의 자유, 居住의 자유, 信仰의 자유, 言論의 자유등의 基本權의 자유도 일체 불허된다.

그들 소수인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家權力을 絶對視하여 主權在民과 國家權力의 國民歸屬과 같은 民主政治의 原理는 共產國家에서는 완전 무시된다. 또한 그들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暴力革命을 美化하며 이를 必須要件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個人을 手段으로 희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곳에 個人의 尊嚴性和 個性이 尊重될 수 없으며 個人의 自決的 能力이나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的 能力같은 것은 존치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政治도 國民을 위한 國民의 政治라고 形式上, 그리고 表明上으로 내세우지만 기실 國民에 의한 政治는 아니다.

國民의 自治的 能力을 믿지 않기 때문에 國民에 의한 政治를 할 까닭이 없다. 國民은 政府를 수립할 權限도 政府를 變化시킬 權限도 없으며 그들 獨裁者의 命令에 따를 길 뿐이다.

小單元 2. 民主主義의 成長過程과 政治体制

教 授 目 標

<知 識>

1. 西歐民主主義 成長過程의 歷史를 利用하여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爲한 鬭爭과 努力, 忍耐의 重要性을 說明할 수 있다.
2. 民主理念具現을 爲한 多樣한 体制의 長·短點을 說明할 수 있다.
3. 民主主義制度의 運營에 있어서 重要한 구실을 하는 要素를 指摘하고 그 概念을 說明할 수 있다.
4. 國家의 社會的, 文化的, 經濟的條件에 따라 알맞는 体制가 採擇될 때 民主理念의 具現과 國家發展을 最大로 保障할 수 있음을 各國의 例를 들고 說明할 수 있다.
5. 民主政治体制의 形態에 따라서 民主理念具現을 위한 基本條件들間의 調和와 強調의 順位가 다른을 各國의 例를 들어 說明할 수 있다.

<態 度>

1. 西歐民主主義 成長過程의 歷史를 通하여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한 鬭爭, 努力의 重要性을 理解하고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爲해 忍耐力을 가지고 努力하는 態度를 갖는다.
2. 民主主義制度의 運營에 있어서 重要한 要素를 理解함으로써 民主主義運營에 建設的으로 參與하는 態度를 갖는다.

<批判能力>

1. 西欧民主主義와 우리나라民主主義 傳統要素間的 共通點과 相反點을 對比할 수 있다.
2. 西欧民主主義와 우리의 傳統이 調和的으로 發展할 수 있는 要素를 分析하고 說明할 수 있다.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1. 民主主義의 成長過程</p> <p>1) 民主主義의 語源</p> <p>2) 西歐에 있어 最初의 代議的 統治體制</p> <p>3) 中世暗黒時代</p> <p>4) 大憲章의 制定</p> <p>5) 近世의 各種 人權運動</p>	<p>紀元前 5世紀에 希臘의 歷史家 Herodotus 에 의하여 지어진 것으로 希臘語 Demos (國民) 와 Kratein (支配) 의 合成語 (Democracy), 國民의 支配를 뜻함.</p> <p>① 古代希臘의 都市國家中의 하나인 「아테네」에서 實施</p> <p>② 理想의 政治 指導者 (Solon, Herodotus 등) 의 先導와 大衆의 호응으로 君主制를 타파 代議的 統治體制樹立</p> <p>③ 大衆의 參與로 國家意思決定</p> <p>④ 代表者의 選出</p> <p>⑤ 重要政事論議議決</p> <p>⑥ 民主主義의 理念의 定立과 統治體制 발달의 基點마련</p> <p>民主主義 受難期</p> <p>① 封建制度</p> <p>② 일부 王族 내지 貴族이 모든 統治權獨占</p> <p>③ 大衆은 종과 같은 생활</p> <p>1215年英國의 大憲章制定이 民主主義 發展에 크게 貢獻함: 특히 人權思想과 自由思想의 發展에 貢獻</p> <p>伊太利를 中心으로 일어난 文藝復興 運動은</p> <p>① 封建制度와 基督教에 依해 속박된 人間性의 回復</p>	<p>이 單元에서는 理念具現을 爲한 오늘날 모든 體制 制度等이 단시일내에 少數人의 努力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歷史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鬭爭과 努力의 結果로 이룩된 것이라는 점을 強調해야 한다.</p> <p>理念具現을 위한 統治體制도 많은 試行錯誤過程을 거쳐 여러가지 形態로 발전되었으며, 各國은 各己 自己나라의 실정에 맞는 統治體制를 채택하여 創意的으로 發展시키고 있다는 점을 近代 西歐民主主義를 取扱하면서 強調해야 한다</p> <p>뿐만아니라 西歐民主主義 成長過程의 歷史를 통하여 民主主義理念具現을 위한 努力過程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理解시키는데 焦點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理念具現을 위한 多樣한 制度의 形態의 特性과 그 重要性을 指摘하는데에도 強調를 둔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與 留 意 點	資 料
<p>6) 民主理念具現을 위해 계속된 人類歷史</p> <p>2. 民主政治体制와 그 運營</p> <p>1) 民主政治体制의 重要性</p>	<p>② 科学的知識에 依한 自由思想, 人間尊重思想의 促進에 民主史的 焦點이 있다.</p> <p>③ 人間尊重思想과 民主思想發展의 促進制가 되었던 人權運動은 다음과 같다.</p> <p>㉠ 14 C 伊太利의 文藝復興運動</p> <p>㉡ 16 C 獨中心의 宗教改革運動</p> <p>㉢ 17 C 英의 人權運動</p> <p>㉣ 18 C 啓蒙主義運動</p> <p>㉤ 18 C 美國의 獨立運動</p> <p>㉥ 1789 年의 佛蘭西革命</p> <p>人間的 價値와 尊嚴性은 수많은 犧牲과 험란의 歷史過程을 通하여 高揚되어 왔다.</p> <p>① 오늘날의 民主主義가 수많은 努力過程에 依해 發展되어 왔듯이</p> <p>② 人間的 價値를 高揚시키기 爲한 民主主義는 努力에 依해 한없이 發展될 수 있는 理想指向的인 努力過程이다.</p> <p>民主主義는 理念뿐만 아니라 그 理念의 具現過程이 民主的이어야 한다.</p> <p>① 民主主義는 目的과 手段過程이 價値的으로 統一되어야 한다.</p> <p>② 民主主義의 理念은 그것의 具現을 위한 統治体制와 그 運營過程에 死活이 달려있다.</p>		<p>1-5)</p> <p><詳細-1></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点	資 料
<p>2) 古典的民主政治体制</p> <p>3) 民主政治体制</p> <p>4) 民主政治体制의 特徵</p>	<p>直接民主主義는 古代아테네에서 實施됨.</p> <p>① 이것은 소규모 古代國家에서 가능</p> <p>② 國民에 의한 自治的 政府構成</p> <p>③ 오늘날 現代國家에서는 그 精神만을 계승, 間接民主政治實施</p> <p>國民의 意思가 尊重되고 잘 反映되도록 政治体制을 갖추려는 努力에서 오늘날 民主國家는 다음과 같은 制度를 갖는다. - 立憲制度, 代議制度, 主權分立制度, 選舉制度, 複數政黨制度等</p> <p>① 立憲政治制度</p> <p>法에 따른 統治体制을 수립함으로써 統治者의 恣意를 받고 國民 모두의 思想을 잘 反映하려는 制度</p> <p>② 代議制度</p> <p>選舉를 통하여 國民의 代表를 選出하고 國家意思를 決定하도록 하는 制度 - 國會와 行政府의 견제와 均衡의 原則</p> <p>③ 三權分立制度</p> <p>權力的 集中으로 인한 濫用과 獨裁를 막기 위하여 國家權力을 立法司法, 行政으로 分離시키고 相互 견제하고 均衡을 취하도록 하는 제도</p> <p>오늘날 民主政治体制의 特徵: 立憲制度, 代議制度, 三權分立制度</p> <p>① 理念具現을 위한 趣旨는 同一하나 理念具現을 위한 政治体制과 그 運營技術은 多樣</p> <p>② 立法府: 單院制 또는 兩院制</p> <p>③ 行政府: 大統領中心制 또는 議員內閣制</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5) 民主政治体制의 운영	<p>② 民主政治体制은 絶对化되지 않고 계속 修正 補完되면서 그 理念과 함께 發展해 나간다는데 그 참意義가 있다.</p> <p>民主主義는 그 理念을 잘 具現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方法과 原理에 依하여 統治制度를 運營한다.</p> <p>選舉, 政黨과 複數政黨制, 代表의 原理와 多數決의 原理, 輿論과 討論,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p> <p>① 選 舉</p> <p>國民의 意思決定과 權力을 委任하게 될 代表를 選出하는 方法</p> <p>② 政黨과 複數政黨制</p> <p>① 政 黨</p> <p>國民의 意思를 組織化하여 政府에 反映케 하는 團體</p> <p>㉠ 複數政黨制</p> <p>國民의 意思를 多樣하게 反映하고 選舉에서 國民의 選擇範圍를 넓히기 위한 制度</p> <p>③ 代表의 原理와 多數決의 原理</p> <p>① 代表의 原理</p> <p>多樣한 國民의 意思를 代表하고 統合하여 國家의사를 결정하는 過程</p> <p>㉠ 多數決의 原理</p> <p>相異한 國民의 의사와 主張을 統合하여 國家意思로 決定하는 過程</p> <p>㉠ 少數의 의견도 尊重되는 것이</p>		2-4) <詳細 2>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点	資 料
<p>6) 民主政治와 經濟体制</p>	<p>民主主義이다.</p> <p>④ 輿論과 討論 相異한 意思가 多數의 意思로 造成되기 위해서는 討論을 통한 輿論의 形成過程이 民主主義의 絶對要素임.</p> <p>① 討 論 相異한 의견과 主張이 說得과 理解를 通하여 多數의 意思내지 國家意思로 形成되어 가는 과정</p> <p>㉠ 輿 論 討論을 通하여 形成된 多數의 意思내지 國民의 意思</p> <p>⑤ 言論, 出版, 集會, 結社 國家意思形成에 있어서 必要不可缺한 過程上的 要素</p> <p>⑥ 個人 및 集團의 責任 民主主義는 그 制度를 잘 運營하기 위하여 個人과 集團이 責任을 진다.</p> <p>① 積極的인 意思表明의 責任</p> <p>㉠ 選舉에 參與한 責任</p> <p>㉡ 法을 遵守한 責任等</p> <p>① 資本主義經濟의 基本精神 民主主義基本理念과 個人的 幸福追求는 最大로 保障한다.</p> <p>② 自由經濟의 基本理念 가. 個人이 자기의 幸福追求를 위한 能力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이를</p>		<p>2-5) <詳細3></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民主政治体制의 多樣性</p> <p>1) 体制의 多樣性이 要求되는 理由</p>	<p>最大限 保障하려는 데에 있다.</p> <p>1. 民主主義基本理念과의 比較- 民主主義基本理念</p> <p>個人的 自決의 能力을 받고 이를 最大로 保障하려는 데 둔다.</p> <p>(3) 自由經濟의 成長</p> <p>自發的인 努力에 依한 經濟成就是 持續性과 高度發展性을 갖는 反面 共產國家와 같은 外部強要에 依한 經濟成就是 취약점을 드러낸다.</p> <p>(4) 經濟的自由</p> <p>個人的 願에 따라 일하고 그 所得을 自由意思에 따라 処分할 수 있는 自由</p> <p>① 經濟的自由의 区分</p> <p>經濟活動의 自由</p> <p>私有財產權의 自由</p> <p>政治体制의 多樣性이 要求되는 理由:</p> <p>民主理念具現을 위한 目的은 同一하나 時代에 따라 國家에 따라 文化的背景 社會的여건의 差異에 따라 그 理念具現을 위한 制度는 多樣하게 됨.</p> <p>① 現代 各國이 多樣한 形態의 民主 政治制度를 採하고 있는 理由</p> <p>② 各國의 社會的 條件이 달라진 理由</p> <p>③ 各國이 當面한 社會的 問題가 多樣해진 理由</p> <p>④ 社會의 組織과 機能이 複雜多端 해진 理由</p>	<p>여러가지 政治体制의 形態가 갖는 理念具現을 위한 意味를 부각시키며 동시에 運營의 重要性을 指摘해야 한다.</p> <p>오늘날 先進民主國家들이 그 나라의 政治, 經濟, 社會的 條件에 알맞게 民主主義의 政治体制을 採하고 있음을 몇나라의 例를 들어 說明해야 한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点	資 料
4) 民主主義成長 은 위한 先行 条件	民主主義成長을 위한 先行条件은 많으 나 몇가지 예거하면 ① 国民의 教育水準 ② 經濟水準 ③ 国民의 民主的態度와 生活樣式 ④ 大衆意思傳達媒介体 ⑤ 中産層의 擴大		

詳 細

<詳細 1> 近世의 各種人權運動 1 - 5)

中世 暗黒時代에는 民主主義의 受難期로서 人間尊重 思想이 끈질기게 계속 되기는 하였으나 크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눌러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事件을 치루게 된 中世末葉에 다시 人間尊重과 自由를 追求하는 불길이 14世紀 伊太利를 中心으로 일어난 르네쌍스 (Renaissance) 運動을 통하여 크게 번지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여러 나라에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人權運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4世紀 伊太利를 중심으로 일어난 文芸復興運動
- ② 16世紀 獨逸을 중심으로 일어난 宗教改革運動
- ③ 17世紀 英國의 民權運動
- ④ 18世紀의 啓蒙主義運動
- ⑤ 18世紀 美國의 獨立運動
- ⑥ 1789年의 仏蘭西 革命

르네쌍스運動은 그 당시 支配的이던 封建制度와 基督敎會가 가진 모든 權利를 否定하고 人間性을 되찾으려는 運動이었고 묵은 傳統과 굳어진 權威에 反抗하여 사람의 價値를 높이려는 努力에서 시작된 運動이 었으며 이 운동에 자극되어 文芸部門에는 물론 科學的 知識 技術의 발달이 크게 촉진되었다. 科學的 思考의 발달은 過去에 믿었던 真理를 재검토하게 되어 새로운 知識의 보급이 촉진되면서 自由思想과 人間尊重 思想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여 위에 지적한 각종의 人權運動이 폭발되어 막을 수 없는 努力으로 확장되게 되었다. 이러한 努力의 結晶体로서 1948年 12月에 48個國이 유엔總會에 모여

世界人權宣言을 採択 公表하기에 이르게된 것이다.

<詳細 2> 民主政治体制의 特徵
2 - 4)

民主政治体制의 특징은 小數人의 恣意에 따른 權力의 濫用을 방지하기 위한 立憲制度和 國民의 意思를 效果的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代議制度 그리고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보장하고 代表에게 委任한 權力을 서로 견제하고 補完하기 위한 三權分立制度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制度의 기본적인 특징은 앞에서 제시한 民主主義 基本이념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意義에는 變함이 없을 것이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理念具現을 위한 方法으로서의 政治制度和 그 運營技術에는 나라의 特殊事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立法權이 주어진 立法府도 單院制를 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兩院制를 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行政府 역시 나라마다 다른 形態의 制度를 택하고 있다.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가 그 代表的인 例이다. 오랜 歷史를 통하여 다듬어진 이들 制度는 民主主義 理念을 效果的으로 具現할 수 있는 現存하는 모든 制度중 最善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修正과 補完이 必要치 않는 絶對的인 것으로는 믿지 않으며 나라의 實情과 必要에 따라 多樣한 形態의 制度和 政治技術의 活用이 필요하고 계속 修正과 補完이 필요한 것으로 믿는 것이 民主政治의 特性이다.

<詳細 3> 民主政治体制의 運營
2 - 5)

民主政治의 成敗는 民主主義 理念을 效果的으로 具現할 수 있는 制度의 수립과 그 制度의 運營過程 如何에 달려 있다. 制度의 수립에 있어서도 民主主義 理念을 가장 效果的으로 實現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核心的 要旨일 것이며 制度의 運營過程에도 항상 그 制度의 수립취지에 맞게 運營의 妙昧가 요청된다. 制度의 運營如何에 따라 그 制度의 設立趣旨를 效果的으로 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되며 나아가 民主主義 理念이 實現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制度의 運營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要素는 選舉, 國家意思의 形成過程으로서의 輿論, 政黨, 多數決의 原理, 社會各種利益團體의 參政過程, 國民의 權限을 委任받은 代表들의 爲民의 良心에 의한 制度의 運營, 國民 個人 및 集團의 參政에의 責任등을 들 수 있다.

1. 選 舉

國民의 意思와 權力을 委任받게 될 代表를 選출하는 方法이 곧 選舉인 것이다. 그러나 選舉의 意義는 國民이 選출한 代表에게 國民의 自治的 權利를 委任하는 것이기 때문에 選舉制度의 存在有無보다도 國民의 多樣的 意思를 가장 效果的으로 集約 表示하여 좋은 代表를 選출하느냐의 선거과정과 國民의 權力을 委任받은 立法府의 議員이나 行政府의 首班이 國民의 意思를 어느 정도 反映하게 되느냐에 의하여 규정된다. 民主國家들이 택하고 있는 國民의 權利行使 方法은 國民의 直接的 行使가 아니라 權力을 代表에게 委任하는 것이기 때문에 代議政治制度의 成敗는 選舉過程의 公正과 國民의 權力을 위임받은 代表들의 爲民의 良心에 의한 權力의 代行過程 如何로 결정된다.

2. 政黨과 複數政黨制

選舉를 除外하고는 國民의 意思를 개별적으로 政府에 反映시키기란 어렵고 개개 國民의 意思가 組織化될 때 가장 效果있게 政府에 反映될 수 있게 된다. 國民의 의사를 組織化하여 政府에 反映케하는 役割을 담당하는 단체가 政黨인 것이다. 따라서 政黨은 代議政治制度의 實際 運營過程에 있어서 核心的 役割을 담당하는 것이다.

國民의 意思는 다양하고 또 그 多樣性を 民主主義는 권장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國民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시킬 수 있을려면 選舉때 國民의 選拔 범위가 넓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國民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시킬 수 있게하고 선거에서 선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民主國家들은 複數政黨制度를 채택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政黨 以外的 社會 各種의 利益團體도 國民의 다양한 意思와 利益을 政府에 反映하는 機能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연해 둔다.

3. 代表의 原理와 多數決의 原理

代議政治制度를 運營하는 基本原理는 國民의 意思를 代弁하고 國民의 權利를 代行할 代表를 選출하는 代表의 原理와 國民의 意思를 통합하여 國家意思를 決定하는 多數決의 原理가 그 주축을 이룬다. 代表의 原理란 다양한 國民의 意思를 代表하고 統合하여 國家意思로 決定하는 過程을 의미하는 것이며 多數決의 原理는 相異한 國民의 意思와 主張을 통합하여 國家意思로 결정하는 過程을 의미하는 것이다. 國民의 意思와 主張이 다양하고 서로 相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많은 代表를 選출하고 서로 相異한 의견과 主張을 調節 統合하기 위하여 서는 결국 다수의 의견과 主張에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小

수의 意見도 尊重되는 것이 民主社會의 特色이다.

4. 輿論과 討論

國民의 다양하고 相異한 意思가 多數의 意思로 造成되기 爲해서는 討論을 통한 輿論의 形成過程이 必要하게 된다. 討論을 통하여 서로의 相異한 의견과 主張이 交換되고 說得과 妥協 理解와 諒解가 이루어져 合意에 도달되고 나아가 全體의 意思를 綜合하게 된다.

따라서 討論은 民主的 政治過程에 必要不可欠한 要件이 되며 또한 중요한 教育的 過程이기도 한 것이다. 討論은 國民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教育的 過程인 동시에 多數의 意見 내지 國家意思를 形成해가는 民主的 過程인 것이다. 共產國家에서 볼 수 있는 巴와 같이 討論의 自由가 없는 多數決은 도리어 獨裁나 小數支配를 偽裝하는 節次에 不過한 것이다.

5.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가 갖는 意味

民主政治體制의 운영에 있어 國民의 意思를 尊重하며 이들 다양하고 상이한 意思를 統合하여 國家意思로 형성하기 爲하여서는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가 保障되고 권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言論 및 結社의 自由는 國民의 다양한 의사를 國家意思로 반영하기 爲하여 必要不可欠한 要件이 되는 것이다.

6. 個人 및 集團의 責任

① 國民은 社會的 問題와 그 問題解決을 爲해 취해지는 政策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責任을 갖는다. 制度的으로 國民의 意思가 反映될 수 있도록 조처되어 있다 하더라도 國民이 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올바른 이해와 자기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려 들면 그 制度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

② 國民은 각자의 意見과 主張을 正當한 方法으로 표현하고 그

意見들을 集約하여 國民의 權利를 委任한 代表들에게 전달하고 그들 代表들을 통하여 國民의 要求가 政策에 反映되도록 할 責任을 진다.

③ 個人의 意見을 제시하고 集團的인 意思로 集約하기 위하여 民主的인 合意의 過程이 重視되고 個人은 合意된 多數의 意思에 따라야 하며 多數는 少數의 意見을 所重히 여기는 責任을 진다.

④ 國民은 政治的 權力을 위임할 代表를 選출하는 選舉에 적극 참여할 責任을 진다.

⑤ 國民은 國家的인 非常時에 政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國民의 義務를 충실히 이행하고 協調하는 責任을 진다.

⑥ 個人과 集團은 法을 준수하고 不合理함을 是正할 必要가 있을 때는 법이 규정한 正當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할 責任을 진다.

<詳細 4> 先進民主國家의 政治制度와 그 特徵
3 - 2)

1. 英國의 政治傳統과 議院內閣制

英國은 議會制度를 최초로 선택한 나라로 議會制度의 母國으로 알려져 있다. 英國에 있어서의 議院內閣制의 起源은 古代 樞密院(Privy Council)에 由來한다. 7, 8世紀의 색슨(Saxon)時代의 賢人會議, 노르만(Norman)時代의 大會議 그밖에 小會議 常設評議會등 여러 名稱으로 불려진 이 樞密院은 初期에 소수인의 代表들로 구성되었고 계속 그 代表數가 늘어났으나 그들 대표들은 國王과 國事를 密議하여 결정하는 現代的 意味의 立法權 司法權 行政權을 겸하여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國王의 大權은 絶對的이어서 初期에는 國王의 諮問機關의 구실정도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였으나 1215年 John王에 의한 大憲章에 의 날인, Henry 3世와 Edward 1

세때 시몬·드·몬포트 (Simon de Monfort) 가 이끈 貴族指導者들의 승리로 인한 庶民代表를 포함한 大會議의 創設, 模範會議의 創設 Edward 3世 (1327-1377) 때의 貴族院과 庶民院의 兩院制 實施, Charles 2世 때의 政黨 (Whigs 당과 Tories 당) 勢力의 확대등을 거쳐 議會의 權限이 차츰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진통기를 거쳐 英國에서 議院內閣制가 확립된 것은 대체로 1688年의 소위 名譽革命 이후라고 할 수 있다. 革命의 결과로 탄생한 權利章典 (Bill of Rights) 에 의하여 王權神授說은 完全히 부인되고 議會의 權威가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國王의 大權이 하루 밤 사이에 完全히 무너질 수는 없었고 뒤이어 1832年 中產階級에게 選舉權을 부여하는 선거법의 개정으로 오래동안 지배적이던 貴族 寡頭政治로 부터 民主的 政治에로 전환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國王은 선거의 결과 下院에서 多數를 차지한 政黨의 黨首를 首相으로 任命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內閣은 上下院의 議員들로 구성되며 行政府의 最高權威는 樞密院의 中核인 內閣에 주어지고 있어 議院內閣制를 中心으로 하는 民主政治體制를 수립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 살펴본 이러한 英國의 政治傳統은 어느 다른 先進 民主國家의 政治體制와는 다른 형태의 制度의 수립과 그 制度의 운영을 기하게 한 것이라 설명될 수 있다.

2. 美國의 大統領 中心制

美國의 大統領 中心制를 이해하려면 먼저 美合衆國의 成立과 國家聯合의 성격을 이해해야할 것이다.

18世紀 中葉부터 아메리카 大陸은 英國의 支配下에 있어 植民地政策을 받아왔다. 英國의 一方的인 立法措置로 美國의 여러 地方에 課稅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등 植民地 政策이 強行되자 여러 지역에서

反對의 운동이 전개되고 1765年 10月에 9個의 植民地 代表들이 모여 "美國에 있어서의 植民地人의 權利와 不滿에 관한 宣言"을 의결하여 정식 항의까지 한바 있고 1774年에는 12個 植民地 代表들이 모여 大陸會議를 개최 1776年 7月 4日에는 13個州의 代表들이 모여 獨立宣言을 초안 공포하고 各州는 主權을 가진 獨立國임을 선언했던 것이다. 이 獨立宣言에는 ① 自然權, ② 契約權, ③ 革命權 등 기본적인 政治의 原理를 명시하였다. 그다음해 大陸會議에서 聯合同盟規約를 의결한 바 있고 1781年에는 13個州가 法律上 聯合國家의 형식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中央政府의 組織을 뜻한 것은 아니며 英國에 反抗하기 위한 힘의 규합에 불과했던 것으로 그후 1787年 憲法會議를 통해 憲法이 制定되고 이에 同意한 13個州로 聯邦政府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이당시 各州는 英國의 植民地 政策下에서도 自治的 統治體制를 갖추고 있어 植民地 自治의 中心은 植民地議會였고 그 議會의 中心은 代議院에 있었다. 이러한 自治的 性格을 띤 各州가 聯合政府를 구성함에 있어 強力한 中央政府의 組織이 必要했을 것이다.

그러나 大統領 選舉過程에나 聯合政府의 權限의 범위에도 自治的 州政府의 性格을 살리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大統領制를 택하고 있는 美國의 政治體制에 있어서 政治的 指導權은 大統領에게 부여되어 있다. 大統領은 行政府의 首班으로서의 地位 뿐만아니라 合衆國의 元首로서 最高의 外交指導者로서 軍의 總司令官으로서 主要한 立法政策 形成者로서 政黨의 指導者로서 그리고 輿論의 指導者로서 모든 制度的 또는 實質的으로 중요한 지도적 地位와 權限을 갖는다.

따라서 美國에 있어서의 大統領의 地位는 政治體制의 全裝置의 樞

軸的 地位이며 政治指導의 焦點的 地位를 갖는다. 그러나 州單位로 하는 地方自治制의 性格은 살려서 上下院의 聯合議會의 議員構成이며 그 選舉樣式은 州單位로 되어 있는 것이 또한 1 특징이다.

3. 仏蘭西의 議會絶對優位制에서 大統領優位制로의 轉換

現在의 佛蘭西의 統治體制는 傳統的 議會政治와 美國式 大統領制의 結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佛蘭西의 전통적 議會政治란 1848年의 2月革命으로 오래 지속된 王政을 廢止하고 共和主義者와 社會主義者들의 主導權아래 보통선거를 통하여 選출된 議員 900名으로 國民議會를 구성하여 여기서 共和制 憲法을 제정 새로운 共和國 成立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후 많은 시련을 거쳐 1875年 2月 25日에 國民議會에서 第三共和國憲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이른바 第三共和國이 출범하게된 것이다. 이 憲法의 골자는 英國의 議會를 모방한 것으로 議院內閣制의 統治體制를 갖추는 制度的 基本原則을 제시한 것이다.

佛蘭西에는 英國이나 美國에서 볼 수 있는 二大政黨制가 발달하지 못하여 佛蘭西의 議會는 多數의 群少政黨으로 分裂되어 있었으므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더우기 大統領은 首相을 지명하는 정도의 權限만이 주어져 있었고 首相과 內閣은 異質의 諸政黨을 배경으로한 異質의 聯立內閣으로 政治的 一體를 형성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정책수행에 있어 統一성과 權위를 잃고 있었다.

요약하면 政府에 대한 議會의 万能, 議會에 대한 政府의 無力, 政局의 극도의 不安定등이 第三共和國의 政治的 傳統的 慣習이 되었다.

世界第2次大戰의 종말과 더불어 드골(De Gaulle)이 佛蘭西의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選출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 전통은 계승되어 그 당시의 制憲議會는 國民議會에 強力한 權力을 집중시켜 行政府를 立法府의 지배하에 두려했다. 이에 드골은 反對하여 強力한

行政權力을 갖는 大統領制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드골의 政治生命은 짧았으며 그뒤 몇번의 制憲過程을 거쳐 1946年 10월에 第二憲法草案이 國民投票의 찬성을 얻어 채택되어 第四共和國이 탄생되었다.

第四共和國 역시 10年동안 20여회나 內閣이 바뀌는등 政局의 不安이 계속되었다가 1958年 드골이 政界에 복귀하여 혼란한 政局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10年前 주장했던 강력한 大統領制의 수립을 위한 改憲을 주장하여 그의 주장이 國民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第五共和國이 채택되었다.

이로 인하여 行政府가 強化되고 議院의 地位는 低下되었으며 行政府內에서도 大統領의 權限이 확대되었다. 종전의 大統領은 하나의 象徴的 形式的 대표에 불과했으나 이제 實質的 權限을 갖게되어 美國의 大統領制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大統領은 行政府의 首班으로 統治權을 갖게 되었고 安全政府를 構築하는 기반을 만들게 된 것이다.

4. 英國의 議院內閣制와 불란서의 議院內閣制의 比較

英國의 議院內閣制는 多數與黨의 政府에 대한 信賴, 政府와 議會를 맺는 강력한 紐帶, 統治作用과 野黨 作用과의 명확한 区分등으로 內閣의 優位性이 보장되어 있었으며 이는 兩黨制와 小選舉區制 등의 制度에 기인된 바 크며 이러한 制度의 수립이나 그 運營에는 건전한 英國의 政治傳統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英國의 議院內閣制는 健在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불란서에서는 議會의 無秩序, 內閣과 議會의 不調和, 行政府의 停頓狀態, 無氣力등은 內閣의 弱화와 行政府의 議會에의 依속성을 초래했으며 이는 議院內閣制가 比例代表制와 小黨分立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制度와 그 運營은 그들의 政治傳統에 기인된 바 크다 하겠다.

小單元 3. 韓國民主主義의 成長過程

教 授 目 標

<知 識>

1. 韓國의 政治·文化的 傳統을 說明할 수 있다.
 - (1) 韓國의 政治·文化的 傳統속에서 民主的要素를 指摘하고 說明할 수 있다.
 - (2) 韓國의 政治·文化的 傳統속에서 民主主義 發展에 阻害가 되는 要素를 指摘하고 說明할 수 있다.
2. 韓國 初期民主主義 受容過程을 利用하여 傳統과 改革이 不調和되었던 點을 指摘하고 說明할 수 있다.
3.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해 取해진 10月維新의 制度的改革의 背景條件과 發展方向을 說明할 수 있다.
4.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課題를 指摘하고 說明할 수 있다.

<態 度>

1. 民主的인 우리의 政治·文化傳統을 理解함으로써 韓國民主主義 發展에 對한 信念을 갖는다.
2. 韓國民主主義 發展의 阻害要素를 改革하려는 國家的 努力에 建設的으로 參與하는 國民的 態度를 갖는다.
3. 韓國民主主義 발전을 위한 課題를 理解함으로써 忍耐를 가지고 努力하는 態度를 갖는다.

<批判能力>

1. 共產主義가 우리의 政治・文化的 伝統에 相反됨을 批判할 수 있다.
2. 韓國의 初期民主主義 受容過程을 利用하여 韓國民主主義 發展의 沮害要素를 分析하고 批判할 수 있다.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1. 韓國의 政治文 化的背景</p> <p>1) 古 代</p> <p>2) 三國時代</p> <p>3) 高麗王朝時代</p> <p>4) 李朝時代</p>	<p>韓國의 民主的인 政治傳統의 歷史的 事實</p> <p>① 種族評議會 種族의 構成員이 모여 討議하고 代表를 選出하는 形式</p> <p>② 種族評議會의 遺産 宗中會議, 門中會議</p> <p>古代 原始共同體의 政治遺風은 그대로 尚存</p> <p>① 新羅의 和尙制度: 滿場一致制度</p> <p>② 高句麗의 大對敵制度和 群公會議: 合座機關</p> <p>③ 百濟의 政事議: 合座制</p> <p>專制와 君主의 獨裁를 막기 위한 여 러가지 制度의 樹立</p> <p>① 都堂會議</p> <p>② 寬仁政治思想에 依한 黑創制度, 救 恤制度</p> <p>③ 기타 事審官制, 科擧制度, 司憲部, 弘文館 等</p> <p>三國時代와 高麗時代를 거쳐 合座의 傳統을 이은 여러기구가 存在</p> <p>① 議政府와 備邊司</p> <p>② 廟堂制, 祖事, 經筵輪村制度</p> <p>③ 言官三司</p> <p>④ 直所制, 上所制示威制度</p> <p>⑤ 博詢採納</p> <p>⑥ 鄕里의 自治: 哀慶相助, 農事의 協同作業</p> <p>⑦ 儒教에 의한 爲民思想과 民本思想 의 政治</p>	<p>本單元에서는 共產主義 보다는 民主主義 要素가 우리의 傳統속에 더 많 이 있었음을 強調해야 한다.</p> <p>우리傳統의 많은 民主的 要素에도 不拘하고 아직 도 우리社會에 尚存하고 있는 傳統 및 社會要素 中에는 近代的民主主義의 發展을 위해 阻礙되는 要素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같은 阻礙要素를 解決 하기 위한 우리의 課題 가 重要함을 強調해야 한다.</p> <p>本單元에서는 특히 우리 나라의 初期民主主義 受 容過程에서 나타난 試行錯誤 를 分析하고 이에 閃聯 하여 韓國實情에 맞는 民主主義發展의 重要性에 焦點을 두어 지도한다.</p> <p>10月維新은 初期民主主 義 受容過程에서 나타난 모순과 混亂을 除去하고 韓國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經濟의 條件에 알맞 는 民主主義를 發展시키 기 위한 努力의 所産임 을 留意해서 지도해야한다</p>	<p>1-1) <詳細1></p> <p>1-2) <詳細2></p> <p>1-3) <詳細3></p> <p>1-4) <詳細4></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5) 開化期의 民 權運動</p> <p>6) 獨立運動</p> <p>2. 韓國民主主義 成長의 沮害</p> <p>1) 民主政治 文 化形成의 傳統 의 沮害要素</p> <p>2) 初期民主主義 受容過程의 試 行錯誤</p> <p>3.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課題</p> <p>1) 새로운 政治 理念과 體制의 摸索</p>	<p>開化期 東學의 獨特한 韓國的인 民權 運動 - 民主思想의 발현</p> <p>抗日運動과 民族國家意識의 成長</p> <p>우리의 傳統에는 民主主義를 受容할만 한 充分한 素地가 發達되어 있었던 反面 적지 않은 沮害要素도 있었다.</p> <p>1) 韓國民主政治發展에 沮害가 되는 傳統要素는 다음과 같이 指摘된다.</p> <p>① 封建의 身分制의 持續</p> <p>② 植民主義的 權威意識의 主張</p> <p>③ 政治否定的 性向</p> <p>④ 法治否定的 性向</p> <p>⑤ 政治參與의 意識의 欠如</p> <p>西歐의 바탕이 欠如된 傳統위에 輸入 된 西歐式民主主義는 여러가지 試行錯 誤를 가져왔다.</p> <p>① 形式的 制度에 置重</p> <p>② 初期의 政治的 混亂</p> <p>③ 個人的, 觀念的 自由의 不調和와 범람</p> <p>④ 貧困과 浪費</p> <p>⑤ 事大主義와 受惠의 意識의 高조</p> <p>⑥ 主體意識과 主權의 意識의 결여</p> <p>⑦ 價值觀의 混亂</p> <p>10月維新: 西歐式 民主主義移植過程 에 나타난 모순을 除去하고 急變하는 國內外 情勢에 能動的으로 대처하여 平和統一과 經濟建設을 앞당기기 위해</p>		<p>1-5) <詳細 5></p> <p>2-1) <詳細 6></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維新体制의 目標</p> <p>3) 民主主義發展을 위한 課題</p>	<p>定立된 政治理念과 体制</p> <p>① 10月維新의 理念은 民族의 生存과 번영, 平和統一을 위한 民族主体性的 確立과 發展에 두고 있다.</p> <p>① 自覺的 自己革新</p> <p>② 우리에게 알맞는 民主理念의 定立</p> <p>② 体制의 改革은 維新理念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要請을 充足하기 위하여 이루어짐.</p> <p>① 非能率的 制度의 改革</p> <p>② 周邊情勢에 能動的 對應</p> <p>③ 韓國의 傳統文化와 經濟, 教育實情에 알맞는 制度의 수립</p> <p>④ 韓國民主主義의 發展土台構築</p> <p>⑤ 祖國統一과업의 초기 완수</p> <p>維新의 目標</p> <p>① 国力의 組織化와 国力發展의 加速化</p> <p>② 民族主体性에 依한 自主平和統一完遂</p> <p>③ 韓國民主主義定立</p> <p>④ 祖國近代化와 福祉社會建設</p> <p>⑤ 모든 不條理를 除去하고 社會紀綱 確立</p> <p>韓國에 알맞는 民主主義의 定立과 發展을 위한 課題</p> <p>① 民主主体性的 確立</p> <p>② 國家一體感과 國民總和의 形成</p>		<p>3-1) 2)</p> <p><詳細 7></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点	資 料
	③ 經濟발전과 国民복지의 증진 ④ 国力배양의 加速화와 国力의 組織 化 ⑤ 自律的 創意的 活動과 能動的 協 同的 参与 자세 確立		3-3) <詳細 8>

詳 細

<詳細 1> 古代： 種族評議會 (1 - 1)

우리의 古代 原始共同社会는 그 社会의 統治權이 近世西歐社会에 있었던 絶對君主와 같은 独裁者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선출된 추장 내지 촌장에 주어져 운영되었다고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여 토론하고 代表를 선출하는 기회까지 주어진 것이 種族評議會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種族評議會의 유산으로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宗中會議, 門中會議같은 것이 社会的 遺風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詳細 2> 三 国 時 代 (1 - 2)

三国時代로 접어들면서 古代 原始共同体的 政治는 貴族政治로 전환되었으나 古代의 民主的政治体制는 계승되었다. 그 흔적으로 新羅의 和白制度, 高句麗의 大對盧制度, 百濟의 政事殿같은 政策을 협의 결정하는 統治制度가 발전된 것이다.

1. 新羅의 和白會議制度

이는 古代 種族評議會의 参与者 滿場一致制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으로 近世 西歐의 代議制와 유사한 民主的 統治機構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2. 高句麗의 大對盧制度와 群公會議

古代 民族 내지 種族會議의 성격을 넘어서 여러 貴族들의 代表들이 모여 政事를 논하고 결정하는 合座機關으로 氏族長들의 貴族化로 이루어진 統治体制의 하나이다. 政事를 맡는 宰相들은 이 大對盧

會議에서 貴族代表들의 互選으로 이루어졌다.

그뿐 아니라 政事를 확대된 群公會議에서 토론하는 制度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3. 百濟의 政事嚴

이 制度역시 高句麗의 大對廬制와 유사한 것으로 三國時代의 政治制度의 共通的 特徵인 合座制의 일종인 것이다. 이들은 政事를 논하는 代表들의 代議制와 같은 것이며 그들이 王位繼承 問題까지 논의하는 重要기구의 구실을 했으며 會議場所도 여러 名地를 찾아 巡廻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詳細 3> 高麗王朝時代 1 - 3)

三國時代 以後 高麗朝가 樹立되면서 中央集權的 封建社會로 변모되었지만 專制勢力의 登장을 排除하고 獨裁的 君主의 登장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보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예로는 高麗의 官制가운데 都堂制, 事審官制, 科擧制度, 司憲部, 弘文館, 取民有度의 收取制등 그 대표적인 것으로 들수 있다. 政事가 복잡해짐에 따라 일종의 行政府와 같은 官庁이 생기게 되었으며 南堂 혹은 都堂으로 불리워진 이 기구도 宰臣과 樞臣들이 함께 모여 國事를 의논하는 都堂會議를 가졌으며 王에게 政事를 건의하고 王의 獨斷的 결정을 견제하는 구실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代議的 性格을 띤 合座機關의 운영 傳統이 계승되는 한편, 王朝에 있어서도 寬仁政治思想이 지배하게 되고 이같은 寬仁政治의 실질적인 표현으로 黑倉制度, 救恤制度등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詳細 4> 李朝時代
1 - 4)

三國時代와 고려시대를 거쳐 계승된 合座機關의 傳統은 李朝시대에도 계승되어 議政府와 備邊司와 같은 기구가 제정되고 운영되었다.

그밖에 廟堂制, 祖事, 經筵, 翰村制度등도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였으며 專制的 傾向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체도로 言官三司, 民意의 暢達을 위한 直訴制, 上訴制 示威制度등을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制度的 조치와 아울러 李朝의 政治概念은 고려의 仏教思想에 터한 寬仁政治에 못지 않게 儒教的 政治理念에 터한 民主的 統治理念이 支配的이 었다.

즉 爲民思想과 民本思想은 民主的 統治理念에 손색이 없었다.

더우기 支配者의 합리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이른바 博詢採納에 의한 政策決定過程은 民主的 결정과정을 위한 討論과 議決의 方式과 같은 것이 었다.

또한 李朝時代의 民主的 傳統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鄉約등 士林을 중심으로 하는 鄉里自治의 傳統과 哀慶相助나 農事에서의 協同作業의 전통이 地方의 連帶意識을 강화하는데 크게 작용한 전통으로 아직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事例로 남아 있다.

<詳細 5> 開化期の 民權運動
1 - 5)

統治階層에 대한 被支配層의 대항의식은 高麗中期에 流民, 賤民 등이 地方勢力과 결탁 身分制的 秩序에 반기를 든 소위 叛亂民的 運動으로 전개되기까지는 했으나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民權운동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民權運動의 시발점을 만든 계기가 된 것이며, 李朝때 역시 兩班政治에 반항하는 農民

들의 산발적인 民亂이 있었다가 東學革命에 이르러 民權意識이 近代的 感覺과 결부된 하나의 民權運動으로 일어난 歷史的 事件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東學은 西歐에서 볼 수 있었던 群主나 王, 혹은 貴族들에 대한 反抗의식 보다는 社會改革을 앞세운 階級으로 보아 民權意識의 한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詳細 6> 民主政治文化 形成의 傳統的 阻害要素
(2-1)

1. 原始的 生産社會에서 탈피 못한 점
2. 세속적 權威에 대한 존경과 순종
3. 秩序와 社會規範 形成의 主体者로서의 意識 欠如
4. 封建的 身分制의 지속
5. 近代的 生産社會건설의 기회박탈 (日帝침략으로 인한)
6. 植民主義的 權威意識의 조장
7. 民主的 自治能力 배양의 기회박탈
8. 他律的 타성 강화
9. 政治 否定的 性向
10. 法治意識의 약화
11. 폐쇄성과 政治參與意識의 결여

<詳細 7> 10月 維新의 理念과 目標
(3-1)~2)

1. 새로운 政治理念과 體制의 摸索

過去의 西歐式民主主義 移植을 위한 試行錯誤過程에 나타난 모든 모순을 제거하고 급변하는 國際情勢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앞당기고, 經濟的 發展을 촉진하기 爲하여 새로

은 統治理念과 体制의 定立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단행된 改革이 10月維新이다.

1. 10月維新의 理念

民族의 生存과 번영, 그리고 平和的 祖国統一을 期約하기 위한 民族主体性의 確立과 발전에 그 기본적인 理念을 두고 있다. 여기에 유의해야 할 것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뜻은 아니며 그 民主理念을 具現하는 우리의 統治理念에 새로운 뜻을 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民族的 主体성과 自主性 없이 우리의 現實 위에 民主主義 理念이 효과적으로 具現될 수 없다. 또한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한 先行條件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經濟的 自立力量없이, 外勢에 대한 自衛的 力量없이 自主独立的 主權意識없이 그리고 政治的 安全없이 民主主義 理念이 具現되기 어렵다.

그리고 또한 國家意思의 總화에 의한 政策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行政力이 결여되고서 發展이 촉진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政治理念의 定立과 体制의 改革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2. 体制의 改革

憲法의 改定과 制度의 改革은 위에 지적한 새로운 理念的 要請에 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 非能率的 制度의 改革
- 周邊情勢變化에의 能動的 対応
- 韓國의 文化傳統과 社會的 經濟的 實情에 맞는 制度의 수립
- 韓國民主主義 발전의 礎石 구축
- 祖国의 平和的 統一課業 早期完成

3. 維新体制의 目標

世界史的인 大轉換點에서 國際情勢에 能動的으로 대응하고 南北

對話를 통한 祖國의 平和統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國內體制를 改革하고, 國力의 효과적인 조직화를 도모하여 安定을 이룩하고 能率을 극대화하여 번영과 통일 의 영광을 차지하려는 維新體制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된 基本 目標은 다음과 같다.

- ① 自主的인 民族活路를 개척하여 安定과 繁榮을 기약할 수 있는 國力 培養을 加速化하고 國力의 組織化를 이룩한다.
- ② 民族主体勢力을 형성하여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성취한다.
- ③ 韓國民主主義를 定立 발전시킨다.
- ④ 國土와 資源의 綜合的 개발과 自助的 地域社會 개발로 祖國 近代化와 福祉社會를 건설한다.
- ⑤ 우리 社會의 모든 不条理, 非能率, 非生産性, 無秩序를 澈絶하여 社會革新을 이룩한다.

<詳細 8 >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爲한 課題
3 - 3)

1. 民族主体性의 確立

民主主義 理念을 구현하는 主体는 過去에도 民主的 傳統을 가진 우리의 韓民族이며, 우리 民族 이외의 다른 民族이 우리를 위해 모든 여건을 구비해줄 民族이나 國家는 없다. 우리 韓民族을 위한 民主主義 理念具現이기에 우리 땅에 우리를 위해 民主主義를 발전시킬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民族主体性이 確立되어야 한다. 따라서 韓國民主主義는,

- ① 우리가 主体가 되어 스스로 발전시키려는 民主主義이기에 그것은 韓民族의 主体의 創造의 한 課題이며,
- ② 그것은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實踐하려는 民主主義이기에 그것은 韓民族의 歷史的 自立을 위한 過程이며,

③ 또한 民主主義는 우리의 韓民族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것이기에 그것은 民族的 主体의 한 實踐理想이다.

이러한 韓國民主主義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課題는 民族主体性的 確立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① 民族傳統에 대한 자부심

② 民族國家觀의 확립

③ 韓民族의 正統性에 대한 확신

④ 民族力量에 대한 自信

⑤ 民族力量培養에의 사명감, 등을 갖도록 하는 문제들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2. 國家一體感과 國民總和의 形成

民族的 國家觀의 確立은 먼저 民族으로서의 一體感이 형성되고 個人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더전인 國家와의 同一視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國家一體感은 國民의 意思의 총화를 낳게 한다. 國民총화 없이는 分裂과 對立, 마찰과 갈등만이 만행되면 安定과 번영을 위한 기반은 물론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한 社會的 기반이 조성될 수 없다.

3. 經濟發展과 國民福祉 增進

現實的으로 빈곤과 굶주림으로 부터 탈피하지 않고 個人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고 個人의 尊重性이 보장될 수 없다. 理念具現을 위한 現實的 條件은 經濟生活의 향상이며 당면 目標 역시 社會正義 實現과 福祉增進일 것이다.

4. 自律的 創意的 活動과 能動的, 協同的 參與

依存的이고 受動的인 活動으로 主体性和 創意性이 육성될 수 없으며 進歩와 發展 또한 약속될 수 없다. 더우기 民主主義 理念具

現은 불가능하다. 社會의 革新과 經濟建設과 그리고 民主主義 理念 具現을 위해 모든 國家的 事業에 自律的이고 創意的이고 그리고 能動的이고 協同的인 參與姿勢가 크게 요청된다.

5. 国力培養의 加速化와 国力의 組織化

以上에 제시한 課題를 성취하기 위한 方法的인 課題로서,

① 不条理, 非能率, 非生産的 要素의 除去

② 制度的 결함의 시정

③ 国力培養을 촉진하기 위한 制度的조치와 組織化의 필요 등이 요청된다.

小單元 4 . 民主的 生活樣式과 生活態度

教 授 目 標

<知 識>

1. 生活樣式으로서의 民主主義의 原理와 社会特性을 指摘하고 說明할 수 있다.
2. 民主社会發展에 必要한 心理 社会的人間的 行動 特性을 指摘하고 說明할 수 있다.
3. 民主社会가 指向하는 建設的인 問題解決過程의 原理와 要素를 指摘하고 說明할 수 있다.

<態 度>

1. 民主社会의 生活原理와 社会特性을 理解함으로써 民主的 生活 信條와 態도를 갖는다.
2. 韓國民主主義 발전을 위한 課題를 理解함으로써 民主主義發展을 위해서 忍耐力을 가지고 努力하는 態도를 갖는다.
3. 問題를 民主的 過程에 依해 創意的이고 建設的으로 解決하는 態도를 갖는다.

<批判能力>

1. 民主的 問題解決 過程上에 提起되는 問題點을 分析하고 이를 建設的으로 解決할 수 있다.
2. 韓國社会의 問題點을 民主主義의 原理에서 批判하고 이를 解

決하기 위한 國民的 努力의 方向을 말할 수 있다.

3. 共產主義의 社會特性과 生活樣式을 民主主義의 原理에 비추어 그 矛盾點을 批判할 수 있다.

4. 우리 生活樣式에서 能率과 效率性을 阻害하는 要因을 分析하고 이를 民主的으로 是正할 수 있다.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1. 生活樣式으로서의 民主主義</p> <p>1) 民主社會生活의 原理와 條件</p> <p>2) 民主社會의 特性</p>	<p>民主理念이 具現되기 위하여는 政治에서 뿐만 아니라 生活樣式에서 民主化가 이루어져야 함.</p> <p>民主社會가 가져야 할 人間文化, 人間關係의 原理</p> <p>① 民主主義社會의 人間觀</p> <p style="margin-left: 2em;">㉠ 人間尊貴의 價值觀</p> <p style="margin-left: 2em;">㉡ 目的的存在로서의 人間觀</p> <p style="margin-left: 2em;">㉢ 性善의 信念</p> <p style="margin-left: 2em;">㉣ 自決의 能力을 믿는 人間觀</p> <p style="margin-left: 2em;">㉤ 自治能力者로서의 人間觀</p> <p>② 民主生活의 人間關係의 原理</p> <p style="margin-left: 2em;">㉠ 他人의 尊敬態度</p> <p style="margin-left: 2em;">㉡ 個性尊重態度</p> <p style="margin-left: 2em;">㉢ 妥協과 協同의 原理</p> <p style="margin-left: 2em;">㉣ 社會의 責任</p> <p>民主社會는 그 基本理念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特性을 갖는다.</p> <p>① 理念의 바탕 : 人間의 尊嚴성과 最善我實現이 追求될 수 있는 社會의 風土와 基盤이 民主社會의 바탕이다</p> <p>② 重要한 民主社會의 特性들</p> <p style="margin-left: 2em;">㉠ 人間能力信賴의 社會</p> <p style="margin-left: 2em;">㉡ 個性尊重社會</p> <p style="margin-left: 2em;">㉢ 多元社會</p> <p style="margin-left: 2em;">㉣ 知性優位社會</p> <p style="margin-left: 2em;">㉤ 協同社會</p> <p style="margin-left: 2em;">㉥ 多數와 少數가 다같이 尊重되는 社會</p> <p style="margin-left: 2em;">㉦ 公開社會</p>	<p>民主主義는 統治原理 以上の 것으로 모든 社會生活의 原理이다.</p> <p>民主體制도 國民모두가 民主的 生活原理에 따라 行動할때 意味가 있으며 善體制로서 眞正한 善을 發揮하게 된다는 점이 本單元에서 強調되어야 한다.</p> <p>특히 民主人이 갖추어야 社會心理的 行動特性을 分明히 하고 이러한 特性에 비추어 우리의 民主主義 社會建設을 위해 努力해야 할 課題를 留意해서 指導해야 한다.</p> <p>民主的 問題解決過程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이것이 우리의 科學的 創意的 生活과 어떠한 關係가 있는지를 강조해서 指導해야 한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民主的人間型</p> <p>3. 現實問題의 建設的解決</p> <p>1) 民主主義가 敢行하는 冒險</p> <p>2) 民主社會가 갖는 共通된 問題</p>	<p>㉠ 法治社會</p> <p>㉡ 福祉社會</p> <p>㉢ 創意가 尊重되는 社會</p> <p>民主主義가 指向하는 人間特性은 個人的인 次元에서 살펴보면 獨立心과 自律的態度를 基本으로 여러가지 心理的 特性을 갖는다.</p> <p>理念을 具現하기 위해 부딪치는 問題를 파헤치고 科學的으로 그리고 建設的, 創造的으로 解決하는 것은 民主生活의 基本樣式이다.</p> <p>1) 問題解決에 있어서 民主主義와 獨裁主義의 差異點</p> <p>① 民主主義</p> <p>個人들의 知性과 創意的인 努力으로 問題가 解決될것을 믿고 말긴다. 단기적으로는 모험에 가까울지 모르나 長期的으로 發展과 進歩를 위해 좋은 方式임이 歷史에 依해 立証되고 있다.</p> <p>② 獨裁主義</p> <p>一切의 問題와 갈등을 公開하지 않고 몇몇 獨裁者들에 依해 處理됨.</p> <p>短期的으로는 效果的일지 모르나 長期的으로는 큰 愚를 범하고 退步할 可能性이 많다.</p> <p>民主社會는 그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方法을 가지고 있음과 同時에 問題도 많이 안고 있다.</p>		<p>3-1)</p> <p><詳細1></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民主的 問題 解決 過程</p>	<p>① 個別性을 尊重하는 데서 生기는 問題</p> <p>② 自由와 平等, 自由와 統制가 兩는 갈등</p> <p>③ 政治制度, 運營上의 問題</p> <p>④ 個人과 組織, 個人과 社會, 國家間의 問題</p> <p>民主的 過程에 의한 問題解決은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갖는다.</p> <p>① 討論과 妥協</p> <p>② 多數決의 원리</p> <p>③ 科學的 實驗의 方法</p> <p>④ 創意的 問題解決</p> <p>⑤ 合理的 解決</p>		<p>3 - 2)</p> <p><詳細 2></p>

詳 細

<詳細 - 1> 民主主義가 敢行하는 모형 3-1)

民主主義도 個人의 尊嚴性을 믿는 信念위에 서 있기 때문에 個性을 尊重하고 多様な 個人의 意思와 主体를 許容하고 장려한다.

그리고 문제들의 解決도 個人의 知性的 努力으로 發展을 위해 건설적으로 해결될 것을 믿는다. 이러한 믿음에는 冒險性이 수반된다. 多様な 個人들의 의사와 主張은 社会的 混亂과 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어 社会的으로 수습하기 힘든 큰 問題로 化할 可能性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일체의 문제와 갈등을 抑壓하는 獨裁國家들보다 문제들을 밝혀 個人들의 知性的인고 創意的인 努力으로 解決될 것으로 믿는 民主國家의 冒險이 歷史的 事實이 立証하고 있듯이 失敗하지 않았고 發展과 進歩를 위해 도리어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問題들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낙관을 民主國家들은 갖지 않으며 個人的으로 集團的으로 혹은 國家的으로 계속 努力하는 價值를 높이 갖는다.

<詳細 - 2> 民主社會가 갖는 共通된 問題 3-2)

1. 個人의 尊重과 個人의 意思를 尊重하기 때문에 생기는 問題

- ① 個人的 利益과 利己의 主張과 行動
- ② 社会的 혼란과 마찰
- ③ 社会秩序의 문란

2. 自由와 平等, 自由와 統制와의 調和問題

- ① 機會의 不均等

- ② 貧富의 隔差
- ③ 勞資間의 갈등
- ④ 競爭과 協同의 문제

3. 政治制度 運營上의 문제

- ① 國家意思의 形成問題
- ② 選舉制度의 運營問題
- ③ 政黨의 運營問題
- ④ 政治資金의 問題

4. 個人과 組織, 個人과 社會, 國家間의 問題

- ① 協同의 問題
- ② 個人利益과 組織利益間의 갈등
- ③ 愛國心의 問題
- ④ 利他心의 問題
- ⑤ 公共福祉의 問題
- ⑥ 總和와 團決의 問題

單元 III

共產主義理論과 實際

小單元

1. 共產主義理論과 그 批判
2. 北韓의 現實
3. 共產主義의 戰略戰術

單 元 目 標

1. 共產主義 理論의 矛盾과 共產主義 現實의 不條理를 批判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
2. 共產主義의 宣傳과 煽動에 対応할 수 있는 能力과 態度를 기른다.
3. 共產主義의 戰略戰術에 対応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
4. 北韓의 實情을 把握하고, 北韓 共產主義의 挑戰을 克服할 수 있는 國民的 能力과 態度를 기른다.
5. 北韓 共產主義의 非人間性과 矛盾을 理解시키고 韓國民主主義의 優越性에 對한 信念을 鞏固하게 한다.

內 容 概 要

小 单 元	主 題	內 容 要 素
1. 共產主義理論과 그 批判	1) 共產主義理論發生의 背景 2) 哲學理論 批判 3) 政治理論 批判 4) 經濟理論 批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初期資本主義의 社会的 背景, 獨逸의 古典哲學, 英國의 古典經濟學, 仏의 空想的社會主義. • 弁証法的 唯物論, 唯物史觀 • 階級鬭爭論, 革命論, 「프」獨裁論, 國家死滅論, 前衛黨論, 「프」國際主義論 • 勞動價值說, 剩餘價值說, 資本主義崩壞論, 帝國主義論.
2. 北韓의 現實	1) 北韓共產主義의 特殊性 2) 金日成의 <主體思想> 3) 政治實態. 4) 經濟實態. 5) 軍事實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偽裝民族主義, 好戰性, 閉鎖性, 教條性. • 性格, 內容, 底意, 戰略的性格 • 金日成의 權力掌握過程, 權力構造 및 權力行使方式, 對南戰略. • 經濟體制, 經濟改革, 部分別 經濟實態. • 軍事思想, 軍事戰略 戰爭準備狀況
3. 戰略戰術	1) 戰略戰術의 類型 2) 戰略戰術의 形態. 3) 北韓의 戰略戰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革命戰略, 人民民主主義戰略 • 統一戰線, 上下層 統一戰線 • 赤化統一戰略, 對南革命戰略

小單元 1. 共產主義 理念과 그 批判

教 授 目 標

< 知 識 >

1. 初期資本主義의 社会的, 時代的思想 背景을 利用하여 Marx 의 共產主義가 일부에서 歡迎받게된 理由가 그 理論의 妥當性보다는 時代思想의 反映에 있었다는 點을 說明할 수 있다.
2. 共產主義理論의 概要를 說明하고 矛盾點을 指摘할 수 있다.
 - (1) 共產主義哲學理論의 概要를 說明하고 그 矛盾點을 指摘할 수 있다.
 - (2) 共產主義政治理論의 概要를 說明하고 그 矛盾點을 指摘할 수 있다.
 - (3) 共產主義 經濟理論의 概要를 說明하고 그 矛盾點을 指摘할 수 있다.

< 態 度 >

1. 共產主義 哲學理論의 批判을 通하여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을 갖는다.
2. 共產主義의 政治理論을 通해서 共產主義의 政治原理와 體制의 獨裁性과 非人間性을 批判함으로써 民主政治體制의 優越性에 대한 確固한 信念을 갖는다.
3. 共產主義 經濟理論의 批判을 通하여 自由民主經濟體制의 優越性을 確信한다.

< 批判能力 >

1. 國家死滅論, 資本主義崩壞論 國際共產主義論 等の 共產主義理論을 通하여 共產主義의 世界赤化 野欲의 必然性을 批判할 수 있다.
2. 階級鬭爭論, 革命論, 暴力論 等の 共產主義理論을 通하여 共產主義의 好戰性을 批判할 수 있다.
3.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前衛黨論 等の 共產主義理論을 通하여 共產主義의 獨裁性을 批判할 수 있다.
4. 政治理論과 經濟理論을 通하여 共產主義의 宣傳 煽動性을 批判할 수 있다.
5. 共產主義와 全休主義 「이데올로기」를 比較 批判할 수 있다.
6. 共產主義哲學理論을 通하여 共產主義의 人間觀과 社會觀을 民主主義와 比較하고 批判할 수 있다.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1. 共產主義理論 發生의 背景</p> <p>1) 理論發生當時 의 社會的背景</p> <p>2) 理論發生의 學說的 背景</p>	<p>18 C 歐羅巴產業經濟의 背景</p> <p>① 産業革命의 機械化에 依한 失業者의 大量輸出</p> <p>② 資本家의 資本蓄積에 依한 機械化와 大量生産의 促進 - 過剩生産</p> <p>③ 機械化의 促進과 失業의 增加에 따 른 勞動條件의 惡化 - 勞動者의 貧困化</p> <p>④ 土地없는 農民의 都市集中 - 都市 貧民層形成</p> <p>⑤ 勞動組合運動의 始作</p> <p>• 資本家의 지나친 이윤추구와 勞動 者의 貧困을 그대로 國家가 放置.</p> <p>① Marx의 共產主義는 Hegel의 弁証 法과 「포이엘바하」의 唯物論을 合하 여 만든 理論 .</p> <p>② 「산시몽」, 「로버트·오엔」 등의 理 想的 社會主義의 理想을 取하고 仏의 社會主義運動經驗에서 일어진 方法을具 體化하여 Marx는 그의 共產主義理論 을 體系化</p> <p>③ 「리카도」, 「애담스미드」 등의 勞 働 價值說, 英國의 政治經濟 學說을 背景 으로, 經濟를 바탕으로 한 共產主義理 論 體系化</p>	<p>1) 共產主義思想은 自由放 任主義下에서 發達되었던 初期資本主義 社會의 貧 益貧 富益富의 矛盾으로 부터 파생되는 社會의不 條理의 現象에 對한 反 抗으로 發生하였다. 여기 에서는 公산주의사상이 胚胎되게된 18 C 初期資 本主義의 社會的背景의 說明과 아울러 Marx의 共產主義理論은 이 같이 初期資本主義社會를 分析 對象으로 形成한 理論이 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 서는 쓸모 없는 낡은理 論이 되었음에도不拘하 고 共產主義者들에 依하 여 그들의 獨裁政權을合 理化하는 手段으로 利用 되고 있다는 點을 指摘 해야 한다.</p> <p>2) 共產主義의 理論發生의 源泉을 取扱함에 있어서 는 먼저 共產主義理論이 Marx의 獨特한 것이아 니라 이미 여러사람들에 의하여 整理된 理論과학</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共產主義哲學 批判</p> <p>1) 唯物論의 批判</p>	<p>① 唯物論 根源의인 것은 物質이며, 物質만이 客觀的으로 實在하는것으로 보는 哲學的 立場</p> <p>② 唯心論 根源의인 것은 精神이며, 精神作用이 있음으로서 事物의 認識이 可能하다고 보는 立場</p> <p>③ 唯物論批判 意識없이 客觀的實體의 存在与否는 確認할수 없음에도 不拘하고 意識을 否定하고 客觀的 實在을 認定하는 것은 矛盾임.</p>	<p>說을 綜合한것에 不過하다는 點을 指摘해야 한다. 그리고 Marx의 理論은 그의 政治的인 環境에 의하여 세워진 目的을 合理化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合理的이고 실증적인 理論이기 보다는 多分이 煽動的인 것이 었다다는 點을 指摘해야한다.</p> <p>1) 여기에서 唯物論의 說明은 주로 唯心論과 對比하여 說明하고 批判함이 效果的인 것이다. 그리고 唯物論은 Marx가 取했던 「포이엘바하」의 唯物論과 Marx 自身과 「레닌」等에 의하여 說明된 唯物論의 뜻과 批判을 取扱하면 된다. 唯物論批判의 焦點은 그것이 不完全하고 矛盾에 차 있는 理論임에도 不拘하고 共產主義理論이 이 理論을 전제로 出發하고있음을 強調하는데 있다.</p>	<p>1-1).2) <詳細 - 1></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唯物弁証法の 批判</p>	<p>① 唯物弁証法の 概要</p> <p>(㉠) 「헤겔」의 觀念論的 弁証法과 「포이엘바하」의 唯物論을 結合하여 形成한 理論</p> <p>(㉡) 世界의 本質은 物質이며 物質은 內在된 矛盾에 依해 正, 反, 合의 方式으로 不斷히 變化發展하며, 이것이 世界發展의 原動力이라고 봄.</p> <p>(㉢) 全世界를 不斷한 流動 過程으로 보는 點은 Hegel 과 Marx가 同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gel ; 世界의 根源은 精神이며 모든 物質的 現象은 精神의 外的 表現으로 봄. • Marx ; 世界의 根源은 物質이며 精神現象은 物物의 作用에 不適當한 것으로 봄. <p>(㉣) Marx의 唯物弁証法은 「레닌」과 「스타린」에 의하여 獨自의인 見解가 加味되어 体系化됨.</p> <p>② 唯物弁証法の 批判</p> <p>(㉠) 모든 物質은 自體內에 스스로 矛盾을 품고 있다는 前提로 부터 出發하나 그렇지 않은 物質도 許多하다는 事實</p> <p>(㉡) 物質이 갖는 矛盾이 어떻게 해서 發生하는 것인지에 對하여는 說明不可能한 理論이다.</p> <p>(㉢) 變化 發展은 矛盾對立에 의하여 끝없이 일어난다고 해놓고 社會發展의 最終段階는 共產社會라고 못 박으</p>	<p>2) 唯物弁証法の 概要는 Hegel의 弁証法과 「포이엘바하」의 唯物論을 結合하여 만든 過程을 說明한다.</p> <p>唯物弁証法에 對한 批判은 具體的인 實例를 들어 說明해야 한다.</p> <p>世上의 모든것은 變한다는 가정과, 客觀的으로 궁극적으로 實在하는 것은 物質뿐이라는 가정에서 Marx는 萬物의 變化의 基礎는 精神이 아니고 物質的 環境이라고 規定함으로써 存在가 意識을 決定지운</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唯物史觀의 批判</p>	<p>로서 自家撞着적임.</p> <p>㉞ 量的인 變化가 質的變化로 轉化되는 것은 모든 物質에서 適用되지않으므로 一般性이 없다.</p> <p>㉟ 科學이라기 보다는 政治的인 目的을 合理化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共產政權의 樹立을 위한 合理化에만 應用된다. 萬一 矛盾對立의 法則이 共產政權 樹立後에도 適用된다면 그 정면도 같은 法則에 의하여 곧 崩壞되어야 할 것이다.</p> <p>① 唯物史觀의 概要</p> <p>㉞ 唯物弁証法을 人間社會에 適用하여 成立된 歷史觀.</p> <p>㉟ Marx以後 Lenin 과 Stalin 에 의하여 그들의 政治的 目的을 合理化하기 위하여 体系化 됨.</p> <p>㊱ 物的 一元論으로서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과 그 解決過程에 의해 歷史가 發展하는 것으로 본다.</p> <p>㊲ 社會의 經濟構造(下部構造)는 生産關係에 의하여 決定되며, 上部構造는 下部構造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봄.</p> <p>② 批 判</p> <p>㉞ 歷史發展에 있어서 精神的 要素를 無視.</p>	<p>다"는 敎理를 창시한 點을 分明히 指摘하고, 人間精神이나 意識이 環境이나 物質에 依해서 전적으로 支配되지 않는다는 것을 事例를 提示하면서 說明해야 한다.</p> <p>唯物弁証法이 가지는 바른 面도 認定하는 代身 그理論의 矛盾과 限界點도 分明히 指摘되어야 한다.</p> <p>Marx는 唯物弁証法을 社會現象에 適用하여 上部構造, 下部構造라는 用語를 만들어 냈다.</p> <p>이같은 理論과 概念의 設定은, 物質과 힘만을 믿는 믿음위에서, 그들의 政治的인 目的의 편견을 경계라는 현상의 分析을 통해 合理化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唯物史觀은 政治的인 目的을 前提하고 經濟라는 說明體系를 끌어 들여 이를 合理化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것이다.</p> <p>Marx와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政治的 目的으로</p>	<p>2 - 2) - ② <詳細 - 2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共產主義政治 理論 批判</p> <p>1) 階級 鬭爭論 批判</p>	<p>㉠ 生産力의 概念設定의 自家撞着. -生産力은 自然力, 生産手段, 物質만 으로 構成되는 것이 아니라 勞動力 技術, 教育水準으로 構成된다.</p> <p>㉡ 生産力의 不斷한 發展이 必然的으로 로 共產主義社會를 向해 나가는 理 由를 밝히지 못함.</p> <p>㉢ 資本主義는 그 內在的 矛盾때문에 必然的으로 몰락하여 社會主義 社會 가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프롤레타리아」革命의 不可避性 을 主張하는 것은 矛盾이다.</p> <p>㉣ 史的 發展에 크게 영향을 미친 偉大한 人物에 대한 說明이 不可能</p> <p>㉤ 先進資本主義國家 인수록 「프로레 타리아」革命의 可能性이 희박하다는 事實은 唯物論의 矛盾.</p> <p>① 概 要</p> <p>㉠ 生産手段의 私的所有關係는 人間에 의한 인간의 搾取關係를 형성, 結果 的으로 搾取者와 被搾取者의 階級社 會를 形成한다고 믿음.</p> <p>㉡ 搾取階級과 被搾取階級の 對立은, 漸漸 첨예화하여 政治鬭爭으로 發展 한다고 봄.</p> <p>㉢ 따라서 인류사를 階級鬭爭史로 보 며.</p> <p>㉣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간의 矛盾對</p>	<p>前提된 革命이라는 것을 合理化하기 위하여 人間 社會의 現象을 계급간의 鬭爭으로 보고 人類歷史 를 이 鬭爭의 記錄으로 보면서 鬭爭의 不可避性 을 경제의 사유재산제도 를 들어 合理化하려고하 였다는 골자를 說明하고 이러한 說明의 限界點과 矛盾點을 分明히 비판해 야 한다.</p> <p>階級鬭爭論의 批判은 앞 에서 指摘했던 唯物史觀 과 關聯시켜 批判함이 좋 겠다.</p> <p>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간 의 鬭爭은 不可避한 것 이고 「프」계급만이 歷 史上 選擧된 階級이라는 가정위에서 「프」階級の 革命鬭爭을 合理化해주고</p>	<p>2 - 3) - ② <詳細 - 3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 立은 絶對的이기 때문에 오직 革命에 의해서만 解決할 수 있다고 믿음. - 타협 不可能 ㉠ 革命은 社会發展을 위한 必然的, 당연적 手段으로 본다. ② 批 判 ㉡ 모든 人類歷史와 社会가 階級間의 鬭爭으로 成立되지 않는다. 協調, 補完의 側面이 많이 있다. ㉢ 「프로레타리아」 階級만을 歷史上 선정된 革命階級으로 단정하고 이 계급만이 전체社會의 이익을 代表한다고 하는 가정은 모순이다. - 진보적 개선이나 협조적 發展의 側面을 은폐하고 暴力을 合理化하기 위한 暴力 煽動論, 國家利益, 全體國民의 利益을 無視하고 特定계급이 全體社會의 利益을 代表한다는 것은 속단이다. ㉣ 中間階級의 無視는 矛盾 - 오늘날 先進國은 ◇「다이아몬드」形의 社會構造를 가지며 △「피라미드」形으로 해서, 소수의 擄取階級과 대다수의 「프로레타리아」 階級으로 침체화되어가는 현상은 거의 없다. ㉤ 「브르조아지」는 必然的으로 몰락하고 「프로레타리아」는 勝利한다는 共產主義의 主張은 오늘날 資本主義 國家에서 허구로 實証되고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자의 몰락도, </p>	<p> 있는것이 階級鬭爭論이다. 이 같은 主張은 「프」 階級の 革命과 鬭爭을 煽動하고 合理化하기 위한 政治的 의도의 表現이라는 點을 分明히 指摘해야 한다. 人類歷史는 鬭爭이나 革命 보다는 타협과 협동 협조에 의해 더 發展되었다는 것을 歷史的인 事實을 들어 설명하고 反對로 鬭爭을 目的으로하는 戰爭이나 革命은 人類를 더욱 不幸하게 만드는 歷史의 비극이었다는 點도 역사적 事例를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설명의 바탕위에 階級鬭爭論이 전체하고 들어가는 가정들의 모순과 限界點을 批判해야 한다.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革命論의 批 判</p>	<p>勞働者의 勝利도 없기 때문이다. 노자형조에 의한 發展만이 있기 때문이다.</p> <p>㉞ 오늘날 선진국에서 階級政黨은 위축되어가는 反面, 國民的政黨이 發展되고 있는 事實, 先進國보다 後進國에서 共產主義者가 잘 침식되며 이것이 革命에 의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은 共產主義 理論의 虛構性과, 時代착오적인 낡은 主張임을 証明한다.</p> <p>① 概 要</p> <p>㉞ 「프롤레타리아」 革命論 資本主義 內在的 矛盾 (「브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때문에 必然的 自然發生的으로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일어난다는 주장 → Stalin 時代까지 主로 주장됨</p> <p>㉞ 人民民主主義 革命論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達되지 않은 條件下에서 共產黨이 다른 政治勢力과 연합하여 집권하는것. - 「스타린」 以後 主로 주장됨</p> <p>② 批 判</p> <p>㉞ 「프롤레타리아」 革命에 있어서 暴力의 使用은 必要惡이라기 보다는 가장 必須手段으로 간주되고 정권 탈취 및 탈취후에도 暴力을 좋은 政治道具로 活用한다.</p>	<p>共產主義者들은 革命의 當然性과 必然性을 主張하기 위해 資本主義의 內在的 모순의 성장으로 인하여 自然發生되는 것처럼 설명했으나 이러한現象은 초기 자본주의 사회 극히 일부 에서 볼수있을뿐 오늘날 資本主義에서 는 全혀 볼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共產主義者들은 革命을 計劃的으로 煽動 宣傳하여 이룩할수 있는 戰略戰術을 모색하고, 戰略戰術에 의하여 世界 곳곳에서 革命이라는 미명하에 侵略戰爭을 가맹하고 있다는 點을</p>	<p>3 - 1) - ② < 詳細 - 4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프롤레타리아」獨裁論批判</p>	<p>㉠ 特定國家의 暴力革命을 合理化하는 理論에 不過한. - Lenin 에 의하면 革命의 客觀的 조건은 資本主義의 성숙 (Marx) 이라는 조건보다 是 政治的階級關係의 條件 餘하라고 Marx 革命論을 修正. 「러시아」의 革命을 合理化함.</p> <p>㉡ 勞動者의 權益과 生存問題가 國家로부터 全然 道의시된 狀態를 가정 한 理論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맞지않는 時代的 遺物이 됨.</p> <p>㉢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은 世界赤化를 위한 現代觀 共產主義的 手段에 不過.</p> <p>① 概 要</p> <p>㉠ 暴力革命에 依하여 「브르조아지」를 打破하고, 「브르조아지」 手中에서 모든 生産手段과 權力을 奪取하고 同時에 反革命的 要素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프」階級の 獨裁가 過渡的으로 不可避 하다는 主張</p> <p>㉡ 「프」계급의 정치기구 1871年의 「파리공문」같은것을 상경</p> <p>㉢ Lenin 和 Stalin에 의해 특히 強調됨.</p> <p>㉣ Stalin 에 의해 지적된 「프」獨裁의 任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資本家의 권력부활기도 분쇄 • 노동자의 조직강화 •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한 혁명의 	<p>指摘해야 한다.</p> <p>「프」獨裁論의 理論이 強調되고 더욱 体系化된것 이 Lenin 和 Starlin 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點을 留意해야한다.</p> <p>共產革命에 成功한 이들은 強力한 獨裁統治를 이룩하고 이 같은 共產黨 一黨 獨裁를 合理化하기 위하여 必要했던 것이 「프」獨裁論이 있음을 반드시 指摘해야 한다.</p> <p>「프」獨裁理論은 오늘 共產國家에서 強力獨裁維持와 반대세력의 숙청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있</p>	<p>3-2)-② <詳細 5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4) 國家死滅論의 批判</p>	<p>武装化</p> <p>② 批 判</p> <p>① 「프」階級政黨 以外의 어떠한 政黨도 排除 - 立法機關에 依한 民意의 反映도 否認 - 獨裁國</p> <p>③ 오늘날 共産國 現實 ; 勞動階級の 獨裁가 아니고 共産黨 少數人의 獨裁</p> <p>④ 「프」獨裁의 名分은 反革命勢力을 粉碎하기 위한 것이나 獨裁者의 權力을 유지하고 反對派의 肅清口實로 利用되고 있다.</p> <p>⑤ 「프」獨裁合理化의 虛構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獨裁는 多數인 勞動級에 依한 少數인 「브르조아지」에 대한 獨裁임으로 →民主的이다. • 「프」獨裁는 少數에 依한 多數인 「프」에 처한 獨裁 • 「프」獨裁란 「프」獨裁의 正當性을 合理化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虛構的인 것임. <p>⑥ 「프」獨裁는 徹底한 새로운 主從關係를 만들었다는 點 - 정적의 肅清, 反革命勢力의 除去, 全人民을 服從的인 노동노예화.</p> <p>① 概 要</p> <p>③ 國家는 榨取를 위한 手段으로 發</p>	<p>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共産主義者들에 의하여 「프」獨裁가 가장 民主的인 統治라고 선전되는 內容의 矛盾點을 分明히 批判하는데 유의 해야 한다.</p> <p>共産主義者들은 國家를</p>	<p>3 - 31 - ② <詳細 - 6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생된 것이기 때문에 榨取關係가 消滅되면 國家도 自然 消滅 된다고함.</p> <p>㉠ Lenin은 Marx의 理論을 修正하여 國家는 「프」獨裁에 再生 되어 오랜 기간 經過後 死滅한다고 主張함.</p> <p>㉡ Lenin 에 의한 國家死滅의 三段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半國家의 段階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 社會로 넘어 가는 過渡期에 存在 • 不完全한 國家의 死滅段階 社會主義 社會段階, 그러나 「프」적 권리의 殘滓가 남아 있는 段階. • 國家의 完全死滅段階 共產主義 社會 <p>㉢ 批 判</p> <p>㉣ 國家를 支配階級의 榨取手段으로서만 看做하는 것은 獨斷 - 國家는 社會秩序 維持, 國民福祉 實現, 階級間의 榨取를 排除 등의 方向에서 機能遂行.</p> <p>㉤ 오늘날 共產國家는 歷史上 類例없는 強力한 權力을 行使. - 國家死滅論은 實現될 수 없는 架空일 뿐만 아니라 黨獨裁를 合理化하는 名分에 不過하다.</p> <p>㉥ 國家는 絶對惡으로 규정되기 보다는 善을 具現하기 위한 人間尊嚴性</p>	<p>支配者들의 被支配者들 대한 榨取와 抑壓의 手段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榨取階級인 「프」階級이 消滅되면 自然 國家는 必要없게 되어 없어지며 이같은 착취없는 社會는 世界적으로 擴大되어 世界共產化가 된다는 것이다.</p> <p>국가의 기능을 이같이 착취와 抑壓으로서만 본 것은 전혀 잘 못된 것이며 오히려 國家가 비착취계급을 保護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가지 國가의 기능을 예들 들어 설명해야한다.</p> <p>그리고 오늘날 共產主義 國家내에서도 國家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자, 스스로 國家의 必要性을 認定하는 自己矛盾을 避하고자 資本主義의 侵略을 막기 위해서는, 全世界가 共產化가 이루어져서 資本主義가 完全 消滅될때까지는 오히려 國家가 더욱 強化되어야 한다고 어거지 合理化를</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5) 前衛黨論의 批判</p>	<p>을 具現하기 위한 手段이다.</p> <p>① 概 要</p> <p>㉠ Marx主義的 階級意識이 透徹한少數의 精銳와 職業的 革命家로 構成된 共產黨만이 革命을 主導할 수 있는 黨이다. - 이와같은 黨을 Lenin은 前衛黨이라고 부르고 前衛黨은 組織硬固性, 行動的 性格, 指導性이 있어야 한다고 主張.</p> <p>㉡ Lenin은 勞動階級을 다음과 같이 区分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衛黨 - 少數精銳 - 階級の 식투철 • 勞動組合主義的 大衆組織 - 階級の 식빈약 <p>㉢ Lenin과 Stalin이 指摘한 共產黨의 特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은 勞動者 階級の 核心的 前衛隊이며 • 勞動者 階級の 組織된 指導部隊이며 • 中央集權的 組織을 原則으로하며 	<p>하고 있다.</p> <p>이같은 點에서 國家사멸 論에 대한 허구성과 矛盾性을 批判하고, 오늘날 共產, 民主진영을 莫論하고 國家가 없어지는 方向 보다는 그 機能이 擴大되고 強化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指摘해야 한다.</p> <p>前衛黨論은 Lenin에 依하여 첨가된 共產主義理論이라는 注目해야 한다. 初期 共產主義者들은 革命이 資本主義社</p>	<p>3-4)-② <詳細 7></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獨裁를 행하기 위한 政治 道具이며 • 「프」階級組織의 最高形態이며 • 一切의 分派를 許諾하지 않는 單一意思의 統一체로서 批判과自我 批判方法을 活用한다. <p>② 批 判</p> <p>㉠ 國民的, 民族的 利益과는 無關한 少數階級의 利益만을 追求하기 위한 合理化</p> <p>㉡ 黨과 個人獨裁를 合理化 하는 것이다. - 黨의 最高指導者의 偶像化 (例: 「레닌」, 「스타린」, 毛沢東, 金日成)</p> <p>㉢ 中央集權의 組織原理 - 그들은 이것을 가장 民主的인 原理라고함. - 黨을 絶대 化하고, 個人을 그속에 從屬시키는 가장 非民主的인 것이다</p> <p>㉣ 自我批判은 다음과같이 惡用되는手段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上級黨 政策完遂에 關心을 集中시키고 • 人間을 組織을 手段으로 그들의 目的과 맞게 洗腦하고 • 指目된 黨幹部를 무자비하게 규탄하고 • 黨의 權力과 能力을 誇示하기 위한 것. 	<p>會의 內在的 矛盾때문에 自然發生한다고 主張했으나 이러한 自然發生的인 革命은 實際로는 不可能한 徹구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닌」은 革命을 宣傳, 煽動하고 計劃的으로 폭발시키는 것을 合理化하기 위하여 前衛黨論을 만들어 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p> <p>그리고 이 前衛黨論은 「프」獨裁論과 함께 共産黨 一黨獨裁를 合理化하고 共産黨 內部에서도 最高指揮者의 一人獨裁 「팍소」를 合理化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는 점을 指摘해야 한다.</p>	<p>3 - 5) - ② < 詳細 - 8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6)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와 平和共存論</p>	<p>① 概 要</p> <p>㉠ 「프」國際主義 世界各國의 「프」는 自己나라 및 世界共産化를 위해 國家的, 民族的 利害關係를 超越해서 團結해야 한다는 主張.</p> <p>㉡ 平和共存論 「스타린」以後 武力的인 世界赤化가 不可能해지자, 非武力的인 方法에 의해 世界를 赤化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자는 主張.</p> <p>② 批 判</p> <p>㉢ 「프」國際主義의 主張은 거의 幻想的인 것으로서 共産國家들 間에도 民族主義的 傾向이 커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主張이다.</p> <p>㉣ 平和共存論도 戰略戰術上 一時武力 方法을 後退한것 뿐이고 目的을 위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共産主義生理에 依한 偏裝的인 것이다.</p>	<p>「프」國際主義는 國家死 滅論과 關聯이 깊다.</p> <p>오늘날 국제조류가 민족 國家의 立場을 강조하는 方向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共産主義가 민족과 國家를 버리고 세계공산化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것은 歷史 方向의 逆行이 아닐 수 없다. 共産主義 內部에서 一민족적 國家主義傾向이 대두되어 深刻하게 論議가 되고, 그러한 方向을 認定하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프」國際主義의 허구성을, 스스로 証明하는 結果라는 點을 強調해야 한다.</p> <p>「프」國際主義와 平和共存論은 世界共産化 赤化를 合理化하기 위한 理論이라는 點을 밝혀야 한다.</p>	<p>3 - 6) - ② <詳細 - 9 ></p>
<p>4. 共産主義의 經濟理論 批判</p> <p>1) Marx 經濟學 概要</p>	<p>① <資本論></p> <p>Marx가 그의 經濟學理論을 体系化한 著作</p>	<p>여기에서는 Marx의 經濟理論을 보다 分明히 把握시키기 위한 前提로서</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勞動價值說의 批判</p>	<p>② <目的> 近代資本主義社會의 經濟運行法則分析</p> <p>③ <分析道具> 唯物弁証法 利用</p> <p>④ <分析對象> 資本主義의 生成과 發展, 消滅過程</p> <p>⑤ <到達된 結論> 資本主義는 必然的으로 沒落하고 그 위에 社會主義 社會가 到來한다.</p> <p>① 勞動價值說의 概要</p> <p>㉠ 「아담·스미스」, 「리카도」에 의 해 發展된 投下勞動價值說을 Marx 가 자기나름 대로 體系化한 것임.</p> <p>㉡ 投下勞動價值說 商品生産에 投下된 勞動의 量에 따라 商品의 價值가 決定된다는 理論</p> <p>㉢ Marx의 勞動價值說 具體的 勞動은 使用價值를 創造하고 抽象的 勞動은 交換價值를 形成하며 交換價值는 平均勞動量에 依해 決定된다는 것</p> <p>② 批 判</p> <p>㉣ 人間의 能力, 素質에 따라 勞動의 質이 多樣함에도 不拘하고, Marx는 人間의 勞動을 等質的인 것으로 取扱하는 矛盾을 범함.</p> <p>㉤ 財貨의 價值가 勞動에 의해 서만 決定된다고 보는 것은 獨斷임.</p> <p>㉥ 近代資本主義 方法에서의 利潤率平</p>	<p>Marx 經濟理論의 研究目的, 研究方法, 研究結果를 먼저 簡략히 提示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研究가 이루어지게 된 背景에는 Marx의 政治的 意圖가 숨어 있음을 밝혀야 한다.</p> <p>Marx의 勞動價值說은 Marx의 獨特한 理論이라기 보다는 「아담 스미스」, 「리카도」의 投下勞動價值說을 바탕으로 體系化한것에 不過하다는 點을 밝혀야 한다.</p> <p>오직 勞動에 의해서만 價值가 創造된다는 假定과 人間의 勞動은 等質的이라는 假定의 虛構性과이 같은 虛構的인 假定을合理化하려는 意圖는 미리 설정된 「프」階級에 대한 勞</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剩餘價值說의 批判</p>	<p>準化의 現象을 反映하지 못하고 있다.</p> <p>㉔ 勞動以外的 生産要素를 考慮하지 않았기 때문에, 經濟一般論이 되기 어렵다.</p> <p>① 剩餘價值說의 概要</p> <p>㉕ 剩餘說의 前提</p> <p>資本家階級은 生産手段을 所有하고 勞動階級은 勞動을 팔아서 生存한다</p> <p>㉖ 生産過程에 投下된 資本과 勞動의 價值에 比하여 더 많은 超過分의 剩餘價值가 生成된다.</p> <p>㉗ 剩餘價值는 오직 勞動要素에 의해 生成되고 다른 生産要素는 剩餘價值를 만들지 않는다.</p> <p>㉘ 剩餘價值는 利潤, 地貸, 利子 等の 形態로 資本家에 들어가 富를 蓄積하게 한다.</p> <p>② 批 判</p> <p>㉙ 資本, 原料等 여러가지의 生産要素中에서 오직 勞動만이 價值를 創造하기때문에 勞動者만이 그 價值를 独占해야 한다는 것은 獨斷임.</p> <p>- 資本, 原料 技術도 生産性を 높인다.</p> <p>㉚ 商品의 價值決定을 供給 一辺에서만 考慮, 需要와 供給에 依해 決定되는 面을 無視했다.</p>	<p>動搾取라는 것을 証明하려는 것이 있음을 指摘해야 한다.</p> <p>剩餘價值의 理論을 提示하는 目的은 勞動만이 超過分의 價值를 生成하는 바 이것은 當然히 勞動者들의 所有로 돌아가야 됨에도 不拘하고 資本家들이 搾取하고 있다는 것을 勞動者들에게 煽動하려는 意圖에 있음을 強調해야 한다.</p> <p>이같은 政治的 意圖을 合理化하려는 理論이라는 點을 밝힌다음 그 矛盾性과 限界性을 分析批判해야 한다.</p>	<p>4 - 2) - ㉔ <詳細 10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4) 資本主義崩壞論</p>	<p>㊟ 資本主義下에서는 勞動生産性이 向上되어도 勞賃은 最少生活을 保障하는 水準에 繼續 머문다고 했으나 實際는 이와 反對로 勞賃은 올라가고 있으며 初期資本主義時代의 勞動者貧困은 人口의 都市集中에 의한 一時的 現象에 不過했다.</p> <p>㊟ 勞動者의 搾取現象은 오늘날 共產國家에서 더욱 甚하다. - 소련, 北韓의 例</p> <p>① 資本主義崩壞論의 概要</p> <p>㊟ 機械化에 따른 大量生産과 勞動者 貧困으로 인한 過剩生産과 過少消費現象의 矛盾이 極端化 된다고 함.</p> <p>㊟ 이같은 矛盾을 克服하기 위하여 國內的으로는 獨佔체制를 強化, 國際的으로는 資本 輸出, 植民地 確保競爭이 일어남.</p> <p>㊟ 이같은 競爭의 치열화는 終局的으로 資本主義 國家間의 戰爭을 誘發하여, 沒落 崩壞가 不可避하다.</p> <p>② 批 判</p> <p>㊟ 새로운 商品의 開發, 嗜好의 變化 등으로 資本家의 利潤率은 低下되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Marx는 資本主義가 發達될수록 利潤率이 減少한다고 主張. -</p> <p>오늘날 資本主義는 오히려 高度成長을 보이고 있다.</p> <p>㊟ 産業의 機械化에 의하여 一部失業</p>	<p>過剩生産과 過少消費의 矛盾은 不可避한 資本主義의 現象이며 이러한 現象은 마침내 獨佔이支配하는 帝國主義間의 戰爭을 誘發시키므로서 不可避하게 沒落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理論의 展開는 資本主義의 沒落과 共產主義의 勝利를 必然化하고 妥當化하기 위한 意圖와 勞動者에 對한 社會的 煽動의 意圖가 숨어 있음을 밝히는 것을 前提로, Marx의 理論展開에 있어서 矛盾을 分析해야한다.</p>	<p>4 - 3) - ㉔ <詳細 - 11></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5) 帝國主義論 批判</p>	<p>現象이 發生할 수 있으나, 機械化工業을 위해 새로운 勞動需要가 發生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失業은 發生하지 않는다. 오히려 勞動不足 現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先進資本主義國家의 實情이다.</p> <p>㊦ 過剩生産과 過少消費의 內在的矛盾에 依한 資本主義 沒落은 아직 그 實例가 없는 虛構的 假定에 不過하다.</p> <p>① 概要</p> <p>㊦ 帝國主義</p> <p>競爭이 支配하는 産業資本主義는 獨占이 支配하는 資本主義로 發展하는 바 이 段階는 資本主義의 마지막 段階로서 帝國主義라고 함.</p> <p>㊦ 帝國主義는 社會主義革命의 前夜期라고 함.</p> <p>㊦ Lenin 은 帝國主義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指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企業이 中小企業 從屬化하여 生産과 市場 獨占 • 銀行資本과 産業資本이 結託 金融寡頭體制形成 • 商品輸出 보다 資本輸出에 力點 後進國의 植民地化 形成 • 國際獨占體制가 形成됨으로서 世界分割 • 資本主義列強 사이에 植民地戰爭이 誘發 	<p>共產主義者들의 主張에 의하면 帝國主義는 資本主義의 마지막 段階로서 그 矛盾이 極에 達한 革命의 前夜期라고 한다. 이같은 主張의 숨은 意圖는 革命의 煽動에 있으며, Lenin 이 이같은 帝國主義理論을 앞세워 宣傳했던 것은 世界 共產化의 野望을 成就하기 위한 煽動宣傳의 戰術이었음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날날 資本主義는 帝國主義理論과 달리 더욱 發展과 繁榮을 구가하며 健在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大部分의 共產主義國家들이 後進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p>	<p>4 - 4) - ② <詳細 12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点	資 料
	<p>② 批 判</p> <p>㉠ 独占資本主義 段階는 空想的 概念 - 大企業化現象과 独占化 現象은 別 個의 現象</p> <p>㉡ 國家調整的 機能이 無視된 狀態를 前提로 構成된 理論 - 國家機能에 의해, 經濟공황 独占 등이 克服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資本主義 國家實 情</p> <p>㉢ 帝國主義 理論은 植民地 開拓을 위 한 資本輸出이라는 主張을 내건 後進國 의 煽動論</p> <p>㉣ 모든 戰爭의 原因을 經濟에서 만求 하는 것은 片鱗한 것이다. - 民族感情, 宗教上的 갈등은 歷史上 많 은 戰爭의 原因이 있으며, 共產主義 의 世界赤化 目的은 世界 2次大戰 後 發生한 大部分의 戰爭原因이었다.</p> <p>㉤ 共產主義는 資本主義國家들이 植民 地政策을 쓰고 있다고 공격하는 反 面 그들은 國際共產主義 建設이라는 미명하에 世界赤化 내지는 植民地化 를 合理化하고 있다.</p>	<p>想起시켜야 한다.</p>	<p>4-5)-② <詳細 13></p>

詳 細

〈詳細 1〉 Marx 共產主義理論發生의 背景
1 - 1)
1 - 2)

19 世紀初에 主張되었던 여러 社會主義 學說과 같이 「마르크스」主義도 西歐의 産業資本主義의 發展과 더불어 發生한 經濟的, 社會的 矛盾 속에 배태되었다. 1848年 獨逸의 한 新聞인 이었던 29 歲의 「마르크스」가 「프리드리히·엥겔스」의 도움을 얻어 “共産黨 宣言”을 發表했다. 그들은 이 宣言이 全 歐洲에 있어서 革命을 誘發시키기를 希望하였다. 그리하여 勞動者들이 權力을 獲得하고 資本家로 부터 工場을 빼앗고, 모든 財産이 國家에 歸屬되는 階級없는 社會를 建設할 것을 期待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主張한 革命은 20世紀에 들어와 나타났는데 그것도 그들이 預言하지 못했던 「러시아」에서 었다. 그러나 그들이 “共産黨 宣言”을 發表했던 當時의 西歐羅巴는 確實히 革命을 向해 몸부림 쳤던 것이다.

實際로 1840年代는 政治와 産業에 있어서의 革命이 同時에 進行되고 있었다. 人類의 歷史上 가장 偉大한 經濟的 變革이었던 産業革命은 이미 18世紀 英國에서 始作하여 全歐洲로 번지고 있었다.

그러나 産業化는 伝通的인 生活樣式을 變化시키고 많은 大衆에게 貧困과 처참을 가져왔다.

産業革命이 일어나기 前 數世紀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祖上이 살고 있던 村落에 繼統해서 살고 있었다. 世代를 거듭하면서 子息은 父代의 職業을 傳承하였었다. 그러나 1769年에 「아크라이트」가 發明한 紡織機와 「제임스 왓트」의 蒸氣機關은 英國의 農村生活을 崩壞시켰는데

가내의 紡織機械를 갖고 있던 小規模의 手工業者들은 「만체스터」와 같은 큰 都市의 紡織工場으로 물리게 되었다.

「왓트」의 蒸氣機關은 鐵道を 可能케 하였고 따라서 農村社會의 孤立은 終言을 告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職場을 찾아 都市로 移住하였고 또 公有地를 私有地化 하는 法令(Enclosure Acts)에 依하여 農民들은 失鄕民이 되었다. 이러한 法令들은 小作農민의 犧牲위에 貴族이나 시골의 地主의 協力을 넉히었던 것이다.

한편 都市로 移住한 農民과 手工業者들은 都市의 貧民階層을 形成하게 되었다.

이들이 살고있던 生活環境이란 것은 오늘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悲慘한 것이었다. 勞動條件은 極惡하고 資金은 最低生活를 維持하기에도 不足하였으니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父母를 따라 勞動을 하게 되었다.

이 産業으로 利得을 본 새로운 支配階級은 이러한 革命이 初期에 가져온 禍害를 해결할 수 없었다. 當時 西歐에서 人民에 依한 政府라는 觀念이 거의 알려지지 아니 했었다. 다만 英國은 比較的 広範圍한 大衆參與에 基礎를 둔 의회정치를 발전시켰고 會議는 1844년에 公布된 工場法과 같은 一連의 法律로서 産業革命이 가져온 社會經濟的問題를 解決하려고 努力했다.

西歐의 産業化는 絶對君主가 百姓들에 의하여 沒落하기 훨씬 以前에 始作되었다.

「마르크스」가 革命을 煽動하는 宣言書를 發表했을 때 西歐의 百姓들은 基本權이나 立憲政府를 가지고 있지 못했었다. 1848年 全歐洲는 「제퍼슨」이 美國獨立宣言에서 主張한 生命自由, 幸福의 追求와 같은 불가양의 權利에 對한 要求로 들끓고 있었으니 美國의 발전은 西歐의 政治的 變化에 對한 主要한 자극제 였다. 뿐만아니라 仏蘭西,

革命은 더욱 重要한 役割을 하였으니 비록 革命의 目標가 完全히 達成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革命이 政治 乃至 社会的 變化를 가져오는 効果的인 方法이라는 希望을 歐洲人에게 주었던 것이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反動的 제상이던 「메테르니히」는 「헝가리」人, 其他의 民族들을 抑圧하였고 「러시아」의 皇帝「니콜라스」1世(1825 ~ 1855)의 治下에서 農民들의 生活은 奴隸의 그것과 다를바가 없었다. 「프러시아」의 「프레데릭·윌리암」4世 亦是 個人의 自由는 全히 認定치 아니하는 獨裁君主였다.

「루이 필립」의 仏蘭西는 比較的 自由主義的 立憲政治 아래 있었으나 여기에도 工場制度는 歐洲의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勞動者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드디어 1848年 「파리」의 人民들은 無能한 「루이 필립」의 政府를 무너트리고 그들의 政權을 掌握했다. 그들은 勞動者 代表 4人을 包含한 11名으로 構成된 臨時政府를 樹立하였으니 이것으로 仏蘭西 第2共和國은 誕生했던 것이다.

그러나 類似한 革命이 獨逸, 伊太利, 「오스트리아」를 풍미하였다. 勞動者들은 伯林에서 方策을 치고 政府에 對抗했으며 「프레데릭 윌리암」4世는 暴動의 犠牲者에게 머리를 숙이도록 強要되었다. 伊太利에서는 「밧찌니」라고 불리는 人民의 英雄이 登場하여 「로마」共和國의 支配者가 되었으며 「헝가리」의 「루이 코수트」(Lónis Kossuth)는 皇帝「페르디난트」1世의 下野를 強要했다. 歐羅巴의 大國 가운데 1848年에 조용했던 나라는 工業이 가장 發達했던 英國과 가장 낙후했던 「러시아」였다.

그러나 이러한 再革命은 오래 繼續되지 못했다. 1年이 못가서 이러한 革命運動들은 失敗로 돌아가기 始作했고 革命을 진압하려 했던 支配者들은 새로운 革命에 對備하는 새로운 獨裁者들로 나타났다. 그러나 社会的, 政治的, 變革을 동경하던 歐洲人에게 革命의 물결은 끝

이지 아니했다.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共産黨 宣言을 發表한 것은 이와 같이 자극적인 環境에서 였는데 宣言의 文句는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強烈하게 울렸던 것이다.

이 講義는 「칼·마르크스」의 共産黨 宣言이 發表될 當時의 社會 및 政治 現實에 對한 說明에 重點을 두어야 하며, 아울러 19世紀 初期의 여러 社會主義의 思想家에 言及함으로써 「마르크스」가 獨創的인 政治 思想家라기 보다 하나의 總합자 이었다는 事實도 強調할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 講義는 大體로 智적인 歷史 (Intellectual History) 에 重點을 두는것이 좋고 思想과 事件을 連關시켜 說明해야 한다.

「나폴레옹」戰爭後 仏蘭西 革命과 啓蒙思想의 絶對的 理想에 對한 反動이 일어났다. 많은 知識人과 政治的 指導者들이 보수주의를 고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人間과 社會와의 關係를 규명할 수 있는 原則을 찾으려고 努力했다. 이러한 努力은 「샤또브리앙」 (Chatean Briang) 의 浪漫主義 運動에서도 나타났고, 世界秩序에 對한 合理的 根柢를 찾으려던 獨逸의 觀念論에서도 나타났다. 英國에서는 特別히 自由放任主義者들이 人間과 社會와의 關係에 있어서 實用的인 接近法을 試圖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思想이 現實로 登場하게된 物理的 或은 制度的 背景을 說明해야 한다. 그리하여 講師는 産業의 發達, 都市의 成長, 農民과 家內工業의 問題, 新興中産階級等에 關하여 言及해야 할 것이다. 過去에 있었던 階級間的 區別은 漸次 消滅하기 始作하였고 1815年의 빈회의 (The Congress of Vienna) 와 1848年의 “共産黨宣言”의 發表까지 30餘年間은 西歐에 있어서 社會的 動搖와 不安의 時期였음을 指摘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環境 아래서 知識人과 그들의 思想은 빠른 速度로 變化되고 있었다. 例컨대 「마르크스」自身도 獨逸의 知識

社會의 影響을 받고 자랐으나 나중에 「파리」의 仏蘭西 社會主義思想에 심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르크스」의 知的 背景을 說明할 必要가 있다.

「마르크스」는 新성동맹의 反動勢力이 西歐羅巴를 풍미하던 時節에 자랐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當時 獨逸에서는 自由主義 運動이 活潑하였다. 이 運動의 主要 人物은 「루드비히·비른너」와 「하인리히·하이네」 등의 젊은 詩人이 있으며 이 運動의 影響은 仏蘭西의 7月革命을 자극했던 것이다.

1830年代 후반 「헤겔」學派의 소장학도들은 急進的인 法律과 哲學을 工夫하고 있을 때 이들과 接觸을 始作했다. 「마르크스」는 「헤겔」學派에서 가장 年少했지만, 그는 當然 뛰어났다. 特히 1841年 그의 學位論文에서 「마르크스」가 必要한 것은 理念이나 공허한 가설이 아니고 道德的으로 明白한 生活方式이라고 한 것은 「헤겔」에 對한 一種의 批判이었고 「헤겔」의 保守的 觀念論에 對한 反撥로 여겨졌다.

「마르크스」는 「스피노자」, 「라이프넛츠」, 「훔」의 影響을 받아 民主主義의 實情과 概念을 發展시켰는데 特히 「스피노자」의 影響은 「마르크스」로 하여금 自由와 必要와의 調和를 發見하게 했다. 그리하여 그가 「헤겔」의 형이상학적 國家觀을 반박하고 나설 때, 「마르크스」는 合理的인 倫理를 그 自身の 社會學的이고 革命的인 教理와 統合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헤겔」의 政治哲學과 觀念論을 無條件 부정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의 弁證法이 繼續하여 「마르크스」의 哲學體制의 基礎를 形成하였다는 것은 이미 言及했다.

「마르크스」가 民主主義에 關하여 과격한 見解를 갖게 된 것은 英國, 仏蘭西, 美國 등의 革命의 影響이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歷史的 事件으로 부터 民主主義가 必然的으로 共產社會에서 實現되리라고 믿

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自由主義者에서 共產主義者로 전향 되어가는 동안, 「마르크스」는 「스피노자」와 「포이에르바하」, 「썩썩몽」과 「바뵈르」, 「토마스·해밀턴」과 「토포빌」, 「푸라톤」, 「오웬」, 「프리에르」 등의 影響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思想家들에 관하여 簡略히 言及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1864년에 「마르크스」가 主導的 役割을 한 「第1 「인터내셔널」이 多様な 社會主義 思想을 보여 주었던 것과 같이 「마르크스」의 思想도 結局은 그 많은 社會主義 思想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說明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特別히 多様な 背景을 가졌던 여러갈래의 社會主義는 후에 와서 明白하게 分파된것을 예시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講師는 英國의 「웨이비언·쏘사이어티」의 실용주의적 활동과 「베른쉬타인」 以前의 獨逸社會 民主黨과 「러시아」의 「인민당」 或은 「社會主義 革命黨」의 보다 교조적이고 革命的인 活動을 대조시켜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要컨대 社會主義 思想의 哲學的 背景과 活動的인 政治指導者에 의하여 實際적으로 發展된 社會主義의 現實과를 比較함으로써 理論과 實際와의 差異를 說明하는 것이 必要할 줄로 믿는다.

<詳細2> 唯物弁証法 批判 2-2)-②

1. 唯物弁証法の 概要

唯物弁証法은 「해겔」의 觀念論的 弁証法과 「포이엘·바하」의 唯物論을 結合하여 獨特한 理論體系를 이루어 놓은 것이다.

唯物弁証法은 世界의 本質은 物質이며 物質이 內在된 矛盾에 의하여 正(肯定 - Thesis), 反(否定 - Anti-thesis), 合(否定的 否定 - Syn-

thesis)의 3段階方式으로 不斷히 運動하여 變化發展하며 이것이 世界發展의 原動力이라고 한다.

「헤겔」 弁証法の 核心은 理念(精神, 觀念)인데 「마르크스」 弁証法の 理論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核心을 理念이 아니라 物質이라고 하였다. 즉 「헤겔」과 「마르크스」는 自然界, 人間界를 包含한 全世界를 부단한 流動過程이라고 보는데 있어서는 同一하다.

「헤겔」은 世界の 根源은 精神(意識, 理念)이며 모든 物的 現象은 精神의 外的表現이라고 본데 反해서 「마르크스」는 世界の 本質은 物質이며 모든 精神 現象은 物質의 作用이라고 보았는데 큰 差異가 있다.

「마르크스」의 唯物弁証法은 「레닌」과 「스타린」에 의해서 그의 独自の 見解가 加味되어 비로소 体系化되었다.

2. 唯物弁証法の 批判

唯物 弁証法은 一切의 物質이 矛盾을 품고 있다는 命題로부터 出發되고 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勿論 「엔겔스」나 其他 그 後의 모든 「마르크스」主義者들이 物質의 矛盾을 품고 있다는 事實을 實例로 들어 證明하려고 努力했었다. 그러나 現實世界는 矛盾을 지니고 있는 物質이 있는가 하면, 矛盾을 갖지 않는 物質도 許多하다는 事實은 곧 弁証法の 前提가 옳지 않다는 것을 立証하는 것이다.

또 가령 어떤 物質이 矛盾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그 矛盾이 都大體 어디로부터 생겨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마르크스」와 그의 追從者들은 說明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그들이 말하는 矛盾은 實証되지 않은 오늘날 假定の 擬題에 不過하다.

唯物 弁証法은 發展은 矛盾을 契機로 無限히 繼續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共産.社會가 社會發展의 最後段階라 하므로써 자가당착의 矛盾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唯物弁証法의 原理가운데 量으로 부터 質에의 轉換法則은 (正-反-합의 原理) 被支配階級에 依한 變革의 努力을 正當化하는 法則으로 「마르크스」主義者가 特히 重要視하고 있다. 「엔겔스」는 이것이 眞理임을 證明하기 위해서 炭素化合物과 물을 引用하고 있다. 設使 量으로부터 質에의 轉化法則이 適用되는 物質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物質이 許多한만큼 그것을 보편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唯物弁証法은 요컨대 科學이라기 보다는 미리 政治的 效果를 노린 하나의 의식적인 凶式에 不過하며 政權樹立 段階에만 適用될수 있을 뿐이다. 萬一 矛盾의 法則이 政權을 掌握한 後에도 適用된다면 共産政權도 早晚間 否定當해야 하기 때문이다.

<詳細 - 3 > 唯物史觀의 批判
2 - 3) - ②

1. 史的 唯物論 (唯物史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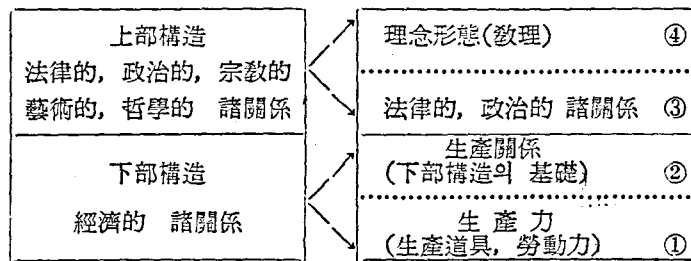
「마르크스」는 그의 <政治經濟學 批判>에서 唯物史觀의 基礎的 原理를 밝히고 있는데,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社會生活의 基礎로서 經濟的 生産關係를 下部構造로 삼고 그것이 意識的·精神的인 「이데올로기」의 上部構造를 決定한다.
- ② 人間은 一定한 生産力, 即 生産道具와 生産樣式에 適應한다.
- ③ 下部構造의 變化는 上部構造의 變化를 일으키게 한다.
- ④ 生産力과 生産關係에 따라서 人類社會는 歷史上 및 段階로 發展하였다.

「마르크스」는 生産力과 生産關係를 生産의 2大 要素로 보았다. 生産力이란 土地, 資本, 生産施設을 비롯하여 生産用具와 生産人力을 포함하는 것인데, 「마르크스」는 그 中에서 가장 重要的 것을 生産道具와 勞動力이라고 했으며, 「레닌」은 勞動者라고 強調하였다. 그리고 社会的 生産力이란 말은 사람이 한 個人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힘을 합하여 生産한다는 뜻이다. 人間은 生産過程에 있어서 自然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人間相互間에 一定한 關係를 맺게 마련인 바, 이러한 關係를 「마르크스」는 生産關係라고 하였다. 이러한 生産力과 生産關係는 相互 分離되어 無關係한 것이 아니라 합쳐서 一定한 生産樣式을 形成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에 의하면 生産關係中에서 가장 基本的인 것은 生産手段의 所有關係로서 이것이 모든 生産關係를 決定하는 要因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生産關係는 人間이 任意로 만들어 낼 수 있는 關係가 아니라 客觀的·物質的 條件 아래서 實現되는 關係이다. 그러므로 그 時代의 生産力이 變化하게 되면 生産關係도 따라서 變化하고, 生産關係가 變化하게 되면 그 社会的 政治, 法律, 道德 等도 全般的으로 變化한다는 것이다.

社 會 構 造
(보헨스키의 圖表)



- ① 生産力.....가장 重要的 것은 生産道具
- ② 生産關係.....基礎 即 下部構造
- ③ 上部構造 I法律的 및 政治的 諸關係
- ④ 上部構造 II이데올로기 形態 即 敎理

이와 같이 生産關係의 總合으로 形成되는 社會의 經濟的 構造(下部構造)는 上部構造의 座標를 決定하는 要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經濟的 關係가 上部構造를 이루고 있는 모든 社會思想을 저절로 變化시키는 것이 아니라 階級間的 鬭爭에 의해서 變化한다는 것이다. 卽 生産力과 生産關係(生産手段의 所有關係)의 矛盾은 自然發生的이지만, 이 矛盾을 克服하여 새로운 經濟的 構造를 形成하고 거기에 相應하는 上部構造를 變革시키는 것은 階級鬭爭으로서만 可能하다는 것이다. 낡은 生産關係가 새로운 生産力の 發展에 대하여 障礙物이 되면 될수록 낡은 生産關係에서 利益을 보던 階級과 새로운 生産關係에서 利益을 보게 될 階級間的 鬭爭은 漸漸 激化하여 마침내는 社會革命이 爆發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와 같이 人類歷史를 物質的 生産力の 發展過程이라고 断定하고 生産樣式을 基準으로 하여 原始共同社會, 古代奴隸社會, 中世封建社會, 近代資本主義社會 그리고 生産手段을 共有하는 社會主義社會를 거쳐 窮極的으로는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消費하는 共產主義社會로 段階的으로 發展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은 過去의 歷史를 說明하려는 데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歷史의 發展法則에 따라 未來를 預言하려는 데 있었다. 同時에 그가 무엇보다도 憎惡했던 當時의 資本主義制度를 顛覆하기 위한 階級鬭爭의 理論을 展開하기 위한 根柢를 提示하려는 데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2. 史的 唯物論(唯物史觀) 批判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은 社會의 發展에 있어서 經濟的 要因이 基本이라는 것과 社會의 發展은 弁証法的 法則을 따른다는 두 個의 思想으로 要約할 수 있다.

社会的 生産力이 人力에 依存함이 크다 해도 機械나 裝備·施設을 無視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生産手段을 만들어 내는 것은, 人間의 精神的 活動의 所産이다. 端的으로 말해서 生産力の 發展이란 技術의 發展을 意味하고 技術의 發展은 새로운 發明, 即 自然科學의 發達에 依存한다. 따라서 人類社會가 精神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物質力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는 것은 매우 皮相的인 觀察임을 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社會主義社會라 해서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이 전혀 없느냐 하는 것이다. 또 問題가 되는 것은 高度의 資本主義國家에서 는 왜 社會主義革命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資本主義가 未熟한 後進國에서 社會主義革命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다. 蘇聯이 革命 當時 그러했고, 東歐 衛星諸國이나 中共이 모두 그러했다. 이러한 事實에 비추어 볼때 <資本主義의 必然的 崩壞>라는 「마르크스」主義는 空虛한 것이 되고 말았다.

「마르크스」의 上部構造와 下部構造에 關한 理論의 一部에는 妥當한 點도 있기는 하지만, 人類의 精神文化가 生産關係라는 單一原因에 의해서만 決定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獨斷이 아닐 수 없다. 上部構造가 下部構造에 의해서만 決定된다면 어째서 同一한 生産條件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各各 相違한 文化를 發展시켰고, 相違한 生産條件 밑에서도 同一한 文化를 享有하고 있는지를 說明할 道理가 없다. 例를 들면 基督教은 生産關係를 各各 달리하는 古代 「로마」에서나 資本主義的인 「유럽」諸國에서나 다같이 支配的인 宗教였으며, 심지어는 共產主義 蘇聯에서 까지도 온갖 彈壓에도 不拘하고 50年 以上 抹殺되지 않고 있는 理由는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同一한

生産關係下에서도 資本主義的 理念, 共產主義, 社会民主主義, 無政府主義, 「파시즘」等 異質的인 思想이 engk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相当數의 支持者를 갖고 있는 理由는 무엇으로 說明할 것인가? 이와 같이 上·下部의 關係는 그렇게 單純한 것이 아니다.

万若 政治가 經濟關係의 反映이라면 經濟關係의 成熟을 기다려 共產主義的 政治制度의 樹立을 期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事實에 있어서는 共產主義者들은 于先 政權을 掌握하고 政治力에 의하여 共產主義的 生産關係를 樹立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가당착을 犯하고 있다. 이처럼 上部構造의 힘에 의하여 下部構造를 決定하려는 矛盾된 實踐은 唯物史觀의 妥當性を 스스로 否認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마르크스」의 5段階 社会發展論은 보는 바에 따라서는 그럴 듯한 点도 없지 않으나 無理한 点이 하나 둘이 아니다. 資本主義國家가 社会主義國家로 發展되지 않고 民主社会主義로 變化하는 例를 볼 수 있는가 하면, 資本主義 經濟体制를 거치지 않고 共產主義体制로 바뀌는 경우도 許多하기 때문이다. 唯物史觀의 批判은 그 構造에 대해서보다도 共產主義社会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非科學的인 未來의 予言에 集中되어야 한다. 우리는 人類社会가 變遷해 왔으며 資本主義社会도 固定的인 것이 아니라 消滅될 수 있다는 主張을 認定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論理의 領域에서는 있을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決코 必然的인 것은 아니다. 設使 資本主義体制가 崩壞된다고 하더라도 그 結果 반드시 共產主義体制가 實現된다고는 断定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러한 論理를 固執하는 理由는 社会主義社会와 그 다음에 올 共產主義社会의 實現을 위해 當장 資本主義体制를 打倒해야 한다는 論拠를 提示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뿐만아

나라 그들은 모든 사회는 弁証法的으로 새로운 段階로 發展해 나간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段階에서 共產主義社會를 그 以上 發達할 社會가 없는 久遠의 理想社會로 予定하고 말았다. 여기에 하나의 神話的인 未來觀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詳細 4> 階級鬭爭論 批判
3 - 1) -②

1. 階級鬭爭論

「마르크스」는 唯物論的 觀點에서 階級을 剩餘價値의 搾取 및 被搾取의 鬭爭關係로 把握하였다. 階級鬭爭이라 함은 搾取階級에 대한 被壓迫階級の 鬭爭을 말한다.

그러면 階級の 本質은 무엇인가? 近代의 階級은 直接的으로 生産關係의 所有關係로서 나타나는 對抗集團이다. 「마르크스」는 <革命과 反革命>에서 階級을 封建貴族, 有産階級, 小「부르주아」階級, 小農階級, 無産階級, 農奴階級으로 区分하고, 이러한 階級 사이에는 經濟的 經濟外的 要因에 의하여 相互 利害의 對立이 생긴다고 하였다. 한편 「레닌」은 階級을 利害關係의 共通性에 의하여 結合된 人間의 集團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定義하였다.

『階級이란 歷史적으로 一定한 社會生産制度 안에서 차지하는 位置, 生産手段에 대한 關係, 社會의 勞動組織 안에서의 役割等에 따라 獲得된 社會的 富의 몫을 차지하는 次元과 方法等을 各各 달리하고 있는 人民의 大集團이다. 階級은 人民의 集團인데, 그 集團中の 하나는 그들이 特定한 社會經濟體制 안에서 차지하는 位置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集團의 勞動을 搾取할 수 있게된다』.

그러면 階級鬭爭이란 무엇인가? <共産黨宣言>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從來에 存在한 모든 社會의 歷史는 階級鬭爭의 歷史이다. 自由民과 奴隸, 組合의 頭目과 工匠, 卽 한마디로 말해서 抑壓者와 被抑壓者는 언제나 對立하며, 어떤 경우에는 暗暗裡에 또 어떤 경우에는 公公然히 鬭爭 없이 鬭爭한다. 그 鬭爭은 全社會의 革命的 改造로 끝나거나 또는 鬭爭하는 階級の 共同的 沒落으로 끝난다. ……全社會는 漸漸 2大 敵對陣營 卽 直接 對立되는 2大 階級으로 分裂된다.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가 바로 그것이다』.

卽 階級の 對立은 그 社會의 生産樣式의 本質과 關聯되는 것으로서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對立은 近代的 生産樣式의 産物이라는 것이다.

近代工業의 發展에 따라 勞動力을 商品으로 팔지 않으면 안되는 勞動者의 數가 增加함에 따라 그들은 自身들의 結束된 힘을 自覺하게 되었고, 機械의 普及에 따른 賃金水準의 下落에 直面하여 主로 勞動條件의 改善과 賃金引上等 經濟的 鬭爭에 注力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勞動者들의 初期鬭爭은 漸次 勞動階級에 의한 政權奪取라는 政治的 鬭爭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이러한 勞動者들의 鬭爭은 勞動者와 資本家 사이의 個別的 鬭爭에서 차츰 地域的인 鬭爭으로, 地域的인 鬭爭에서 國內全般의 鬭爭으로, 더 나아가서는 國際的 規模의 勞·資鬭爭으로 擴大되어 간다는 것이다.

階級鬭爭이 決戰段階에 이르면 支配階級 内部의 分解過程은 매우 深刻한 樣相을 띠게 되며, 그 一部는 스스로 所屬階級을 離脱하여 革命

的 階級에 加担한다. 한편 中産階級の 大部分도 將來의 利益을 위하여 「프롤레타리아」로 轉身하여 全社會는 極少數의 「브르조아지」와 엄청난 多數의 「프롤레타리아」의 對立으로 分裂된다. 利害가 相衝되는 2大 階級の 矛盾과 對立은 資本主義的 經濟關係의 根本的인 變革이 없는 限 解消될 수 없으며, 資本主義的 經濟關係를 打破함으로써만이 이러한 矛盾을 克服하는 生産力의 發展을 可能케 한다고 보았다. 資本主義的 生産에 內在하는 根本的 矛盾을 解決하는 唯一한 길은 勞働者階級の 鬪爭을 통해 生産手段을 「資本家的 所有」에서 「社會的 所有」로 轉換시키는 것 뿐이라고 主張한다. 이러한 窮極的인 目標을 爭取할 때까지 階級鬪爭은 不可避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共產主義 階級鬪爭論은 經濟的 鬪爭을 輕重하며 그것을 政治的 奪取라는 政治鬪爭으로 發展시키려고 피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

2. 階級鬪爭論 批判

階級鬪爭論은 한마디로 말해서 階級間的 協力的인 面을 全혀 排除·無視하는 一種의 煽動論이다. 지난 날이나 오늘날에 있어서 勞働者들은 實際에 있어서 自身들의 問題를 共產主義的 階級鬪爭 方式으로 解決하는 것을 拒否해 왔고 또 拒否하고 있다. 英國은 改良主義에 의해 資本主義에 의해 資本主義制度에서 露呈되는 弊端을 是正하므로서 資本家와 勞働者間的 對立을 解消하고 오히려 協力を 具現하는 본보기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프롤레타리아」만을 歷史上 選擧된 階級으로 보고 그들의 利益만이 社會全體의 利益이라고 보면서 이 利益을 爭取하기 위하여 無慈悲한 鬪爭

만이 있다고 보는 것은 現實과 너무나 距離가 먼 思考方式이다.

또한 人間關係를 階級으로 單純化하는 것 自体부터 事實에 背馳될 뿐만 아니라, 階級을 生産關係에서 생기는 貧富의 두 集團 即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2大 階級으로 集約·誇張해 본다는 것도 너무나 偏頗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로 階級을 兩極化시키는 見解는 現代 中間階層의 存在를 無視하는 理論이며 이를 說明할 道理가 없다. 오늘날 先進工業諸國에는 少數의 富裕階層과 比較的 少數의 貧困階層 사이에 大量의 中産層이 存在하고 있다. 이러한 中間階層은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한바와 같이 無産階級으로 轉落·吸收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反對로 오히려 富裕해지고 그 數도 漸次的으로 增大되고 있다.

또한 階級이 社會의 對立的 存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鬭爭으로 直結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團結된 階級の 힘은 이에 屬하는 사람들이 共通의 利害를 自覺하고 個人의 利害보다도 階級の 利害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意識을 가지지 않는 限 階級鬭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人間社會에 對立關係, 支配와 被支配의 關係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모든 것이 鬭爭으로 통하지는 않았으며, 歷史上 때때로 發生한 鬭爭의 모두가 階級鬭爭이었던 것도 아니다. 民族鬭爭이나 宗教鬭爭 같은 것도 歷史上에 남는 큰 鬭爭임은 嚴然한 事實이다.

現代國家에는 階級과 階級間에 利害對立을 超越하는 民族利害, 國民利害, 國民連帶意識과 같은 共通的인 利害가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階級の 對立과 鬭爭이 人間의 惡意보다는 여러가지 社會的 條件에 起因하고 生産手段의 私有가 存続되는 限 必然的이라고 우겨대는

것은 社会共通利益(國民的 利益)을 外面하고 革命이라는 目的을 爲해 手段을 가릴 必要가 없다는 虛構에 지나지 않는다.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体制의 顛覆은 革命的 方法 밖에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階級鬭爭에 대한 主要 關心은 經濟的인 것이 아니라 政治的인 것이었다.

오늘날 蘇聯이나 其他 共產諸國에서는 「마르크스」나 「레닌」이 予期치 못했던 事態가 發生했다. 이들 國家에서는 工業과 農業의 社會化로 階級構造를 變革시켜 놓기는 했지만 그들이 杜談하던 <階級 없는 社會>를 實現시키지는 못하였다. 共產主義者들은 <階級 없는 社會>를 地上에 實現하기 爲하여 「프롤레타리아」階級の 敵을 打倒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國家가 急速하게 消滅되어 가고 勞動者들의 福祉가 向上될 것이라고 期待하였다. 그러나 그와는 反對로, 「유고슬라비아」의 前副統領「밀로반·질라스」가 指摘했듯이 搾取階級에 代置된 <새로운 階級>이 形成되고 있는 것이다. 課稅政策이나 賃金政策은 官吏, 經營者, 科學者, 軍人等 特權層에 有利하게 實施되고 있으며, 모든 面에 있어서 支配와 被支配의 現象이 새로운 形態로 登場하고 있다. 그리하여 <階級 없는 社會>의 建設이란 하나의 白日夢에 지나지 않았으며,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보다도 더욱 甚한 貧富의 差와 이에 따르는 階層의 兩極相을 두드러지게 露呈하고 있음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共產主義者들의 階級鬭爭論은 「프롤레타리아」의 經濟的 福祉를 犧牲시키면서 毛沢東이 指摘하듯이 「社會帝國主義」를 出現시켰다. 共產主義 社會의 새로운 特殊階級은 貪慾的이고 滿足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取奪 當하는 無權利한 一般大衆은 가난할 수 밖에 없다. 共產主義社會에서 漸漸 擴大되는 官僚主義와 끊임 없는 出世主義는 共產政權을 最大의 搾取機構로 轉落시키고 말았다.

<詳細 - 5> 革命論의 批判
3 - 2) - ②

1. 暴力革命論

本來 革命이란 傳統的 概念에 의하면 急激하게 政治權力の 担当者가 판관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政治現實의 面貌가 一新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은 單純한 政治權力の 奪取(政治革命)에 그치지 않고, 社會의 階級構造와 生産關係를 根本적으로 變革할 것을 目的으로 삼으며, 이를 「社會革命」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革命의 原因이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 및 衝突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社會形態 發展의 原動力을 生産力과 生産關係와의 矛盾에서 求한다. 生産力이 一定한 發展段階에 이르면 生産關係의 自己矛盾이 表面化됨에 따라 階級鬭爭과 社會革命으로써 社會制度는 旧穀이 무너지고 보다 높은 社會形態로 移行한다고 主張한다.

革命의 原動力은 決코 非組織的 大衆의 散發的 蜂起나 地域的 내지는 一時的인 暴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낮은 階級을 뒤집어 얻을 수 있는 組織化된 前進的 階級에 의한 全國的 蜂起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革命이 成功하기 위해서는 『下屬이 낮은 것을 바라지 않을 뿐더러 上屬이 從前 方式으로 해 낼 수 없을 적에 비로소 革命은 勝利한다』(「레닌」)는 것이다. 이러한 客觀的 條件外에도 主觀的 條件으로서 革命的 階級の 組織性과 意識性이 必要한데 이를 위해 「마르크스」~「레닌」主義黨이 強力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革命은 階級鬭爭의 不可避한 結果이며 革命的 變革 없이는 새로운 社會는 誕生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資本主義 國家는 「부르조아」獨裁이고 그 支配階級の 榨取·抑壓力量은 순

순히 물러나지 않고 打倒되더라도 復活을 노리는 만큼, 奴隸化된 階級의 解放은 暴力革命 없이는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暴力은 旧社会의 죽음의 苦痛을 短縮하는 時間을 節約함과 同時에 反動勢力의 組織化를 未然에 防止하고, 또한 一般大衆이 革命의 性格을 分析할 時間餘裕를 주지 않는 奇襲的 效果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暴力革命이란 政治勢力으로 結束된 「프롤레타리아」가 流血의 暴力鬪爭을 통하여 資本主義社会를 顛覆하고 社会主義 国家体制를 樹立하는 것을 말한다.

2. 暴力革命論 批判

「마르크스」의 暴力革命論은 적어도 現代의 先進 資本主義国家에서는 適用될 可能性이 極히 稀薄하다는 点에서 批判을 免할 수 없다. 政治的 自由가 保障되고 議會制度가 發達한 나라에서는 勞動者가 多數를 차지해도 그들은 共產革命을 願치 않는다. 先進 資本主義国家의 勞動者들의 生活은 滿足할만한 것은 못되지만 漸次的으로 向上되어 가고 있으므로, 「마르크스」의 予言대로 그들의 生命을 犧牲하면서까지 革命을 일으킬만한 「物質的 條件」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設使 그러한 條件이 具備되었다 하더라도 果然 一般大衆이 單一目標를 向해 團結力을 發揮하고 「부르조아지」의 強固한 武装軍隊와 警察을 粉碎하는데 成功할 수 있는 것인지 疑心치 않을 수 없다. 要컨데 先進 資本主義国家에서는 大衆의 生活水準의 向上과 民主政治의 發展으로 말미아마 大衆을 基盤으로 하여 遂行될 共產主義 革命의 可能性은 存在하지 않으며, 設或 爆發한다 하더라도 成功 可能性은 極히 稀薄한 것이다.

共産主義의 階級革命論은 普遍妥當性 있는 政治理論이 아니라 特定 國家의 暴力革命을 合理化한 것에 不過하다. 오늘날 蘇聯과 中共을 除外하고는 暴力革命을 통해서 共産化된 나라는 없다. 本來 唯物史觀에 의하면 資本主義의 經濟的 成熟은 社會主義革命의 前提條件으로서 資本主義의 崩壞를 必然적으로 招來한다는 것이었으나, 「레닌」은 革命의 客觀的 條件은 一國의 經濟的 成熟에 있는 것이 아니라 政治的인 階級關係 如何에 달렸으며, 革命을 遂行할 主體的 力量의 成熟이 關鍵이라고 보면서 人爲的 革命論을 主張하여 共産主義 理論의 矛盾을 露呈시켰던 것이다.

暴力革命論은 少數의 職業的 革命家(共産黨)가 遂行하는 「테러」와 挾雜을 辯明하는 理論的 「캄푸라지」에 不過하며 決코 大衆의 支持를 얻은 革命이 아니었다. 1971年 10月 革命 當時 「러시아」 共産黨의 黨員數는 約 8萬名에 不過했으며, 1941年 「유고슬라비아」 共産黨은 겨우 1萬名의 黨員으로 暴力革命에 着手하였던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은 共産主義 革命戰術 形態의 하나인 「테러」戰術을 禮讚하며 崇拜한다. 그러나 暴力革命은 決코 必然的인 것도 아니며 禮讚할만한 것도 아니다. 暴力은 最善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것 必要惡에 不過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充實한 弟子인 「카우츠키」도 暴力革命을 社會主義革命의 不可欠의 條件이라고 主張한 「레닌」을 痛駁하였던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의 指導政黨을 自處하는 共産黨은 마치 그 나라의 民主勢力을 代表하고 民主化의 歷史的 使命을 지닌 듯이 假裝하면서 革命에 있어서는 苛酷한 強制와 卑屈한 偽善을 同時에 驅使한다. 그리하여 革命 遂行을 위해 農民과의 同盟戰略을 追求하면서 農民을 利用하기만 하는 것이다.

暴力革命은 國民에게 加一層의 不幸을 招來하며 國際적으로는 平和 共存을 拒逆하는 것이다. 暴力革命은 비록 成功한다 하더라도 國民에게 해야될 수 없는 犠牲과 破壞만을 안겨 주며, 一旦 失敗하더라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社會를 끊임 없는 不幸의 惡循環으로 몰아 넣게 되는 것이다.

蘇聯 共産黨은 1956年 第20次 黨大會에서 「平和革命論」을 提唱하였다. 即 戰爭은 不可避한 것이 아니며 平和共存戰術에 의해서도 革命은 可能하다는 것이었다. 또 1960년에는 「民族的 民主主義」를 主唱하면서 急激한 暴力革命과 早速한 「프롤레타리아」獨裁를 回避한다는 姿勢를 보여 中共과 對立하게 되었던 것이다.

<詳細 - 6> 「프롤레타리아」獨裁論 批判
3 - 3) - ②

1. 概 要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은 「暴力革命」으로서 「부르조아지」의 階級支配를 打倒한 다음에 「프롤레타리아」에 依한 階級支配를 이룩하고 同時에 「부르조아」階級の 手中에서 모든 生産手段을 빼앗는 등 反革命的 要素를 除去하기 爲해서는 「프롤레타리아」階級の 獨裁가 過渡的段階로서 不可避하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 그리 하여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政治機構로 「마르크스」는 1871年の 「파리 공문」을 들었다.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은 「레닌」과 「스탈린」에 이르러 크게 強調되었다. 特히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獨裁에 부과된 任務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① 資本家들의 權力復活企圖의 粉碎

② 労働者들이 組織化

③ 帝國主義와 싸우기 爲한 革命的 武装化 等이다.

2. 批 判

「프롤레타리아」獨裁는 다음과 같은 點에서 批判의 要素를 안고 있다.

①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에의 過渡期에 있어서의 唯一한 支配形態로서 「프롤레타리아」階級政黨 以外の 어떠한 競争的인 政黨도 그 存在를 단호히 배제하고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唯一黨에 依한 獨裁政治이다. 그곳에는 立法機關이 民意를 代表할 必要가 없으며 重要的 政策이나 法律案은 直接 立案할 必要가 없으므로 複數政黨의 存在가 不必要한 것이다.

오늘날 共產國家의 現實은 勞動階級の 獨裁도 아니고 오직 共產黨의 獨裁이며, 나아가서 共產黨 소수 지도자의 獨裁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밀로반·질라스」는 共產主義 政府는 黨의 政府라고 까지 개탄한 바 있다.

②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名分은 反革命을 抑制하기 爲한 것이라고 하나 실은 共產黨政權 내지 獨裁者의 權力을 維持하기 爲한 反對派의 肅清口實로 活用되고 있을 뿐이다.

③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多數의 勞動階級에 依한 小數者에 對한 獨裁라는 뜻에서 「브르조아」獨裁와 對比시키고 이를 民主主義的이라고 과찬하고 있으나 資本主義社會에서 「브르조아」獨裁가 存在하지 않은만큼 이는 虛構에 찬 理論에 不過한 것이다.

④ 「프롤레타리아」獨裁는 새로운 主從關係를 탄생 시켰다. 卽

政敵의 肅清, 反革命分子의 掃蕩, 旧指導者의 除去등 너무나 많은 人命을 犧牲시켜, 黨과 個人의 權力을 独占化 함으로써 새로운 形態의 搾取階級을 造作해 낸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政治權力이 都市와 農村의 勞動人民에게 있다고 宣傳하며 滿場一致制로 끝나버리는 「소비에트」 選舉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자랑한다. 여기에 「프롤레타리아」 獨裁論의 虛構性이 있는 것이다.

< 詳細 7 > 國家死滅論 批判
3 - 4) - ②

1. 概 要

于先 共產主義者들은 國家란 階級의 發生과 함께 생긴 것으로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을 搾取하고 暴力으로 支配하기 爲한 組織에 不過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搾取와 被搾取의 階級關係가 消滅되면 國家도 當然히 消滅된다는 主張한다.

그러나 「레닌」은 「마르크스」와 「엔겔스」의 國家論을 一部 왜곡하여 國家의 撤廢는 暴力革命에 의한 撤廢를 意味한뿐 國家自體의 最終的인 철폐나 消滅을 意味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國家는 「프롤레타리아」 國家로서 再生되어 그것이 오랜 期間이 經過한 다음에 비로소, 死滅된다는 것이다.

「레닌」은 國家死滅 過程을 다음 세 段階로 区分하였다.

첫째로, 資本主義 社會로부터 共產主義 社會로의 移行期에 있어서는多數者인 被搾取者가 少數者인 搾取者들 抑壓하기 爲한 特殊機構로서 國家가 必要하며 그것은 國家가 存在하지 않는 共產主義 社會에의 過渡期的 國家 即 半國家의 段階이다.

둘째로, 共產主義社會의 第1段階 다시말해서 社會主義 社會에서는 벌써 資本家도 없고 階級도 없으므로 어느 階級을 抑壓할 必要가 없다는 意味에서 國家는 死滅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직도 「부르쥘아」의 權利의 잔재가 많이 있으므로 國家가 完全히 死滅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不完全한 國家의 死滅 段階이다.

셋째로, 生産力의 巨大한 發展으로 말미아마 分業이 없어지고 精神勞動과 肉體勞動과의 区分이 없어짐에 따라 共產主義의 높은 段階로 進展하면서 國家는 完全히 死滅한다.

이와같이 「레닌」은 「프롤레타리아」革命이 「프롤레타리아」國家를 實現하고 더 나아가서는 「프롤레타리아」國家도 死滅過程을 밟게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2. 批 判

國家死滅論은 다음과 같은 矛盾을 가지고 있다.

① 國家를 단지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을 支配, 榨取하기 위한 機構라고 主張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經濟的 事實에서 判斷한다면 國家의 存在 理由는 被支配階級の 抑壓機關으로서 存在했다기 보다는 實로 人間全體를 爲하여 그것이 普遍的 價値를 가진 機能을 遂行해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國家의 存在 理由는 그의 公共的 性格에 있는 것이므로 社會의 秩序 維持와 國民福祉 增進을 目的으로 하는 機能的 任務를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는 것처럼 國家는 階級の 榨取機關으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階級間的 榨取를 배제하는 方向에서 그 機能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② 오늘날의 共產主義 國家들은 歷史上 보기드문 가혹한 權力을 行使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스타린」은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의 國家死滅論을 大幅 修正하여 資本主義 社會가 남아있는 限 소련이라는 強制機構를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強化해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다. 즉 “設使 全世界가 共產化 된다고 치더라도 經濟의 組織化와 思想的 教育을 爲하여 國家行政機關과 같은 形式의 中央統制機關은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主義의 「國家死滅論」은 實現될 수 없는 架空的인 환상론임을 스스로 自認한 結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共產國家에서 政治를 斷行하기 爲하여 보다 가혹한 國家機能을 惡用하고 있다는 現實을 볼 때, 「國家死滅論」은 黨獨裁를 合理化하는 名分的理由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③ 共產主義者들은 國家를 必然的이고 絶對的인 惡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國家는 人間이 만든 것이며 人間의 個性과 尊嚴性을 保護하기 爲하여 그의 創造的 努力을 다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때문에 國家는 必要惡이 아니라 오히려 그 反對인 것이다.

外部勢力으로부터의 侵略에 對處하여 對外的으로는 國民과 國土를 防衛하며 對內的으로는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는 安保機構로서의 國家의 必要性은 날이 갈 수록 增大해 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教育, 保健, 社會保障制度・交通・체신等 公共福祉機構로서의 國家의 役割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國家는 支配階級の 利益보다 오히려 國民大衆의 利益을 더 크게 配慮하고 있는 것이다.

④ 共產主義者들이 地上樂園이라고 하는 共產國家의 現實은 한마디로 말해서 폐쇄된 統制社會인 것이다. 英國의 俗談에 滿足한,

바보가 되는 것보다 不滿足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드시 뭐니뭐니해도 人生의 目的은 人格과 個性의 成長과 發展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오늘의 共產國家의 現實에서 共產國家는 本質적으로 一黨獨裁 國家이며 一大兵營의 社會이며 軍事的 官僚國家이며 秘密警察의 統制 社會임을 잘 알고 있다. 그곳에는 職業選擇이나 居住移轉 및 旅行의 自由조차 認定하지 않고 있으며 良心의 自由, 信仰의 自由는 말할 것도 없고 罷業이나 賃金引上의 要求權도 許容되지 않고있기 때문에 人間의 基本權은 完全히 剝奪당하고 있는 것이다.

< 詳細 8 > 前衛黨論 批判
3 - 5) - ②

1. 概 要

「레닌」은 모든 勞動階級이 한결같이 「마르크스」主義的 階級意識으로 武装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래서 勞動者 階級을 階級意識이 微弱한 勞動組合主義的 大衆組織과 「마르크스」主義的 階級意識이 透徹한 少數의 精銳와 職業的 革命家로 区分하여 後者에 依해서 構成된 前衛黨이야말로 革命을 主導할 수 있다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한편 「레닌」은 前衛黨에는 組織의 硬固性和 行動的 性格 그리고 指導性이 뒤따라야 한다고 強調했었다.

그리와 「레닌」과 「스타린」은 共產黨의 特徵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提示하고 있다. 즉, 黨은

- ① 勞動者 階級の 核心的 前衛隊이며
- ② 勞動者階級の 組織된 指導部隊로써 (中央黨部가 黨活動을 指導

하는 原則, 일단, 決定된 事項을 鐵의 規律로써 遵守시킨다는 原則等)

「中央集權制」를 組織原則으로 삼는 「프롤레타리아」獨裁를 斷行하기 爲한 政治 道具이며

③ 「프롤레타리아」 階級組織의 最高 形態이며

④ 一切의 分派를 許諾하지 않는 單一意思의 統一체로서 「批判」과 「自我批判」을 活用한다는 것이다.

2. 批 判

階級鬭爭의 前衛組織으로서의 共産党理論의 虛構性은 다음과 같다.

① 아무리 階級을 主導하는 階級政黨일지라도 國民的, 民族的, 利益을 無視할 수는 없는 것이다. 特히 오늘날의 國際關係에 있어서 모든 國家가 超黨的이고 超階級的인 立場에서 國家의 總力을 集結하고 있는 現實을 볼 때, 共産主義者들이 主張하는 前衛黨論은 國民的, 民族的, 利益을 無視한 少數階級の 利益만을 追求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② 共産主義者들이 主張하는 前衛黨理論은 結局 黨과 個人獨裁를 強化하기 위한 方法論이다. 「레닌」이 말한대로 共産黨이 勞動者 階級에게 革命的 階級意識을 注入한다면 「프롤레타리아」獨裁란바로 「프롤레타리아트」에 依한 「黨의 獨裁」를 意味하게 되는 것이며 黨의 獨裁도 少數의 黨政治委員이나 黨最高指導者에 依하여 움직여 진다면 結局 前衛黨理論은 個人獨裁를 合理化하는 手段에 不過한 것이다.

여기에 黨의 最高指導者에 對한 偶像化가 必然的으로 나타나게 되

며 그 예로 소련의 「레닌」과 「스타린」의 個人崇拜는 말할 것도 없고 中共의 文化大革命 以後 毛沢東 思想의 神聖不可侵性이나 金日成 唯一思想의 絶對性等 個人에 對한 神格化를 들 수 있을 것이다.

③ 共產主義者들은 所謂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 組織原理를 가장 民主主義的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共產黨이 眞正한 民主主義的 機構라고 한다면 自由討論이나 少數意見이 尊重되어야 함은 勿論 少數派나 分派의 存在도 許容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共產主義 國家에서는 이러한 事例를 볼 수 없을 뿐더러 共產黨 指導部에는 「誤謬란 있을 수 없다」는 所謂 「無誤謬性」과 「絶對性」을 내세우고 있는 實情임으로 共產黨의 所謂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는 獨裁를 偽裝하기 爲한 「民主主義」라는 用語의 濫用에 不過한 것이다.

④ 共產黨이 곧잘 使用하는 「自我批判」은 共產主義의 發展을 爲한 兪쇠로 活用하고 있다. 그들은 自我批判을 다음과 같은 目的에서 使用한다.

첫째는, 上部黨部에서 이미 決定한 政策을 完遂하기 爲하여 모든 關心을 이에 集中시키고

둘째는, 共產主義에 懷疑를 느끼는 幹部를 組織적으로 洗腦하여 自己들의 目的에 맞도록 再訓練시키며

셋째는, 指目된 黨幹部를 무자비하게 규탄하며

넷째는, 黨의 無限한 權力과 能力을 黨員에게 誇示하기 爲해서이다.

이것은 黨員個人은 誤謬를 犯하지만 全體的인 黨은 決코 誤謬를 犯하지 않는다는데에 根拠를 두고 있는 바 이는 共產黨이 黨의 統制를 強化하고 黨員을 그들의 손아귀에 掌握키 爲해서이며 北韓의境

遇 「相互批判」이나 「読報会」도 이와 類似한 性質의 것이다.

<詳細 9>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平和共存論
3 - 6) - ②

1. 概 要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는 世界 各國의 勞動階級이 自己나
라 및 世界 革命을 위해서 國家的, 民族的 理解關係를 超越해서 團
結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平和共存論은 「스타린」以後 소련의 外交路
線을 反映한 것으로서 武力에 依한 世界赤化가 그 可能性이 稀薄하
다는 評價下에 非武力的 方法에 依한 世界革命의 길을 모색한 것이
다.

2. 批 判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는 世界各國의 勞動者들에게 소련을
중주국으로 삼기게 하려는 目的에서 發達한 것이나 共產主義 國家가
實際로 勞動者들의 權益과 幸福을 구현할 수 없다는 事實이 들어남
으로써 이는 世界 勞動者들에게 아필하지 못하고 일종의 환상론으로
그치고 말았다.

平和共存論도 戰爭을 通하지 않고 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를 부
식시켜 世界赤化를 劃策하려는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共產主義의 好
戰的 性格 乃至 鬭爭的 本性을 拋棄한 것이 아니라 軍事力의 均衡
이 깨어지면 언제든지 戰爭을 惹起시킬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1. 勞動價值說

「마르크스」의 經濟理論은 그의 大著<資本論>에서 集大成되었는데, 그는 勞動價值說을 그의 經濟理論의 礎石으로 삼았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商品이 一定한 價值를 가지는 理由는 商品의 生産過程에 있어서 人間의 勞動이 投入되기 때문이라고 하여, 勞動은 商品의 價值를 形成하는 實質로 把握하고, 또한 商品의 價值를 測定하는 尺度라고 하였다. 即 商品價値의 大小는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投入된 勞動量의 大小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이다.

한편, 勞動에 의하여 創出된 商品은 人間의 慾望을 滿足시키는 使用價值와 經濟의 流通過程에서 去來될 때에 있어서의 交換價值를 가져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특히 商品의 交換에 있어서는 두가지 問題가 提起되는데 그 하나는 商品은 어찌서 交換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交換이 된다면 무엇이 交換比率의 基準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商品이 交換되는 理由는 各商品이 交換價值를 달리하며, 서로 다른 商品을 生産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具體的인 有用勞動이 投入되기 때문이다. 다음에 두 商品이 一定한 比率로 서로 交換될 수 있는 理由는 이들 商品에 共通되는 것이 包含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共通物은 여러 모로 質的 差異가 있는 使用價值도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낸 具體的인 有用勞動이 될 수 없으며, 社會的으로 必要한 平均的인 勞動으로서의 抽象的인 人間勞動에 不過하다고 主張하였다. 不必要한 勞動은 商品價值를 創出하지 못하며, 社會的 平均水

準에서 距離가 먼 勞動量은 商品의 價値를 規制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勞動量은 勞動時間으로 測定하므로 商品의 價値는 그것을生産하기 위하여 社會적으로 必要的인 平均勞動時間에 의하여 決定된다. 即 商品의 交換價値는 抽象的 勞動에 依存하게 되며, 또한 抽象的 勞動이란 社會적으로 必要的인 平均勞動이라고 한다.

따라서 投下勞動이면 무엇이든 價値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社會의 必要를 充足시키는 勞動이어야 하고, 同時에 社會的 平均에 接近된 勞動量만이 價値를 形成한다는 것이다.

2. 勞動價値說 批判

勞動價値說은 「마르크스」經濟理論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을 基盤으로 하여 「마르크스」는 剩餘價値說을 誘導하고 資本主義의 發展과 沒落에 대한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勞動價値說이 무너지면 搾取의 理論的 根拠가 없어지게 되고 同時에 「마르크스」經濟學의 全理論體系가 무너지게 된다.

勞動價値說은 許多한 論理的 矛盾을 內包하고 있는데 그 中에서 重要的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勞動價値說에 의하면 모든 商品 即 經濟的 財貨의 價値는 投下된 勞動의 量에 달려있다고 하나 異質勞動을 等質化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다. 勞動이라는 것은 財貨나 用役의 供給을 決定하는 一個의 要因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마르크스」의 말대로 한다면 機械에 대한 勞動者의 比率이 相對적으로 높은 輕工業部門에서의 利潤率은 높아야 하고, 그와 反對

로 機械에 대한 勞動의 比率이 낮은 重工業部門에서의 利潤率은 낮아야 한다. 그러나 實際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고 萬一 輕工業部門의 利潤率이 높다면 重工業部門의 勞動과 資本이 輕工業部門에 移動하게 되어 重工業部門의 生産後退는 그 部門의 利潤率을 높일 것이고 輕工業部門의 生産增大는 利潤率을 낮출 것이다. 이와 같이 競爭이 一般化되면 利潤率은 모든 産業을 통해 平均化되는 傾向이 있다고, 「마르크스」는 한편으로는 主張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平均概念을 濫用했으며 需要와 供給關係에 의한 價值變動을 充分히 다루지 못한 것이었다.

세째, 「마르크스」의 價值說은 商品價値의 形成에 있어서 勞動 以外の 生産要素의 役割을 無視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그의 分析對象을 勞動生産物에만 局限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큰 잘못이다. 모든 商品의 價値는 그 商品의 供給과 需要에 의하여 決定되는데, 勞動價値說은 商品의 供給에 影響을 미치는 一個의 生産要素인 勞動만 考慮하고 있으며 그 商品에 對한 需要의 側面은 度外視하고 있어 여기에 價值論으로서의 勞動價値說의 決定的인 欠陷이 있는 것이다.

네째, 「마르크스」의 價值說은 또한 循環論法의 誤謬를 犯하고 있다. 卽 勞動이 價値의 尺度라면, 勞動 그 自體의 價値는 무엇으로 說明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結局 財貨의 價値는 勞動에 의하여 決定되고, 勞動 그 自體의 價値는 勞動生産物의 價値로 說明하게 되고 그 勞動生産物의 價値는 또다른 勞動으로 說明하게 되어 循環論法의 誤謬를 犯하게 된다.

다섯째, 勞動價値說을 가지고는 勞動生産性의 變化를 說明할 수 없다. 勞動價値說에 의하면 生産物의 價値는 投下된 勞動量에 의하여決

定된다. 따라서 一定한 勞働人口가 一定한 勞働時間 동안에 일해서 生産한 生産物의 價値의 總量은 一定하다. 假令 技術進歩로 生産性이 倍加하여도 價値量에는 變化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經濟理論에 立脚할 경우, 勞働人口의 增加 以外의 要因에 의한 經濟成長이라는 現象을 說明할 道理가 없는 것이다.

<詳細 11> 剩餘價値說의 批判
4-3) -②

1. Marx의 剩餘價値說

Marx의 剩餘價値說은 經濟發展에 대한 그의 分析의 基本을 이루고 있다. 그의 見解에 의하면 資本主義 社會는 資本階級과 勞働者階級の 두 階級으로 構成되고 있는바 前者는 모든 生産手段을 가지고 있고, 後者는 前者에게 勞働力을 팔아서 生存할 수 있을 따름이다. 資本家들이 所有하는 生産手段과 勞働者들이 提供하는 勞働力이 結合하여 商品의 生産이 이루어지는데, 生産되는 商品의 價値는 生産過程에서 投下된 資本과 勞働의 價値보다 더 큰 것이다. 다시 말하면, 産出된 財貨의 價値는 그것을 生産한 勞働者들의 生存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것의 價値 및 生産過程에서 使用된 資本의 價値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다. 이 超過分을 剩餘價値라고 부른다. 이 剩餘價値는 利潤, 地代, 利子 등의 形態로 資本家들에게 돌아간다.

이와 같은 剩餘價値는 어떻게 생기는가? 「마르크스」에 의하면 資本家が 市場에서 사들여 生産에 使用하는 勞働力은 그것이 使用되는 過程에서 그 自体의 價値보다 더 많은 價値를 生産할 수 있는 매우 特異한 能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勞働力의 價値는 무엇인가? 勞働力의 價値는 모든 다른 物件의 價値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生産 或은 再生産하기 위하여 必要한 勞動時間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이다. 即 勞動力の 價値는 勞動者의 生活를維持시킬 수 있는 最小限度의 生活資料의 價値와 一致한다는 것이다.

勞動以外の 生産手段은 生産過程에서 그 自體의 價値가 그대로 生産物에 移轉될 뿐이지만(即 剩餘價値를 生産할 수 없지만), 勞動力은 그 自體의 價値 以上の 剩餘價値를 生産할 수 있으며 이 剩餘價値는 資本家들의 搾取에 의하여 그들의 手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依하면 剩餘價値가 資本家の 手に 들어가게 되면 그 一部分이 生産에 再投下되어 價値가 増殖되고 資本이 蓄積되어 資本主義가 發展하고, 또 이러한 過程을 거치는 동안에 資本主義의 内部的인 矛盾, 즉 勞動者와 資本家間의 階級鬭爭에 의하여 드디어는 沒落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勞動價値說을 基礎로 하여 資本家에 依한 勞動者의 搾取關係를 밝히는 剩餘價値論으로 利潤의 本質을 規定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資本家들은 恆常 剩餘價値를 極大化하려고 努力하는데 一定한 勞動者의 雇傭水準을 가지고 剩餘價値를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方途가 있다. 첫째는 勞動時間의 延長이고, 둘째는 勞賃支払을 적게하는 것이며, 셋째는 生産技術을 改善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첫째와 둘째는 그 適用의 限界가 있고, 셋째가 가장 重要한 方法이 된다.

따라서 資本家들은 恆常 生産技術을 改善할 必要性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恆常 資本을 蓄積하여 勞動에 대한 資本裝備率을 提高시켜야 한다.

노동의 社会的 増大는 한편으로는 資本中에서 차지하는 可變資本部分의 相對的 減少를 招來하여 勞動者의 相對的 過剩人口 即 産業予備軍을 資本의 蓄積과 集中을 促進하는 同時에, 다른 한편으로는 累進的으로 増大시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富의 蓄積과 貧困의 集積이 同時에 進行되는 가운데 資本家は 勞動者를 搾取하게 된다고 한다.

2. 剩餘價值說 批判

前述한 바와 같이 勞動價值說은 大部分의 經濟學者들에 의해 排斥되고 있는데, 剩餘價值說 亦是 科學性이 欠如되어 있으며, 經濟理論의 角度로 볼 때에도 到底히 納得할 수 없는 主張으로 一貫되어 있다. 이에 對한 批判의 要點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理論의 根本的인 難點은 生産物의 價值나 利潤의 根拠가 勞動만에 의해서 創出된다는데 있다. 商品의 價值는 資本과 勞動의 協同으로 生産됨으로 그 價值는 當然히 資本과 勞動의 兩便에 歸屬하여야 한다. 「마르크스」는 그 價值가 勞動만으로 創造되기 때문에 勞動者가 그 價值를 全部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勞動의 生産性만 認定하고 資本의 生産性은 認定하지 않는데 起因하는 것이다. 오늘날 高度로 發展한 産業體制에 있어서 資本의 重要性은 強調할 必要조차 없는 것이며, 資本의 生産性を 認定하지 않고 勞動으로 生産된 剩餘價值를 搾取한다는 理論은 아무런 妥當한 根拠가 없는 것이다.

經濟學說史의 見地에서 볼 때 「마르크스」理論은 하나의 生産費用 價值決定說이며, 이는 近代的 立場에서 볼 때에 너무나도 原始的인 理

論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近代 經濟學者들이 利潤의 源泉을 隱蔽하기 위하여 利潤이 商品 流通過程에서 發生하는 것으로 主張한다고 非難하면서 利潤은 生産過程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商品價値의 交換比率은 需要와 供給의 關係에 따라서 變動하며,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等價交換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利潤은 商品의 流通面에서도 얼마든지 發生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점에서 또한 誤謬를 犯하였다.

賃金の 水準은 勞動力의 再生産費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마르크스」의 主張도 매우 터무니 없는 것이다. 卽 「마르크스」는 勞賃이 恒常 勞動者의 最少限의 生活費를 保障하는 線에서 決定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何等 根拠없는 主張이다. 經濟가 高度로 發達한 歐·美의 경우를 보면, 勞賃 亦是 勞動生産性과 같이 恒常 上昇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産業予備軍이 必然的으로 抬頭하여 이들이 굶주림에서 헤메고 있는 現實을 資本主義國家의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가?

現代의 勞動者는 「마르크스」가 말한바와 같은 굶주림에서 허덕이는 悲慘한 存在가 아니라, 相當한 社會的 富의 投下로 이루어진 知識과 技術을 지니고 있는 人間資本이며, 그들에 대한 報酬도 「마르크스」가 말한 바와 같은 悲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先進資本主義國家들의 경우를 보면 매우 뚜렷한 것이다. 勞動者에 대한 榨取가 存在한다면,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資本家에 의한 것보다는 오히려 「勞動者들의 樂園」을 만들겠다는 共產主義社會 바로 거기에 存在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共產主義社會에서의 剩餘生産物은 國民의 福祉向上을 위해서 使用되지 않고 軍事力이나 獨裁機構 強化에

使用되거나 共産黨員, 行政官僚, 軍의 幹部等 < 새로운 支配 階級 > 의 奢侈스러운 生活을 위하여 탕진되고 있는 바, 共産主義 内部에서 오히려 勞働者들에 대한 搾取가 더욱 甚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詳細 12 > 資本主義崩壞論 및 帝國主義論 批判

4 - 4) - ②

< 詳細 13 >

4 - 5) - ②

1. 資本主義沒落論 및 帝國主義論

「마르크스」는 勞働價值說과 剩餘價值說을 前提로 하여 資本主義社會의 沒落과 社會主義社會 出現의 必然性을 主張하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資本家들은 勞働者들의 剩餘價值를 搾取하는데, 이것이 利子, 地代, 利潤等의 形態로 有産階級の 手中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勞働者로부터 얻은 剩餘價值는 資本家에 의하여 蓄積되어 그것이 다시 資本으로 轉換된다. 이와 같은 價值增殖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資本蓄積으로 資本主義 經濟가 發展되어 간다. 資本蓄積은 先 雇傭의 增大를 가져오며 勞働階級에 有利한 作用을 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常識일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勞動力에 대한 需要의 增大가 賃金を 上昇시켜 利潤率에 不利한 壓迫을 加하게 되면, 資本家は 높은 賃金으로 勞動力을 雇傭치 않고 産業의 機械化나 技術의 革新을 凶謀하게 된다. 그 結果 이미 就業하고 있는 勞動力이 解雇되거나 追加적으로 雇傭될 勞動力의 就業을 어렵게 할 것이다.

새 技術의 開發은 勞働節約의 임으로 可變資本에 對한 不變資本의 相對的 增大를 가져와 資本의 有機的 構成을 더욱 高度化한다. 이것

은 可變資本의 낮은 剩餘價值額의 低下가 되어 利潤率을 低下시킨다. 그러므로 資本家は 보다 많은 利潤을 얻기 위하여 보다 많은 資本蓄積을 하여 生産費를 引下하도록 努力한다. 이러한 資本家間의 競争은 劣等企業을 倒産·吸收·合併시켜 資本의 集結과 集中을 進行시키므로써 結局은 少數의 資本家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高度化로 勞動者의 雇傭이 相對的으로 減少됨으로써, 相對的인 過剩人口는 産業予備軍으로서 勞動市場에 나타나 就業勞動者의 賃金を 低下시킨다. 이리하여 勞動者는 貧困化하고 失業者는 增大한다. 이러한 傾向에 따라서 資本主義經濟는 結局 過剩生産과 過少消費의 矛盾 即 不況을 일으켜 資本主義의 危機를 招來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難關을 克服하려는, 資本家들의 努力은 海外로의 資本輸出, 獨占的 結合에 의한 榨取体制의 強化, 植民地 獲得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資本主義의 矛盾을 어느 程度 一時的으로 緩和하여 資本主義의 沒落을 延期시키기는 하나 回避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自由競争이 支配하던 資本主義는 後에 獨占이 支配하는 資本主義로 發展한다고 보았는데, 「레닌」은 前者를 産業資本主義, 後者를 獨占資本主義 또는 帝國主義라고 規定하였다. 「레닌」에 의하면 帝國主義는 資本主義의 獨占的 段階로서 그 歷史的 地位는 資本主義의 最後의 段階이며, 社會主義革命의 前夜라는 것이다.

「레닌」은 帝國主義의 基本的인 特徵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資本主義가 帝國主義 段階에 到達하면 生産과 資本의 集積이 高度의 發展段階에 到達하여 經濟生活에 있어서 決定的인 役割을 하는 獨占體(生産, 市場 및 價格을 獨占的으로 支配)를 만들어 내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銀行資本이 産業資本과 結合하여 金融資本을 形成하고 이것을 基礎로 金融寡頭制를 만들어 냈으므로 金融機關에 대한 少數支配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独占資本主義 段階가 되면 独占 以前의 資本主義의 典型的인 特徵이던 商品輸出에 代身하여 最大限의 利潤을 追求하기 위한 過剩資本의 輸出이 典型的인 것이 된다. 이리하여 独占資本이 있는 少數의 富裕한 나라들이 資本輸出을 武器로 債務國을 商品市場이나 原料供給地로서 掌握한다는 것이다. 資本輸出이 增大되어 對外關係와 巨大 独占體의 勢力範圍가 넓어지게 됨에 따라 國際独占體가 形成되어 市場의 分割, 價格政策, 生産規模等에 관하여 金融資本家 團體 사이에 經濟面에서의 世界分割이 이루어 진다. 이 經濟的인 世界分割을 土臺로 하여 資本主義 列強 사이에 領土에 對한 世界分割이 일어나 經濟的 領域의 獲得을 위한 鬭爭과 植民地 爭奪을 위한 紛爭이 激甚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레닌」의 帝國主義가 必然的으로 世家的 規模의 帝國主義 戰爭을 일으키고 帝國主義 밑에서는 國際平和는 決코 存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卽, 先進資本主義諸國은 自己의 몫을 보다 많이 하고 独占支配 領域을 擴大함으로써 서로 自己에게 有利한 勢力關係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不斷하게 鬭爭하여 勢力關係가 바뀌면, 市場再分割을 위한 鬭爭은 마침내 大規模의 戰爭을 誘發한다는 것이다.

2. 資本主義沒落論 및 帝國主義論 批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가 發展함에 따라서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高度化되고 그러는 過程에서 利潤率이 低下한다고 하였으나,

여기에는 論理的인 矛盾이 있다. 왜냐하면 利潤率이 低下한다면 그
의 또 하나의 主張 卽 實質勞賃이 勞動者의 最低生活의 維持線을 넘
지 않는다는 主張을 拋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事實上 資本主義의 發達史를 回顧해 보면 利潤率이 低下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資本主義經濟는 無秩序한 生産過剩에의
한 恐慌에 휩쓸리기 보다는 計劃性 있고 科學的인 管理에 의하여
安定的인 成長을 持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強調해야 할 것은 「마르크스」理論대로의 革命은 일어나지 않
았다는 事實이다. 「마르크스」의 理論에 의하면 資本主義가 成熟한
나라에서 社會主義革命이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實際로는 後進國家들인
蘇聯이나 中共에서 革命이 發生하였던 것이다. 이 事實은 「마르크
스」의 資本主義崩壞論과 어느 點에 있어서 符合하는 것인가? 資本
主義는 崩壞하기는 커녕 第2次大戰 以後 더욱 高度의 發展을 거듭
하고 있으며 오히려 沈滯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蘇聯을 爲始한 共
産國家인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은 資本主義經濟의 사소한 一時的 不均衡狀態를 보고 그
것을 誇張하여 그들이 가지는 虛妄한 歷史觀, 世界觀을 基礎로 하여
資本主義는 「必然的으로 崩壞한다」고 獨斷하고 있다. 그러나 이
獨斷이 空虛하다는 것은 歷史가 立証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들은
오늘도 억지로 現實에 눈을 가리우면서 活力을 잃은 自己들의 敎條
에 執着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主義者들은 弁証法的 發展을
強調하면서 資本主義에 대해서는 그 發展을 認定하지 않고 如前히 獨
占, 過剩生産, 恐慌, 大衆의 貧困化로 必然的으로 滅亡한다고 主張하면
서, 덮어놓고 資本家는 最大限 利潤의 追求에만 熱中하여 經濟와 社

회의 安定과 繁榮에 대해서 치른 成果를 無視하려고 한다.

最近에 와서 漸次로 明白해진 事實은 危機에 처해 있는 것은 資本主義의 經濟가 아니라 오히려 共產主義 내지 社會主義의 經濟라는 事實이다. 蘇聯에 있어서의 經濟發展의 不振은 共產黨 스스로가 認定하고 있을 程度이며, 中共이나 其他 共產諸國에서도 經濟成長이 停滯되고 갖가지 非效率的인 樣相이 露呈되고 있다. 그리하여 蘇聯에서는 社會主義的 生産方法의 非效率性을 克服하는 手段으로서 資本主義的 要素라고 할 수 있는 利潤制度를 導入하는가 하면, 東歐의 衛星諸國이 自由化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는 事實을 볼 때, 資本主義의 沒落은 고사하고 오히려 蘇聯式 共產主義의 沒落을 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 「레닌」의 帝國主義論은 「마르크스」式 歷史觀이 가지는 理論과 視野의 貧困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于先 独占資本主義의 段階라는 概念 그 自体가 虛妄한 것이다. 資本主義가 發展함에 따라서 各 産業이 独占化된다는 것이 歷史的인 必然性으로 說明되고 있는데, 勿論 <規模의 經濟>를 追求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大企業이 勃興하는 것은 事實이라 하겠으나, 資本主義가 發展함에 따라 모든 産業의 独占化 現象이 일어나야 한다는 理由도 없고 또 일어난 일도 없는 것이다. 先進 資本主義諸國의 産業史를 보면 20世紀에 들어와서 独占度가 오히려 漸漸 減少되고 있는 現象이 많다. 企業이 大規模化하고 있다는 것과 独占이 混同되어서는 아니 된다.

産業이 銀行의 金融資本에 의하여 支配된다는 見解도 매우 近視眼的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企業의 投資資金 調達方法은 各國의 經濟體制에 따라서 다르다 하겠으나, 資本主義가 發達함에 따라

企業의 資金은 銀行에 의하여 調達되는 部分이 오히려 減少되고 主로 利潤, 社内保蓄 혹은 減價償却을 利用하는 内部調達が 重要하게 되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企業은 또 많은 경우에 銀行을 통한 資金 調達方法보다 는 株式의 公募에 의하는 수가 많은데, 이들 資金의 源泉은 어떤 独占資本家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家計部門에 있어서의 零細한 貯蓄이 動員되고 있는 것이다.

資本主義 國家에서 原料의 供給이나 市場의 擴大를 위하여 後進地域에 대해서 資本投資를 한다는 것도 지금에 와서는 거의 払拭된現象이라 하겠다. 오늘날에 와서는 先進諸國이 後進地域을 援助하기 위하여 혹은 無償援助를 供與하고, 혹은 長期低利의 公共借款을 供與받았으며, 이를 위하여 많은 國際金融機關이 設立되어 後進國의 發展을 돕고 있는 것이다. 後進國들은 可及的 이와 같은 資本을 誘致하여 工業化를 서두르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이 매우 좋은 成果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過去の 帝國主義的 植民地 所有國家들은 第2次大戰後 植民主義를 清算하고 거의가 自進하여 植民地域들의 獨立을 援助하였을 뿐만 아니라, 經濟援助를 提供하여 經濟的 獨立을 成就하도록 하고 있다.

1948年 以後 亞·阿地域의 數 많은 新生 獨立國家들은 共產主義者들이 公言하는 이른바 反帝·反植民地 鬭爭을 通하여 獨立이 爭取된 것도 아니며,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은 帝國主義諸國 相互間의 紛爭의 結果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帝國主義와 植民主義를 追求하고 있는 實例는 오히려 共產國家에서 찾아 볼 수 있다. 蘇聯은 政治的으로 1939 - 49年 사이에 684,300Km²의 領土와 2,500万名에 가까운 人口를 併呑하였

으며, 經濟的으로는 2次大戰後 東獨, 「루마니아」, 「폴란드」 其他, 衛星諸國으로부터 莫大한 額數의 戰爭賠償金과 占領費를 徵收했고 滿洲, 北韓, 東歐諸國으로부터 産業施設, 原料 및 製品等을 戰利品으로 掠奪해 던 것이다. 同時에 一方的인 貿易協定, 合辦會社의 設立, 其他 經濟相互援助會議(「코메콘」)等을 통해 帝國主義的 收奪과 隸屬化 政策을 強行해 왔으며 아직도 強要하고 있는 것이다.

小單元 2 . 北韓의 現實

教 授 目 標

< 知 識 >

1. 北韓共產主義 体制의 特殊性을 國際潮流 및 共產主義 潮流의 觀點에서 指摘하고·說明할 수 있다.
2. 金日成<主体思想>의 要点을 指摘하고 그 政治的 底意를 說明할 수 있다.
3. 北韓의 政治体制의 權力構造 및 權力行使方法의 特徵을 指摘하고 說明할 수 있다.
4. 北韓 經濟体制와 經濟政策의 基本方向을 理解함으로써 北韓 經濟의 問題點을 指摘하고 說明할 수 있다.
5. 四大軍事路線을 中心한 北韓의 軍事戰略의 特徵과 性格을 指摘하고 說明할 수 있다.

< 態 度 >

1. 北韓의 政治權力的 体制와 그 權力行使 方法의 特徵을 批判하므로써 韓國 民主政治体制의 優越性을 確信한다.
2. 北韓 軍事戰略의 侵略的 特徵을 理解함으로써 이에 對備할 수 있는 國民的 能力과 國民總和的 경제 態度를 갖는다.
3. 南北의 政治, 經濟, 軍事能力의 比較를 통하여 國家發展에 對한 自負心과 우리의 統一 主導에 對한 自信心을 갖게 한다.

< 批判能力 >

1. 우리의 民族的 立場에서의 主体思想과 金日成의 Marx-Lenin 主義的 主体思想을 比較하고 批判할 수 있다.
2. 北韓 政治權力体制과 그 權力行使方法의 特徵을 批判하고 이에 對比하여 韓國의 民主政治体制의 長点을 指摘할 수 있다.
3. 北韓 經濟体制의 特性和 問題点을 分析하고 이에 對比하여 우리의 自由經濟体制의 長点을 指摘할 수 있다.
4. 平和 수호를 目的으로 하는 우리 軍事政策에 對比하여 侵略을 目的으로 하는 北韓의 軍事戰略을 批判하고 이에 對備할 수 있는 國民的 態度를 갖는다.

教授要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1. 北韓共產主義 特殊性</p> <p>1) 偽裝된 民族 的 立場</p> <p>2) 鬭爭的, 好戰 的 性格</p> <p>3) 教條主義體制</p>	<p>① 北韓이 武力赤化統一을 最高目標로 하면서 民族主義的 立場을 내세우는 것은 民族主義的 勢力과 제휴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目標을 達成할 수 없다는 判斷에서 나온 戰略戰術이다.</p> <p>② 共產主義는 原來 民族主義 立場을 拒否하고 있으나 北韓이 民族主義를 들고 나오는 것은 偽裝이다.</p> <p>③ 北韓은 民族主義와 더불어 愛國主義를 들고 나오나 그들이 말하는 愛國主義는 社會主義 祖國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傳統的인 意味의 순수한 것이 못된다.</p> <p>④ 北韓 共產主義가 내세우는 民族主義와 愛國主義는 歷史上 6.25 侵略으로 나타났다.</p> <p>① 北韓은 共產主義中에서 가장 好戰的이며 戰鬪的이다. - 金日成의 武力統一 思想때문</p> <p>② 金日成의 계속된 숙청과 暴力統治, 戰爭準備</p> <p>새로운 時代的 潮流에 適應하지 못하고 教條主義的 體制를 固守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p> <p>① 權力的 體制와 統治方法이 「스탈린」 主義的이며, 여기서 이탈하는 것은 現存政權에 크게 威脅이 되기때문</p> <p>② 國際共產主義運動과 世界赤化에 充實 하려고 하기때문</p>	<p>北韓이 임버릇처럼 들고 나오는 民族主義와 愛國主義는 우리가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意味가 다르며, 그와 같은 立場을 表明하고 나오는 底意를 分明하게 提示해야 한다.</p> <p>○ 原來 共產主義는 民族主義를 拒否(共產主義的 國際主義) 하는 立場이며 愛國主義는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라는 點을 分明히 해야 한다.</p> <p>北韓 共產主義가 鬭爭的 好戰的이라는 點은 두가지 側面에서 說明되어야 한다 한側面은 階級鬭爭論, 革命理論, 暴力理論等에 관련시켜 必然的으로 鬭爭的 好戰的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한側面은 公산국가내의 어느 共產主義者보다도 金日成은 武力을 信봉하는 獨裁者란 면에서 說明되어야 한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4) 閉鎖性</p> <p>2. 北韓의 主体思想批判</p> <p>1) 主体思想의 正体</p>	<p>北韓体制가 다른 共產 어느 國家보다도 閉鎖的인 까닭은</p> <p>① 外界에 대한 開放은 곧 그들 權力 体制 崩壞의 威脅이 되기 때문</p> <p>② 金日成과 共産黨을 無條件 盲信하고 追從하지 않으면 敵으로 간주하는 「스탈린」 時代의 思考를 脫皮하지 못하기 때문</p> <p>③ 새로운 時代思潮가 流入되는 것을 極히 두려워 하기 때문에 北韓은 오늘날 民主世界는 勿論 共產世界 다른 國家에 대하여도 가장 어두운 孤立된 狀態에 있다.</p> <p>① 用語의 使用</p> <p>1955年 12月, “思想事業에서 敎條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하고 主体를 確立할데 대하여” 라는 金日成演說에서 最初로 使用</p> <p>② 當時의 對外的 政治狀況</p> <p>共産圈内部의 「스타린」 격하운동의 高潮, 東歐의 自由化高潮</p> <p>③ 當時의 對內政治狀況</p> <p>金日成 1人獨裁에 對한 延安派 및 蘇聯派의 反撓</p> <p>④ 當時 對內住民生活</p> <p>戰後 復旧建設이라는 勞動地獄에 住民들의 不滿高潮</p> <p>⑤ 以上과 같은 內外的 政治事情으로 住民들의 不滿을 抑制하고 政敵을 거세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 金日成自</p>	<p>北韓의 共產主義가 共產圈內의 어느 國家보다도 敎條的이고 閉鎖的인 까닭은 金日成 獨裁政權의 維持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 을 강조해야 한다.</p> <p>뿐만아니라 閉鎖主義가 北韓住民들의 自主的 判斷을 마비시키고, 기계적인 부종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檢해서 指摘함이 좋겠다.</p> <p>여기에서는 어떠한 政治的인 背景과 目的下에 主体思想이 定立되어 왔는지를 밝히며, 이같은 主体思想이 어떠한 政治的인 手段으로 利用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p> <p>그리고 主体思想自體의 虛構性 歪曲性을 分明히 提示함으로써 우리가 말하 는 民族主体라는 意味와 어떻게 区分되는지를 分明히 밝혀서 提示해야 한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主体思想의 目的</p> <p>3) 主体思想의 內容</p>	<p>身을 保護하기 위한 名分으로 내세운 것이다.</p> <p>北韓이 主体思想을 내세우는 目的은 다음과 같다.</p> <p>① 對內的 目的</p> <p>北韓의 모든 住民들은 “共產黨이 생각하는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말하고 命令하는대로 行動하는 사람”으로 洗腦하기 위한 것이다.</p> <p>② 對外的인 目的</p> <p>金日成이 Marx-Lenin主義를北韓의 現實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한 共產主義 英雄처럼밖에 宣傳하기 위한 것이다.</p> <p>① 革命과 建設의 主人은 人民大衆임을 基本으로 하는 思想이라고 北韓共產黨은 말하나 그것은 形式이고 主体思想의 主体는 金日成이다.</p> <p>㉠ Marx-Lenin主義를 創造的으로 適用해야 主体思想이 될 수 있다.</p> <p>㉡ Marx-Lenin主義를 創造的으로 適用할 수 있는 사람은 北韓에서 金日成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내세우는 것은 敎條主義, 形式主義, 修正主義라고 한다.</p> <p>㉢ 그러므로 그들은 主体思想을 <黨의 主体思想> <金日成의 唯一思想>이라고 부른다.</p> <p>② 主体思想은 黨政策 金日成政策의 絶對性和 妥當性を 強要하기 위한 手段이다.</p>	<p>여기서 主体思想은 우리가 말하는 民族的主体思想이라는 全혀 意味가 다르다는 것을 分明히 해두어야 한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4) 主体思想의 利用	<p>㉠ 金日成에 依한 黨政策은 맑스·레닌主義에 입각하여 現實을 과학적으로 分析한 主体思想의 기초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實現될수 있다고 合理化</p> <p>㉡ 金日成과 黨이 決定하는 政策은 어떠한 誤謬도 있을 수 없고 執行過程에서 생기는 官僚主義, 形式主義, 利己主義 때문에 多少의 失敗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p> <p>㉢ 北韓은 中蘇 理念紛爭의 틈바구니에서 主体思想을 내세워 두 삼건의 비위를 맞추도록 努力하였다.</p> <p>㉣ 1956年 2月 蘇聯共產黨 20次 黨大會 開催以後 中共은 蘇聯을 修正主義라고 소련은 中共을 教条主義라고 相互 誹謗-理念紛爭, 國境紛爭</p> <p>㉤ 이같은 狀況에서 北韓은 中共도 소련편도 들수 없었다. 이리하여 내세운 것이 <主体思想> 路線이다.</p> <p>㉥ 金日成 偶像化에 利用 金日成만이 「맑스-레닌」主義를 北韓 實情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할 수 있는 英雄이다.</p> <p>㉦ 反對勢力的 거세와 獨裁體制의 強化 手段으로 利用</p>		
5) 主体思想의 政策目標	<p>㉧ 金日成이 武力赤化統一을 劃策하기 위해 내세우는 主体思想의 基本路線은 다음과 같다.</p> <p>㉨ 思想에서의 主体</p> <p>㉩ 政治에서의 自主</p>		2-5) - ㉠ <詳細>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北韓의 政治 實態</p> <p>1) 金日成의 權力장악과정</p> <p>2) 權力的 構造와 行使</p>	<p>㉔ 經濟에서 自立</p> <p>㉕ 國防에서 自衛</p> <p>㉖ 四大軍事路線의 強化</p> <p>① 肅清方法</p> <p>㉑ 「스타린」식 肅清</p> <p>㉒ 反對可能者의 先制속청</p> <p>② 肅清의 歷史</p> <p>㉓ 民族主義者의 大量肅清 解放後의 集權過程에서</p> <p>㉔ 南勞黨派의 肅清 - 6.25 南役 失敗의 原因을 이들에게 돌려 肅清</p> <p>㉕ 蘇聯派 및 연안파 肅清 - 1956 年경</p> <p>㉖ 黨 및 軍部의 肅清 - 1967 年에서 1969 年에 이르는 기간</p> <p>③ 族閥政治의 確立</p> <p>金日成은 獨裁政權을 維持하기 위해 모든 不信分子를 몰아내고, 族閥에 의 한權力確立</p> <p>④ 政治權力的 特徵</p> <p>政治權력은 原則上 共產主義的이나 支配方式은 모든 權력이 金日成 個人에게 集中 - 族閥支配</p> <p>① 權力的 構造</p> <p>㉑ 形式上은 三權分立</p> <p>㉒ 三權 및 모든 國家 權력은 黨에 從屬됨, 黨의 國家</p> <p>㉓ 黨의 모든 權력은 金日成에게 集中됨.</p>	<p>모든 獨裁政權이 그러하 듯이 金日成도 피비린내나는 무자비한 肅清政治를 통하여 政權을 획득하고 族閥政治를 이룩하였음을 事例를 들어 說明한다. 그리고 權力構造에 대한 淸급은 北韓勞動黨을 中心한 政治權力的 集中과 勞動黨內의 權力組織의 集中 體制에 重點을 두어 說明한다. 그리고 赤化統一을 위한 對南革命戰略의 淸급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決定的 時期> 라는 用語에 重點을 두고 그 意味를 밝히는 同時에 이에 對備하기 위한 우리 安保問題를 關連시켜 說明함이 좋을 것이다.</p>	<p>金日成의 主体 思想에 대한 說明</p> <p>3 - 1)</p> <p><詳細 2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北韓의 對南 戰略</p>	<p>② 勞動黨의 조직 強力한 中央集權的 피라미드 組織</p> <p>③ 金日成 全權 장악의 公式化 1972年 12月 北韓은 <새憲法>을 採擧 主席制를 新設, 金日成으로 하여 金 名實相符한 全權 장악자로 만들었다.</p> <p>① 對南戰略의 政治的 目標 赤化武力統一에 있음</p> <p>② 對南革命戰略의 基礎 ㉠ 毛沢東의 人民民主主義 戰略에 따른 方式으로 北을 完全히 支配한 다음 南을 吸收支配한다. ㉡ 赤化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國際 關係를 利用한다.</p> <p>③ 革命의 三大力量設定 ㉠ 北韓地域을 革命的 基地化 ㉡ 韓國에서의 革命力量強化 ㉢ 國際的 革命力量의 強化 ㉣ 決定的 時期造成</p>		<p>3 - 2) <詳細 3 > 北韓의 權力構造</p> <p>3 - 3) <詳細 4 ></p>
<p>4. 北韓의 經濟 現實</p> <p>1) 北의 經濟體制</p>	<p>① 北의 經濟體制의 基礎 ㉠ 모든 生産手段 및 資源의 國有化 (私有財産權 否認) ㉡ 市場經濟와 民間企業이 排除된 經濟運營 (集權的 計劃에 依한 劃一 經濟運營體制)</p> <p>② 生産手段의 國有化 私有財産制度는 모든 不平等 不条理 擧取의 根源임으로 이를 抹殺해야 平</p>	<p>北韓의 經濟體制를 取擧함에 있어서 留意할 點은 人間의 尊嚴성과 自由를 實現함에 있어서 그 體制가 不適合하다는 點과 우리 自由經濟體制에 비추어 劣等한 體制라는 點이다. 體制의 優劣에 대한 比較는 G.N.P等 最近 經</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北의 經濟政 策의 基本路綫</p>	<p>等社會가 成立된다는 것이 共產主義의 主張이다.</p> <p>① 北은 모든 私有財産을 沒收하여 國營 또는 協同化합. (194 年始作 1958 年完了)</p> <p>③ 生産管理體制 모든 資源이 計劃 <國家計 劃委員會>에 의하여 配分 調整되고 있다.</p> <p>④ 官僚主義의 대두 中央集權的 管理體制는 地方과 下部 組織間의 創意와 能率을 欠如시키고 官僚體制를 야기시킴으로서 다음과 같은 經濟問題를 北에 안겨줌.</p> <p>㉠ 生産品의 質의 粗惡</p> <p>㉡ 利潤率의 無視로 浪費가 많아 生産原價가 높다.</p> <p>㉢ 創意性 欠如, 技術의 落後로 生産性低下</p> <p>① 重工業 優先政策 軍輪産業의 基礎를 確立하기 위한 政策</p> <p>② 産業間의 不均衡深化 重工業, 軍事産業 優先 政策은 輕工業間의 甚한 不均衡을 초래 이에 住民들의 不滿을 크게 사고 있다.</p> <p>③ 國防, 經濟 併進政策 1960年代以後 經濟보다 軍事力 優先을 提唱하였으나 經濟發展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자 1966年 10 黨代表者 會議에서 併進策을 宣言</p>	<p>濟發展에 對한 몇가지 指數를 들어 說明함이 可能할 것이다.</p> <p>北韓 經濟政策의 基本路綫을 取扱함에 있어서 分明히 해야 할점은 北韓의 經濟政策의 基本方向이 武力侵略의 基幹을 마련하기 위하여 重工業 優先의 方向으로 推進되어 왔기 때문에 經濟發展의 甚한 不均衡으로 北韓住民들의 生活이 대단히 위축되어 있으며, 最近 北韓은 甚한 經濟沈滯에 부딪혀 있다는</p>	<p>4-1) <詳細 5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3) 北의 主要部 別經濟現況	<p>④ 過重한 軍事費負擔</p> <p>民主國家는 勿論 共產國家들중에서도 最高의 軍事費를 支出하고 있다.</p> <p>① 70年度 北의 軍事費</p> <p>總歲出의 31.4%, G.N.P의 23% - 소련 9.3%, 東獨 9.3%</p> <p>⑤ 自給經濟政策 採択의 緣인</p> <p>① 「스타린」式의 社會主義體制의 모방</p> <p>② 中蘇紛爭으로 因한 經濟援助와 協力이 不振하자 이를 打開하기 爲하여 취한것임.</p> <p>⑥ 封鎖經濟體制</p> <p>自給自足의 經濟, 外部와의 封鎖政策은 새로운 資本의 導入과 技術導入의 길을 막으므로 經濟發展의 限界點에 다다르고 있어 苦戰하고 있는 것이 現在 北의 實情</p>	<p>點은 指摘하는에 있다.</p>	<p>4-2)</p> <p><詳細6></p>
	<p>① 重工業</p> <p>① 7 個年計劃期間의 投資現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重工業：總投資의 46% ○ 輕工業： " 11% ○ 農 業： " 20% <p>② 6 個年計劃 기간중의 投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重工業：總投資의 40.7% ○ 輕工業： " 8.3% ○ 農 業： " 18% <p>③ 一貫된 重工業 優先정책은 住民들의 極심한 不滿속에 계속 추진하고 있다.</p>	<p>北韓의 主要部分別 經濟現況을 淸楚함에 있어서는 南北의 精確한 수치적 比較보다는 北韓經濟現況의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주는데 유의하며 동시에 우리의 그것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다는 點을 강조하여야 한다.</p> <p>이같이 北韓經濟가 沈滯되고 우리의 그것에 비하여 뒤떨어지게 된 原因이 그들 經濟體制의 矛盾과 經濟政策의 不合理性에 있음을 指摘해야 한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② 農 業</p> <p>① 34 個의 協同農場, 180여개의 國 營農場, 기타의 農機械作業所</p> <p>② 1970 年 耕地所有現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協同農場소유 : 경지의 94 % ○ 國營農場소유 : " 6 % <p>③ 農業의 四化運動展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業의 機械化 ○ " 水利化 ○ " 化學化 ○ " 電氣化 <p>④ 食糧不足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年의 生産目標 600 ~ 700 만噸 ○ 70 年의 실제生産量 500 萬噸 計劃의 71 % 達成 <p>③ 對外貿易</p> <p>政經一致의 貿易政策</p> <p>① 1971 年의 輸出入總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 : 37 億 4 千 萬 弗 ○ 北韓 : 8 億 4 千 萬 弗 <p>② 1960 年以後 10 年間의 平均 輸出 伸張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 : 40 % ○ 北韓 : 11 % <p>④ 北韓 經濟의 沈滯相</p> <p>自給自足を 내세운 封鎖經濟體制로 말미암은 經濟發展의 限界性으로 沈滯 - 技術不足, 資本不足, 資源不足 等이 큰 原因</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点	資 料
<p>5. 北韓의 軍事戰 略</p> <p>1) 共産主義의 軍事思想</p> <p>2) 軍事戰略</p>	<p>⑤ 開放체제로의 變質不可避性 封鎖체제가 가져다준 經濟沈滯을 脫 皮하기 위하여는 開放體制化가 不可避 하며 北韓도 이를 깨닫는 증거가 나 타나고 있다. - 對日貿易과 技術導入의 推進等</p> <p>① 戰爭을 政治의 手段으로 보는 思想 - 「레닌-스타린」, 毛沢東, 金日成의 계승</p> <p>② 民族解放戰爭은 必然的 정의의 戰爭 이라는 思想 - 北은 6.25를 祖國解 放戰爭이라고 함.</p> <p>③ 革命鬭爭의 가장 좋은 方法의 形態 는 武力 暴力에 의한 것이라는 思想</p> <p>① 北의 軍事戰略目標 北에는 強力한 革命基地를 建設하고 이를 基礎로 南韓에 共産地下勢力 을 扶植, 全韓半島를 赤化하려고 함.</p> <p>② 軍事戰略의 內容</p> <p>① 積極的 防禦와 < 決定的 時期 > 造成을 위해 韓國의 社會秩序를 교 란함으로써 國力의 弱화策</p> <p>② < 決定的 時期 >가 到來하면 速 戰速決戰爭을 한다는 戰略</p> <p>③ 北韓 共産軍의 性格</p> <p>① 人民軍은 革命의 道具</p> <p>② 人民軍은 金日成과 共産黨의 道 具</p>	<p>北韓은 武力赤化統一과 南韓革命을 위하여 手段 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나누고 있다. 이러한 戰略戰術의 目的, 內容, 方法을 理解시킴으로서 共産主義의 挑戰에 対応 할 수 있는 國民的, 國 家的 能力 培養의 重要 性을 인식시키는데 유의 한다. 그리고 四大軍事 路線과 관련된 北韓의 戰爭準備는 한반도 平和 와 世界平和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 리의 安保 자세 確立의 重要性을 강조한다. 그 리고 北韓의 軍事力과 軍事戰略이 우리의 安保 에 크게 위협되고 있기 는 하지만 우리의 軍事 力과 國力이 절대 優位</p>	<p>4-3) < 詳細 7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④ 北의 軍事力 強化와 戰爭準備</p> <p>① 四大軍事路線</p> <p>1962年 12月 勞動黨 第4期5次 全員會議에서 採択, 推進되는 政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人民의 武裝化 ○ 全地域의 要塞化 ○ 軍裝備의 現代化 ○ 軍의 幹部化 <p>② 金日成은 5次 黨大會를 前後하여 4大軍事路線의 目標가 完了되었다고 公언</p> <p>③ 國防費支出狀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의 國防費支出 總歲出의 30% (31億弗), ○ 1971年度 韓國國防費의 2倍投 資로서 8億4千6百萬弗 ○ 南北對話後는 國防費를 항목에 은폐하고 공식적으로는 총歲출의 17%내지 15%로 發表 <p>④ 軍需産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餘個의 兵器工場, 40餘個의 分工場에 武器生産 ○ 一般工場의 軍需工場으로 轉換 可能 <p>⑤ 最近의 軍事動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上軍 從前 26個師團에서 28個師團으로, 前線의 三個集團軍에 少將 A AF-1, 對戰鬪 市도타부대 新設 	<p>에 있음을 想起시킬 필 要가 있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点	資 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空 軍 72年 SU-7 戰鬪機 2대, MIG-8 헬리콥터 5대, MIG-19 전투기 등 신 형 항공기 도입 ⑩ 偽裝平和攻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攻勢의 內容 外軍撤収, 雙方 10 萬以下로 兵力 減縮, 平和協定締結의 주장 ○ 平和攻勢의 底意 國際平和潮流에 應하는 것처럼 함으로서 國際 同調를 얻자는 속 셈, 韓國의 안보와 對共 警戒심을 해이시키려는 底意 ㉔ 過大評價의 禁物 戰爭의 勝利는 결국 전체적인 國 力에 달려 있으므로 과대평가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 우리의 国力優 越 ○ 1971年의 GNP 韓國 : 81 億弗 北韓 : 38 億弗 		<p>5-2)-④ <詳細> 北韓의 戰爭 準備狀況에 對 안보충실명</p>

詳 細

< 詳細 1 > 金日成의 主体思想
2-1) ~ 5)

北韓에서 「主体思想」이란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55年 12月 「党宣傳, 煽動 일꾼」앞에서 行한 『思想事業에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퇴치하고 主体를 確立할 데 處하여』라는 金日成의 演說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의 對外的 狀況을 보면 共產圈 内部에서는 「스탈린」格下 運動이 한창이었고, 또한 東歐 共產國家들의 自由化 傾向이 濃厚하였으며 한편으로 對內的으로는 金日成의 偶像化와 1人 獨裁에 대한 延安派 및 一部 蘇聯派의 反撥이 있었으며, 生活의 窮乏과 勞力 착취에 대한 住民들의 不滿 또한 高潮된 狀態에 있었다.

以上과 같은 對內外的인 事情속에서 金日成은 住民들의 不平不滿을 抑制하고 政敵들로부터 金日成 自身을 保護하며 또한 對外的으로 名分을 내세우기 위한 意圖에서 내놓은 것이 바로 「主体思想」이다.

1. 「主体思想」의 性格

「主体思想」은 複雜한 內外情勢를 克服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主体思想」 또는 「唯一思想」이라고 그네들은 一般的으로 말하고 있다.

우선 對內的으로 「唯一思想」의 強調는 住民이 党的 命令에 絶對 服從해야 된다는 뜻을 內包하고 있다.

即 党이 숨쉬고 생각하고 行動하는대로 北韓住民들이 行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對外的으로는 「主体思想」을 운운함으로써 마치 金日成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北韓의 現實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한 共產主義者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手段에 不過하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내세우고 있는 韓半島의 赤化는 世界革命의 一環으로써 全世界 共產化와 密接한 聯關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이 말하기를 『우리가 主張하는 自主性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萬若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등을 돌린다면 곧 民族利己主義로 굴러 떨어질 것』이라고 함으로써 그들의 소위 「主体思想」이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從屬物에 不過함을 立証해 주고 있다.

2. 「主体思想」의 內容

金日成은 『우리 黨의 「主体思想」은 우리의 革命과 建設을 成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한 가장 正確한 「마르크스-레닌」主義的 指導思想이며 黨의 모든 政策과 活動의 確固不動한 指針이다』라고 그 內容을 밝혔으며, 또 日本의 「마이니찌」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는 『「主体思想」이란 革命과 建設의 主人은 人民大衆임을 基本으로 하는 思想』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革命과 建設의 主人이 人民大衆이라고 추켜 올림으로서 「主体思想」이란 革命課業에 人民大衆을 끌어 모으는 일종의 住民動員手段인 것입니다.

그 內容을 具體的으로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主体思想」의 主体는 金日成

첫째 「主体思想」의 主体는 金日成입니다. 北韓에서는 金日成

이 다녀간 곳이면 農村일 경우 豊年이 들고, 工場일 경우에는 作業実績이 2倍, 3倍로 增加한다고 宣傳하는 등 金日成을 마치 「全知全能」한 神같이 偶像化하고 있으며 그의 말이 곧 党的 命令이요 法이 되고 있는 実情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創造적으로 適用」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金日成 한사람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革命과 建設의 主人은 人民이라는 그의 主張과는 달리 革命과 建設의 主人은 바로 金日成 自身인 것입니다.

그래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党的 主体思想」 「金日成의 唯一思想」이라고는 強調하지만 「民族主体性」이라는 말은 使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곧 「主体思想」이란 우리 民族과는 무관한 共產主義者들의 宣傳口號에 불과함을 立証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4. 「主体性」을 根拠로 党政策의 絶对性 主張

둘째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主体性を 내세워 党政策의 絶对性과 正当性を 主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労働党的 政策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依拠하여 現實을 科学的으로 分析한 「主体思想」의 基礎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實現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金日成 自身이 決定하는 党的 最高政策에는 어떠한 誤謬도 있을 수 없고 다만 党的 意思를 執行하는 過程에서 생기는 소위 官僚主義, 形式主義, 利己主義 등이 原因이 되어 多少 失敗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主体思想」은 党政策에 대한 批判을 抑制하고 金日成의 命令에 服從시키려는데 그 實質的인 意圖가 있는 것입니다.

5. 「主体思想」의 利用

① 对外的：体制防禦策

그러면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이러한 「主体思想」을 어떻게 戰略的으로 利用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主体思想」을 对外的 体制防禦策으로 活用하고 있습니다.

1956年2月 蘇聯共産党 20次党大会 開催 以後 中・蘇의 關係가 惡化되기 始作하여 50年代末頃부터 中共은 蘇聯을 修正主義로, 蘇聯은 中共을 教条主義라고 相互 誹謗하는 理念紛争으로 發展, 結局에는 国境紛争까지 惹起되었습니다.

이러한 狀況아래에서 北韓은 無節制한 外交路線을 取함으로써 中共과 蘇聯으로부터 外面당했을 뿐 아니라 援助까지 中斷되어 資本 및 技術이 極度로 不足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中共과 蘇聯이라는 두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兩面 外交의 手段으로서 「主体思想」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北韓은 實際에 있어서 暴力革命論을 固守하는 中共側으로 기울고 있는 점만은 否認할 수 없을 것입니다.

② 对內的：個人偶像化

둘째, 对內的으로는 「主体思想」을 金日成 偶像化에 活用하고 있습니다.

平壤市 어느 勞動者의 가정에서 아침 食事を 하던 유치원생이 느닷없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게 진짜 아버지냐?」 아니면 저기에 걸린 「金日成원수님이 진짜 아버지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對答을 망서리던 어머니는 「여기 아버지는 너를 낳아준 아버지이고, 金日成 원수님은 너를 길러준 아버지시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對答이야말로 名答이라고 해서 1966年 勞動黨의 機關紙인 勞動新聞에 對서 특필된 일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北韓에서의 金日成 偶像化 政策은 歷史上 그 例를 찾아볼 수 없을 程度로 철저하게 進行되고 있습니다.

金日成에 對한 偶像化 및 神格化 政策의 基本方向은 허위 날조된 抗日鬪爭史를 全住民들에게 철저히 가르키고 그것을 통해 「主体思想」을 學習하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傳統的인 倫理觀을 變形시켜 「어버이로서의 金日成」 「首領으로서의 金日成」을 強調하고 모든 現實的인 價值基準과 政治思想的 正統性的 根拠를 金日成으로 부터 求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觀적으로 보아 金日成에게는 그의 獨特한 思想이라고 내세울만한 体系的인 理論이 없고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前例를 모방하고 있는 데 불과합니다.

그것은 共產主義者들이 찬양하는 金日成 選集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거기에서 그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忠僕이라는 것을 自認하고 있을뿐 金日成 自身の 主義나 主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金日成 偶像化를 위해 광분하는 宣傳員들의 苦悶이 있는 것입니다.

③ 1人独裁 体制 確立

세째, 「主体思想」은 派閥을 整理하고 궁극적으로는 1人独裁体制를 確立하는데 利用되고 있습니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北韓을 革命基地化하고 全國의 범위에서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는데 있어서 「主体思想」(唯一思想)以外에는 어떠한 思想도 있을 수 없다』하여 政敵들에 對한 숙청과 住民들의 勞動力 착취를 合理化시키고 있습니다.

結果적으로, 「主体思想」은 對內的으로 北韓住民들의 思想과 行動을 統制하고 體制를 整備하기 위한 大衆 操作의 戰略的 手段 내지 1人 獨裁體制 確立의 效果的인 武器로 利用되고 있을 뿐입니다.

6. 「主体思想」의 目標

結論적으로 「主体思想」의 궁극적 目標은 무엇이겠습니까?

金日成은 「思想에서 主体」 「政治에서 自主」 「經濟에서 自立」 「國防에서 自衛」를 標榜하여 金日成偶像化를 合理化시키고, 그의 唯一體制를 強化하여 北韓住民의 強制勞力動員과 4大軍事路線強化에 依한 戰爭準備에 狂奔해 왔습니다.

要컨데 「主体思想」의 궁극적인 目標은 韓半島 全域의 共產化에 두고 이를 위해 政治, 經濟, 軍事, 社會, 教育, 文化 등 모든 領域에 걸쳐 이른바 「主体思想」을 適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主体思想」은 藥房의 甘草처럼 어디에나 適用되는 共產主義者들의 不文律로서 北韓住民들을 強制로 이끌어가는 一種의 책적인 것입니다.

< 詳細 2 > 金日成의 權力掌握過程 3-1)

金日成의 權力掌握過程은 4半世紀동안 피의 숙청으로 點綴된 歷史입니다.

특히 金日成이 行한 숙청의 特徵은 自己의 權力維持에 障礙가 되거나 威脅이 되는 政敵들의 除去와 自己 政策의 失敗에 對한 責任을 全部 다른 사람한테 轉嫁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金日成의 手法은 「스탈린」式 숙청에서 一步 前進하여 反對可能者를 先制하는 手法으로서 이러한 숙청사는 일찌기 共產主義史上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숙청극은 共產獨裁의 피치못할 歷程임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1. 民族主義者의 숙청

金日成의 權力掌握過程으로서의 숙청의 歷史를 살펴보면 金日成은 解放以後 高位 執權層에 대한 네 차례의 大肅清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民族主義者 및 右翼陣營에 對한 숙청이었습니다. 우선 그 배경을 살펴보면 蘇聯軍의 앞잡이에 불과했던 金日成은 政治基盤이 微弱하였으며, 反面 民族主義者 乃至 右翼陣營은 北韓住民의 絶對的인 信任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政治基盤 確保策으로 民族主義者와 右翼陣營을 숙청對象으로 하였습니다.

即 民衆의 支持를 받고 있던 古堂 曹晩植先生을 中心으로 한 民族主義者들을 反託 運動을 理由로 삼아 蘇聯으로 하여금 監禁케 했는가 하면 모든 知識人, 宗教人, 地主, 企業家, 勤勞大衆等 右翼陣營人士들을 民族反逆者 乃至 親日派로 몰아 숙청함으로써 民族主義者와 右翼陣營勢力은 完全히 抹殺되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를 避해 500萬에 이르는 北韓 住民들이 38線을 넘어 自由大韓으로 越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南勞黨派의 숙청

두번째가 南勞黨派의 숙청입니다.

먼저 그 背景을 살펴보면 이른바 「人民共和國」 樹立 當時 朴憲永等 南勞黨派는 黨과 權力機關에 自派勢力을 扶植하기에 狂奔하였으나 要職은 金日成 一派에게 모두 빼앗겨 버림으로써 不平不滿을 늘어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南侵 準備에 對備하여 될수록 南勞黨系에 對한 攻擊을 피해 오던 金日成 一派는 6.25의 侵略計劃이 失敗로 돌아가자 그 責任을 南勞黨系에 뒤집어 씌우기로 作定하였습니다.

當時 北韓 全域은 잿더미로 化하고 金日成에 對한 反感을 갖고 있는 住民들이 많았으므로 그것을 어데론가 끌고가야 하였는바 그 突破口를 南勞黨 숙청에 두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南勞黨系를 그 對象으로 삼은 것은 當時 副首相인 朴憲永 一派가 金日成의 가장 두려운 政敵이었기 때문에 敗戰의 責任을 물어 除去함으로서 一石二鳥의 效果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南勞黨의 朴憲永 一派에게 「政權顛覆」과 「美帝의 高層間諜」이라는 어마어마한 누명을 씌워 숙청하였으며 심지어 朴憲永의 妻까지도 平安北道 化烽鎭山으로 끌려가 거칠은 鎭山 勞動者의 身勢로 轉落되고 말았으니 金日成의 숙청이란 그 얼마나 잔악하고 무시 무시한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3. 蘇聯 및 延安派의 숙청

세번째가 蘇聯 및 延安派의 숙청입니다.

中共勢力을 얻고 北韓땅에 들어온 延安派는 金日成 一派에게 적지 않은 不安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最高 人民會議 常任委員長, 金料奉

副首相 崔昌益, 韓斌, 武亭, 朴一禹, 李相朝等을 肅清의 対象으로 삼게된
것입니다.

當時의 背景을 부연하면,

副首相 朴昌玉 等 一部가 蘇聯派에 가담 내지는 同調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威脅勢力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金日成의 政策路線과 個人 崇拜에 對한 不滿을 품고 있던
중 1956年 經濟援助 구걸차 蘇聯을 비롯한 東歐羅巴 위성국을 訪
問하고 돌아온 金日成이 8月 全員會議를 召集하자 延安派는 그 會
議席上에서 幹部 登用의 不公平性, 經濟政策의 失敗, 그리고 個人崇拜
思想에 對해 露骨的인 비판을 加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延安派를 「國家變亂의 陰謀」를 꾸렸다는 名
分으로 숙청해 버렸으며 金料奉은 順安農場의 強制 勞動者로 追放되
어 그곳에서 김매기, 새끼꼬기로 2年間 연명하다가 悲慘한 終末을
告하고 말았습니다.

4. 黨 및 軍部の 숙청

네번째가 1967年부터 始作된 黨 및 軍部に 對한 숙청입니
다. 그 배경을 살펴 보면

當時까지 金日成은 住民生活의 惡化에도 不拘하고 계속 戰爭準備를
強行하였는데 反해 黨僚派들은 反論을 提起, 우선 經濟建設을 先行시
켜야 한다는 主張을 내세운데다가 이들은 黨의 組織과 선전 對南問
題等 核心 權力을 掌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存在는 金日成
偶像化에 障礙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軍部の 심복들로 하여금 黨政治委員겸 비서국 비서 朴金
喆, 黨秘書局 연락부장 李孝淳 等 高位層 100여명을 그 対象으로

修正主義, 消極主義, 宗派主義라는 名分下에 1967年 3月 속청하게 하였고 그후 1969年 初에는 抗日 「빨찌산」 鬪爭을 金日成과 함께 했다 해서 絶對的 信任을 받고 있었으며 앞서의 党僚派 속청에 앞장섰던 그의 充實한 心腹인 民族保衛相 金昌奉 總參謀長, 崔光, 對南工作責 許鳳學 等 10餘名の 高位 將星들 까지도 무자비하게 속청해 버렸던 것입니다.

5. 族閥政治의 確立

이리하여 最近에는 自身을 追從하는 自派勢力까지도 믿지 못하는 金日成은 마침내 族閥政治 體制를 確立하게 되었습니다.

即 權力的 核心인 「黨」을 掌握키 위해 친동생인 金英柱를 中央黨 組織指導部長과 政治委員會 委員兼 組織担当 비서로 登用시켰고 처족인 양형섭을 黨 政治委員會 후보委員과 秘書局 思想担当 秘書兼 中央委員으로 任命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執行部署인 政務院 內에서도 外叔 姜養욱을 副主席으로, 4촌 매부 허담을 副總理兼 外交部長(長官)으로 앉혀 政務院의 實權을 掌握케 하였으며, 그것으로도 不足한 金日成은 社會團體를 掌握키 위해 金성애를 女性 同盟 委員長으로, 4촌 누이 김정숙을 社勞靑 副委員長으로 등용하였으며, 族閥政治에 염증을 느낀 住民들로부터 新변에 威脅을 느낀 金日成은 자기 아들 김수라를 敬護 責任者로 앉혀 自身을 호위케 하고 있습니다.

以上에서 말씀드린 以外에도 金日成은 자신의 친척들을 關係 要素에 등용하여 現獨裁 體制와 自身을 比호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詳細 3 > 北韓의 權力 構造
3-2)

1. 權力 構造

北韓의 權力構造는 制度上으로 볼때 三權分立制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即 立法部인 最高人民會議가 行政 司法까지 統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實際上 北韓의 權力構造를 論함에 있어서는 立法, 司法, 行政을 따질 何等の 價值조차 없으며 「共産黨이 國家機關 및 모든 社會團體에 對한 指導的 核心이며 權力의 源泉이라는 共産主義的 原理에 따라 三權이 黨에 集中되어 있어 어느 部門이건 間에 勞動黨의 傘下機關에 不過합니다.

그런데 共産社會에서는 黨이 모든 것에 優先하는 것이 一般的 理論이지만 오늘날 北韓에서는 黨의 決定보다도 金日成의 「敎示」가 보다 重要視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黨과 金日成을 同一視하고 있으며 權力 역시 金日成에 依해서 行使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2. 勞動黨의 組織

그러면 權力의 源泉이며 事實上 最高權力機關인 勞動黨의 組織은 어떠한가 어떻게 黨의 이름으로 權力을 行使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北韓의 勞動黨은 中央集權的 官僚조직으로서 그 「피라미」型的 정점으로는 形式的인 黨大會가 있으나 實質的인 最高政策 決定技能을 行使하는 것은 黨 中央委員會이며 그중에서도 中央委員會의 全員會議에서 選出되는 政策樹立機關인 政治委員會와 그 執行部署인 秘書局입니다.

특히 中央委員會는 勿論 政治委員會와 秘書局도 金日成이 그 首席으

로 되어있고 또한 전원이 그의 측근으로 構成되어 있어 党的 모든 權力은 金日成에게 集中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党的 下部 組織으로서 道, 市, 郡 구역당이 있어 中央으로부터 내려오는 命令 指示에 따라 그들의 任務를 遂行하고 있습니다.

3. 金日成 全權掌握의 公式化

이것으로도 不足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1972年12月 所謂 「새憲法」을 制定하여 金日成의 全權掌握을 公式化 시켰습니다.

먼저 이에 依한 機構改編 內容을 보면, 從前에는 形式上이 나마 國家元首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委員長 崔容健 이었으나 새 憲法에는 主席制를 新設하여 金日成이 그 權限을 掌握함으로써 名實相符한 그의 絶對權力을 法的으로 保障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金日成의 심부인 政治委員會와 비서국 요원이 새로 신설된 最高 指導機關인 中央人民 委員會의 구성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對内外 政策을 党的 決定에 따라서 一元的으로 강력히 執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執行部署로서의 內閣을 政務院으로 改稱하고 일괄통제를 容易케 하기 위하여 38個 部署를 22個 部署로 統合 縮小시켰는바, 政務院의 最高 責任者는 總理이지만 主席이 最終的인 指導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北韓의 새 憲法採択과 이에 따른 機構改編은 모든 權力을 金日成 1個人에게 集中的으로 부여한 이른바 金日成 体制의 強化라고 할 수 있습니다.

現在 그의 職責을 보면 主席으로서 國家의 수반이며 主權을 代表함은 勿論 公式的인 最高權力 機關인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로서 政務院

을 指導 감독하고 人民軍 總司令官과 國防委員長을 兼하는 等 무려 8個 領域에 걸친 責任을 지고 있어 名實共히 1人獨裁體制가 公式化 된 것입니다.

< 詳細 4 > 北韓의 對南戰略
3-3)

1. 北韓의 政治的 目標

그러면 北韓의 對南戰略의 一環으로써 金日成을 정점으로 한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政治的 最終目標은 무엇인가? 勞動黨은 그들의 鬪爭路線을 뒷받침하는 黨規約 前文에서 「朝鮮勞動黨의 當面目標은 共和國 北半部に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範圍에서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의 課業을 遂行하는데 있으며 最終目標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窮極的 目標가 革命에 依한 全韓半島의 赤化統一에 있음을 明白히 한 것으로 이는 南北對話가 開始된지 3年이 지난 오늘에도 何等의 變化가 없는 것이다.

2. 北韓對南革命戰略의 基礎

그들의 對南戰略의 基礎는 「스탈린」의 共產主義 革命戰略에 바탕을 두고 있다. 卽 「스탈린」은 「戰略은 革命의 一定段階에 있어서 勞動階級의 主要打擊方向을 決定하는 것이며 그를 爲한 革命豫備軍配置計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北韓은 그들이 直面한 特殊條件으로 첫째, 南北이 分斷狀態에 있는만큼 1次的으로 北을 完全 支配하여 南을 北의 支配領域에 넣는다는 點과 둘째, 南北의 分斷이 國際的으로 勢力關係에 依해

서 이루어졌으므로 革命에 依한 統一問題도 國際的 性格을 띠는 點을 考慮하고 있다.

3. 革命의 三大力量 設定

이상에 근거하여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소위 「三大力量」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고 있다.

첫째, 「北韓을 革命基地」로 強化하고 있다. 그들은 1960年代 後半期에 이르러서는 北韓이 韓半島赤化의 背景的 役割에서 脱皮하여 韓國에서의 革命을 行動으로 支援해야 한다는 戰鬪的 決意下에 1.24 事態, 삼척 울진 武裝共匪事件 等の 挑發行爲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反共意識을 고취시키고 勝共態勢를 더욱 갖추도록한 結果를 초래하였다.

둘째, 「韓國에서의 革命力量」을 強化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韓國에서의 공격대상과 이용대상을 別途로 設定하고 있다. 우선 공격대상으로는 美國과 資本家 그리고 一般官僚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美國을 革命에서 主要한 攻擊對象으로 보고 있는 것은 美國의 對韓政策과 韓美間의 굳건한 유대관계가 韓半島赤化에 決定的 障礙가 된다고 評價하고 있는데 起因하며 그리고 資本家와 一般官僚들을 攻擊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傳統的인 共產主義 理論에 의한 것으로서 韓國에서의 革命을 階級革命으로 유도하기 위함인 것이다. 한편 그들이 設定한 韓半島赤化의 利用對象으로서 勞動者, 農民을 根幹으로 청년학생과 民族資本家를 들고 있다. 이는 그들이 美國과 資本家들에게 抑壓되고 있어 革命力量으로 돌려질 수 있다고 억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戰略理論은 現實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共産黨이 非合法化된 大韓民國의 与件下에서는 소위 「革命力量」을 組織化하고 나아가 革命鬭爭을 展開하기 위한 地下黨의 구축과 이를 통한 社会秩序破壞를 重視하기에 이르렀다.

끝으로 北韓 共産主義者들은 韓半島赤化를 위해 「國際的 革命力量」의 強化를 고려하고 있다.

그들은 50年代의 國際情勢는 共産圈 乃至는 國際共産主義運動에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다는 評價를 하였으나 60年代에 들어서면서 「韓國에서의 共産革命」에 미치는 「國際革命力量」의 影響을 再評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北韓은 從來의 蘇聯을 비롯한 共産圈 일변도의 外交政策을 止揚하고 中立國 乃至 西方國家와의 關係改善을 圖謀하기 위한 柔軟性있는 外交라는 戰術的 變化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自由中國과 中共의 關係처럼 北韓의 國際的 地位向上과 韓國을 國際政治에서 孤立化하여 國際적으로 赤化統一에 有利한 情勢를 造成해보려는 戰略이라 할 수 있다.

4. 決定的 時期

戰略에 있어서 또 하나의 重要한 問題는 如何한 條件과 時期를 이룬바 決定的 時期로 택하느냐 하는 問題가 제기된다.

그들은 全面戰爭이 일어나거나 「三大革命力量」이 同時에 이루어지지 않는한 自己들 뜻대로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스탈린」은 「決定的 時期」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民衆의 革命氣運이 팽배하여 黨이 提示한 「테-제」보다 大衆 運動이 앞서 있을 때

둘째, 敵陣營에 있어서 絶望, 혼란, 퇴폐, 崩壞등 否定的 要因이 充滿

되었을 때, 세계, 이상의 두가지 계기가 同時に 造成되었을 때라고 하였다.

이같은 「스탈린」의 「決定的 時期」 규정은 한 国家内에서 革命 情勢에 対応한 규정으로서 對外關係는 考慮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試圖하고 있는 「決定的 時期」는 주한 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하여 北韓에서의 南侵準備의 完了, 그들에 有利한 國際情勢의 도래, 그리고 韓国内에 自己들을 支持하거나 同調하는 勢力이 強化되었을 때를 「決定的 時期」라고 보고 있다.

< 詳細 5 > 北韓의 經濟体制 4-1)

1. 生産手段의 国有化

共產国家에서는 私有財産을 모든 罪惡과 不平의 根源이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社会發展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여 生産手段을 国有化 하였다.

그러나 共產社会의 現實은 私有財産을 無償으로 沒收하고 個人에 依한 商工業 活動을 禁止시켜도 無階級社会로는 되지 않고 새로운 階級인 特權層의 羗포가 더욱 심해졌을 뿐 아니라 階級鬭爭의 形態인 權力鬭爭이 계속되고 숙청선풍이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共產主義者들은 私有財産을 계속 否定하고 있다. 그리하여 北韓에서도 一次的으로 鉉工業 및 商業을 国有化한 다음 農業의 集團化를 斷行하였던 것이다. 即 北韓은 다시 지난 1954年에 所謂 農業協同組合의 組織에 着手하여 1957년에 大체로의 段階를 거쳐 기만과 背信, 壓力과 強制手段으로 國營 또는 協同組合에 吸收시

켰다.

一般的으로 共產主義 理論에 따르면 農業의 集團化는 工業化 過程이 成熟하여 農機械를 供給할 수 있는 經濟的 基盤이 갖추어졌을때 비로소 遂行되기 마련이지만 北韓은 이같은 條件을 完全 度外視 하였기 때문에 生産性 低下等의 農業危機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2. 生産管理体制

한편 北韓의 生産管理体制는 모든 資源이 計劃機構인 「國家計劃委員會」에 依하여 配分되고 있다. 이는 私有財産을 基盤으로 한 市場經濟體制를 排除하고 있기 때문에 人爲的 計劃과 統制가 不可避한 데 起因하는 것이다.

특히 北韓 生産管理体制를 볼것 같으면 産業經營은 國營企業과 協同組合으로 再分되고 國營企業은 다시 中央産業으로 区分되고 있다.

이러한 産業經營의形態의 内部的 管理面의 特徵을 보면

첫째, 國營企業에 있어서는 支配人 責任下에 嚴格한 獨立採算制를 實施하고 있으며,

둘째, 모든 生産指標는 中央의 劃一的 管理下에 統制 管理되며,

셋째, 中央銀行이 「원」의 統制를 實施하여 企業活動을 調整 감독함으로써 모든 商品과 用役은 國家의 計劃價格에 依하여 公定制로 評價되고 있다.

그런데 絶對的인 權力을 行使하고 있는 勞動黨 黨僚들은 企業管理나 運營에 技術과 經驗이 전혀 없이 各部門 企業체외 침투하여 自己 主觀에 따라 命令하고 감독하고 통제하고 독려하고 있어 많은 不作用을 일으키고 있다.

3. 官僚主義 抬頭

이상과 같은 中央集權的 計劃管理体制는 地方과 下部 組織間의 創意와 能率의 欠如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官僚主義를 대두시켰다.

蘇聯을 비롯한 東歐 諸國에 있어서는 이같은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미 1950年代末부터 企業에 있어서 利潤制度의 導入等 生産能率을 增大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決定機能의 分散을 시도하고 있는데 反하여 北韓은 아직도 50年代에 소련이 취하던 낡은 形態의 中央集權的 計劃管理体制에 그대로 집착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따라서 이같은 管理体制는 結局 北韓經濟에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대두시켰다.

첫째, 生産者들은 上部의 指示에 따른 生産量에만 拘碍된 나머지 生産品의 質이 粗惡하며,

둘째, 利潤率이 무시되고 資材의 낭비가 많음으로써 生産原價가 높으며,

셋째, 生産者의 創意性 欠如와 技術의 落後性으로 生産性이 둔화되고 있다는 點 등이다.

<詳細 6 > 北韓 經濟政策의 基本路線 (4-2)

1. 重工業 優先政策

우선 重工業 優先策을 들 수 있다. 지난 50年代와 60年代에 걸쳐서 北韓이 이를 계속 추진하여온 理論的 基礎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基本敎理를 形成하고 있는 「마르크스」理論에서

그 名分을 찾고 있다. 卽 社會主義工業化 理論에 依하면 經濟成長의 目的 達成을 위한 最善의 方式은 보다 많은 資源을 生産財生産 다시 말해서 기계공업을 核心으로 하는 重工業에 割當하고 反面에 消費財 生産의 割當分을 減少시켜야 窮極的으로 成長率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重工業에 치중하는 그들의 底意는 순수한 意味의 經濟開發의 原理에 입각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軍需生産의 基盤을 確立하는데 1次的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重工業 優先策은 産業間에 심한 不均衡을 招來하였다. 卽 北韓은 耐乏生活에 의한 最大限의 蓄積과 軍需産業爲主의 重工業 優先策을 強力히 추진함으로써 日常生活에 生必需品 産業 卽 輕工業 部門에의 投資는 극도로 抑制되어 있다.

이 같은 産業間的 不均衡은 結果的으로 北韓住民의 生活을 희생시켰고 더우기 輕工業으로부터 重化學工業으로 發展시켜야 한다는 「호프만」 式 工業化 過程에 逆行하는 發展過程을 답습함으로써 生産性은 물론 全体經濟 成長率을 둔화시켰다.

한마디로 말해서 北韓의 經濟는 消費의 最大 抑制과 住民들에 對한 勞動力의 最大 榨取에 의지하고 있다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2. 國防, 經濟併進 政策

다음으로 國防·經濟의 併進政策을 들 수 있다. 經濟力 發展과 強化의 併進政策은 1966年 10月 黨代表者 會議에서 宣言되었고 全員 會議에서 決定 採択된 以來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北韓은 60年代 中半期の 共產圈 内部的 理論紛争과 中·蘇 紛争의 격화에 따

라 「国防에서의 自衛」를 提昌하고 同時に 「經濟發展을 一定하게 지연시키드라도 軍事力을 一層 強化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決議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國防經濟의 併進政策은 結果적으로 北韓住民에 對한 過重한 軍事費의 負擔을 強要하게 되었다. 1967年度의 軍事費는 總歲出額의 30.2% 였으며 그後 해마다 增加하여 70年度에 이르러서는 約 31.4%에 達하였으며 이같은 額數는 同年 北韓의 G.N.P의 約 23%에 達하였다.

3. 自給經濟政策

끝으로 自力更生에 依한 經濟的 自立策을 들 수 있다.

1966年 10月 勞動黨 代表者 會議에서 「社會主義 建設에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經濟的 自主性을 強化하는 것이며 自力更生の 原則에서 自主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것이 黨의 一貫된 路線이다」라고 強調한바 있다.

이같은 自給自足 經濟路線은 첫째로, 「各國은 綜合的인 產業體系를 갖추어야 한다」 所謂 「스탈린」式의 「一國社會主義」體制를 그대로 模倣한 것이요. 둘째로 60年代 中半期를 前後하여 共產圈內에서 노골화하기 始作한 理論上의 分裂과 中·蘇紛爭의 激化에 따른 經濟 協助 不振에서 緣由된 것이다.

이같은 自立經濟 體制는 必然的으로 經濟體制를 封鎖化시켰고 結果的으로 새로운 資本의 導入과 技術革新의 차질을 招來하여 勞動生産性을 더욱 減退시켰다.

오늘날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最大의 弱點은 低水準의 勞動生産性이다. 그것은 이미 「레닌」탄생 100週年을 記念하기 위한 蘇聯邦

最高會議에서 「브라즈네 프」 스스로가 是認하였거니와 이같은 事實은 오늘날의 蘇聯과 共產諸국이 直面하고 있는 經濟 沈滯의 原因으로서 蘇聯의 指導層까지도 「레닌」의 理念에 대한 再檢討를 不可避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연한 現實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勞動生産性이 낮은 것을 만회하는 手段으로서 「千里馬運動」을 위시한 各種 社會主義勞動 競争運動을 展開함으로써 北韓 勞動者들의 勞動強要와 責任基準量을 增大시키려 하고 있을 뿐이다.

<詳細7> 北韓의 分野別 經濟現況
4-3)

北韓經濟의 主要部門別 現況으로서 重工業, 農業 및 對外貿易現況을 簡單히 살펴 본 다음 北韓 經濟의 취약점을 導出해 보기로 하겠다.

1. 重工業

우선 重工業 分野에 있어서 投資 現況을 보면 7個年計劃 期間中에는 總投資의 46%가 重工業 分野에 投資된데 比하여 輕工業 分野에서는 11% 農業 分野에는 20%가 投資되었고 6個年計劃期間中에도 重工業 分野에는 40.7%이나 輕工業 分野와 農業分野에는 各各 8.3%와 18%의 投資가 計劃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産業間의 극심한 不均衡으로 인한 住民의 生活이 희생당하더라도 계속 重工業 우선 主義로 나가겠다는 그들의 底意를 알 수 있다.

2. 農 業

다음 農業分野의 現況을 살펴보면 現在 北韓에는 3千餘個의 協同農場과 180餘個의 所謂國營農牧場 그리고 이를 支援하는 農機械 製作所가 있다.

1970年 現在 協同農場이 所有하고 있는 耕地는 全體의 94%에 이르고 있으며 國營農牧場의 所有耕地는 나머지 6%로 되어 있다.

그들은 黨 5次大會에서 強調한 것처럼 農業의 機械化, 水利化, 化學化 및 電氣化 指向하고 있는 듯하나 重備強化에 밀려 不振한 狀態에 있으며, 70年度의 食糧生産 目標量은 600~700萬톤이었으나 그것도 71%인 500萬톤 밖에 生産치 못하였으며 現在 北韓은 食糧 不足을 解決하기 위하여 平野와 山間의 中間에 位置하는 山間地帶 農業을 開發하는데 注力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東歐 諸共產國家에서 集團農場制를 中斷 또는 廢止하는 추세를 外面하고 農民에게 아무리 革命的 熱意에 따른 生産力增大를 호소한다 해도 農業의 發展은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3. 對外貿易

北韓은 對外 貿易에서도 政治와 經濟는 分離하지 않으며 經濟는 政治目標을 뒷받침한다는 社會主義原理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對外 去來도 이에 따라 運營되고 貿易은 그들의 經濟計劃 手段의 一部에 不過한 것으로 社會主義建設을 前提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對外 貿易은 政治的 目的의 從屬物이며 保護主義에 徹底할 뿐 아니라 原則적으로 國際分業을 拒否하는 性質의 것이라 할 수 있다.

4. 貿易現況

貿易의 現況을 살펴 보면 1970年度의 경우 3億弗, 輸入 3億 8千萬弗로서 輸出入 總額이 겨우 7億弗 水準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額數는 같은 해 韓國의 30億弗에 比較하면 4分の1도 안되는 規模이다. 北韓 總輸出入의 81.7%는 對 共產圈 貿易이며 其中 對蘇 貿易이 차지하는 比率은 53%에 머무르고 있다.

5. 北韓經濟의 沈滯相

北韓의 經濟成長 過程은 다음 三段階로 区分하여 볼 수 있는 바 1段階인 1953년부터 60년까지는 經濟成長이 比較的 順調롭게 進行되었던 時期로서 外國援助와 經濟成長이 比較的 円滑하였으나 第2段階인 60年代는 構造的 모순과 外援의 不足으로 計劃에 커다란 차질을 빚었고 第3段階인 70年代는 各種資源 技術이 限界에 到達해서 經濟成長이 沈滯一路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60年代 以後의 經濟 沈滯는 「어-터키」型 基本路線을 그대로 固守함으로써 惹起되는 問題點이라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 北韓과 같이 制限된 資源을 가지고 있는 小國이 低水準의 「自給自足 體制」를 固執하는 것은 經濟的 自害 行爲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自給自足の 封鎖經濟 體制는 北韓의 經濟發展을 둔화시켰는 바 이는 1962년부터 8年間の 平均 經濟 成長率이 6.9%인데 反해 同期間에 韓國은 約 10%에 達하였다는 事實이 이를 立証하고 있다.

7. 開放體制로의 變質不可避

따라서 北韓의 經濟 體制는 閉鎖體制로부터 開放體制로의 變

質이 不可避할 것이다.

지난 71年 3月 西方世界에 公開된 「사하로프」의 書翰은 「앞으로 4~5年 以內에 果敢한 自由化 政策이 實現되지 않으면 소련은 二流國家로 轉落하고 말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것은 蘇聯과 共產諸國이 直面한 本質的 矛盾과 開放體制로의 履行 不可避性을 指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共產圈內의 一般的 추세와 더불어 北韓은 추진중인 「6個年計劃」(1971~76) 遂行을 위하여 最近 日本의 大企業에 對한 發電機 製造「프랜트」等 10億弗 相當의 商談을 推進하고 있으며 覺書 貿易의 形式을 통한 對日貿易을 70年代 中半까지 5億弗 水準으로 增大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漸次 西方世界 特히 獨逸, 英國, 仏蘭西 等に 資本과 技術의 協力을 強化코져 努力하고 있어 이것은 封鎖體制로부터 開放體制로의 轉換을 意味하는 것이며 이러한 基本路線의 急激한 變化는 合理主義思想의 대두와 教條主義 權力體制의 崩壞의 危機를 뜻하는 것이므로 分明히 70年代 初半期는 北韓 高位 指導層에게 重大한 試鍊期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詳細 7 > 北韓의 軍事力強化와 戰爭準備
5-2)-④

1. 4 大軍事路線

여기에서는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韓半島 赤化를 爲한 軍事力 強化와 戰爭準備狀況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우선 1962年 12月 勞動黨 第4期 5次 全員會議에서 채택

된 소위 4大軍事路線 추진 現況을 살펴 보면

첫째, 「全人의 武装化」는 金日成이 모든 住民이 「총을 쏠줄 알며 총을 메고 있게 되었다」고 호언하듯이 現在 北韓은 戰爭에 直刻 動員할 수 있는 兵力이 正規軍 45萬, 勞動赤衛隊 150萬, 붉은 青年 近衛隊 70萬, 都合 265萬이켜 그 以外에도 軍事訓練을 生活化 시킴으로써 全 北韓住民을 戰鬥化시키게 된 것이다.

② 北韓 「全地域의 要塞化」는 金日成이 말한대로 全地域에 철옹성 같은 防衛施設을 쌓아 놓았으며 重要한 施設들까지 地下에 들어가게 된 實情이며

③ 「軍裝備의 現代化」에 있어서도 그동안 「샘」 「A.S 미사일」等 現代的 戰鬥機材와 裝備를 갖추게 되었고

④ 끝으로 軍의 幹部化 問題에 대해서는 「모든 將兵이 한等級 높은 部隊를 指揮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게 되었다」고 金日成이 장담한 바와 같이 5次黨大會를 前後하여 이미 4大軍事路線의 目標가 거의 整備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2. 國防費支出 現況

北韓이 發表한 歲出豫算에 의하면 國防費는 60年代의 경우 總歲出額의 30%를 上廻한 31億弗에 達하며 이는 同期間産業部門에 投資된 基本建設費 34億弗과 거의 같은 水準이었다. 1971年度에는 8億4千萬弗로서 같은해 韓國 國防費의 2倍 以上이나 되는 規模인 것이다.

한편 72年度와 73年度에는 各各 總歲出額의 17%와 15%로 國防費를 과소 策定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이는 豫算編成 技術上으로 國

防費를 他項目에 은폐시켜 南北對話와 關聯하여 平和攻勢를 펴기 위한 一種의 위장술책인 것이다. 이에 對하여 日本의 有力한 北韓關係 研究機關은 「北韓의 軍事力이 削減되지 않은채 예산삭감은 不可可能的 것이며 軍事費는 實質적으로 줄지 않았고 兵器生産費는 人民經濟費로, 軍事研究 및 軍教育費는 社會文化費로, 民族保衛省 關係비용은 國家管理費로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3. 軍需産業

한편 北韓의 軍需産業現況을 살펴보면 그들은 現在 20餘個의 兵器工場과 45個의 分工場에서 일체의 個人火器는 勿論, 박격포 等 一部 共用火器와 各種 實彈, 砲彈, 手榴彈, 地雷, 火藥等を 自体生産하고 있다.

또한 20餘個의 特級 및 一級工場은 短時間內에 戰時體制로 轉換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卽 岐陽과 江界의 「트락타」工場은 有事時 戰車生産工場으로 大型機械生産工場은 大砲 生産工場으로 轉換시킬 수 있는 措置가 完了되었다는 것이다.

現在 北韓의 兵器 工場 가운데 規模가 가장 큰것은 従業員數만도 約 1萬2千名에 達하며 年間 AK自動小銃의 生産能力만도 10萬정에 達한다.

따라서 그들은 飛行機를 除外한 在來式의 兵器를 自体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4. 最近動向

그럼 南北對話以後 그들의 動向은 果然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地上軍의 動向을 보면 從來의 26 個師團에서 28 個師團으로 2 個師團을 增設하였으며 特히 前線 3 個集團軍에 蘇製 AF-1 對戰車 유도탄部隊를 新設하였다.

海軍에 있어서는 O.S.A 級 유도 경비정 等 大型 함정을 追加 導入 했는가 하면,

空軍의 경우에는 各種 戰鬪機種을 広範하게 配置시킴으로써 항공기의 攻撃能力을 더욱 높였고 72 年度에도 SU-7 戰鬪機 2 台, MIG-8 「헬리콥터」 5 台, 기타 MIG-19 전투기 多數를 導入하는 等 戰鬪力強化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5. 偽裝平和 攻勢

北韓은 以上과 같이 軍機構의 增改編은 勿論 新裝備를 大量 導入하면서도 겉으로는 偽裝平和攻勢를 펴고 있다. 即 外軍撤収와 雙方 10 萬 以下로 兵力減縮 그리고 平和協定締結 등의 主張을 하고 있다.

이것은 對外的으로 그들의 對南侵略政策과 好戰性을 은폐하여 마치 緊張緩和와 平和 指向的인 國際潮流에 副應하는 듯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國際的인 支持 내지는 동조세력을 확보하여 北韓의 地位를 높 이려는 것이다. 한편 韓國에 對하여는 總力安保態勢를 弱화시키고 韓 國民의 對共驚覺心을 해이시키며 國論을 分裂시켜 韓國에 對한 힘의 極少化를 획책하려는 底意인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戰爭準備를 完了해 놓고 이른바 決定的 時期가 到來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해도 우리는 北韓을 過大 評價하여 두려워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戰爭의 勝敗는 武裝한 軍人에 依해서 左右되는 것이 아니라 國力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나할 것없이 國力培養에 힘써야 한다는 結論에 도달하는 것이다.

小單元 3. 共產主義의 戰略戰術

教 授 目 標

<知 識>

1. 戰略, 戰術의 目的과 方法을 說明할 수 있다.
2. 戰略의 類型을 指摘하고 그 特徵을 說明할 수 있다.
3. 戰術의 여러가지 形態를 指摘하고 그 特徵을 說明할 수 있다.
4. 共產主義의 戰略戰術이 世界赤化와 共產獨裁를 위한 手段으로 利用되고 있음을 實例를 들어 說明할 수 있다.

<態 度>

1. 共產主義의 戰略戰術을 理解함으로써 共產主義를 警戒하고 對備하는 마음자세를 갖는다.
2. 北韓의 對南革命戰略을 理解함으로써 北韓의 對南宣傳이나 策動에 對備할 수 있다.

<批判能力>

1. 北韓共產主義者들의 赤化統一을 위한 戰略戰術을 批判하고 이에 對備할 수 있는 政策의 方向을 말할 수 있다.
2. 北韓의 對南革命方法을 分析하고 이에 對備할 수 있는 國家的 國民的 努力의 方向을 指摘할 수 있다.
3. 北韓의 對南平和攻勢의 저의를 戰略戰術의 觀點에서 分析 把握할 수 있다.
4. 共產主義의 戰略戰術이 國際平和와 人類共榮의 目的에 비추어 非人道的, 非平和의임을 批判할 수 있다.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1. 戰略戰術의 概況</p> <p>1) 革命路線</p>	<p>① 革命戰略의 意味</p> <p>革命의 對象이 무엇인가를 規定하고 이에 대하여 革命의 主力軍과 同調勢力을 어떻게 編成할 것인가를 決定하는 策略</p> <p>② 革命의 主力軍</p> <p>언제나 勞動階級이 担当</p> <p>③ 資本主義의 勞動者階級이 革命을 願하고 있지 않다는 事實은 革命戰略理論의 基本假定이 虛構的임을 証明</p>	<p>이 單元을 取扱함에 있어서 留意할 점은 共產主義戰略戰術이 宣傳선동組織을 통하여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相對方의 취약점을 利用하여 世界赤化를 노리는 共產主義手法이라는 점을 여러가지 經驗的인 事例를 통하여 밝히는 것이며 이에 대비하는 反共能力과 자세확립을 강조하는 것이다.</p> <p>世界 2次大戰後의 共產化는 共產主義理論대로 資本主義가 自体矛盾에 依해 自然崩壞되어 共產主義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같은 共產主義者들의 간혹한 戰略戰術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說明함이 좋을 것이다. 이같이 戰略戰術은 世界赤化를 위한 手段인 同時에 共產國家 獨裁者들의 獨裁權力維持와 強化手段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울러 說明함이 좋을 것이다.</p>	
<p>2) 戰 術</p>	<p>① 「불세비키」革命戰術이 「모델」</p> <p>② 戰術의 区分</p> <p>① 革命運動昂揚期의 戰術</p> <p>革命조직과 역량을 혁명고지의 점령에 적극적으로 동원시키는 것으로 파업, 시위, 무장폭동등 모든 투쟁의 전개</p> <p>② 革命退潮期의 戰術</p> <p>革命昂揚기에 대비키 위해 혁명조직과 力量을 노출하지 않고 革命力量의 保存과 蓄積에 注力</p> <p>③ 모략과 기만에 의한 것이다.</p>		
<p>2. 戰略의 類型</p> <p>1) 「프롤레타리아」革命戰略</p>	<p>① 「프롤레타리아」革命戰略</p> <p>「러시아」「불세비키」革命이 그 代表的인 例-革命의 主敎: 資本家계급-革命의 主動세력: 노동계급과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勞農同盟</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点	資 料
<p>2)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p> <p>3. 戰術의 形態</p> <p>1) 統一戰線戰術</p> <p>2) 上層統一戰線 과 下層統一戰 線</p>	<p>② 革命戰略에서 어떤 階層을 同調勢 力으로 끌어들이고 어떤階層을 中立 으로 할 것인가는 狀況에 따라 多 樣</p> <p>③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 「프」의 革 命이 절박한 課題로 되지 않는 한 이 戰略은 虛構의인 理論에 不過하 다.</p> <p>① 「프롤레타리아」革命戰略이 資本主 義의 폐기를 직접적 解決課題로 하 는 反面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은 共 産執權의 길을 여는 政治的, 社会的 條件의 確保를 그 基本課題로 한다.</p> <p>②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의 典型: 東歐 諸國의 共產化過程</p> <p>③ 中共의 경우, 北韓의 경우도 人民 民主主義革命戰略採用</p> <p>① 意 味 共産黨이 革命을 遂行하기 위해 民主, 民族主義勢力等 非共産主義勢力 과 제휴하는 戰術</p> <p>② 統一戰線의 原則 提携하는 政黨 또는 政派의 獨立 性을 살리는 反面, 어떠한 경우에도 共産主義原則을 固守한다는 原則</p> <p>① 統一戰線 提携의 對象인 政黨 또 는 社會團體의 指導級에 있는 者를 對象으로 하면 上層統一戰線이라고 하고 一般下層構成員을 對象으로 하 면 下層統一戰線이라고 한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各種鬭爭形態</p> <p>4. 北韓의戰略戰術</p> <p>1) 赤化統一의戰略戰術</p>	<p>② 下層統一戰線을 더 重視하는 理由： 下層大衆은 批判과 教養으로 革命의 同調 또는 主体勢力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反面, 指導級에 있는 者는 背信할 可能性이 크다고 보기 때문.</p> <p>① 消極的鬭爭과 積極的鬭爭</p> <p>② 合法鬭爭과 非合法鬭爭</p> <p>③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p> <p>④ 武裝鬭爭： 暴力鬭爭의 最高形態</p> <p>⑤ 怠業, 罷業, 示威</p> <p>⑥ 政治的鬭爭： 革命情勢가 成熟되고 있을때 行하는 反面 經濟的鬭爭은 勞動者들의 革命性再考와 革命勢力擴張을 위해 行함.</p> <p>① 北韓은 統一問題를 南韓革命問題로 規定</p> <p>㉠ 革命의 主敵을 對美協力 및 共同防衛確保로 設定</p> <p>㉡ 革命의 主動세력을 勞動階級, 農民을 主力軍으로 보고</p> <p>㉢ 中小資產層, 學生, 知識層 및 一部民族主義者까지 革命의 協力 同勢力으로 確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p> <p>㉣ 北은 이를 위해 兩韓에서의 地下黨組織에 부심하고 있다.</p> <p>② 北韓은 그들의 革命을 成就하기 위하여 反共勢力, 保守政治勢力까지도 利用하려고 함.</p>	<p>여기에서는 南北革命을 위한 北韓의 戰略戰術의 內容을 說明하고 이에 對備할 수 있는 國家的 國民의 能力培養의 重要性을 強調한다.</p> <p>北韓의 여러가지 南韓에 對한 도발이 위와같은 北韓의 戰略戰術에 기인된 것이며 이들의 戰略戰術이 우리의 대비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有利하게 變化되거나 또는 拋棄될 수 있다는 點을 지적해야 한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2) 革命의 手段	<p>③ 北은 南의 共産化가 오직 武力鬪 爭에 依하여서만 可能하다고 보고 있으며</p> <p>① 韓國의 情勢를 革命退潮期로 보 고 地下革命力량의 保存과 蓄積에 힘을 기울여 왔으나 여의치 않아 지자</p> <p>㉠ 武裝間諜, 「게릴라」등을 南派, 革 命昂揚期를 造成하려고 하였다가 失敗</p> <p>① 南韓革命의 主体는 南韓內의 革命 力量이라고 보나 軍事力까지 手段으 로 利用</p> <p>② 物理的, 思想的, 心理的 온갖 手段 利用</p>		<p>4-1) <詳細1></p> <p>4-2) <詳細2></p>

詳 細

< 詳細 1 > 北韓의 赤化統一의 戰略戰術
4 - 1)

1. 北韓은 統一問題를 革命의 問題로 断定하고 南韓에서 소위 「人民民主主義 革命」이 遂行되어야 積極的 革命(統一)이 遂行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北韓은 韓半島 革命의 性格을 「反帝, 反封建民主主義革命」이라고 밝히고 革命의 主敵으로 韓美의 協力 및 共同防衛關係를 設定하고 있다. 그들은 革命의 推進勢力으로 勞動階級과 農民을 主力軍으로 보고 中小 資產層, 學生, 知識層 및 一部 民族資本家까지 革命의 協助勢力에 끌어 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北韓은 이를 爲하여 地下 共産黨을 組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많은 間諜을 南派하였던 것이다.

2. 北韓은 反美, 反政府 勢力을 擴大하기 위해서 可能的 모든 要素를 利用하려 든다. 즉 反共的인 勢力이라도 反美的 要素가 있으면 그와 提携하려고 하며 또한 保守的 政治勢力이라도 反政府的일 때는 統一戰線을 形成하려고 꾀하는 것이다.

3. 北韓은 韓國의 共産化가 오직 暴力에 의해서만 遂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革命 戰術의 軸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韓國의 情勢를 소위 革命의 退潮期로 보고 地下 革命力量의 保存과 蓄積에 重點을 두어 왔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武装間諜 및 게릴라의 南派로, 革命의 양양기 時代를 造成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그들이 革命의 鬪爭形態로서 政治鬪爭과 經濟鬪爭, 合法鬪爭과 非合法 및 半合法鬪爭, 暴力鬪爭과 非暴力鬪爭을 配合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은 소위 革命의 萎縮期를 克服하려는 努力이다.

< 詳細 2 > 北韓의 對南革命手段
4 - 2)

1 . 北韓은 「南朝鮮革命」의 主体는 南韓内の 革命力量이라고 主張하고 있으나 戰爭에서 승산이 있다고 判斷할 境遇에는 軍事力을 革命의 手段으로 使用할 것이며 . 이것은 6.25 南侵의 歷史的 事實이 시사해주고 있다 .

2 . 北韓은 또한 게릴라戰을 對南革命의 手段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 事實은 1960 年代에 試圖한 일련의 게릴라대의 南派가 말해주고 있다 . 情勢의 變動에 따라 게릴라戰의 比重을 높게 또는 낮게 잡을 뿐이다 . 한편 게릴라戰의 試圖가 戰爭勃發의 誘因으로 될 수 있다는 點을 알아야 한다 . 北韓의 對南 게릴라戰이 大韓民國에게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그에 對한 報復을 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 결국 報復과 報復의 惡循環으로 戰爭으로까지 發展할 危險이 있다는 것이다 .

3 . 北韓은 革命의 手段으로 物理的인 것만을 動員하는 것이 아니라 同時에 이데올로기 및 사상 선전도 아울러 並行하고 있다 . 南北對話 및 接觸의 時代에서는 對南 革命의 手段과 方法이 可能的 모든 与件을 最大한 利用하여 보다 多樣하게 展開할 것이므로 이에 對한 國民의 各별한 警戒과 對備가 要請되는 것이다 .

單元 IV

南北關係와 統一問題

小單元

1. 祖國의 分斷과 南北關係의 變遷
2. 祖國統一의 要請과 要件
3. 統一原則과 南北의 統一政策
4. 南北關係發展의 方向과 展望

單 元 目 標

1. 祖国分断의 由来와 南北 对立關係의 變遷過程을 理解시킴으로서 南北關係의 性格을 把握시킨다.
2. 祖国統一의 要請과 要件을 理解시킴으로서 올바른 統一觀을 갖도록 한다.
3. 南北의 統一原則을 比較批判 할 수 있게 한다.
4. 對話를 통한 南北接觸의 過程과 原則을 理解시킴으로서 우리의 正當한 統一努力의 過程에 積極 參與하는 國民的 態度를 기른다.
5. 우리의 正當한 統一努力의 成就가 北韓共產主義者들과 이들을 둘러싼 共產國家들의 妨害와 挑戰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理解시킨다.
6. 우리의 統一原則과 方案에 立脚한 統一課業의 成就를 위한 國家的 努力에 能動的으로 參與하는 態度를 기른다.

内 容 概 要

小 单 元	主 题	内 容 要 素
1. 祖国分断과 南北關係의 變遷	1) 祖国分断 2) 南北의 政治理念과 体制 3) 우리의 統一努力과 北韓의 挑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祖国分断의 國際的 背景, 分断의 他律性, 蘇聯의 分割割策 • 南北의 理念比較, 体制比較, 文化, 社会의 比較 • 解放後 지금까지의 統一努力, 6.25의 原因과 結果, 北韓의 継続的인 挑戰
2. 祖国統一의 要請과 要件	1) 要 請 2) 要 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史的 要請, 人道的, 國家發展의 要請, 國際政治的 要請, • 民族國家 同一體意識, 民主力量, 社会正義의 高揚, 国力培養
3. 統一原則과 南北의 統一政策	1) 南北對話의 理論的 背景 2) 統一原則 3) 相異한 統一目標과 政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決裂制禦, 機能主義 收斂理論에 의한 對話의 目標效果 期待值 分析 • 우리의 統一原則의 正当性, 7.4 南北共同聲明의 合意事項 • 南北統一目標, 政策의 比較
4. 南北關係 發展의 方向과 展望	1) 南北關係發展의 方向 2) 南北의 体制競爭 3) 韓國의 主導的 役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同質性 回復, 相互理解와 信賴의 增進, 平和關係維持 • 南北對立과 競爭 • 國家發展과 統一을 위한 總力安保 統一問題 解決의 長期性

小單元 1 . 祖国의 分断과 南北關係의 變遷

教 授 目 標

< 知 識 >

- 1 . 6.25 以前의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政治의 背景을 利用하여 祖国 分断의 他律性を 說明할 수 있다 .
- 2 . 解放後 지금까지의 南北關係를 利用하여 韓國의 繼續된 平和的 統一努力의 成就가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挑発로 지연됨을 說明할 수 있다 .
- 3 . 6.25 의 原因과 結果를 說明할 수 있다 .
- 4 . 北韓의 挑発 目的과 方法의 特徵을 解放後 지금까지의 挑発 事例를 들고 說明할 수 있다 .

< 態 度 >

- 1 . 南北 理念 및 体制比較를 通하여 韓國의 民主体制에 對한 優越性を 確信한다 .
- 2 . 6.25 와 繼續된 北韓 共產主義의 挑発을 通하여 共產主義의 侵略性에 恒時 對備하는 國民的 反共態度를 기른다 .
- 3 . 우리의 平和的 統一方案에 對한 正當性和 實現可能性을 믿고 이의 成就를 위해 努力하는 國民的 態度를 기른다 .

< 批判能力 >

- 1 . 北韓의 國軍北侵 主張 內容을 說明하고 그 虛構性和 不當性を 批判할 수 있다 .
- 2 . 東西兩陣營의 韓半島 政策을 比較하고 , 이들 政策이 우리의 祖国統一政策에 미치는 影響을 說明할 수 있다 .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1. 祖國分斷의 悲劇</p> <p>1) 祖國分斷의 背景</p>	<p>① 分斷論議 (解放以前) :</p> <p>韓半島는 그 地政學的 位置로 인하여 大陸勢力과 海洋세력이 교체되는 곳으로 많은 침략을 받게 되었으며 그중 日本과 러시아간의 利害관계로 韓半島를 분할 점령하고자 여러 차례 그들간에 논의가 있었다.</p> <p>㉠ 1895年 駐韓日本公使 三浦梧棲의 韓半島分割提議</p> <p>㉡ 1896年 山縣有朋의 38度선에 의한 韓半島分割제의</p> <p>㉢ 1904年 러시아의 39도선에 의한 한반도 분할제의</p> <p>② 國土의 分斷 :</p> <p>世界第2次大戰의 종말시 外國勢力間에 오고간 합의에 의하여 國土가 양단되게 되었다.</p> <p>㉠ 1945年 美, 英, 蘇의 「알타」회담의 結果</p> <p>㉡ 소련의 極東進出을 위한 38度線 分割提議의 結果</p> <p>㉢ 1945年 8월 15日 太平洋聯合軍 最高司令官 「맥아더」 將軍에게 依達公 布된 <一般命令제一號>의 內容 ; 38度線以南의 日本軍은 美軍에게 그 以北은 蘇聯軍에 降伏한다.</p> <p>③ 蘇聯의 分斷고집</p> <p>㉠ 38線南北에 두개의 美蘇軍政</p>	<p>이 單元에서는 祖國分斷의 原因을 周邊大國들의 利害를 중심으로한 力動關係에서 찾아보고, 南北理念과 體制의 比較를 통하여 우리民主體制에 대한 優越性을 確信케 하는 한편, 우리의 誠實하게 계속된 統一努力에도 불구하고 北韓共產黨의 계속된 挑釁로 인하여 統一이 지연되고 있음을 인식시키는데 강조를 둔다.</p> <p>地政學的인 位置로 보아 周邊大國들의 利害가 깊숙히 얽혀있는 한반도는 過去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들의 利害關係로 인하여 犧牲될 可能性이 있음을 강조한다.</p> <p>蘇聯의 對韓半島政策에 숨어 있는 世界赤化의</p>	<p>1-1)-① <詳細1></p> <p>1-1)-② <詳細2> 보충설명</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㉔) 分断의 固定化를 是正하기 위하여 北韓의 蘇聯軍司令官에게 美軍司令官은 協商提議 - 蘇聯의 非妥協的態度로 失敗</p> <p>(㉕) 1945. 12. 美, 英, 蘇의 「모스크바」三相會議 - 「모스크바」協定採択</p> <p>(㉖) 「모스크바」協定에 따른 美蘇共同委員會開催 - 蘇의 信託統治主張으로 成果 無</p> <p>(㉗) 1947年 美国은 再次 「모스크바」會議開催를 提案 - 蘇의 拒否</p> <p>(㉘) 蘇聯이 韓半島를 分断하기 위하여 非妥協의인 主張을 했던 理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産黨을 包含한 聯政統一政府가 수립된다 하더라도 反共勢力이 너무 강해서 早速한 시일내에 全國 赤化가 불가능하다고 判斷한점. • 우선 北韓에 「革命基地」를 構築하고 實力을 培養하여 南韓을 赤化하는 것이 賢明하다고 判斷한 점. • 蘇聯과의 直接協商이 不可能해지자 美国은 韓國問題를 1947年 9月 17日 UN에 上程, - 소련은 이를 「모스크바」協定위반이라고 上程을 反對 <p>4. 政府樹立</p> <p>(㉙) UN總會는 1947. 11. 4 韓國獨立의 節次를 規定하는 美国의 決議案採択</p> <p>(㉚) 決議案採択에 따라 남북한 자유선</p>	<p>음모를 認識시키는데 강조를 둔다.</p> <p>韓國統一問題解決을 위한 UN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소련과 이에 追從하는 金日成一黨에 의한 重要한 妨害工作을</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外勢에 의 한 祖国分斷</p> <p>2. 南北韓의 政治理念과 体制</p> <p>1) 理念的側面의 比較</p>	<p>거를 실시키 위하여 「UN한국임시 위원단」을 파견</p> <p>㉔ UN 한국임시위원단의 入北拒否에 따른 1948.2.26 委員團의 決議</p> <p>㉕ 5.10 選挙에 依하여 1948.8.15 政府樹立</p> <p>㉖ 北韓의 政權樹立</p> <p>㉗ 1946.2. 소련군정 하에 金日成에 依한 「北朝鮮人民委員會」組織</p> <p>㉘ 1947.11月 소련군정당국에 의하여 「헌법기초위원회」가 임명됨.</p> <p>㉙ 1948년 9月 9日 金日成의 共產政權수립</p> <p>㉚ 蘇聯은 対日戰爭에 不過 一週日도 參戰하지 않고 日本이 敗亡하자 韓國의 解放軍이라 自勉하면서 北韓에 強制進駐.</p> <p>㉛ 「모스크바」三相會議의 四大強國에 의한 5年間의 信託統治決議—民族的인 反託運動—蘇聯의 교사를 받은 一部共產主義者들의 贊託運動.</p> <p>㉜ 統一政府를 樹立하기 위한 美蘇共同委員會事業에 대한 蘇聯측의 방해와 非協調</p> <p>㉝ 韓國의 最高理念이 民主主義인데 反하여 北韓은 「마르크스·레닌」주의 理念</p> <p>㉞ 統一理念</p> <p>• 韓國 ; 民族的立場에서의 平和統一</p>	<p>이해시키는데 力點을 둔다.</p> <p>祖国分斷은 民族의 意思에 反하는 周辺強大國들에 의한 他律的인 것이었다는 點을 認識시킨다.</p> <p>南北韓理念 및 体制의 性格과 그 相異點을 比較하여 우리理念 및 体制가 優越함을 認識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理</p>	<p>1 - 2)</p> <p><詳細 3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体制의 側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 ; 暴力革命에 의한 赤化統一 ③ 主体思想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 ; 全民族的 自我回復을 위한 主体性 • 北韓 ; 金日成에 의한 「마르크스·레닌」思想에 의한 主体性 ④ 協同精神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 ; 自發的인 自助精神에 바탕을 둠 • 北韓 ; 金日成唯一思想에 의한 無條件強要에 바탕을 둔 강압된 협동 ⑤ 史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 ; 主体의 民族史觀 • 北韓 ; 階級史觀 ⑥ 民族大團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 ; 民族史의 正統法에 의한 民族總和 • 北韓 ; 民族分裂의인 階級的 團結 ① 政治体制의 比較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韓國 ; 民主代議政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主共和國으로서 主權은 國民에게 있다. • 國民의 選舉에 의한 代表로 構成된 立法機關이 原則적으로 法律制定權所有 (法治主義採択) • 立法, 司法, 行政의 견제와 균형 (三權分立制度採択) ② 北韓 ; 社會主義体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會主義國家로서 主權은 勤勞人民 (勞動者, 農民兵士, 勞動인테 	<p>念 및 体制의 比較는 具體的인것 보다는 全體的으로 묶어서 要約된 根本的인 差異點을 糾明 하도록 함이 學習者의 理解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리)에게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勞動人民을 代表하는 勞動黨의 指導下에 「플로데타리아」獨裁실시 • 革命的, 戰鬪的, 階級的 政治體制 <p>② 經濟體制的 比較</p> <p>① 韓國; 自由經濟體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私有財產의 認定 • 經濟活動의 自由制度 (市場) • 職業選擇의 自由, 消費의 自由 <p>② 北韓; 社會主義企劃經濟體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家所有權의 無制限性 • 經濟活動은 國營企業所와 協同企業所가 담당 (企劃經濟) • 職業, 居住地, 消費行爲選擇權의 剝奪 • 生産의욕의 인위적 조작 <p>③ 社會體制的 比較</p> <p>① 韓國; 個人的努力의 總和에 依한 協同社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多元的自由社會 • 公開社會 • 自律的社會 <p>② 北韓; 集團主義體制下的 組織社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과 共產黨에 依한 獨裁社會 • 党性에 依한 階級社會 • 閉鎖社會 • 他律的社會 <p>④ 文化體制的 比較</p> <p>① 韓國; 人間의 自由와 創意를 바</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祖國統一을 위한 노력과北韓의 挑戰</p> <p>1) 우리의 統一 노력</p>	<p>탕으로 한 生活文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由, 創意를 기본으로한 文化 • 生活中心의 文化 (個人的 生活 經驗이 藝術의 素材) <p>㉞ 北韓 ; 黨의 命令과 唯一思想을 바탕으로 한 政治的인 文化藝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의 命令과 共產主義이 떠오르기를 바탕으로한 文化藝術만 存在 • 政治中心의 文化 (革命鬭爭과 唯一思想이 藝術의 素材) <p>① 政府樹立後 動亂까지</p> <p>① 政府는 48.8.15. 獨立을 宣布함과 同時에 첫째, 選舉가 保留된 北韓地域에서 自由民主的 選舉가 早速히 實施될것을 促求하고 둘째, 北韓地域의 收復은 北韓住民들의 自由意思에 依해 成就될 수 있지만 自由意思가 繼續 封鎖되는 경우 武力에 의하더라도 成就되어야 한다는 것을 申明</p> <p>㉞ 1948年 三次 UN 總會는 大韓民國이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宣言.</p> <p>㉞ 50年 10月 李大統領은 北韓地域에 對한 行政權을 大韓民國이 行使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5, 6차 UN 總會에서 北韓地域에서만 UN 監視下에 自由選舉를 實施할것을 主張</p> <p>㉞ 53.7.28. 李大統領은 < UN 과의</p>	<p>解放以後 오늘날까지 速히 追求한 우리의 統一노력이 北韓 共產黨과 이들을 둘러싼 共產主義 國家들의 妨害로 結實을 맺지 못하게된 點을 強調해야 한다.</p> <p>이같은 共產黨의 挑戰을 克服하고 民族의 念願인 統一을 成就하기 위해 必要한 對 共產主義에 對한 國民의 姿勢 確立을 強調한다.</p> <p>解放以後 오늘날까지 우리가 主張해온 統一方案은 UN 監視下에 自由 總選舉案로서 一貫되어 왔으며 이러한 統一方案</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協調하에 祖國統一을 이루겠다 >고 선포</p> <p>㉞ 53.11.23 李大統領의 特別聲明 ; 北 韓만의 選舉로 國會의 殘余議席를 채우는 것이 原則이나 北韓住民이 願한다면 全國選舉를 받아드릴 用意 가 있다. - <北韓만의 選舉>에서 <全國選舉>로 주장완화</p> <p>② 제네바會談以後 4.19 까지</p> <p>㉠ 1954.5.22 제네바會談에서의 제의 - U N 監視下에 土着人民比例에 依한 自由選舉를 骨子로 하는 14 個項의 統一方案을 提示 - 韓國選舉에 U N 의 監視役割은 認定할 수 없다는 理由 로 北韓은 拒否</p> <p>㉡ 1954.6.15. 韓國參戰 16 個國宣言 土着人口比例에 依한 自由選舉 실시주 장</p> <p>③ 4.19 以後 5.16 까지</p> <p>㉠ 1960.8.24. 7 項의 外交政策宣言 U N 監視下 土着人口比例에 依한 南 北韓總選舉가 우리의 統一方案임을 公式化 - 過去에 主張했던 武力에 依 한 韓國統一같은 無謀한 政策은 廢 棄한다고 宣言</p> <p>④ 5.16 以後 10月維新까지</p> <p>㉠ 革命政府는 革命公約에서 <反共, 先建設, 後統一>의 方針發表</p> <p>㉡ 61年 6月革命政府의 統一方案의 發表 ; 武力에 依한 統一은 願하지 않으며 平和的方法으로 統一을 追求</p>	<p>은 自主, 平和, 民族의 原則에 立脚했던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하며 U N監視下의 南北韓總選舉實施에 의한 통일 방법을 주장</p> <p>㉔ 1961年 大統領年頭親書; 經濟建設과 民主力量的 培養이 統一의 捷徑임을 闡明</p> <p>㉕ 1970年의 新年辭; 統一을 위해 北韓에 對하여 絶對優位의 힘을 確保함으로써 統一의 主導權을 잡아야 한다고 申明</p> <p>㉖ 1970年의 8.15宣言; 平和의 方法에 依한 統一成就의 原則과 함께 北韓이 U N의 權位와 權能을 認定한다면 U N에서 韓國問題討議에 北韓이 參席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겠다는 것을 闡明</p> <p>㉗ 1971年8月12日 南北赤十字會談의 開催提議</p> <p>㉘ 1972.2.12. 三段階統一方案提示; 人道的問題, 非政治의 問題, 政治의 問題의 順으로 討議할것을 提議함과 同時에 先行條件으로 ①非武裝地帶의 平和의 利用 ②武裝間諜의 南派中止, ③抑留中인 KAL機와 乘務員의 送還 ④全國土要塞化 中止等을 北韓에 提案</p> <p>㉙ 72.7.4. 南北共同聲明; 自主, 平和 統一, 民族大團結.</p> <p>㉚ 1973.6.23.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p>	<p>새로운 國際潮流에 能動的으로 適應함으로써 南北赤十字會談, 南北調節委員會會談等 南北對話를 위한 轉換點을 마련한데 그 意義가 있음을 指摘해야 한다.</p> <p>三段階統一方案은 그內容自體의 說明보다도 그것이 實際 南北間의 接近에 있어서 가장 合理的이고 現實的이라는데 強調를 두어야 하며, 이에 對比하여 北韓의 一括處理方案의 不當法을 指摘해야 한다.</p>	<p>3 - 1)-④-㉔ <詳細 4 > 8.15宣言內容 補充 解說</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点	資 料
2) 6.25의 悲劇	<p>① 北韓의 武力南侵의 史的背景과 条件</p> <p>㉠ 소련의 한반도 남하정책 ;북한에 공산정권을 수립케 하고 그 후견인이 됨으로써 남하정책을 실현코저함.</p> <p>㉡ 中共의 政權수립과 북한외 침략야욕지거</p> <p>㉢ 「에치슨라인」에서 韓國이 除外되고 한국이 요구한 중무기공급에 대한 미국의 거절로 인한 남북군사력의 불균형</p> <p>㉣ 北韓이 當時 政治, 經濟面에서 南韓이 不安定하다고 判斷한점.</p> <p>㉤ 南勞黨系가 南韓에 潛在하는 共產勢力이 50万이라고 誇長하고 戰爭發生時는 이들이 同調할 것이라고 誤判한점.</p> <p>② 6.25의 被害와 영향</p> <p>㉠ 被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命被害 • 財產被害 • 文化財被害 <p>㉡ 影響</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不信의 조장 • 外勢誘致의 強化 • 反共精神의 高揚 <p>㉢ 國軍北侵主張의 虛構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年 6月 18日 北韓最高司令部 情報部司令官이 北韓人民軍제 4團長에게 시달한 偵察命令書第 1号와 北韓軍제 4步兵師團司令官 이 건 	<p>北韓側의 國軍北侵主張에 對한 虛構成을 밝힘과 同時에 南侵에 對한 證拠를 對照的으로 提示함이 좋을 것이다.</p> <p>民族의 結合과 民族文化 發展에 주는 6.25의 影響을 認識시킴과 同時에 이와같은 同族相殘의 悲劇을 초래하는 失手가 再發하지 않도록 하는 對共경각심과 國민적자세 확립에 대한 강조의 방향으로 교수를 이끌어야 한다.</p>	<p>3-2)-① <詳細 5> 6.25발발에 대한 사적배경 보충설명</p> <p>3-2)-② <詳細 6> 6.25의被害狀況</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北韓의 挑戰</p>	<p>무의 戰爭命令書 1 号等에 依하면 南侵이 分明—南侵準備는 6 月 22日 까지完了, 蘇聯軍顧問團은 北韓〈民族保衛省〉에 命하여 戰鬪命令제 1 号를 前方師團長에게 下達 6 月 23 日까지 戰鬪態勢完了토록 命함.</p> <p>① 解放後 1950年까지의 挑戰</p> <p>㉠ 南勞黨系를 통한 對南工作과 계될 라作戰</p> <p>㉡ DMZ의 武力挑發</p> <p>㉢ 板門店 및 매스콤, 國際舞台를 통한 宣傳宣動</p> <p>㉣ 1948.2.7을 기하여 殺人, 放火, 破壞, 罷業, 盟休를 南勞黨에 指令 (北韓은 이를 2.7 救國鬪爭이라 함)</p> <p>㉤ 제주도〈4.3 폭동사건〉; 軍대안에 침투한 공산파락치사건</p> <p>㉥ 여수, 순천반란사건</p> <p>㉦ 1946.9.11. 李承晩저격사건,</p> <p>② 6.25以後 5.16前까지의 挑發</p> <p>㉧ 1953.8.5日 北韓共產黨〈제 6 차 全員會議〉의 決定書; 休戰에 依한 平和期間을 最大限利用하여 戰爭準備를 하자.</p> <p>㉨ 〈戰後人民經濟復舊三箇年計劃〉; 軍 輸工業과 兵器生産注力.</p> <p>㉩ 4.19當時 心理的인 偽傳統—攻勢로 聯邦制 提議와 同時에 南韓에 對한 間諜活動의 強化 그리고 南韓 地域을 統轄할 人的構成까지 完了</p>	<p>北韓의 戰略戰術에 따른 여러 가지形態의 끊임없는 挑發을 理解시킴으로서 이러한 挑發에 對備할 수 있는 國家的, 國民的 態勢確立에 強調를 두어야 한다.</p> <p>北韓의 挑發形態와 內容件數에 對하여는 表를 整理하여 提示함이 理解를 促進시킬 수 있을 것이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③ 5.16以後의 挑発</p> <p>㉠ 5.16革命과 同時에 平和攻勢를 버리고 武力強化에 全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年 <제 4 차당대회>에서 武力攻勢로 方向轉換 • 1962.12 <4대군사노선> 채택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p>㉡ 1968년부터 南韓의 高度成長에 當面, 武装共匪南派에 依한 暴力戰術로 對南積極攻勢 取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6년 1월이후 68년 1월까지 北韓이 저지른 큰事件만 25件; 동명호, 영풍호남북사건, 56 함피격사건, 경원선폭파사건, 미함 푸에블로호사건, P O 미기추격사건, KAL기납북사건, 등등 • 1968년 1년동안의 간첩남파사건; 326건이상의 1,142명이상 남파 <p>㉢ 1966年以後는 暴力戰術을 一時 後退시켜 地下黨工作으로 轉換</p> <p>㉣ 8.28 일방적선언; 1973.8.28 北韓의 김영주는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담화발표.</p>		

詳 細

< 詳細 1 > 解放以前の 分断論議 1-1)-①

韓半島の 分断은 꽤 오랜 동안의 國際權力 政治的 背景을 가지고 있다. 일찌기 1895年 8月 駐韓日本公使이며 犯関弑侯의 元凶인 「三浦梧倭」는 对 러시아 国交 調整案으로서 韓半島の 勢力圈 分割을 提議한바 있었고, 1896年 5月에는 「山県有朋」이 38度線에 依한 韓半島 分割을 러시아 外相「로바노프」에게 提議하였으나 拒否된 일이 있었다. 그리고 日露戰 直前인 1904년에는 러시아가 39度線에 依한 分割管理를 日本에 提議한 바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韓半島는 그 地政學的 位置때문에 大陸勢力의 東進 또는 南進을 위한 발판이 되어왔고, 海洋勢力의 大陸進出을 위한 橋梁的 役割을 맡게 되어 周辺強大國들의 勢力角逐場 내지 鬭爭場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 詳細 - 2 > 38선과 国土分断 1-1)-②

2次大戰이 끝날무렵인 1945년 2월 美·英·蘇 三大國은 「알타」에서 會談을 갖고 蘇聯의 对日 參戰과 戰後處理에 関하여 協議한 바 있었는데, 當時 蘇聯은 이 會談에서 韓國을 包含한 極東에 있어서의 旧領土 勢力範圍 및 諸利權의 回復을 確約받음으로써, 帝政러시아때 부터의 傳統的인 南進政策을 굳히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国土를 兩断시키는 原因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蘇聯은 이미 帝政러시아 當時 日本과의 勢力均衡을 위해 暫時나마 38線을 境界로 勢力均衡線으로 정한 일이 있었거니와 알타會談에서도 38線을

主張했던 것은 對韓國南進政策을 目標로 하는 蘇聯의 傳統的 極東政策을 具現하는데 뜻을 두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韓半島에서의 어느 한 強大國에 의한 主導權을 主張할 수 없다는 態度를 取한 戰時 聯合國의 利害關係와 結付되어 우리 民族의 運命을 다시금 列強 國際權力政治의 犠牲物로 만들고 말았다.

1945年 8月 15日자로 太平洋聯合軍 最高司令官 「맥아더」將軍에게 傳達 公布시킨 「一般命令 第一號」는 韓半島 38度線 以南의 日本軍은 美軍에게 그리고 그 以北의 日本軍은 蘇聯軍에게 降伏하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이 文書야 말로 韓半島의 分割을 招來한 公文書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것이 軍事作戰上의 必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아무런 政治的 考慮가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戰時 聯合會會談, 特히 카이로會談 및 알타會談에서의 어떤 公約을 履行한 一環이었던 것인지는 分明하지 않다. 이에 관한 公文書는 아직 未達인채 38度線 分割占領을 둘러싼 論議는 거듭되고 있다.

우익의 대립과 우익의 대립이 점차 날카로와 가고 있을 때, 미군과 소군이 각기 진주하였던 것이다.

① 1945년 2월 알타 비밀협정 (Yalta 秘密協定)에서 소련의 對日 참전이 결정되고 또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한국을 분할 점령할 것이 결정된 후, 5개월이 지나 맺어진 포츠담협정 (Potsdam Agreement)에서 미·소 양군은 북위 38°선을 분할선으로 결정했던 것인데, 소련은 8월 9일 대일 선전 포고 후, 한·소국경을 넘어 일본이 항복한 후에도 계속 진군하여 북한의 주요도시에 진주하였다.

② 한편 미국은 9월 9일 인천에 상륙하여 곧 서울에 입성, 점차 남한일대에 주둔하였다.

③ 미·소 양군은 전기한 바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韓半島를 南北으로 分斷 점령한 것인데, 38도선은 원래는 단순한 일본군의 무

장 해제를 위한 군사적 필요에서 設定된 것이나 이제 韓國民에 있어서는 부자유스런 선으로 되었고, 그후 韓國의 政治的·文化的 分割線으로 되어 우리 민족을 분열과 悲劇으로 엮어매고 말았다.

<詳細 - 3 > 外勢에 依한 祖国分斷

1 - 2)

1. 敗戰 日本軍의 무장해제라는 名分으로 美軍은 우리나라 북위 38도선 以南에 蘇聯軍은 그 以北에 진주하였다. 美軍은 우리나라의 解放國으로 온 겨레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데 반해서 蘇聯軍은 불과 일주일이지만 對日戰爭에 參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방자로 自勉하면서 非·人道的 횡포를 감행하였기 때문에 민족의 증오를 받았다.

2. 미국은 처음부터 國際政治的 立場과 價值觀에 따라 우리나라를 民主獨立 國家로 發展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그의 軍隊가 진주한 北韓地域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 괴뢰공산 政權을 急造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美英蘇의 3國 外相會議가 열리고 여기서 우리나라에 관한 결정이 내리게 되었다. 그 要旨는 臨時 政府를 구성하되 5년간의 四大國 信託統治를 거친 후 完全 獨立을 實現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은 前後 美·英·蘇 사이의 타협의 선물로서 早速한 統一 獨立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으로서 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信託統治를 反對하는 運動이 거족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蘇聯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민족의 夢을 저버리고 信託統治를 贊成하였다.

3. 蘇聯 政策의 代行者이며 민족的 要求를 저버린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統一을 願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共產化 統一을 위해서 北韓

에 所謂 革命의 基地를 建設해야 한다는 政策을 표방하였다. 國際 關係가 韓國分斷의 第1次的 人爲的 要因이라면 北韓의 反民族的 民主統一의 거부는 그 第2次的 要因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모스크바 3相會議 결정에 따라 임시 統一政府를 樹立하기 위한 第2次에 걸친 美蘇共同委員會 事業은 共產側의 부당한 要求로 좌절되고 國土統一의 展望은 더욱 어두어 지게 되었다.

<詳細 - 4> 8.15宣言의 內容要旨
3 - 1) - ④ - ㉑

朴正熙 大統領은 1971年 8月 15日 光復節 26週年 慶祝辭 가운데서 平和統一의 構想을 밝혔으며, 이 宣言은 南北對話와 또한 南北關係 改善의 方向 및 平和統一의 原則에 合意한 南北共同聲明이 나오게된 契機가 되었다. 8.15宣言은 北韓이 戰爭準備를 서두르고, 한편 南韓에 對하여 武裝挑發을 하고 있는 狀況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戰爭을 防止하고 南北關係를 平和的으로 誘導하며, 그 바탕위에서 平和統一의 條件을 造成하고자한 것이 그 背景이며 趣旨이다.

8.15宣言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統一은 반드시 平和的으로 이룩해야 한다. 統一이 時急을 要하는 民族의 至上 課題라고 하더라도 동족 살육의 戰爭은 反對해야 한다.

② 北韓은 武裝共匪의 南派等 모든 戰爭挑發 行爲를 즉각 中止하고 所謂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다. 暴力에 의한 大韓民國의 전복을 기도해온 從前의 態度를 完全히 拋棄한다는 것을 明白하게 對外에 宣稱하고 이를 行動으로 實證해야 한다.

③ 이러한 우리의 要求를 北韓이 수락하여 實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確實히 認定할 수 있고, 또한 UN에 의해 明確하게

確認될 境遇에는 南北間에 가로놓인 人爲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現實的인 方案을 提示할 用意가 있다.

④ 北韓에 對해 「더 以上 무고한 北韓同胞의 民生을 犧牲시키면서 戰爭準備에 광분하는 罪惡을 범하지 말고 보다 善意의 競爭, 말하자면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살 수 있는 條件을 가진 社會인가를 立證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에 나설 用意가 없는가를 묻고 싶다는 것」이 그 主要 骨幹이었다.

<詳細 - 5> 北韓의 武力南侵의 背景條件
3 - 2) - ①

當時의 對內的 狀況은 다음과 같다.

① 蘇聯은 帝政러시아時代부터 韓半島에 對한 南下政策이 2次大戰以後 北韓의 占領 및 傀儡政權樹立으로 나타났고 繼續해서 南韓까지 併合赤化시킴으로서 아시아 大陸에서의 起點을 確保하며 同時에 美國의 對共產阻止能力 및 覺悟를 試驗하기 위하여 金日成을 사주하고 積極支援하였다.

② 中共이 本土에서 國民黨政府를 逐出하고 1949年 10月 1日 共產政權을 樹立, 北韓의 南侵意慾을 間接的으로 支援하였다.

③ 美軍이 1949年 6月, 南韓에서 撤収하고 50年 1月初에 發表된 「에치슨·라인」에서 韓國이 除外되었다는 發表와 50年 1월에 締結된 「韓·美軍事防衛援助協定」에서 美軍側이 韓國에서 要求한 重武器 供給을 拒絕함으로써 南北韓軍備面에서 不均衡을 招來할 것이라는 北韓의 勝戰에 對한 確信

④ 北韓이 當時의 南韓實情에 對하여 政治, 經濟面에서 不安定하

다고 誤判하였다.

⑤ 「南勞黨」系가 南韓에 潛在하는 共產殘黨勢力을 50 만으로 誇張하고 戰爭發生時에는 이들이 暴動을 일으켜 呼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金日成이를 믿었다는 점이다.

<詳細 - 6 > 6.25의 被害
3 - 2) - ②

6.25사변은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비참한 戰爭中の 하나이었으며, 이 戰爭에서 입은 우리 민족의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었다.

① 아군이 입은 人命의 피해는 戰鬪에 參加하여 犧牲된 死亡者만 10 만이상, 行方불명 20 만, 부상자가 25 만에 달하였고, 공산군에게 납치된 수가 10 만이상, 그리고 戰災民수는 수백만이 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공산측이 입은 피해는 아군의 몇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사변으로 인한 공업 피해>

업종	피해액(\$)	원상에 대한 %	
		건물	시설
금속공업	652,850	26	26
기계공업	792,555	32	35
섬유공업	92,721,744	62	64
화학공업	15,412,404	35	33
요업	1,643,739	25	20
식품공업	1,593,808	30	30
인쇄공업	2,444,400	75	75
계	115,261,502	44	42

② 물질적 피해액은 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것이지만, 총 피해액을 18 ~ 30억弗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업 시설은 43%, 發電施設은 41%, 그리고 탄광시설은 50%가량 피해를 입었으며, 주택은 3분의 1이, 공공건물·도로·橋梁·港灣등도 상당한 부분이 破壞되었던 것이다 (共産側 被害는 더욱 심하다고 함).

③ 그러나 대한민국은 休戰後 美國의 莫大한 援助에 의하여 부흥에 착수하였다.

小單元 2 . 祖国統一의 要請과 要件

教 授 目 標

< 知 識 >

- 1 . 祖国統一의 要請을 民族史的 , 人道的 , 国家發展의 , 國際政治的 , 立場에서 說明할 수 있다 .
- 2 . 祖国統一을 成就하기 위해 必要한 要件들을 指摘하고 說明할 수 있다 .

< 態 度 >

- 1 . 祖国統一에 對한 要請의 分析을 通하여 祖国統一에 對한 굳건한 信念을 갖는다 .
- 2 . 祖国統一에 必要한 要件의 造成을 위해 꾸준히 努力하는 길이 平和統一을 이룩하는 길임을 確信케 한다 .

< 批判能力 >

- 1 . 平和 , 自主 , 民族의 統一原則에서 統一成就를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要件을 指摘하고 要件의 具備를 위해 努力해야 할 方向을 說明할 수 있다 .
- 2 . 우리 國의 統一要件 成就를 위하여 對內뿐만아니라 對北 , 對國際 社會에 韓國이 對應해야 할 方向과 課題를 說明할 수 있다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頁 料
<p>1. 祖 國 統 一 의 要 請</p> <p>1) 民 族 史 의 要 請</p> <p>2) 人 道 의 要 請</p> <p>3) 國 家 發 展 을 위 한 要 請</p>	<p>祖 國 統 一 은 民 族 史 의 必 然 性 에 依 한 要 請 이 ㄴ .</p> <p>① 祖 國 分 斷 은 民 族 意 思 에 反 하 는 他 律 的 인 것 이 ㄴ 다 .</p> <p>② 人 種 , 言 語 , 風 習 , 文 化 를 같 이 하 는 純 正 한 單 一 民 族 으 로 서 累 千 年 歷 史 를 通 過 形 成 된 運 命 共 同 體 는 歷 史 的 , 社 會 的 生 命 體 으 로 서 分 割 될 수 ㄴ 다</p> <p>③ 民 族 總 和 的 新 歷 史 創 造 에 있 어 서 一 部 民 族 이 參 與 하 지 不 可 하 는 不 當 性 의 回 復 을 위 하 여</p> <p>④ 民 族 同 質 性 을 回 復 하 기 위 하 여</p> <p>⑤ 民 族 文 化 의 同 質 性 을 回 復 하 기 위 하 여</p> <p>① 家 族 , 親 戚 , 親 知 , 同 胞 가 격 리 해 서 交 往 不 可 하 는 것 은 人 間 倫 理 에 어긋나며 , 苦 痛 이 ㄴ 다 .</p> <p>② 住 居 , 訪 問 , 旅 行 의 自 由 를 回 復 하 기 위 하 여</p> <p>③ 共 産 獨 裁 者 에 게 人 間 尊 嚴 性 과 自 由 를 剝 奪 당 한 同 胞 의 苦 痛 을 解 放 해 주 기 위 하 여</p> <p>① 經 濟 發 展 의 要 請</p> <p>㉠ 南 : 農 産 資 源 充 足 , 輕 工 業 의 立 地 條 件</p> <p>㉡ 北 : 地 下 資 源 充 足 , 重 工 業 의 立 地 條 件</p> <p>㉢ 南 北 이 補 完 的 일 때 經 濟 發 展 은 加 速 될 .</p>	<p>本 單 元 에 서 는 祖 國 統 一 이 要 請 되 는 理 由 를 分 明 히 하 고 統 一 을 成 就 하 기 위 한 要 件 을 理 解 시 키 ㄴ 으 로 서 合 理 的 이 고 現 實 的 인 올 바 른 統 一 觀 을 定 立 할 수 있 도 록 하 는 데 力 點 을 둔 다 .</p> <p>祖 國 統 一 의 當 為 性 을 理 論 的 으 로 合 理 的 으 로 提 示 하 는 것 은 必 要 하 다 . 南 北 民 族 이 갖 는 統 一 에 對 한 念 願 은 合 理 的 인 判 斷 에 서 形 成 된 態 度 라 기 보 다 는 純 正 의 無 意 識 으 로 形 成 된 民 族 感 情 에 基 因 된 것 이 기 ㄴ 故 ㄴ 6.25 以 後 의 世 代 에 게 는 民 族 一 體 感 (南 北 包 含) 과 더 불 이 統 一 의 當 為 性 을 合 理 的 으 로 理 解 시 키 는 것 이 效 果 的 인 指 導 일 것 이 ㄴ 다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4) 國際政治的 要請</p> <p>2. 統一의 要件</p>	<p>② 文化의 統合의 要請</p> <p>㉠ 共産黨에 依해 部分的으로 異質化 되어가는 民族文化의 同質性을 回復하기 위하여</p> <p>㉡ 民族總和에 依해 傳統文化를 繼承 發展시키기 위하여</p> <p>㉢ 共産主義者들에 依해 破壞된 傳統文化를 回復하기 위하여</p> <p>③ 國家安保上의 要請</p> <p>㉠ 亞細亞와 世界平和에 威脅이 되고 있는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고 戰爭을 防止하기 위하여</p> <p>㉡ 安定된 狀態에서 國家發展을 追求하기 위하여</p> <p>㉢ 南北民族間의 不信과 敵對感을 解消하기 위하여</p> <p>㉣ 國防費의 浪費를 막고 福祉國家를 만들기 위하여</p> <p>① 自主性과 統一性을 지닌 國家의 資格으로서 國際社會의 一員으로 參與해야 한다는 原則에서</p> <p>② 國際平和와 緊張緩和를 위하여 그리고 國際秩序維持에 공헌하기 위하여</p> <p>③ 뜻뜻하게 統一된 民族國家로서의 資格을 가지고 國際社會에 參與하기 위하여</p> <p>祖國統一을 앞당겨 成就하기 위해 必要한 條件</p> <p>① 民族과 國家同一體意識強化</p> <p>① 韓民族은 한 國家를 建設해야 된다는</p>	<p>여기에서는 民主平和統一을 成就하기 위하여 前提되는 條件을 体系的으로 提示함으로 統一努力의</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國民的 信念의 強化</p> <p>㉠ 韓民族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信念의 強化</p> <p>㉡ 個人과 國家의 利害를 別로 하나로 同一視하는 意識의 強化</p> <p>② 民主的 力量의 強化</p> <p>① 民主基本理念의 高揚: 人間의 尊嚴性과 最善我 實現을 위한 社會의 保障</p> <p>㉠ 自由民主體制의 強化: 民主理念에 바탕을 두되 能率的이고 效率的인 民主體制를 發展시킨다.</p> <p>㉡ 自主, 協同, 團結의 社會氣風과 그러한 生活態度의 強化</p> <p>③ 社會正義의 高揚</p> <p>① 遵法精神의 高揚</p> <p>㉠ 社會 秩序의 確立</p> <p>㉡ 社會倫理의 確立</p> <p>② 公益精神의 高揚</p> <p>㉠ 淸富思想의 高揚</p> <p>④ 國力培養</p> <p>① 經濟發展—勤儉勞作 精神 高揚</p> <p>㉠ 文化 藝術의 發展</p> <p>㉡ 國防力의 強化</p> <p>② 國家組織의 能率化와 效率化</p> <p>㉠ 外交의 힘</p>	<p>方向을 提示해야 한다.</p>	<p>2-(①~④)</p> <p><詳細-1></p>

詳

細

< 詳細 - 1 > 祖国統一의 要件 2 - ①~④

1. 民族國家 同一體意識의 強化

統一의 要請중의 하나이면서 統一이 성숙될 수 있는 要件으로 民族國家 同一體意識을 들지 않을 수 없다. 南北이 같은 民族으로서의 意識이 지속되는 한 地理的 兩端과 政治的 兩分은 결국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南北間의 同族意識이 統一要請의 根柢가 되는 바와 같이 統一의 要件으로서도 韓國國民의 民族國家 同一體意識이 高潮되면 그만큼 民族正統性을 이어 받은 우리의 團結이 強化될 것이고 強化된 民族國家 同一體意識은 統一을 위한 重要한 要件이 될 것이다.

民族國家 同一體意識은 民族文化와 現在의 國家가 韓國國民에게 어떻게 보람있는 榮光된 것으로 보이느냐에서 形成된다.

이러한 同一體意識은 民族史에서도 얻을 수 있고 國力에 對한 意識에서도 얻을 수 있으며 일상적인 社會生活에서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에서 얻어지는 國家榮光觀 내지 民族과 國家에 對한 自負心에서 形成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形成되는 民族國家同一體 意識은 강력한 社會的, 國家的 結束力을 추구해 주는 것으로 統一을 위한 필수적 要件이 된다.

2. 民主的 力量

우리가 표방하는 統一을 위한 重要한 原則의 하나인 民主勝共統一은 곧 民主主義에의 國民的 同化내지 民主主義 理念의 內面化와 生活化를 통해 이룩되는 것이며 共產主義에 對한 批判과 共產主

義 勢力을 이겨낼 수 있는 精神的 힘이 培養되었을 때 可能하다. 이를 위한 民主的 力量을 培養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民主主義 基本理念具現을 위한 社会的 保障

民主主義 基本理念 즉 人間의 尊嚴性和 個人的 最善我實現을 위한 社会的 保障이 강화될 때 우리의 民主力量이 크게 배양될 것이며 나아가 共產主義의 도전을 저지시키기 위한 우리의 長점이 될 것이다.

② 自由 民主体制의 強化

形式的 民主体制가 아니라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이 具現될 수 있고 우리의 現實에 맞는 体制, 制度의 정비와 効果的 運營이 要請되며 이러한 要請에 호응한 体制의 정비를 단행한 것이 維新課業의 一次的 課題였다. 실질적으로 人間이 尊重되고 個人的 最善我實現이 可能하도록 하는 体制의 強化는 共產主義를 弱화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自由 民主体制는 다른 기반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즉 다음에 제시할 社会正義의 實現과 經濟力을 근간으로 하는 国力 培養의 기틀위에 自由, 民主体制는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있으며 더욱 伸張될 수 있게 된다.

3. 社会正義의 高揚

社会正義는 自由와 平等과 더불어 民主主義의 3대지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理念的으로 民主主義에 對한 우리의 統一은 社会正義의 高揚이라는 要件을 統一에 대비하여 갖추지 않을 수 없다.

國民의 自由를 최대한으로 인정하고 최대한의 平等을 보장하려는 社会와 國家일수록 人間關係를 規律하는 社会正義가 수반되어야 보다

進歩된 民主社會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社會正義의 정신은 그 기원을 人間의 尊嚴性에 두어야 하며 , 따라서 社會秩序 의식과 道德的 責任感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한다 . 民主主義가 지향하는 궁극적 目標가 人間의 生活 全體를 道德化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民主主義란 하나의 道德的 改造運動이라 할 수 있으며 사람을 目的으로서가 아니라 手段으로 이용하려는 非人間的인 社會와 共產主義 社會를 排擊하려는 改革運動이라 할 수도 있다 .

이런 의미에서 社會正義의 實現은 北韓의 共產體制를 弱화시켜 民主勝 共統一을 이룩함에 重要한 要件이 되는 것이다 .

4 . 国力培養

여러 곳에서 強調되고 있듯이 国力培養만이 共產主義 내지 北韓과의 對決에서 승리하는 힘이 된다 . 앞서도 지적 했듯이 民主主義 理念具現도 어느 정도의 經濟的 力量이 성숙되어야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 더우기 對話를 통한 善意의 競爭을 南北間에 시도하고 있는 지금 實力으로서 선의의 競爭을 통해 國民의 호응을 받으면서 北韓住民을 우리의 體制에로의 同化를 유도하려면 우리의 전반적 經濟水準이 중요한 基準이 되지 않을 수 없다 .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自主的 그리고 自立的 經濟成長은 우리가 내세우는 統一의 諸原則에 합치는 統一課業遂行에 앞서서 반드시 이룩해 놓아야 할 基本的 條件이 되는 것이다 .

小單元 3. 統一原則과 南北의 統一政策

教 授 目 標

< 知 識 >

1. 南北關係와 平和統一에 관한 8.15 宣言의 主要內容을 열거하고 說明할 수 있다.
2. 우리 의 統一原則을 열거하고 또 妥當性을 說明할 수 있다.
3. 7.4 南北共同聲明에서 合意된 祖國統一의 原則을 열거하고 說明할 수 있다.
4. 7.4 南北共同聲明에서 合意된 南北關係改善方向의 內容을 指摘하고 說明할 수 있다.
5. 南北의 統一目標을 比較하고 우리 의 統一目標과 政策의 妥當性을 說明할 수 있다.

< 態 度 >

1. 對話를 통한 南北接觸의 계속적인 努力過程을 忍耐와 信賴를 가지고 支持할 수 있는 態度를 갖는다.
2. 우리 의 統一原則과 方案이 가장 妥當하고 現實的임을 確認하고 이의 成就를 위한 國家의 努力에 建設的으로 參與하는 國民的 態度를 갖는다.

< 批判能力 >

1. 決裂制御效果理論, 機能主義理論, 收斂理論 等의 適用을 通하여 南北對話의 效果, 目標, 展望等을 分析할 수 있다.
2. 北의 統一原則, 統一目標, 統一政策의 不當性을 批判하고 우리 의 統一目標과 政策의 妥當性을 說明할 수 있다.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1. 南北對話의 理論的背景</p> <p>1) 對話效果의 判斷</p>	<p>① 理論模型</p> <p>Karl Deutsch의 決裂制御效果 模型에 依하면 敵對關係集團間의 對話가 自然히 始作되면 그 對話는 繼續된다고 한다.</p> <p>② 對話의 效果</p> <p>㉠ 決裂制御效果理論에 依하면 南北對話는 持續되면서 緊張緩和에 貢獻</p> <p>㉡ 對話效果에 關係없이 對話가 持續될 可能性이 있고,</p> <p>㉢ 對話가 中斷되면 關係가 對話以前보다 더 惡化될 可能性이 크다.</p>	<p>南北對話 및 南北關係에 對한 올바른 理解와 豫測 展望을 갖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南北關係 및 對話를 理論的으로 糾明하여 본다.</p> <p>7.4 南北共同聲明에 對한 歷史的 國際的 國內的 背景을 考察함으로써 7.4 共同聲明에 立脚한 우리의 統一原則과 方案이 合理的이고 現實的임을 強調해야 한다. 同時에 北韓이 主張하고 있는 統一原則과 方案의 不當性을 指摘함에 아울러 그 底意를 分析 提示하는데 強調를 두어야 한다.</p>	<p>1-1)</p> <p>< 詳細 1 ></p>
<p>2) 對話效果의 期待值</p>	<p>① 對話效果의 理論模型</p> <p>David Mitrany의 機能主義(functionalism) 理論模型에 依하면 理念이 다른 體制間의 對話에서는 理念的 制約이 적은 機能間의 協力이 可能해지면 이러한 協力は snow ball effect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p> <p>② 機能主義와 南北對話</p> <p>現行 南北對話는 snow ball effect의 可能性을 단정하기는 어렵다.</p>	<p>張하고 있는 統一原則과 方案의 不當性을 指摘함에 아울러 그 底意를 分析 提示하는데 強調를 두어야 한다.</p>	<p>1-2)</p> <p>< 詳細 2 ></p>
<p>3) 對話의 目標 判斷</p>	<p>① 世界 2次大戰, 終了後 分斷된 四個國中 統一이 實現된 곳이 없다.</p> <p>② 收斂原理에 依하면</p> <p>㉠ 現代社會는 民主共産을 막론하고 工業化와 都市化하기 때문 異質的인 兩大社會가 궁극적으로는 接近되어 간다는 것이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㉞ 뿐만 아니라 그 사회와 國家가 工業化에 成功하여 豊요해지면 共産黨의 使命은 「이데올로기」的인 것에서 工業化의 要求에 副應하는 管理者의 役割로 된다는 것이다.</p> <p>㉟ 따라서, 自動車工業都市인 美國의 Detroit市와 소련의 Svedlovsk市가 自動車工業을 發展시키는 過程에서 高度로 類似한 管理体制를 示顯했던 것과 같이 처음에는 産業構造와 管理体制같은 下部構造에 類似성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普遍化될 경우 政治体制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p> <p>③ 收檢理論에 依하여 南北關係를 分析하면</p> <p>㉠ 南北이 共히 工業化와 都市化가 深化된다는 假定下에</p> <p>㉡ 「이데올로기」보다는 工業社會化하여 能率性を 重視하는 態度가 發展된다면</p> <p>㉢ 現在 合意 不可能한 많은 部分이 合意될 수 있는 程度로 類似해질 可能性이 있으며</p> <p>㉣ 이러한 點에서 보면 南北結合이 궁극적으로는 可能하다는 結論에 到達된다.</p> <p>㉤ 따라서 南北對話를 통한 緊張緩和와 段階別 分野別 協力の 增大는 結果的으로 궁극적인 平和統一을 指向하는 길이 된다.</p>		<p>1-3)</p> <p><詳細3></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南北共同声明의 背景과 統一原則</p> <p>1) 南北共同声明의 背景</p>	<p>1) 南北共同声明의 背景條件</p> <p>① 8.15宣言의 趣旨 - 北韓이 武力挑 略을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戰爭을 防止하고 南北關係를 平和的으로 誘導하고 平和的統一의 條件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趣旨임.</p> <p>㉠ 平和的統一, 戰爭反對 宣言</p> <p>㉡ 武裝共匪南派의 中止, 武力赤化統一拋棄 促求</p> <p>㉢ 우리의 要求를 認定하면 南北間 障礙를 除去할 實地적인 現實的인 方案을 제시할 容의가 있다고 제안</p> <p>㉣ 善意의 體制 경쟁 (개발, 건설, 창조로서 民族을 위한) 促求</p> <p>② 戰爭防止</p> <p>㉠ 平和統一의 現實을 具現하려면 먼저 南北間의 緊張이 緩和되고 戰爭이 防止되어야 한다.</p> <p>㉡ 緊張緩和와 戰爭防止를 위해서는 南北間의 不信을 解消하고 對話를 推進해야 한다.</p> <p>㉢ 6.25와 같은 同族相殘의 悲劇을 民族이 願치 않는다.</p> <p>③ 平和統一에 對한 民族의 念願</p> <p>民族의 自主的 努力에 依한 民族의 統一念願</p> <p>④ 統一問題에 對한 韓國의 主權</p> <p>우리가 願하는 民主平和統一은 우</p>	<p>南北共同声明이 나오게 된 뒤에는 여러가지 要因이 作用하고 있다. 平和共存을 指向하는 國際潮流, 國內의인 狀況의 變化, 北韓의 態도의 變化等 많은 要因이 作用하고 있지만 이같은 國內外的인 條件을 成就시켜 南北共同声明이 나오게 되기까지는 우리나라의 主權的인 努力이 있었음을 분명히 한다</p>	<p>2-1)-(① <詳細 4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우리의 統一 原則</p>	<p>리의 主導에 依해져만 可能</p> <p>㉠ 우리의 理念과 體制가 優越한 經濟 및 社會發展의 優位性</p> <p>㉡ 共産黨의 挑戰을 克服할 수 있는 防衛能力</p> <p>㉢ 韓國의 有利한 國際的 地位와 國際協調의 確保</p> <p>㉣ 統一에 對한 國民總和體制</p> <p>㉤ 國際情勢</p> <p>緊張緩和와 平和潮流</p> <p>㉦ 冷戰→解氷 (對話)</p> <p>㉧ 兩極體制→多極體制</p> <p>㉨ 「이데올로기」→實利追求</p> <p>㉩ 武力對決→平和共存</p> <p>大韓民國의 一貫된 統一原則: 平和, 自主, 民主統一</p> <p>㉪ 自由總選舉案의 一貫된 主張</p> <p>㉫ 1950.5.6 UN 總會에서 처음 提案</p> <p>㉬ 53.11.23 李大統領의 特別聲明</p> <p>㉭ 1954.5.22 「제네바」會談에서</p> <p>㉮ 1960.8.24 7 個項의 外交政策宣言에서</p> <p>㉯ 61.6 月 革命政府의 統一方案發表에서</p> <p>㉰ 1970.8.15 宣言에서</p> <p>※ 公正選舉와 嚴正中立을 위해서는 國際聯合보다 더 妥當한 國際機構는 없다는 것을 想起하면 北尊南이 UN을 外勢라고 主張</p>	<p>國際聯合의 正當性과 活動을 否認하고 있는 北韓은, 우리의 統一問題에 對한 UN의 協助를 自主性을 무시한 外勢라고 생트집을 하고 있는 바, 이같은 主張의 不當性과 底意를 分明히 指摘하고 넘어가야 한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7.4 南北共同声明의 合意事項</p>	<p>하는 底意를 짐작할 수 있다.</p> <p>② 平和統一의 原則 8.15 宣言과 7.4 共同声明에 反映</p> <p>③ 自主統一의 原則 民族의 의사에 맞는 統一을 위하여 그러나 國際協調를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고 國際協調를 主体的으로 이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統一 成就를 위하여 UN을 이용하는 것이 결코 外勢가 될 수 없다.</p> <p>④ 民主統一原則 人間의 尊嚴性和 自由가 보장되고 우리의 傳統文化의 繼承發展을 위하여 필요한 原則</p> <p>① 韓國의 主導에 의하여 이룩된 南北共同声明에서 合意한 三大 統一原則</p> <p>㉠ 自主統一：外勢排除 ㉡ 平和統一：武力排除 ㉢ 民族의 大團結：思想, 理念, 體制의 超越</p> <p>(2) 南北關係改善을 위한 合意事項</p> <p>㉠ 緊張緩和, 信賴造成：中傷誹謗禁止, 武力挑發中止, 軍事衝突防止策 講究 ㉡ 民族의 連繫回復, 理解增進：多方面의 諸般交流 ㉢ 南北赤十字會談을 위한 積極的 協調 ㉣ 突發的 軍事事故防止 南北問題 迅速處理：直通電話架設</p>	<p>7.4 共同声明에서 具體化된 우리의 統一原則은 여러가지 資料를 活用하여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南北의 關係改善을 위한 合議事項에 대해서는 具體的인 實例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제안한 代案들을 說明해야 한다.</p>	<p>2-3) <詳細 7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3. 南北의 統一目標과 政策의 對立</p> <p>1) 우리의 統一目標</p> <p>2) 北韓의 統一目標</p>	<p>1) 우리의 統一目標</p> <p>① 우리의 統一目標: 自由民主統一</p> <p>② 우리 統一目標의 妥當性</p> <p>㉠ 온 民族의 念願</p> <p>㉡ 民主體制優越性</p> <p>㉢ 民主主義만이 우리의 傳統文化를 繼承하는 理念이기 때문</p> <p>㉣ 民主主義만이 人間尊嚴성과 自由를 保障하기 때문</p> <p>③ 統一目標 具現을 위한 要件</p> <p>㉠ 7.4 南北共同聲明에서 合意된 統一原則은 自由民主統一 國家로서 具現되어야 하며</p> <p>㉡ 全民族的 支持의 바탕위에 統一을 이룩하여야 하기 때문에 國民生活를 通하여 民主體制的 優越性을 立証함으로서 온 民族의 支持를 얻어야 하며</p> <p>㉢ 民主統一을 阻害하는 一切의 要素는 과감하게 排除해야 한다.</p> <p>① 北의 統一目標</p> <p>共産化 統一</p> <p>② 統一方法</p> <p>「人民民主主義革命」에 依한 韓半島 赤化</p> <p>③ 北韓 共産黨이 統一에서 民族을 내세우는 것은 戰略戰術에 不過하며, 그들의 目的은 世界 革命化를 위한</p>	<p>南北韓이 追求하는 統一 目標의 根本的인 相異點과 類似點을 분명히 하므로써 南北接近의 可能性의 限界와 問題點을 理解시키는데 강조를 둔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南北對話의 問題點</p>	<p>전초전으로서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統一을 追求하고 있다.</p> <p>① 政策의 基礎</p> <p>㉠ 南: 民主理念</p> <p>㉡ 北: 共產主義</p> <p>② 接近方法</p> <p>㉠ 南: 쉬운 것부터 점차적 해결</p> <p>㉡ 北: 一括的 解決</p> <p>③ 南北對話의 問題點</p> <p>㉠ 南北赤十字會談</p> <p>○ 北韓은 人道的 解決을 위한 赤十字會談에도 不拘하고 실현불가능한 政治的 問題만을 들고 나오고 있다.</p> <p><韓國의 法律的, 社會的 環境의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철폐주장 등이 회담 교착의 가장 큰 원인이다.</p> <p>㉡ 調節委員會會談</p> <p>○ 實現不可能한 政治, 軍事的인 問題의 一括處理만을 주장하는 北韓側의 底意는 우리의 國防力을 弱화시키고 UN 군을 철수시킴으로서 武力侵略을 기도하려는 데 있다.</p> <p>○ 이에 반해 우리측은 실현가능한 비정치적인 問題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주장</p>	<p>南北赤十字會談, 南北調節委員會會談等 南北對話의 推進에 있어서 問題點을 分明히 함으로서 統一에 대한 性急한 기대나, 統一에 처한 悲觀的 態度나 失望을 갖지 않고 忍耐와 努力으로 南北對話와 關係改善에 임하는 國民的 자세와 態度를 갖도록 하는 데 力點을 둔다.</p>	

詳 細

< 詳細 1 > 南北對話의 效果判斷의 理論模型 1 - 1)

1. 理論模型

對決의 構造를 對話의 構造로 轉換시키는 것이 南北間에 高潮되고 있는 緊張을 緩和시킨다는 것은 「칼·도위치」(Karl Deutsch)의 이른바 決裂制衡效果(Lock in Effect)에서 살필 수 있다.

「도위치」教授는 「아나톨·라포포트」(Anatol Rapoport)의 競技理論을 紹介하면서 敵對하는 두 集團間에 우연한 契機로 對話가 始作되면 이 對話는 決裂되기보다는 決裂되지 않고 계속 對話가 지속되는 一種의 決裂制御效果가 나타난다고 指摘하고 있다. 이것은 「치킨·게임」에 있어서 「플레이어」(Player)가 서로 約束動作을 취할 수 있을 경우 「兩플레이어들이 모두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 동시에 바른 길에서 벗어나 協同이 일어나는 경우」와 비슷하다. 또 囚人の 「딜레마」에 있어서 「罪囚들이 침묵을 지켜 報償金品이 自由를 獲得하는 結果」 유도가 可能할 것이기 때문이다.

2. 對話의 持統

對話는 비록 戰略目標은 相異하더라도 相互間的 對話需要 때문에 결렬되지 않고 지속되며, 이로 因하여 兩側의 緊張은 對話以前보다 緩和된다. 特히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變節보다 協同하는 選擇이 強하게 作用하기 때문에 效果는 더 高潮되고 個人間的 關係에서 對話를 통한 約束動作에 의한 協同效果가 더욱 크게 된다.

이같은 分析이 國家間的 關係에 있어서도 그대로 適用된다는 保障은 없다. 그러나 國家間 關係라고 하더라도 緊張緩和가 選好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한번 열린 對話는 決裂되기 보다는 계속 유지될

可能性이 있다. 왜냐하면 對話의 決裂은 問題解決手段으로서의 對話의 機能停止를 意味하기 때문에 武力對決一步前의 關係가 助成될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번 열린 對話가 결열되면 当事者 關係에서는 對話가 있기전 보다도 한층더 심각한 緊張을 유발할 것이며 이 경우 어느 側도 對話開始以前에 지속되던 緊張維持負擔보다 더 加重된 負擔을 担当할 能力을 確保하기가 至難하게 된다.

兩行為者 關係에 있어서 兩者間에 均衡이 파괴되지 않고 對決狀態가 持續될 수 있었던 것은 兩側에서 總力을 기울여 動員한 緊張維持能力이 保合勢를 維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對話가 開始되고 相互間에 協同이 助成되면 緊張維持負擔은 그만큼 줄어들으나 다시금 變節이나 背信등으로 因해 對話가 결열되면 緊張이 對話以前보다 增加되는 것은 不可避한 現象이 아닐 수 없다. 새롭게 增加된 緊張에 適應키 위해 兩側은 새로운 負擔을 支払해야 하는바 兩側은 어느 側도 外部의 支援없이는 먼저 必要한 費用을 調達할 수 없다.

그러나 緊張造成이 統制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어느 側도 外部의 支援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얻을 수 없다는 事實을 当事者들도 認識하고 있다.

따라서 当事者들은 이같은 負擔增加의 結果를 초래할 事態의 發生을 回避하려는 選擇에 관심을 갖는다. 이 선택욕망에 의해서 한번 열린 對話는 成果에 關係없이 계속되는 效果를 갖는 것으로 推理된다.

따라서 對決의 構造를 對話의 構造로 轉換시키는 措置는 理論上 決裂制御效果에 의하여 對話를 維持시키면서 나아가 緊張을 緩和시키게 된다. 이 점에서 赤十字會談決定 南北調節委員會會談 決定은 初期段階의 效果面에서는 理論的 妥當性을 갖는 選擇으로 評價할 수 있다.

< 詳細 2 > 對話效果의 期待
1 - 2)

1. 對話效果의 理論模型

苦痛軽減論에 必要한 理論的 証明은 對話不在期에는 想像할 수 없었던 南北間의 協力이 對話開始로 可能해 졌는지의 與否를 밝혀야 한다.

現在까지 알려진 理論으로서 「 데이비드·미트라니 」 (David Mitrany) 에 의해 定說化된 機能主義 (Functionalism) 는 體制와 理論의 差異에 關係없이 相異한 體制間의 對話에서는 理念的 制約이 적은 機能間의 協력이 可能하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

이 같이 非政治分野에서 조그마한 形態의 協력이 이루어지면 이 協력은 보다 큰 協력을 生産하는 波及效果를 갖는바 樂觀論的 見地에서는 이 效果가 雪人效果 (Snow Ball Effect) 로 說明되기도 한다. 이 같은 效果가 國際關係에서 定說로서 妥當性을 갖기는 國際聯合專門機構 및 經濟社會 理事會 所管의 非政府機構에서 行해진 美蘇協力 以後부터 이다.

2. 機能主義의 論拠

以上과 같은 前提下에 機能主義의 論拠를 國際關係의 協력으로 置換해서 吟味하면 다음과 같다.

각 國家가 解決해야 할 社會福祉問題는 各 國家가 共同으로 協力하는 가운데 더욱 그 解決이 促進될 것이며 目標達成이 容易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國家單位의 個個領土의 테두리를 벗어나 超國家的 見地에서 論하는 것이 가장 効率的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그에 대한 論理展開를 간추려서 간단히 紹介해 본다. 먼저 機能主義者들은 國家間에 協力할 수 있는 課業을 政治的인 것과 非政治的인 것 즉 技術的인 것과 機能的인 것으로 區別한다. 그 理由는

後者が 前者보다 國家間 協力이 더 容易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이와 같은 福祉事業을 함께 協力해서 해나갈 때 그 過程에서 摺得한 知識은 國際社會의 共同利益을 위해 自然히 한 事業分野에서 다른 分野로 옮겨 利用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더욱 重要한 事實은 그때 發生하는 協同心은 國家에 對한 忠誠心과 결합하게 되어 결국 國際的인 協力體制에 對한 忠誠心の 可能性마저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分野의 專門家들에 比해서 政治人들이나 外交官들 또는 軍人들은 그 思考가 너무 閉鎖的이며 排他的이라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機能別로 各國家가 모여 協力하게 되면 自然的으로 또한 無의식중에 한 主權國家의 統治權이 조금씩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業務를 調節해야할 必要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綜合的 政治 權力(A general political authority)의 形成이 要求된다.

이와 같은 미트라니(Mitrany) 教授의 學說은 몇가지의 根本的 假說을 基礎로 하고 있다.

첫째 人間은 合理的인 存在(Human beings are rational)라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점진적 向上과 發展(Evolutionary steps)이 可能하다는 것이고 根本的으로 人類는 鬪爭과 對立보다는 調和와 和平(Harmony over conflict.)을 더 希求한다고 믿고 있다. 그뿐 아니라 戰爭의 根本原因을 社會的인 또는 經濟的인 問題에서 起因된다고 믿고 따라서 國際平和로의 途徑은 貧困을 一掃하고 文盲과 疾病을 正복(The conquest of poverty, ignorance and disease)하는 데 있다고 한다.

이 機能主義 理論은 차츰 一般의 큰 關心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西歐의 指導者 「스쿠만」(Schuman)이나 「모네트」(Jean Monnet), 「홀스타인」(Walter Hallstein) 또는 「미

르달] (Gunnar Myrdal) 같은 그 代表的인 人物들이다. 그러나 이 機能主義에 對해서 懷疑的인 學者들도 적지 않다. 그中 가장 著名한 學者는 國際機構學에서 널리 알려진 「클라우드」(Inis Claude, Jr) 教授이다. 그는 機能主義를 批評하면서 國際間的 紛爭이 經濟的 社會的 要因에서 起因된 것이 아니라고 指摘하고 「켈센」(Haus Kelsen) 教授의 그 有名한 말을 引用해서 世界經濟의 不安은 오히려 戰爭의 所致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政治的 問題와 經濟的 社會的 問題를 分離할 수 없다고 主張하면서 萬一 그와 같은 分離가 可能하다고 해도 各國은 政治的 問題가 解決이 될 때까지 우선 福祉(Welfare) 問題는 뒤로 미룰 것이라고 했다. 또한 人間의 協同精神이나 또는 그 經驗이 傳授의 可能性에 對해서도 懷疑的이었으며 나아가서는 人間의 合理性과 忠誠心의 理性的인 轉移까지도 의심스럽다고 한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Claude) 教授의 批評에도 不拘하고 機能主義에 對한 研究는 日益 活潑해져서 그들은 이 機能主義에 의하여 世界各地에서 일어나는 統合運動을 說明해 보려고 힘써 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代表者인 業績을 낸 學者는 「하스」(E.B.Haas) 教授로써 그를 中心으로 한 「하바드」大學의 「나이」(Joseph S.Nye)나 「위스콘신」大學의 「린드버그」(Leon N.Lindberg) 및 「시카고」大學의 「슈미터」(Philippe C.Schmitter) 등은 「미트라니」의 理論에 다시 政治的인 效果를 加味해서 新機能主義學派를 形成하게 되었다. 그들은 「미트라니」教授의 學說에다 좀더 具體的인 變수의 性格을 檢討하고 그 運動의 政治的 統合에의 意義를 分明히 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 點을 特히 지적하였다.

첫째, 가장 중요한 理論的인 貢獻은 傳播機能(Spillover Capacity)에 對한 理論이다. 「하스」教授는 ITU와 ILO(國際勞動機構)를 比較 考察하면서 國家間에 協力할 수 있는 機能中에서도 ITU와 같

이 너무 그 業務 自体가 技術的인 경우 그것은 擴張하고 成長하는 能力을 欠如한다는 것이다. ITU의 歷史는 1百年을 헤아리나 ILO는 그 半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의 業務는 훨씬 広範圍하게 擴大되어 國際統合에 貢獻한 바 至大하다고 評價했다.

이것은 오직 그 機能의 伝播能力 즉 連鎖反應效果의 結果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로, 그들은 「미트라니」教授가 專門家나 技術者는 다른 政治人이나 外交官 또는 軍人들과 따라서 훨씬 自由롭게 協力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事實은 그들도 性格上 유연성이 적은 者들이라고 했다. 따라서 오히려 專門知識을 所有한 者로서 政治人이나 外交官이 된 者가 더욱 適格이라고 主張한다.

세째는, 忠誠心이 새로운 求心點을 찾게 된다고 한 것에 대해 條件을 붙여 市民이나 社会一般에서 國際機構가 自己나라에 대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事實이 認識되어야만 그 國際協力機構에 對해서 國民의 關心이 集中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오직 開放社会에서만 可能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고로 共產主義社会와 같은 閉鎖된 社会에서는 自由化의 물결이 일고 나서, 비로소 國民들의 關心이 國境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하스」教授는 協同할 課業이 簡單하게 明示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國家間の 協力이 이루어 지려면 課題가 明確해야 한다. 즉 人道的인 事業이라든가 또는 非政治的인 社会文化事業 또는 經濟的인 交流 및 協調中 어느 領域이라는 것을 正確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爲政者들의 同意와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詳細 3 > 収斂理論에 의한 對話의 目標判斷
1 - 3)

1. 収斂理論

60年代 初半부터 하나의 假說로서 登場한 収斂理論 (Convergence theory) 은 두가지 論題에서 機能主義 限界性 내지 悲觀的 局面을 克服할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다.

우선 収斂理論家들은 現代의 産業社會 (Industrial society) 를 分析의 場으로 設定하고 現代社會는 工業化 (Industrialization) 와 都市化 (Urbanization) 에 의해서 오늘날 世界를 東西로 兩分시키는 「이데올로기」의 制約을 벗어나서 漸次 工業化와 都市化의 要求에 부응하는 方向으로 社會態度가 収斂한다 (converge) 고 主張한다. 同時에 이들은 世界 各國이 發展段階는 다르지만 經濟的 後進國들은 基本的으로 工業化되고 都市化된 産業社會의 形成을 發展의 目標로 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에 의하면 共產主義 政黨은 그 社會와 國家가 工業化에 成功하여 需要를 공급할 수 있는한 그 「이데올로기」的 使命은 終了되고 다만 工業化의 要求에 부응하는 管理者의 役割을 맡게 될 것으로 展望하면서 그 實例로 自動車 工業都市인 美國의 「디트로이트」 (Detroit) 市와 蘇聯의 스베들로브스그 (Sverdlovsk) 를 指摘한다.

이 두 都市는 各各 理念과 體制가 根本的으로 다른 國家와 政府의 支配下에 있지만 다같이 自動車工業을 發展시키는 過程에서 體制維持의 理念差異와는 關係없이 高度로 類似한 (Similar) 管理體制를 示顯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類似性은 처음에는 産業構造와 管理와 같은 下部構造에서 나타나지만 이것이 普遍化될 경우 政治體制에서도 収斂化的 變化가 期待된다고 展望한다.

2. 理論의 適用

수렴理論을 南北韓 關係에 代入시켜 보면 現在의 南北韓은 다 같이 開發途上國(産業化의 程度에서 南韓이 多少 優勢이지만)으로서 對話를 통한 協力の 範圍가 極히 制限되어 있지만 앞으로 南北 共히 工業化와 都市化의 程度가 더 심화되고 또 이 構造에 附合하는 「엘리트」群과 「리더쉽」이 形成될 경우에는 現在 南北間에 協力에 對한 合意가 不可能한 分野일지라도 얼마후에는 合意possible한 分野로 轉換될 수 있다는 希望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南北韓이 앞으로 工業化를 中心으로한 産業社會로 發展하여 「이테올로지」보다는 能率性を 重視하는 態度가 形成된다면 窮極적으로 統治體制에 對한 合意形成도 可能해질 것이다.

이 점에서 이 理論은 南北對話의 最終結果를 明確히 豫見할 수 없는 現時點에서 南北間의 對話를 통한 緊張緩和와 分野別 協력이 窮極적으로 平和統一에 연결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보여주는 것이다. 同時에 機能主義的 接近에서 制約되는 要素로서 波及效果(Spillover effect)에 대한 懷疑도 克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理論은 政策의 實踐原理로 採択하는데는 限界가 있다.

첫째 經驗의 世界에서 豫測possible한 推論이기는 하지만 事實로서 証明된 것은 아니다.

둘째로는 모든 國家의 發展經路와 目標을 單一化시키고 있다는 點이다. 現代世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文化相對主義(Cultural Relativism)를 無視하고 있다는 批判을 免하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理論은 南北關係처럼 競爭의 共存이 暫定的 이나마 不可避하게 到來될 狀況下에서는 南北韓의 収斂化的 變化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며 結局 統一의 展望도, 對話의 成果도 이 論理에 依存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南北赤十字會談의 決定家들이 以上の 理論的 背景을 通해서 對話戰略을 選擇했다는 証拠는 없다. 오히려 理論的 考慮보다는 内外情勢變化의 考慮가 더 큰 作用을 했을 可能性이 크다.

그러나 赤十字會議 決定도 多數의 共感과 支持를 받는 決定이 그러했던 것처럼 經驗의 限界에서 抽出된 理論的 根拠에 비추어 볼때 分明히 現實性和 妥當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同時에 以上 檢討한 論拠는 決定家들에게 心理的 正當感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詳細 4 > 8.15 宣言의 要旨
2-1)-①

朴正熙 大統領은 1971年 8月 15日 光復節 26週年 慶祝辭가운데서 平和統一의 構想을 밝혔으며, 이 宣言은 南北對話와 또한 南北關係 改善의 方向 및 平和統一의 原則에 合意한 南北共同聲明이 나오게된 契機가 되었다. 8.15 宣言은 北韓이 戰爭準備를 서두르고, 한편 南韓에 對하여 武裝挑發을 하고 있는 狀況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의 戰爭을 防止하고 南北關係를 平和的으로 誘導하며, 그 바탕위에서 平和統一의 與件을 造成하고자 한 것이 그 背景이며 趣旨이다.

8.15 宣言의 主要內容은 拔萃하면 다음과 같다.

① 統一은 반드시 平和的으로 이룩해야 한다. 統一이 時急을 要하는 民族의 至上 課題라고 하더라도 동족 살륙의 戰爭은 反對한다.

② 北韓은 武裝공비의 南派等 모든 戰爭挑發 行爲를 즉각 中止하고 所謂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나 暴力에 의한 大韓民國의 전복을 기도해온 從前의 態度를 完全히 拋棄한다는 것을 明白하게 對外에 宣稱하고 이를 行動으로 實證해야 한다.

③ 이러한 우리의 要求를 北韓이 수락하여 實踐하고 있다는 것

을 우리가 確實히 認定할 수 있고, 또한 UN에 의해 明確하게 確認될 境遇에는 南北間에 가로놓인 人爲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現實的인 方案을 提示할 用意在 있다.

④ 北韓에 대해 '더 이상 무고한 北韓同胞의 民生을 犧牲시키면서 戰爭準備에 광분하는 罪惡을 범하지 말고 보다 善意의 競争, 말하자면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살 수 있는 條件을 가진 社會인가를 立證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争에 나설 用意在 없는가를 묻고 싶다는 것'이 그 主要 骨幹이었다.

< 詳細 5 > UN 監視下의 總選舉 原則과 外勢의 解釋 問題
2-2)-①

1. 第 1 段階 (1948.12.12 ~ 1954.5.22)

1948 年の 第 3 次 「유엔」總회는 大韓民國이 韓半島에 唯一하고도 合法的인 政府임을 宣言하고 이어 임명직 外務部長官은 第 5 次 「유엔」總회에서 北韓에서의 「유엔」監視下 自由選舉를 主張하였다.

2. 第 2 段階 (1954.5.22 ~ 1970.8.15)

변영태 外務長官은 1954.5.22 「제네바」會議에서 統一되고 獨立된 民主韓國을 樹立할 目的으로 이에 關한 從前의 「유엔」決議에 立脚하여 「유엔」監視下에 南韓土着人口比例에 依한 自由選舉를 主案으로 한 14 個條項의 統一方案을 提示하였다.

韓國戰爭參戰 16 個國은 1954.6.15 그 共同宣言에서

① 「유엔」은 그 憲法에 따라 侵略을 격퇴하고 平和와 安全을 回復하기 위하여 集團行動을 取하며 韓國에 있어서 平和的 解決을 모색하도록 추진할 수 있는 充分하고도 正當한 權限이 부여돼 있다.

② 統一 獨立된 民主韓國을 樹立하기 위해 「유엔」監視下에 土着人口의 比例에 따라서 代表者가 選出되는 国会議員의 眞正한 自由 選舉가 韓國에서 實視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정일형 外務長官은 1960.8.24 7個項 外交政策 第1項에서 “政府는 「유엔」決議를 尊重하여 韓國全域에서 「유엔」監視下에 自由選舉를 實施함으로써 韓國統一을 이룩하는 原則을 固守한다. 過去 主張한 武力에 依한 韓國統一같은 無謀한 政策은 이제 廢棄되어야 한다”고 宣言함으로써 「유엔」監視下 土着人口 比例에 依한 南北韓總選舉가 우리 統一方案임을 公式化하였다.

이는 그後 61.6.24 김홍일 外務長官의 聲明 65.10.29 朴大統領의 記者 會見時 答弁, 66.6.7 法務部의 統一方案에 對한 有權解釋, 66.10.17 外務部의 統韓白書, 67.2.27 国会의 統一白書, 68.10.18 政府의 對「유엔」統韓黨書 등으로 確認되어 왔다.

1969.10.7 崔圭夏 外務長官은 「유엔」政治委에서 韓國問題 討議에 앞서 特別聲明을 發表하여 “北韓이 온갖 方法으로 선전하고 있듯이 眞실로 平和的 統一을 원하고, 世界의 耳目으로 부터 隱閉할 것이 없다면 「언커크」委員이 入北하여 北傀의 實情을 世界에 公開하라고 要求하였다.

3. 第3段階 (1970.8.15)

1970.8.15 朴大統領은 光復 25週年 慶祝辭를 통하여 平和統一의 基盤造成을 위한 接近方法에 關한 構想을 밝혔다.

南北共同聲明에서의 「外勢」問題

「外勢」란 한 國家나 한 民族의 自主性을 侵害하는 일체의 外的 作用이나, 影響力을 말한다.

自主性을 侵害하느냐의 여부가 外勢의 요건이다. 自主性 배양하기

위해 友邦의 지원과 협조, 또는 超国家的인 國際機構의 협력은 「外勢」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國際社會의 협조관계에 의해, 한 국가나 민족이 自主性を 바탕으로 하여 共存共榮하자는데 目的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한 國家나 민족의 自主性を 侵害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엔」은 「外勢」가 아니다. 「유엔」은 어떠한 國家에 대해서도 그 自主性이나 國家利益을 侵害하거나 간섭하는데 目的이 있지 않고, 世界의 질서와 平和를 수호하고 正義를 옹호하기 위해 存在하는 것이다.

즉 「유엔」은 超国家的, 汎世界的, 汎人類的 국제기구로서 民族自決이나 國家 自主性의 존중을 그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결코 어느 한 國家나 民族의 主權을 侵害하거나 內政을 간섭하는 侵略的 勢力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이 「유엔」을 外勢로 모는 것은 「유엔」의 이와 같은 권위와 權能을 무시해 온 그들의 종래의 非平和의 路線을 固守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南北共同聲明의 참다운 意義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항가리」나 「체코」에서 自由化 물결이 일어났을 때, 世界赤化를 위해 그 나라 國民의 自主性を 짓밟고, 「탱크」를 앞세운 武力으로써 그를 억눌렀던 國際共產主義 勢力 같은 것이 바로 전형적인 外勢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外勢의 作用이 많았었다. 旧韓末 우리 나라의 內政을 간섭하여 서로 戰爭을 일으키기까지 했던 日本, 淸國, 「러시아」, 그리고 우리 나라를 侵略했던 日本 제국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해방후 國內 共產黨에게 信託統治 지지와 6.25 民族相殘을 배후에서 조장했던 國際共產主義 勢力은 가장 代表的인 外勢의 예라

할 수 있다.

우리의 統一方案인 「유엔」감시하의 土着人口 比例에 따른 南北 總選舉案의 「유엔」監視下란 南北共同声明의 통일원칙 중의 「外勢排除・自主統一原則」項目에 위배되지 않는가?

조금도 위배되지 않는다.

「유엔」은 超國家的인 범세계적 機能機構로서 어떠한 國家에 대해서도 그 自主性이나 國家利益을 侵害하거나 간섭하는 세력이 아니다. 따라서 「유엔」監視下란, 世界의 질서나 正義를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유엔」을 異質的인 南北이 결합하는 마당에서 總選舉의 公正性과 객관성을 감시하는 「國際審判官」으로 내세우자는 것 뿐이다.

따라서 「유엔」으로 하여금 우리의 統一課業을 간섭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監視는 절대로 「外勢排除・自主統一原則」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유엔」의 監視는 南北 總選舉를 公明正大하게 실시한다는 選舉의 公正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詳細 6> 大韓民國의 統一原則
(2-2)

大韓民國 政府가 밝힌 一貫된 統一原則은 平和, 自主民主的 統一이며 이와 같은 統一原則을 구현하기 爲한 것이 南・北韓 土着人口 比例에 의한 自由 總選舉이다.

1. 自由 總選舉

우리나라에 統一 臨時政府를 樹立하기 爲한 美・蘇 共同委員會가 1946年3月과 1947年5月の 2次에 걸쳐 開催되었으나 蘇聯側의 不當한 主張으로 좌절되었다. 그리하여 1947年 9月 美國에 의해 우리나라 問題를 國際聯合에 上程하였으며 國際聯合 總會는 國際聯合

監視下에 南北韓 土着人口 比例에 의해 自由 總選舉를 實施, 統一政府를 樹立할 것을 決議하였다. 이 決議는 北韓側의 拒否로 全國의 으로 구현되지 못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南韓 地域에 限하여 1948年 5月10日 国会議員 選舉를 實施하고 그해 8月15日 大韓 民國 政府를 樹立하였다.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統一原則은 그후에도 「유엔」에서 每年과 같이 再確認되고 大韓民國 政府와 國民은 國際聯合 總會 決議를 北韓이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지금까지 國際聯合 監視下 南北韓 土着 人口 比例에 의한 自由總選舉는 國際的인 輿望인 同時에 우리 民族의 念願을 反映한 것이었으며 그 正當性은 良心있는 者라면 누구도 否認할 수 없었다.

여기서 한가지 指摘할 것은 國際聯合의 監視가 우리나라 統一問題에 對한 外勢 干섭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點이다. 서로 統一目標가 對立되고 특히 共產側의 赤化統一의 野望이 치열한 狀況에서는 公明 正大한 公正 選舉가 어려우며 公正選舉를 爲해서는 嚴正 中立을 지키는 國際機構의 監視가 있어야 하며 그 監視機構로서 國際聯合을 수 없다는 것이 現在까지의 狀況이었다.

2. 平和統一의 原則

朴正熙 大統領이 8.15宣言에서 밝힌 平和統一 構想은 平和統一의 原則을 再確認한 것이다.

統一은 國民의 보다 幸福한 生活과 民族國家의 正統性 回復과 繁榮을 추구하는데 目的이 있다. 따라서 統一의 手段과 方法은 嚴密히 選擇되어야 한다. 戰爭은 民族에 慘酷한 災禍를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民族 分裂을 招來하는 것이기 때문에 統一의 手段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 우리 民族은 오직 平和統一을 念願하는 理由가 있는 것이다.

3. 自主統一의 原則

朴正熙 大統領은 8.15 宣言에서 우리 韓半島의 將來에 關한 問題는 列強이나 國際情勢가 解決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主体的인 努力과 自主的인 決斷에 있음을 闡明한 바 있다. 이는 自主的 統一의 原則을 再確認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統一은 民族의 뜻대로 이룩되어야 한다. 만일 다른 나라들 사이에 우리나라 統一에 關한 어떤 合意가 이루어졌을때 그것이 반드시 우리 民族의 뜻과 合致되리라는 期待는 하기 어렵다. 더우기 國際關係와 東西關係가 極端的으로 對立된 兩極時代로 부터 多元化時代로 變化되어 列強들은 國際權力 政治의 立場으로 부터 自己 國家의 利益中心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統一問題에 對한 依他心은 時代 錯誤的이며 危險한 일이다.

勿論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統一問題에 對한 國際的 協力을 排除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나라 統一問題에 關해 國際的 利害關係가 상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大韓民國이 能動的으로 國際的 協力を 확보하는 것은 統一問題를 民族이 念願하는 方向으로 解決하는데 매우 必要한 일이다.

4. 民主統一 原則

民主統一은 民族의 念願이며 大韓民國 政府의 一貫된 統一 原則이다. 國際聯合의 監視下에 南北 總選舉를 實施해야 한다는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를 支持하는 것도 바로 民主統一을 구현해야 한다는 立場때문이다.

北韓이 統一問題를 革命의 問題로 보고 大韓民國 政府의 전복을 기도하고 南韓 社會의 混亂가운데서 共產勢力이 政權을 奪取하고 그 바탕위에서 赤化統一을 이룩하려고 꾀하고 있어 民主統一의 原則을 거역하고 있다.

民主統一이 이룩되어야 民族의 歷史的 念願이 成就되며 民主主義 發展과 民族 國家의 繁榮이 保障되는 것이다.

< 詳細 7 > 7.4 南北共同声明의 合意事項
2-3)

1. 統一原則

1971年 9月 20日 開始된 南北赤十字 會談이 進行되고 있는 가운데, 1972年 南北當局者間의 一連의 秘密 接觸으로 7月 4日 南北 共同声明이 發表되었다. 南北共同声明에서 合議된 統一原則은 다음과 같다.

①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的으로 解決되어야 한다.

② 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 行使에 依拠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實現되어야 한다.

③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하여야 한다.

以上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7.4 南北共同声明에서 合意된 統一原則은 平和, 自主, 民族 等 大韓民國의 一貫된 統一政策과 合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측의 主導的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南北間의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民族的 團結을 圖謀하여 統一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은, 南北間의 對立된 理念과 社會制度를 論題로 삼고 서로 自己側의 理念과 體制를 相對方에게 強要한다면 緊張이 強化될뿐, 統一問題 解決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認識에 基礎한 것이며, 結局 民族이 指向하는대로 統一을 한다는 것으로서 民主統一의 原則과 合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로 南北共同聲明은 民族이 바라는 統一問題 解決의 방식을 올바르게 反映한 것으로서 歴史的 課業이었다. 問題는 이 聲明에서 合意한 統一原則을 北韓이 모두 誠實하게 지켜 나가느냐이다. 어떠한 戰爭準備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던 北韓側을 南北共同聲明에 同意토록 이끌었다는 것은 大韓民國 政府의 成功이라고 일단 보고, 合意된 統一原則을 어김없이 지키도록 우리측은 忍耐性 있는 努力을 기울여야 하겠다.

2. 南北關係의 方向

7.4 南北共同聲明에서는 統一原則을 밝힌 同時에 南北關係 改善의 方向을 아울러 提起하였다.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雙方은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하기 위하여 서로 相對方을 中傷 誹謗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莫論하고 武力 挑発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적 衝突事件을 防止하기 爲한 積極적인 措置를 取한다는 點

② 雙方은 끊어졌던 民族的 連繫를 回復하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고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南北사이에 多方面的인 諸般 交流를 實施한다는 點.

③ 南北赤十字 會談이 하루 빨리 成事되도록 積極 協調한다는 點.

④ 雙方은 突發的 軍事事故를 防止하고 南北사이에 提起되는 問題들을 直接 迅速 正確히 處理하기 爲하여 서울과 평양사이에 常設 直通電話를 設置한다는 點等を 合意하였다.

남·북 공동 성명 전문

最近 평양과 서울에서 南北關係를 개선하며 갈라진 祖國을 統一하는 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會談이 있었다. 서울의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이 1972年 5月 2日부터 5月 5일까지 평양을 訪問하여 평양

의 金英柱 組織指導部長과 會談을 進行하였으며 金英柱部長을 대신한 박성철 第2 副首相이 1972年 5月 29日부터 6月 1日까지 서울을 訪問하여 李厚洛 部長과 會談을 進行하였다. 이 會談들에서 雙方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共通된 念願을 안고 虛心坦懷하게 의견을 交換하였으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는데서 큰 成果를 거두었다. 이 過程에서 雙方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結果로 생긴 南北 사이의 誤解와 不信을 풀고 緊張의 高潮를 緩和시키며, 나아가서 祖國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들에 完全한 見解의 일치를 보았다.

1. 雙方은 다음과 같은 祖國統一原則들에 合意를 보았다.

첫째,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섭을 받음이 없이 自主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拠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實現하여야 한다.

셋째, 思想과 理念, 制度의 차이를 超越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도모하여야 한다.

2. 雙方은 南北 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하기 위하여 서로 相對方을 中傷誹謗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武装挑発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 事件을 防止하기 위한 積極적인 措置를 취하기로 合意하였다.

3. 雙方은 끊어졌던 民族的 連繫를 회복하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고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南北 사이에 多方面의 諸般 交流를 實施하기로 合意하였다.

4. 雙方은 지금 은 民族의 거대한 期待속에 進行되고 있는 南

北赤十字會談이 하루빨리 成事되도록 적극 協助하는데 合意하였다.

5. 雙方은 突發的 軍事事故를 防止하고 南北 사이에 提起되는 問題들을 迅速 正確히 處理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常設 直通電話를 놓기로 合意하였다.

6. 雙方은 이러한 合意事項을 推進시킴과 함께 諸般問題를 개선, 解決하며 또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해결할 目的으로 李厚洛 部長과 金英柱 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 調節委員會를 構成, 運營하기로 合意하였다.

7. 雙方은 以上の 合意事項이 祖國統一을 一日千秋로 渴望하는 은 겨레의 한결같은 念願에 符合된다고 確信하면서 이 合意事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은 民族앞에 엄숙히 約束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李 厚 洛 金 英 柱

1972年 7月 4日

小單元 4 . 南北關係發展의 方向과 展望

教 授 目 標

< 知 識 >

1. 南北間의 平和的 關係를 維持하면서 民族 同質性を 回復하고 相互理解 및 信賴의 增進을 위한 努力이 平和統一의 지름길임을 說明할 수 있다.
2. 理念과 体制의 調和에 依한 統一이 不可能한 까닭을 說明할 수 있다.
3. 南北体制 競争에 있어서 國家安保, 國際協力 確保, 国力培養의 重要性을 說明할 수 있다.
4. 統一問題의 長期的 性格에 따라 国力培養과 國民意志의 統一이 앞으로의 統一成就에 基盤임을 說明할 수 있다.
5. 앞으로의 南北關係의 方向과 平和統一에 對한 接近方案을 6.23 宣言의 要旨를 利用하여 說明할 수 있다.
6. 南北對話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武力赤化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예를 들어 說明할 수 있다.

< 態 度 >

1. 南北關係의 平和的 維持와 統一에 對한 自信을 가지고 꾸준히 努力하는 態度를 갖는다.
2. 南北體制 競爭에서 勝利하는 길이 平和統一의 淸경임을 깨닫고 國家發展과 國家安保에 적극 協力하는 國民的 態度를 갖는다.
3. 共產主義者를 除外한 一般 北韓住民들에 對하여는 적개심보다는 같은 民族으로서 동정과 포용의 마음자세를 갖는다.

< 批判能力 >

1. 北韓의 平和攻勢를 對南革命戰略의 觀點에서 分析하고 그 底意를 指摘할 수 있다.
2. 南北體制競爭의 不可避性을 들고 平和統一의 成就를 위하여 體制競爭이 이루어져야 할 方向을 말할 수 있다.
3. 統一問題가 長期化되는 理由를 南北의 關係와 國際關係, 南北의 對內事情으로 区分하여 說明할 수 있다.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1. 南北關係發展의 方向</p> <p>1) 南北間의 理解 및 信賴의 增進</p>	<p>① 必要性</p> <p>① 理解와 信賴의 基盤없이 對話의 계속과 關係改善은 不可能하다.</p> <p>② 對話없이 理解와 信賴의 바탕을 形成할 수는 없다.</p> <p>③ 理解와 信賴의 基盤없이 民族의 再結合과 統一은 不可能하다.</p> <p>② 우리의 立場과 方向</p> <p>① 社會를 北韓同胞에게 開放 意見交換, 接觸, 交流의 擴大를 爲해 經濟, 社會, 文化, 「스포츠」交流의 조속한 實施를 調節委員會 2次會談(73.3)에서 제의했다.</p> <p>③ 北의 態度</p> <p>現實的 條件을 無視하고 「合作」의 方法</p>	<p>南北關係 發展의 方向과 展望을 올바르게 理解하고 国力培養과 安保를 다지는 길이 統一問題解決을 主導할 수 있는 길이임을 認識시켜 國家發展課業과 統一努力에 적극 참여하는 國民精神 高취에 力點을 둔다. 8.15 宣言, 7.4 南北共同聲明, 6.23 平和統一 外交宣言을 바탕으로 한 南北關係의 方向에 따른 우리 國民의 課題와 努力 實踐의 重要性을 부각시킨다.</p>	
<p>2) 民族의 同質性의 回復</p>	<p>① 同質性 回復의 必要性</p> <p>서로 다른 理念과 體制로 因하여 異質化되어가는 民族性의 回復은 統一의 原動力이다. 現狀대로 異質化가 繼續된다면 民族分裂은 既存化될 可能性이 커진다.</p> <p>② 對話의 素材</p> <p>共通的인 民族問題, 利益問題가 優先的인 素材가 될 것이다.</p> <p>③ 對話의 素材 開發</p> <p>民族의 同質性 回復을 위한 여러가 지 素材를 開發 南北接觸을 擴大해야 한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南北의 競争과 韓國의 安保</p> <p>1) 南北의 競争</p> <p>2) 總力安保의 必要性</p> <p>3) 國際的 協力 關係의 意義</p>	<p>1) 南北間의 競争</p> <p>① 競争의 不可避性</p> <p>㉠ 소극적으로는 自己體制를 維持하기 위한 競争의 不可避性이고</p> <p>㉡ 적극적으로는 自己體制에 다른 體制를 同화시키기 위한 競争의 不可避性</p> <p>㉢ ㉠이 國防體制의 強化에 力點이 있다면 ㉡은 積極적인 經濟建設과 國家建設에 力點이 있다.</p> <p>② 競争의 內容</p> <p>體制競争 : 어느 體制가 더 民族의 번영과 복지, 自由를 保障할 수 있는 體制인가를 民族앞에 보여주기 위한 競争</p> <p>2) 總力安保의 必要性</p> <p>① 北韓이 武力侵略의 妄想을 버리고 平和的 方法에 의한 우리의 統一方案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서</p> <p>② 國民이 安心하고 生業에 열중하게 하기 위하여</p> <p>③ 安定속에 國家發展을 追求하기 위하여</p> <p>① 南北關係의 國際協力の 不可分性 : 南北問題는 強大國들의 利害關係가 얽혀 있고, 國際 勢力政治의 均衡이 關係된 것이기 때문에 國際的 介入이 不可避하다. 이 같은 介入은 갈</p>	<p>統一問題 解決에 있어서 國際協力の 不可避性과 協力の 內容을 理解함으로써 國際協調 획득을 위한 우리 努力의 方向을 提示하</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南北關係의 展望과 韓國의 役割</p> <p>1) 統一問題 解決의 長期性</p> <p>2) 統一問題에 對한 우리의 主導</p>	<p>만 利用하면 孤立된 것보다 훨씬 有利할 수 있다.</p> <p>② 國際協力の 內容</p> <p>㉠ 安保에 對한 國際協力</p> <p>㉡ 經濟發展을 위한 國際協力</p> <p>㉢ 統一成就를 위한 國際協力</p> <p>③ 國際協力の 方向: 새로운 國際潮流에 能動的으로 적응하면서 國際環境을 有利하게 이끌어서 이용해야 한다. 이같은 國際協力確保의 方向은 6.23 宣言에 잘 表現되고 있다.</p> <p>統一問題 解決이 短時日內에 이루어질 수 없는 理由는</p> <p>① 對內的인 統一與件의 成熟이 短時日內에 不可能하네</p> <p>② 強大國들의 진실된 國際協調가 단시일內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p> <p>① 主導의 必要性: 民主統一에 對한 可能性을 擴大하기 爲하여 國際環境을 能動的으로 이용하여 統一을 앞당기기 爲하여</p> <p>② 主導를 위한 要件: 社會發展과 經濟發展의 優位 確保</p> <p>㉠ 統一方案에 對한 全民族的 支持와 國際的 支持와 協調</p> <p>㉡ 安保의 確立</p> <p>㉢ 國論統一과 國民總和</p>	<p>는데 留意한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3) 南北對話의 發展과 平和關係의 維持</p> <p>4) 南北關係의 方向과 6.23 宣言</p>	<p>南北對話는 平和的 關係를 維持하는 方向으로 展開되어야 한다.</p> <p>① 南北對話는 7.4 共同聲明, 6.23 宣言에서 밝힌 바와 같은 方向과 方法으로 發展되어야 한다.</p> <p>南北關係의 基本方向: 平和의 關係維持</p> <p>① 6.23 宣言의 意義</p> <p>平和統一에 對한 우리의 努力과 方法을 宣言한 것이다.</p> <p>① 平和統一에 對한 우리 努力 闡明</p> <p>㉠ 平和統一을 성취하기 위한 方法의 闡明</p> <p>㉡ 國土分斷의 책임소재의 糾明</p> <p>㉢ 北의 侵略策動에 對한 國際的 牽制作用을 促求</p> <p>② 6.23 宣言에 對한 北韓의 反應</p> <p>北韓은 이를 正면 부정하고 <고려연방제 실시후 UN 加入>案을 提示</p> <p>③ 聯邦制 其他提案의 속셈</p> <p>㉠ 駐韓 美軍 撤収 획책</p> <p>㉡ 國民의 安保意識 교란</p> <p>㉢ 赤化革命의 決定的 時期造成을 위한 手段</p>		<p>3-4)-①</p> <p><詳細1></p>

詳 細

<詳細1> 6.23 宣言의 內容과 意義
3-4) - ①

1. 6.23 宣言의 要旨

- ① 祖國의 平和統一을 爲해 모든 努力을 繼續한다.
- ② 南北韓은 相互 相對方의 內政을 干涉하지 않아야 하며 侵略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南北對話의 成果를 爲해 誠實과 忍耐로 努力한다.
- ④ 緊張緩和를 爲해 北韓의 國際機構 參與를 反對하지 않는다.
- ⑤ 統一에 障礙가 안된다면 南北이 各各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 ⑥ 互惠平等의 原則아래 모든 國家와 門戶를 開放한다.
- ⑦ 友邦國家와 既存紐帶를 公고히 한다.

이에 덧붙여 北韓에 對한 이상의 政策에 對해서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의 過渡的 期間中의 暫定措置임을 指摘하고 北韓을 國家로 承認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2. 6.23 宣言의 意義

① 平和關係에 基礎한 統一努力이다. 南北關係가 對話있는 새로운 時代로 轉換하고 더우기 統一原則에 合意한 7.4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었음에도 不拘하고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南北의 價值觀과 統一目標의 對立으로 南北對話는 바람직한 進展을 보지 못하고 平和統一의 展望은 여전히 요원한 形便에 있다. 이러한 狀態는 統一問題가 南北 雙方立場의 接近에 依해서 解決될 可能性이 稀薄하므로 統一의 成就를 爲해서는 長期間의 努力이 不可避함을 말해주고 있다.

大韓民國 政府는 이와같은 實情에서 무엇보다도 南北間에 戰爭이 일어나지 않도록 平和關係를 공고히 하고 이에 基礎하여 平和統一의 努力의 成果를 쌓아 窮極的으로 平和統一을 成就하고 말겠다는 것이다.

② 平和統一의 첩경을 提示하였다. 統一問題가 南北間의 對話에 의해서 解決될 수 없다면 平和的 競爭의 結果로 問題解決의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競爭은 어느쪽의 理念과 體制가 民族의 絶對的 支持를 받을 것이냐는 方向으로 나갈 것이며 이 競爭에 勝利하기 爲해서 經濟 및 社會發展과 福祉國家 建設이 北韓을 월등히 能가할 수 있어야 한다

大韓民國은 經濟發展 政策이 成功的으로 進展되고 政治 및 社會的 安定의 토대를 構築함으로써 南北間의 競爭에 자신을 가지고 메진하고 있다. 이를 基礎로 南北間의 善意의 競爭을 다시 한번 促求한 것이 곧 6.23 宣言인 것이다.

③ 6.23 宣言은 國土分斷의 責任 所在를 糾明하였다. 8.15 解放以後 大韓民國 政府는 祖國의 平和統一을 爲해서 公明正大한 提案을 하고 그의 구현을 爲하여 誠意있는 努力을 해왔으나 그때마다 北韓은 拒否해 왔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側은 國土統一이 안되고 있는 責任을 우리 側에 전가시키기 일수였다. 特히 南北對話가 進行되는 中에서도 韓國을 孤立化시키기 爲해서 外交網의 擴張과 國際機構 加入에 全力을 傾注하였다. 이러한 北韓의 偽裝平和攻勢를 對内外에 폭로한 것이 곧 6.23 平和統一 外交宣言인 것이다.

④ 6.23 宣言은 北韓의 侵略策動에 對한 國際的 牽制作用을 한다. 이는 平和統一에 否定的 影響을 주는 國際舞臺에서의 南北間의 外交的 敵對關係를 緩和하는 한편, 北韓으로 하여금 平和를 指向하는 國際情勢의 潮流에 따르게 하고 나아가 國際輿論의 壓力에 의해 北韓의 侵略策動을 牽制시키자는 데도 그 意議를 찾을 수 있다.

<詳細 2 > 6.23 宣言에 대한 北韓의 反應
3-4) - ②

北韓 當局者는 우리의 6.23 宣言이 發表된 그날 저녁 平壤에서 있었던 「체코슬로바키아」共産黨 幹部를 위한 歡迎群衆大會에서, 『南北韓 「유엔」同時加入은 民族分斷을 固定化하는 것이므로 單一國家로 「유엔」에 加入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南北聯邦制를 實現하여 「高麗聯邦共和國」의 國號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現實的인 政策을 反對하고 나섰다.

그 동안 두차례에 걸쳐 「유엔」加入을 申請한 바 있으며, 「유엔」傘下機構에의 加入을 끈질기게 追求하여 끝내는 世界保健機構(WHO)에 加入함으로써 「두 개의 韓國」을 浮刻시켜 分斷 固定化의 印象을 질게 했던 그들이 이제 「民族分斷 固定化」의 責任을 우리에게 轉嫁하면서 우리의 現實的이며 合理的인 平和·開放外交政策을 反對하고 나섰다.

이에 대하여 「뉴욕·타임스」紙는 다음과 같이 論評하였다.

『朴大統領의 「유엔」同時加入의 政策에 대하여 北韓은 이를 거절하였다고 보다는 우선 反撥한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妥当하다』

「拒絶보다는 反撥」 즉, 「反對를 위한 反對」를 한데 不過하다는 이 論評이야 말로 참으로 適切한 論評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事實은 「와싱턴·이브닝·스타」紙가 『朴大統領의 「유엔」政策 轉換으로 北韓이 完全히 無防備狀態에서 外交的인 奇襲을 받아 驚愕하고 당혹하고 있는 것 같다』고 論評한 點으로 미루어 보아 北韓當局은 우리의 政策轉換에 크게 당황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北韓側이 「유엔」同時加入을 反對하고 60年 以來 되풀이 하여 온 소위 南北聯邦制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우리의 政策轉換이 國際潮流에 올라와 呼應한 賢명한 決斷이라고 國內外的으로 크게 歡迎을 받자, 당황한 나머지 우리의 外交政策을 無色케 하려는 하나의 窮余之策으로 들고 나온 常套的인 宣伝에 不過한 것이다.

北韓이 그간 「유엔」加入 申請을 냈었을 뿐 아니라, 「유엔」傘下機關서에 加入하는데 注力해 온 것과는 달리, 「유엔」同時加入을 反對하고 나선 것은 우리側이 막상 現實 可能한 問題를 提起하면 無條件 反對를 위한 反對, 實現性없는 宣傳的 提議등으로 平和統一 成就를 위한 우리의 合理的 方法論을 忌避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北韓은 反對를 위한 反對라는 國際的인 指彈을 면하기 위해 이른바 南北聯邦制를 되풀이 提議한 것임이 틀림없다.

南北韓聯邦制는 實現性도 妥當性도 없는 것이며 60年 以來 北韓이 機會있을 때마다 常套的인 宣傳用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등 새로운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實現性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이러한 南北聯邦制를 왜 새삼스러이 또 들고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의 現實的이고도 合理的인 6.23 宣言을 拒否하기 어렵기 때문에 實現性없는 代案을 提示함으로써 外交的인 窮地에서 헤어나려는 方策이며, 同時에 國際的으로 우리 韓國과 對等한 國家的 地位를 認定 받으려는 意圖가 깃들여 있는 것이다.

6.23 外交宣言이 國際的으로 好意的인 反應을 얻자 北韓은 孤立無援의 窮地에 몰리게 되었고, 北韓社會에는 動搖가 일기 始作하였으며 權力層 內部에는 強穩派 對立이 深化하여 內紛을 惹起한듯한 印象마저 길다.

지난 6月27日 日本政府의 關係機關에 의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北韓의 社會安全部長 金炳河와 勞動黨 輕工業 및 商業部長 安承鶴이 失脚・肅清당한 것 같다고 伝하고 있다. 한편 日本의 다른 關係消息通은 最近에 와서 北韓內部에 某種의 事態가 일어나 4名의 有力者가 肅清당했다는 情報를 入手했다고 밝혔다.

海外報道에 의하면 北韓指導層은 그 동안 南北對話를 둘러싸고 相當한 意見對立을 持續해 온 것으로 伝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現實的인

6.23 宣言을 契機로 그들의 意見對立은 더욱 深化하여 內紛을 惹起한 것이 아닌가 推測되는 것이다.

< 詳細 3 > 聯邦制 및 其他提案의 속셈
3-4) -③

앞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北韓은 우리의 6.23 外交宣言에 대한 反應으로,

- ① 聯邦共和國 提議
- ② 南北韓「유엔」同時加入 反對
- ③ 民族分裂과 祖国分斷의 永続化의 責任을 우리에게 轉嫁하는 對南 非難과 逆宣傳攻勢를 벌이고 있다.

北韓의 이와같은 主張은 언제나 責任轉嫁와 不合理한 생트집, 그리고 實現性없는 主張등으로 常套的인 虛偽宣傳만을 되풀이해 온 그들의 生態를 또 다시 드러낸 것에 不過하다.

이에 그들의 主張이 얼마나 非現實的이며 虛構에 찬 것인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聯邦制案에 대하여

北韓의 이른바 「聯邦制」案은 결코 새로운 着想은 아니다. 그들이 南北聯邦制를 처음으로 提議한 것은 1960年 8月 15日에 행한 金日成의 演說에서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月 11日과 19日, 24日 연이어 金日成의 演說이나 勞動黨機關紙인 「勞動新聞」社說을 통해서 거듭 主張되었다.

그들이 당시 그와 같은 主張을 한 것은 4.19 直後 우리 나라의 政治 社会的인 混亂을 틈 타 赤化統一을 해 보겠다는 속셈에서였다. 그러다가 5.16 革命이 일어나 政局이 安定되고 社會混亂이 가라앉고 우리의 社會秩序가 安定되자 聯邦制案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暴力革命이 일어나야 平和

統一이 可能하다는 主張을 내세우게 되었다.

勿論 60年代에 들어와서도 宣傳攻勢를 위해서 간간히 聯邦制案을 비쳤지만, 그 提議를 다시 本格的으로 들고 나온 것은 우리의 主導로 南北對話가 開始된 뒤의 일이나.

그들이 聯邦制案을 主張하는 것은 統一念願을 안고 있는 民族感情을 刺戟하여 南北의 國論을 分裂시키기 위한 偽裝平和攻勢의 一環으로서 宣傳의인 效果를 노리자는 것이다. 이것은 北韓이 韓半島의 赤化統一이라는 窮極的인 戰略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中間目標로서 緊張緩和라는 最近의 國際情勢 變化의 물결을 타고 國際社會에서 南北韓의 地位를 1對1로 認定받으려는 소위 「同格化政策」을 多角的으로 推進하는 戰術의 一環이기도 한 것이다.

北韓이 「南北韓 同格化」를 追求하는 目的은 뻔하다. 즉 그들은 人口나 國力面에서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主張하고 또한 「유엔」이 決議한 바대로 南北韓 自由總選舉에 應하는 것은 처음부터 스스로의 敗北와 劣勢를 自認하고 들어가는 것이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對等한 主權을 가진 1對1의 存在로 認定받아야만 人口나 國力の 差異에도 不拘하고 對等한 條件으로 後日 決定的인 統一協商을 벌이는 데 有利하다는 判斷에 의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目的 達成을 위한 手段으로서 「南北同格」「두개의 韓國」등의 認識을 國際社會에 扶殖시키기 위해 온갖 方法으로 宣傳攻勢를 퍼, 그들의 地位를 높여 나가는 한편, 우리를 헐뜯고 욕하여 相對的으로 地位를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말로는 하나의 「聯邦共和國」을 내세우면서도 實質的으로는 「두 개의 韓國」이라는 「南北同格」의 印象을 強하게 浮刻하기 위해 外國이나 國際機構에 대한 外交的 進出을 強化하고 있는 것이다.

本來 聯邦制란 2個以上の 政治單位가 相互間에 利害 共通性이 많아

個別的인 努力보다는 共同努力을 기울일 경우보다 効率的으로 共同利益을 保障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共同의 目標을 效果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그들 各 政治單位가 가지고 있는 主權의 特定된 一部分을 委任하는 聯邦政府를 樹立하여, 그로 하여금 委任받은 主權의 行使를 遂行케 하는 國家形態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聯邦國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下位 政治單位間에 政治的 理念이나 目標에 있어 同質性이 있어야 하며, 利害共通性이 많아야 한다. 特히 對外的인 面에서는 完全히 利害가 共通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同質性과 利害共通性에도 不拘하고 聯邦을 構成하는 下位 政治單位 사이에는 서로 民族이 다르거나 地域的인 特性이 多様하다거나 또는 歷史的인 特性으로 獨立性이 認定될 수 밖에 없는 多少의 異質性이 있어 制限된 獨立性과 主權을 相互 認定할 必要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聯邦國家는 美國·蘇聯·「스위스」같은 多民族國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特殊한 事情에 의해서 潛定的으로 國土가 分斷되어 있을 뿐, 半萬年이라는 歷史가 같고, 檀君聖祖로부터 穢줄이 같으며, 南과 北이 永遠히 갈라져서도 안 되는 것이므로 南北이 個別的인 獨立性을 維持하면서 聯邦國으로 結合해야 할 아무런 特性도 없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南北韓은 政治·經濟·文化·社會등 어느 分野이든 利害共通性을 찾을 수 없을만큼 異質化되어 있어서 이대로는 到底히 聯邦國으로 結合될 수도 없는 것이다. 가령 聯邦國으로 結合되었다고 假定하더라도, 그 聯邦國의 代表가 對外活動面에서 果然 南北韓의 共同利益을 追求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도저히 不可能할 것이다. 그는 南北韓 어느 한 쪽의 利益을 追求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南北韓이 聯邦國으로 結合될 수 있는 모든 條件을 갖출 수 있는 狀態가 된다면, 그 때는 聯邦國으로 結合할 것이 아니라

完全히 統一된 單一國家가 實現되는 時期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永遠한 南北分斷을 招來할 聯邦制 云云은 語不成說이며, 우리에게는 다만, 單一國家로서의 統一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第三國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타임즈」紙마저도 『北韓側이 韓半島의 統一接近案으로 提案한 聯邦制案은 얼핏 보면 理想的인 接近案처럼 보이나, 實踐面에서 볼 때 길고도 우회적이며, 어려운 過程을 밟지 않으면 안되는 偽善的이며 非現實的인 提案』이라고 痛烈한 批判을 加하고 있는 것이다.

2. 北韓의 「유엔」同時加入 反對에 대하여

北韓側은 聯邦制案을 主張하면서, 『南北이 同時에 「유엔」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한다』고 일찌기 그들이 「유엔」加入을 申請했었던 從前의 態度를 하루 아침에 豹變하고 말았다.

지난 4半世紀 동안의 우리 外交史를 돌아다 볼 때 우리는 恆常 그 때 그 때의 內外的인 狀況에 알맞는 現實的인 對外政策을 追求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平和·善隣의 基調 아래 平和·開放外交의 指向을 闡명한 이번의 平和統一外交政策도 現實에 맞는 우리 外交의 一大 發展的 轉換으로서 가장 現實的이며 妥當性 있는 英斷인 發展에 比해서 北韓의 外交政策이 걸어 나온 길은 어느 意味에서 보더라도 段階的이고 發展的이기보다는 便宜的이며 即興的인 것으로 우리에게 대한 反對를 위한 反對의 偽裝平和宣傳으로 一貫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國際的인 孤立에서 脫皮하여 「두 개의 韓國」을 既定事實化시키고자 여러 나라로 부터 北韓을 國家로 承認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편, 여러 國際機構에의 加入을 劃策하는 데 全外交力量을 쏟아 왔다.

그러나 그들의 努力은 아무런 實効를 거두지 못하였다가 國際情勢가 平和共存으로 激變하게 되자, 그 潮流에 便乘하여 가가스로 지난 4月

28日 I.P.U.(國際議員聯盟)에 加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WHO 加入을 契機로 「유엔」에 「옵저버」代表部 設置를 劃策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1949年1月과 51年12月등 두번에 걸쳐 우리가 「유엔」加入申請을 냈을 때,北韓은 바로 우리 뒤를 따라 1949年2月과 1952年1月등 두 차례에 걸쳐 「유엔」加入 申請을 낸 일이 있었다.

이와같이 그들이 바로 우리의 뒤를 쫓아서 두 번씩이나 「유엔」加入 申請을 냈으며, 또한 現在 「유엔」에 「옵저버」代表部 設置를 서두르는 등 實際로는 「유엔」加入을 劃策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걸으려는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을 反對한다고 宣傳하고 있으니, 그들의 外交政策은 오직 우리에게 대한 反對를 위한 反對의 偽裝平和宣傳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朴大統領의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契機로北韓의 偽裝戰術이 드러나게 되고,北韓의 「유엔」加入 申請은 아직 有効하다고 「유엔」公式 代辦人에 의해 밝혀졌으니, 『「유엔」同時加入을 反對한다』는 이번北韓側의 即刻的인 反對主張이 얼마나 虛構에 찬 宣傳인가를 또 한번 全世界에 스스로 立証한 셈이다.

그리하여 朴大統領의 平和統一外交政策 宣言에 대해서는 国内的으로 크게 支持를 받았는데 反해北韓側의 이른바 聯邦制와 「유엔」同時加入 反對主張은 「二律背反이며 自家撞着에 빠진 虛偽에 찬 宣傳에 不過하다」는 「유엔」觀測通들의 날카로운 批判을 免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레바논」의 「알하야트」紙는, 『北韓의 非妥協的인 提案은 和解를 向한 現在의 世界潮流에서 전혀 呼応을 받지 못할 것이며,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을北韓이 拒否한 것은 그들 自身에게 損害가 될 것이다』라고 論評했다.

北韓이 冷戰外交時代에는 「유엔」에 加入하겠다고 申請해 놓고, 緊張緩和과 平和共存의 開放外交時代에 접어들어 世界の 모든 나라들이 平和・善隣을 위해 交流와 協力を 強化해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國際

潮流에 逆行하여 南北同時加入을 反對하고 나선 것은 오늘날 國際社會 모든 나라에 適用되고 있는 「普遍性 原理」正面으로 挑戰하는 蠻勇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萬一 北韓이 眞正 韓半島의 緊張을 解消하고 平和的 統一을 追求하려는 眞心과 誠意가 있다면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등 南北對話에 보다 誠實하게 臨하는 誠意를 行動으로 보여야 할 것이며, 祖國統一의 條件을 實質적으로 改善하기 위한 우리의 平和統一外交政策에 呼應하여야 할 것이다.

3. 分斷 固定化의 責任 轉嫁에 대하여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나아가서는 國際的인 平和構築에 寄與하려는 우리의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에 대하여 北韓은 非現實的인 主張을 되풀이 하면서 우리의 外交政策을 韓半島의 分斷을 固定化하려는 民族分裂路線이라고 非難하고 있다.

祖國統一을 自主적으로 解決하기 위하 韓國問題의 「유엔」上程을 延期하면서 南北對話를 進行하고 있는 동안에, 裏面에서 國際社會에의 進出을 強力하게 企圖하여 「두 개의 韓國」을 既定事實化하려고 劃策한 者가 과연 누구인가? 그가 바로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인 것이다.

「유엔」同時加入이나 同時招請에 應하는 것을 分團 固定化의 劃策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 「유엔」加入을 申請하고 南北韓 同時招請을 위해 맹렬한 活動을 벌였던 北韓이야 말로 그 張本人이 아닌가?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제 그들은 그 責任을 우리에게 轉嫁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결같이 統一을 갈망하는 5千萬 民族의 感情을 刺戟하여 우리에게 不信을 助長하고, 우리 國民과 政府를 離間시키려는 計略임이 틀림

없다. 그러나 우리 國民은 말할 것도 없고 全世界의 輿論은 결코 그
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유엔」同時加入이나 同時招請에 應하는 것을 바로 分斷 固定化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單元 V

國際社会와 韓國

小單元

1. 國際關係의 本質과 最近趨勢
2. 世界속의 韓國
3. 國際社会와 南北關係

1. 国家利益 追求를 바탕으로 하는 國際關係의 本質과 70年代의 새로운 國際政治의 潮流를 理解시키고 國際社會에 韓國이 対応해 나가야 할 方向을 認識시킨다.
2. 國際社會가 주는 制約을 自主적으로 克服함과 同時에 이를 能動的으로 利用하는 것이 國家安保와 發展을 위해 必要한 手段이고 重要한 方法임을 理解시킨다.
3. 周辺 強大國들을 둘러싼 國際社會에서의 韓國의 位置를 理解함으로써 안으로는 國民總和에 이바지 하고 밖으로는 國家主權의 高揚과 自主外交 成就를 위한 國家的 努力에 적극으로 參與하는 態度를 기른다.
4. 國際平和와 人類共榮을 위한 韓國의 役割에 대하여 自負心을 갖고 이의 成就를 위한 努力에 적극 參與하는 態度와 能力을 기른다.
5. 南北關係의 改善과 統一成就를 위한 國際協調의 必要性을 理解시키고 이를 成就하기 위한 國家的 努力에 建設적으로 參與하는 態度를 기른다.

内 容 概 要

小 单 元	主 题	内 容 要 素
1. 國際關係의 本質과 新秩序	1) 國際關係의 本質 2) 戰後國際關係의 變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家目標追求, 國家利益追求 • 冷戰始作, 共存의 始作, 70年代의 國際情勢, 理念에서 實利追求로, 兩極에서 多極체制로, 冷戰에서 平和共存, 現狀固定으로.
2. 世界속의 韓國	1) 韓半島의 地政學的 位置 2) 10月維新의 國際的 妥當性 3) 韓國의 外交目標 4) 國際平和와 韓國의 役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蘇·日·中의 關係, 大陸勢力과 海洋勢力의 交叉地域 • 周邊強大國들의 對韓半島政策 10月維新의 國際的 不可避性 • 安保維持, 祖國近代化, 統一成就 • 韓半島平和와 國際平和, 人類共榮을 위한 韓國의 役割
3. 國際社會와 南北關係	1) 南北關係의 國際性 2) 統一을 위한 外交的 必要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強大國들의 利害關係와 韓半島政策, 東西間의 勢力均衡과 韓半島 • 統一을 위한 國際協調와 外交의 課題

小單元 1 . 國際關係의 本質과 最近趨勢

教 授 目 標

<知 識>

- 1 . 國家 利益의 追求가 國際關係의 本質임을 여러가지 例를 들 고 說明할 수 있다 .
- 2 . 戰後부터 지금까지의 國際關係를 通하여 이데올로기의 役割이 減少하고 實利追求의 傾向과 政治的 多極化의 傾向이 強化되 고 있음을 說明할 수 있다 .
- 3 . 周辺 強大國들의 對韓半島 政策의 方向을 指摘하여 韓国外交 의 適應 方向을 說明할 수 있다 .

<態 度>

- 1 . 國際關係의 本質과 最近의 國際潮流를 理解함으로써 韓國의 外交努力에 效果的으로 , 能動的으로 參與하는 態度를 갖는다 .
- 2 . 平和統一과 國力培養을 위한 韓國의 自主外交에 自身을 가지 고 이에 建設的으로 參與하는 國民的 態度를 갖는다 .

<批判能力>

- 1 . 國際政治의 實利追求 , 平和共存의 傾向이 韓半島의 統一問題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할 수 있다 .
- 2 . 우리 의 平和的 統一成就를 위해 國際環境이 韓國에 주는 制約點과 利點을 分析하고 , 이를 最大로 利用하기 위한 우리外 交의 方向을 말할 수 있다 .
- 3 . 南北關係 改善과 統一成就를 위해 國際 外交의 必要性和 그 效果를 予測할 수 있다 .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國家利益의 調和와 葛藤</p>	<p>있다.</p> <p>① 國家目標은 대개의 경우 國家利益과 同一視된다.</p> <p>② 國家目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家의 體制維持와 強化 ㉡ 經濟的利益의 增大 ㉢ 政治的影響力의 增大 ㉣ 文化向上 <p>③ 國際關係의 本質:</p> <p>根本적으로 國際關係는 利益追求의 相互作用에서 이루어진다.</p> <p>國家利益의 追求는 國際政治社會에 여러가지 問題와 葛藤을 提起하고 이의 解決을 위한 各國의 努力을 要求한다.</p> <p>① 各國間의 利益相衡 및 問題 解決 方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的方法 ㉡ 武力的衝突 <p>② 오늘날의 國際問題解決方法의 方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過 去: <p>힘에 의한 武力的 對決(예. 帝國主義, 共產國家, 나치獨逸, 帝國主義 日本)</p> ㉡ 오늘날: <p>協商에 의한 平和的 解決</p> <p>③ 國家利益의 追求는 他國과 相衡되지 않는 方向에서, 相互利益의 方向에서, 葛藤은 協商에 의한 平和的方法으로 解決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p>	<p>것은 各國의 國家目標인 國家利益追求에 있었다는 點을 여러가지 歷史的인 事例를 提示하면서 說明한다.</p> <p>3) 國際政治社會에 있어서 利益追求는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方向에서, 相互利益이 되는 方向에서 追求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왕의 갈등이나 분쟁도 협상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自國을 위해서 國際平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點을 강조해야 한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戰後 國際關係의 變化</p> <p>1) 國際政治의 變遷過程</p>	<p>① 冷戰의 發展 (1945~53)</p> <p>㉠ 冷戰의 本質: 美蘇의 權力鬭爭</p> <p>㉡ 世界的인 東西對立으로 發展: 「이데올로기」的 對立化</p> <p>㉢ 資本主義 對 社會主義의 體制的 對立化</p> <p>㉣ 美國의 對蘇封鎖政策의 發展過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年 3月 「트루만」 Doctrine 의 發表 • 47. 6月 「마샬프랜」 發表 • NATO 成立 • 50年 1月 亞細亞防衛線에 對한 宣言 • 美比相互防衛조약 • 美日安保조약 • ANZUS 조약 • 1953年 1月 「덜레스」 미국 무장관은 封鎖政策을 返捲政策으로 轉換 • 1953. 10 韓美相互防衛조약 締結 <p>㉤ 蘇聯의 對美封鎖政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7年 7月 「몰로토프·프렌」 發表 • 47年 9月 「코민포름」 結성 • 49年 1月 COMECON 設置 • 50年 2月 蘇中 友好동맹상호원조조약 체결 	<p>冷戰時代에서 平和共存의 時代로 發展되는 國際政治의 變遷過程을 통하여 國際潮流의 方向을 올바로 理解시킨다. 주변 강대국들의 對韓半島政策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전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留意한다.</p>	<p>2-1)-① <詳細1></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② 冷戰에서 共存으로 (1954 ~ 62)</p> <p>㉠ 1954年 1月 美國의 大量報復 政策과 소련 「말렌코프」 정권의 平和攻勢의 始作</p> <p>㉡ 美蘇文化交換協定の 조인, 핵실험 금지회의, 기습방지회의등 共存政策의 表現화</p> <p>㉢ 59年 1月 소련 21차공산당 대회에서 「후르시초프」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經濟競爭과 平和共存을 가질 것을 主張</p> <p>㉣ 美仏의 不和와 中蘇의 不和 - 美蘇 兩極指導體制에 挑戰</p> <p>㉤ 「쿠바」 위기를 轉점으로 東西關係의 好轉</p> <p>③ 共存的 定着 (1963 ~ 70) .</p> <p>㉠ 「쿠바」 위기 이후 政治的 多元化 始作 (中共, 仏의 대두)</p> <p>㉡ 67年 6月 「그라스보로」 회담에서의 <平和共存>의 再確認</p> <p>㉢ 1969年 美蘇間의 전략 핵무기 제한 회담</p> <p>㉣ 國際政治의 多元化를 물고은 主要原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蘇間 平和共存이 漸次 정착 되어간 점 • 자유진영내의 영·독·불·일 등이 전쟁의 타격에서 부흥하여 자주정책을 追求하게 된 점. • 공산진영내에서도 소련과 지도권을 다투어 핵개발을 하고 자 		<p>2-1)-② <詳細 2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2) 70년대 國際情勢의 方向轉換	<p>립정책을 추구하는 나라가 대두 됨. 미소 초강대국의 지도력이 한 계가 있다는 점</p> <p>④ 70년대 國際秩序의 全般的 趨勢: 軍事的 二元化와 政治的 多元化 傾向</p> <p>㉞ (政治的인 面) 世界政治 主役 國數의 增加, 「이데올로기」의 役 割 減少, 緊張緩和, 現狀維持</p> <p>㉟ (經濟的인 面) 世界經濟는 富 益富 貧益貧 現狀露呈, 國家實利追求 의 經濟動向</p> <p>㊱ (軍事的인 面) 紛爭은 軍事的 方法보다는 政治外交的, 平和的方法 으로 解決하려는 傾向</p> <p>㊲ (外交的인 面) 兩極체制的 崩 壞 多極體制化, 實利우선外交, 緊張 緩和 平和的解決 外交 傾向</p>		2-1)-③ <詳細 3>
	<p>① 美國의 役割減少: 「닉슨 독트린」 의 內容</p> <p>㉞ 美國의 役割減少하고 地域內의 자주적 방위태세와 다변적 방위태세 형성케 함.</p> <p>㉟ 아시아제국과의 맺은 조약상의 의무는 존중하되 군사개입은 제한 한다.</p> <p>㊱ 아시아地域內 國家間의 協力은 측면에서 支援한다.</p> <p>㊲ 協商으로 對共產圈과의 關係改善, 地域內國家間의 多角的勢力均衡을 維 持시킨다.</p>		2-1)-④ <詳細 4>
			2-2)-① <詳細 5>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② 소련의 대 아시아 政策 : 「브레즈네프」의 <아시아 집단안보>의 發表</p> <p>㉠ 69. 6 세계공산당대회에서 發表</p> <p>㉡ 中共, 日本, 호주 등의 아시아 진출 封鎖를 위해</p> <p>㉢ 地域内 各國의 安保를 위해 소련이 支援하겠다는 宣言</p> <p>㉣ 이 政策에 따른 日本과 인도에 대한 소련의 접촉개시</p> <p>③ 中共의 새로운 자세</p> <p>㉠ 对美平和共存政策의 追求</p> <p>㉡ 台湾問題의 平和的 解決追求</p> <p>㉢ 对日接近政策</p> <p>㉣ 平和 5原則</p> <p>㉤ 对外經濟 8原則</p> <p>④ 日本의 政策轉換</p> <p>㉠ 日本의 中共 및 소련 接近政策</p> <p>㉡ 美国의 保護로부터 脱皮 独自の 外交政策追求</p> <p>㉢ 아시아에서 日本의 役割 增大</p>		<p>2-2)-② <詳細 6 ></p> <p>2-2)-③ <詳細 7 ></p> <p>2-2)-④ <詳細 8 ></p>

詳 細

<詳細 1> 冷戰의 發展 (1945 ~ 53)
2-1)-①

冷戰開始의 公式聲明은 47年 3月 「트루만·독트린」의 發表였다. 즉 「트루만」大統領은 共產勢力의 進出로 威脅을 받고 있던 「그리스」 및 「터키」를 援助하고 共產主義의 侵略에 對抗하여 自由諸國에 軍事援助를 提供할 것을 約束하였다. 또한 6월에 「마아샬·플랜」이 發表되어 西歐諸國에 對한 美國의 經濟援助가 大的으로 實施되었다. 나아가서 美國은 「對蘇封鎖政策」을 展開하여 9월에 美洲 21個國에 依한 全美相互援助條約이 調印되고 48年 3월에 西歐聯合이 結成되었으며, 이를 基礎로 하여 49年 4월에 美國을 盟主로 하는 北大西洋條約機構가 成立하였다.

한편 蘇聯은 「마아샬·플랜」에 對抗하기 爲해 47年 7월에 「몰로토프·플랜」을 發表하였고, 49年 1월에 蘇聯과 東歐諸國으로 構成되는 經濟相互援助委員會 (COMECON)를 設置하였다. 또한 47年 9월에 歐洲諸國 共產黨間의 連繫強化를 目的으로 하여 「코민포름」이 結成되었으며 NATO 에 對抗하는 軍事措置로서 蘇聯과 東歐諸國間의 相互援助條約이 強化·擴大되었다.

그런데 48年 2月 「체코」共產黨의 「쿠데타」와 4月以後 1年間 繼續된 「베를린」封鎖는 西方側에 非常한 衝擊을 주었고, 49年 9月 蘇聯의 原爆實驗成功에 關한 報道는 美國의 核独占의 終焉을 意味하였다. 50年 2月 蘇·中共友好同盟相互援助條約이 締結된 後 6월에 韓國動亂이 勃發하여 東西冷戰은 部分的인 熱戰으로 되어 爆發하였다.

美國의 아시아政策構想은 日本의 無力化와 中國의 民主化를 目標로

하였으나 中国内戰의 本格化에 依하여 破綻하였고 49年 10月 中共政權의 成立으로 崩壞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後 50年 1月 美国은 아시아防衛線이 아류산-日本-沖繩-필리핀을 잇는 線이라 宣言하고 中国에 의 不干涉政策을 取하였다. 그러나 韓國戰爭을 契機로 美国의 아시아政策은 一大轉換하여 台灣防衛를 引受하고 对日講和條約의 締結을 서둘게 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美·比相互防衛條約, 美·日安保條約, ANZUS條約을 締結하고 对蘇封鎖政策을 中共에도 適用하였다. 다른 한편 韓國戰爭은 歐洲의 情勢에도 큰 影響을 미쳤다. 即 50年 12月의 NATO理事會에서 西獨軍創設이 決定되었고 西歐 6個國에 의 한 유럽防衛共同條約이 調印되었으며 유럽軍의 테두리內에 있어 西獨의 再軍備를 認定하게 되었다.

1953年 1月 「덜레스」美国務長官은 “封鎖政策”은 消極的이라 하여 더 積極的인 “返捲政策”을 発表하였다. 또한 10月에 美国은 韓國戰爭이 再發하지 않도록 韓·美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하였다.

上述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冷戰發生의 直接的 契機는 美·蘇兩大國의 權力鬭爭을 本質로 하는 것이며 美·蘇間의 体制的 相違나 「이데올로기」的 對立에 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러한 美·蘇 對立이 全世界的인 東西對立으로까지 發展한 理由는 自由主義 對 共產主義라고 하는 「이데올로기」的 對立이며, 또한 資本主義 對 社會主義라고 하는 体制的 對立을 根底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戰爭直後 西歐諸國의 國家利益은 무엇보다도 經濟復興이었기 때문에 資本主義의 盟主인 美国의 援助를 必要로 했고, 東歐諸國의 國家利益은 獨逸報復主義로부터의 防衛에 있었기 때문에, 社會主義의 祖國인 蘇聯의 後援을 必要로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美·蘇를 中心으로 하는 「兩極構造」가 形成된 것이다.

< 詳細 2 > 冷戰에서 共存으로 (1954 ~ 62)
2-1)-②

54年 1月 「아이젠하워 - 덜레스」 美政府는 大量報復政策을 提唱하여 世界에 걸쳐 蘇聯과 中共에 對한 包圍線을 破고 核全面戰爭의 威脅에 依하여 共產勢力의 進出을 抑制하려고 하였다. 이에 對抗하여 「말렌코프」 政權은 이 包圍線을 突破하기 위해 “平和攻勢”를 취했다.

유럽에서는 54年 8月 歐洲防衛共同体條約이 流産된 後 西獨의 NATO 및 西歐聯合에의 加入과 2年間에 50萬의 軍備가 實現되었다. 아시아에서는 9月에 東南亞條約機構, 12月에 美·中相互防衛條約, 55年 2月에 「바그닷드」 條約이 締結되어 自由陣營의 共產主義 包圍政策은 더욱 進展하였다. 이에 對抗하여 55年 2月에 成立한 「불가닌 - 후루시초프」 政權은 5月에 東歐 8個國의 會議을 열어 「바르샤바」 條約機構를 結成하여 共產陣營의 軍事協力體制를 結成하여 共產陣營의 軍事協力體制를 더욱 強化하였다.

東西冷戰은 美·蘇文化交換協定の 調印, 核實驗停止會議와 奇襲防止會議의 開催, 核實驗의 一方的 停止 등에 의하여 緩和의 傾向을 보이는 한편 中東紛爭, 「베를린」 問題, 「알제리아」 叛亂, 台灣海峽의 危機 등으로 如前히 對立을 露呈하였다. 특히 58年 11月 蘇聯이 西方勢力의 西「베를린」 撤収를 要求하여 이 「베를린」 問題가 62年의 「쿠바」 危機까지 滿 4年間에 걸쳐 最大의 争点으로 되었다. 또 한 가지 重要한 것은 58年 7月末 蘇·中共 首腦會談이 北京에서 열렸을 때, 「후루시초프」는 中共이 蘇聯의 核「미사일」 優位를 背景으로 하여 台灣의 武力解放을 企圖하려고 하는 冒險主義에 警戒心을 불러일으킨 한편, 毛沢東은 蘇聯의 對美核抑制力을 信賴하지 않고 獨目的 核武裝을 斷行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59年 1月 蘇聯 第21次党大会에서 「후르시초프」는 資本主義諸國과의 經濟競争과 平和共存을 強調하였고 9월에 訪美하여 「아이젠하워」大統領과 「캠프·데이비드」會談을 가졌다. 그는 美國에서 帰國하는 途中 北京을 들러 中共 首腦에게 台灣問題에 關하여 美國과 和解할 것을 說得했으나 兩者의 意見은 對立하였다. 蘇聯은 57年에 中共과 調印했던 國防用 新技術協定을 一方的으로 破棄하여 原爆 見本과 原爆製造에 關한 技術資料의 提供을 拒否하였고 또한 8-9月の 中·印國境紛争에 對하여 中立的 態度를 取하여 蘇·中共關係는 이미 冷却化되고 있었다.

60年 봄 東西解氷 「무우드」는 U2 機墜事件으로 한때 일어붙었으나 9월에 「후르시초프」가 「뉴욕」을 訪問, 美·蘇關係改善을 強調하여 美·蘇共存은 維持되었다. 한편 蘇·中共간에서는 4月부터 「이데올로기」論争이 表面化하고 國境紛争이 頻發했으며 11月の 世界 81個國共產黨會議에서도 兩國代表의 意見은 激甚하게 衝突하였다.

다른 한편 「드골」大統領은 58年 1월에 發足한 歐洲共同市場을 經濟的 基礎로, 仏·西獨의 協調를 政治的 基礎로 또한 独自の 核武裝을 軍事的 基礎로 하여 美國에 挑戰, 大國으로서의 地位를 要求하기 始作하였다. 이러한 美·仏對立과 蘇·中共對立에 共通되는 特徵은 東西 兩陣營에 있어 美·蘇의 指導權에 對한 挑戰이었다.

61年 1月 「케네디」美大統領이 就任하여 그는 優越한 武力을 基礎로 하는 和戰兩面의 柔軟反應戰略을 採択하였다. 62年 봄 「라오스」情勢가 緊張하고 가을에 中·印國境紛争이 深刻해졌으나 이 해의 最大危機는 「쿠바」危機였다. 이 「쿠바」危機를 契機로 ① 東西陣營의 勢力關係現狀의 急激한 大幅變更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② 核全面戰爭만은 絶對 回避해야 되겠다는 美·蘇兩首腦의 認識이 다시 強하게 確認되었으며, ③ 蘇聯이 美國의 決意를 誤算

할 가능성이 극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세가지 점이 그後東西關係를 好轉시키게 되었다고 하겠다.

< 詳細 3 > 共存의 定着 (1963 ~ 70)
2-1)-③

「쿠바」危機를 契機로 하여 東西間의 緊張은 서서히 緩和되어 갔다. 63年 6월에 美·蘇直通通信協定, 8월에 美·英·蘇의 部分核禁條約이 調印되었다. 이러한 美·蘇接近 특히 美·蘇의 核独占에 仏·中共 兩國은 反撓하여 部分核禁條約을 非難하였다. 이보다 앞서 62年 12월에 美·英은 나소協定을 締結하여 NATO에 대한 多角的 核戰力創設의 方針에 兩國이 協力하기로 約束하였는데, 仏은 이를 美·英·仏 三頭指導下에 둘 것을 要請하였으나 美·英이 이를 拒否하자 63年 1月 「드골」大統領은 나소協定에 不參하고 英國의 EEC加入拒否를 表明하였으며 6월에 NATO로부터의 仏大西洋艦隊撤収를 通告하여, 美·仏關係는 反目하였다.

또한 中·蘇間에는 激烈한 批判応酬이 있었으며 7月の 「모스크바」會談도 決裂되었다. 이와같이 「쿠바」危機後 美·蘇의 兩極化時代는 終焉을 告하고 多元化現象이 顯著하게 되었다.

63年 11月 「케네디」가 暗殺되고 64年 10月 「후르시초프」가 突然 解任되었으나 美·蘇協調는 繼續되었다. 이 「美·蘇에 의한 平和」에 대한 挑戰은 64年 1月の 仏·中共外交關係의 樹立과 10月 中共의 1次核實驗成功이었다. 64年 8月の 「통킹」灣事件을 契機로 美國의 越南戰事介入이 擴大되어갔다. 美國과 越盟을 支援하는 蘇聯間의 關係는 凍結狀態로 되고, 民族鬭爭을 支援하는 中共과는 戰爭一步直前의 狀態로 되었으나, 中共이 蘇聯의 越盟에 대한 共同行動을 拒否하여 美·蘇·中共은 三巴葛藤을 繼續하였다.

또 65年 9월에 勃發한 印·파戰爭에 있어서도 印度에 最後通牒을 發한 中共과는 對照的으로 美·蘇兩國은 中立的 態度를 취하여 戰爭擴大를 抑制하였다.

그 後 蘇聯은 美國의 越南軍事行動을 非難하였지만, 核戰略의 優位性을 保持하기 위해 核不擴散과 宇宙利用의 面에서 對美協調를 推進하였다.

中共의 外交는 66年 文化大革命의 混亂에 의해 國際적으로 孤立되었다. 이에 반하여 「드골」은 越南中立化를 標榜하고 NATO의 軍事機構로부터 脫退하는 한편 蘇聯首腦와의 交流를 始作하고 東西交流를 積極化하였다.

67年에는 美·蘇關係가 越南戰爭과 6월에 勃發한 中東戰爭으로 冷却化했으나, 6月 美·蘇 兩首腦는 「그라스보로」會談에서 “平和共存”을 再確認하였다. 中共에서는 文化大革命의 進行에 따라 武闘가 全國에 擴大되고 革命을 AA諸國에 “輸出”하였기 때문에 國際的 孤立를 招來했고 中·蘇國境紛爭도 頻發하였다. 유럽에서는 66年 12월에 成立한 西獨의 「키싱거-브란트」政權이 東西유럽의 和解를 推進하고 「드골」도 東歐에의 接近을 試圖하였다. 또한 “經濟大國”으로 成長한 日本에서는 佐藤首相이 「존슨」大統領으로부터 3年內에 沖繩返還에 合意를 보게 될 것이라는 諒解를 얻어냈다.

68年 3月 「존슨」大統領은 越南戰의 縮小措置를 취하는 한편 5月부터 越盟의 和平會談을 開始하였다. 다른 한편 蘇聯은 1月以來의 「체코」自由化를 抑壓하기 위해 8월에 武力干涉을 敢行하였다.

이러한 蘇聯의 大國主義的 蠻行은 世界輿論의 反擊을 샀을 뿐만 아니라 西方側의 對蘇警戒를 增大시켰다. 그러나 美·蘇核超大國은 各己의 勢力範圍를 默示裡에 諒解하여 干涉하지 않고 世界支配를 더욱 確實히 하기 위해 7·월에 核擴散防止條約에 調印하였다. 또한

文化大革命이 終局的 段階에 들어간 中共은 蘇聯의 對 「체코」 武力 介入을 “社会帝國主義”라 攻撃하였으나 美国과의 關係는 轉換의 徵 候를 보이기 始作하였다.

69年 1월에 美国에서는 「닉슨」大統領이 就任하여 越南戰을 早速히 終結하여 国内的 分裂을 克服하는데 注力하였다. 또한 蘇聯은 「체코」 武力介入에 의하여 深刻해진 共產圈内的 對立을 調整하는데 注力하고 6월에 世界共產黨會議을 「모스크바」에서 開催하였다. 中共에서는 4월에 九全大會가 開催되어 文化大革命이 一段 마무리되었다. 유럽에서는 「드골」이 退陣하고 「퐁피두」首相이 大統領으로 選出되었으며, 西獨에서는 「브란트」社民黨政權이 成立하였다.

특히 69년에는 美·蘇間의 戰略武器制限會談(SALT)이 開始되었고, 中·蘇國境의 武力衝突(「다만스키」島事件等)이 激化하였으며 11月の 「닉슨」·佐藤共同聲明으로 沖繩施政權返還에 관한 合意를 보게 되었다.

이렇듯 美·蘇는 戰後 各己 自由陣營과 共產陣營의 指導國으로서 그 陣營을 形成하고 이끌어 왔으나 美·蘇의 陣營對立은 修正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現狀을 흔히 國際政治의 多元化라는 말로써 表現하고 있다. 多元化를 가져오게 된 主要 要因을 들면, ① 美·蘇間의 平和共存이 漸次 定着되어 간 것, ② 自由陣營内에서 英·仏·西獨·日本등이 戰爭의 打撃에서 復興하여 自主政策을 追求하게 된 것, ③ 共產陣營内에서도 蘇聯과 指導權을 다투어 独自の 核開發을 推進하고 自立政策을 遂行하고 있는 것, ④ 美·蘇 超大國의 核戰力은 그 破壞力이 너무도 엄청나서 政治的 影響力으로서의 効果에 限界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詳細 4 > 70年代 國際秩序의 全般的 趨勢
2-1)-④

70年代에 들어와서도 美·蘇는 戰略的 核武器의 優位性을 独占的으로 維持함으로써 世界國家로서의 既往의 地位를 維持할 必要가 있다는데 利害를 같이하고 있다. 즉 陣營을 이끌고 다님으로써 생기는 附隨的인 負擔에서는 相對的으로 벗어나되 第2次大戰 以後에 形成된 世界的 勢力均衡의 現狀은 維持함으로써 世界的 強大國으로서의 地位는 지켜나가겠다는 點에서 美·蘇는 政策上의 一致를 보고 있다.

그리고 過去 20餘年間的 歷史는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의 政治觀의 對立이라는 狀況을 빚어놓았기 때문에 陣營對立의 結果로 社會體制는 對立的인 基本的 緊張關係를 繼續 가지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오늘날의 武器體系의 性格上 資本主義的 社會經濟體制를 갖는 國家들은 그 體制를 지키기 위하여, 또 社會主義的 社會經濟體制를 갖는 國家들도 亦是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窮極的으로는 美國 또는 蘇聯의 核武器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處地에 놓여 있다.

이러한 狀況을 가리켜 「헨리·키신저」(Henry Kissinger)는 “軍事的 二元化와 政治的 多元化의 政治現象”이라고 하였다. 즉 社會體制的 性格上 美國은 西歐諸國의 運命에 無關할 수 없고 또 蘇聯은 東歐의 自由化를 完全히 放任할 수는 없다. 또한 西歐나 東歐諸國 亦是 보다 獨自的인 政策路線의 追求가 要請된다고 할지라도 政權과 社會體制的 基本은 美國 또는 蘇聯의 힘에 의하여 繼續 保障될 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戰後 國際政治秩序의 變化를 몇가지 具體的 側面으로 나누어 簡單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政治的인 面에서는, 世界政治主役國數의 增大, 「이데올로기」의

鈍化, 緊張緩和, 現狀維持의 諸傾向을 들 수 있다. 世界政治問題解決에 있어 独占的 發言權과 主導權이 許容되었던 美·蘇兩極體制는 漸次 崩壞되어 나가고 美·蘇·中·日 및 하나의 統合된 單位勢力으로서의 西歐 등 世界主役國의 數가 더 많아진 多元體制가 形成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世界政治는 이러한 列強間의 多元的이고 多邊的인 複雜한 對立·協調關係가 展開되어 갈 것이다. 또한 「이데올로기」戰爭은 政治의 本質上 永続할 要因을 潛在하고 있긴 하나 核武器革命 때문에 生存을 위한 現實的 打開策을 摸索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異質的 社會體制間의 平和共存競爭이 強調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政治「이데올로기」의 鈍化現象을 招來했고 오직 現實主義와 實利主義만이 두드러지게 浮刻되고 있다. 이러한 實利優先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具體的 手段方法으로서 對決속의 長期的 安定을 圖謀하려는 現狀維持政策을 強調하는 한편, 世界의 全般的 緊張緩和를 指向하는 必須條件으로서 對話와 交渉의 重要性을 높이고 있다. 그리하여 相互不信과 敵對意識을 漸次的으로 解消해 나가면서 世界 全般에 걸쳐 새로운 勢力均衡을 摸索하고 있는 것 등이 今日的 特徵이 되고 있다.

經濟的인 面에서 보면, 今日的 世界經濟는 富益富·貧益貧의 現況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南北問題의 根本的 解決을 위한 滿足할만한 成果는 期待하기 어려운 形便에 있다. 先進強大國들은 如前히 自國實利爲主로 世界經濟政策을 遂行해 나가면서도 後進諸國에 대하여는 強大國의 利益保全을 위해 自進해서 自己犧牲을 甘受해 달라는 式으로 強要하고 있다. 이리하여 生存과 繁榮을 위한 實利追求라는 國際環境下에서 後進弱小國들도 先進強大國들의 恩慧와 慈悲에의 全的인 依存狀態를 벗어나려는 自主努力의 一環으로 自立·自助의 經濟施策과 自主國防등에 力點을 두고 熾烈한 貿易競爭에 積極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如地에 놓이게 되었다. 全般的으로 보아 經濟的 側面에서도 世界各國은 冷戰體制에서의 敵對關係를 解消시키면서 經濟活動領域을 擴大하여 共存競爭의 길을 追求하게 될 것이다.

軍事的인 面에서는, 世界各國은 大體로 紛爭을 軍事的 方法보다는 오히려 政治·外交的 方法, 즉 平和的 方法에 의해 解決하려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그 理由는 主로 武力에 의한 紛爭解決의 困難性, 軍事費支出이 財政에 미치는 莫大한 影響, 그리고 經濟的 繁榮과 實利追求를 優先的으로 考慮해야 할 政策上 必要 때문이다. 따라서 現狀維持를 통한 長期的 軍事安定 나아가서 軍事費의 財政에 미치는 重壓을 克服하여 繁榮과 實利追求의 方向으로 政策을 轉換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強大國들은 直接 援助介入을 통해 國際責任地域을 擴大하려고 하던 既往의 政策을 修正하여 國際責任地域의 縮少, 直接 介入要因의 除去, 軍事同盟體제의 性格轉換, 軍縮을 위한 努力, 紛爭地域 특히 分斷國群에서의 武力競爭要因의 除去와 緩和를 一般政策으로 삼고 있다.

外交的인 面에서는, 兩極體제의 崩壞와 多極體제의 轉換, 緊張緩和와 軍事的 依存度의 相對的 低下, 紛爭의 政治·外交的 解決主義, 實利의 優先 등의 一般的 趨勢下에 群小國들도 그 存立과 活路打開을 위한 政策選擇의 幅이 擴大·多樣化되었고 多角的 方法에 의한 自主·自立이 切實히 要求되는 狀況에 이르렀다.

< 詳細 5 > 美国의 役割 減少
2-2)-①

70年代에 들어와서 부터 美国은 그 役割을 크게 減縮시키는 政策轉換을 보이기 始作하였다. 「닉슨·독트린」으로 알려진 美国의 새로운 政策構想은

- ① 美国의 役割을 減縮시키는 代身 地域内国家의 自主的 国防態勢와 多边的 防衛態勢에 期待를 걸고,
- ② 아시아諸国과 맺은 条約上的 義務는 尊重하되 아시아地域에서의 軍事的 介入은 選擇적으로 하며,
- ③ 아시아地域内国家의 地域協力을 側面에서 支援하여,
- ④ 对決 아닌 協商으로 共產国과의 關係를 改善하고 域内地域国家와의 多角的 勢力均衡을 維持한다는 것을 内容으로 하였다.

이러한 政策轉換은 莫大한 戰費와 人命을 消耗해도 끝날 줄 모르는 越南戰에 대한 美国民의 懷疑와 批判, 過剩公約에 대한 깊은 反省, 産軍複合체에 대한 疑惑 또는 批判運動과 軍部に 대한 不信感, 「달러」危機, 「인플레이」와 景氣後退問題, 黑人問題, 貧困問題, 都市問題 등 실로 錯雜한 諸国内問題의 重圧과 아울러 中共의 文化革命, 中·蘇对立 및 日本의 經濟力向上이라는 國際情勢의 變化를 그 背景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닉슨·독트린」의 具體的 展開은 美軍과 基地의 아시아로부터의 漸次的인 撤収와 对中共和解로 나타났다.

美国은 中·蘇对立을 利用, 中共과 蘇聯을 相互 適切히 牽制均衡시킴으로써 이 兩國中 어느 一國이 아시아地域에서 紛争이나 挑発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 이러한 立場에서 美国의 对中共接近은 中共에 대한 通商制限措置를 緩和시켰고 UN에의 門戶를 開放시켰으나 自由中国의 國際的 孤立을 招來하게 되었다. 1972年 2月 28日 美·中共의 共同声明은 武力不使用과 膨脹政策의 中止를 宣言

하였다. 이 共同声明으로 美国은 安心하고 아시아에서 撤軍을 断行할 수 있고 中·蘇紛爭을 利用하여 蘇聯에 대한 抑制力을 行使하게 되었으며 蘇聯과의 協商에서 有利한 立場을 취할 수 있게 되어 「닉슨」의 「모스크바」訪問으로 戰略武器制限協定을 調印할 수 있는 結果를 가져왔다. 또한 美国은 對中共接近으로 이때까지 自國의 保護下에서 實利追求에 급급해오던 日本으로 하여금 域内國家의 開發에 參與케 하고 經濟援助를 提供케 함과 더불어 美国의 아시아에서의 役割을 代行해주기를 期待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美国의 對아시아政策은 日本과 中共이 아시아強大國으로 登場함에 따라 發生하는 複合的 勢力關係에서 多刃的 牽制均衡體制를 形成시키려는 것이다.

< 詳細 6 > 蘇聯의 對아시아 政策
2-2)-②

現在 蘇聯은 「유럽」의 緊張을 緩和시켜 現狀凍結에 의한 安定을 確保하고 中共을 牽制하기 위한 包圍網을 構築하며 日本·中共·印度 등이 主軸이 된 對蘇聯合作戰의 形成을 沮止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다. 이러한 政策目標 아래 70年 8月 獨·蘇不可侵條約을 締結했고, 美·蘇戰略武器制限會談을 提案했으며, 日本을 「시베리아」開發에 誘引하였다. 또한 「브레즈네프」의 “아시아集團安保”構想과 「뉴델리」-「벵골라데쉬」-「아프가니스탄」을 連結하는 印度洋遮斷戰略을 樹立하였고 東南亞諸國과의 通商外交를 擴大하고 있다.

69年 6月 世界共産黨大會에서 發表된 「브레즈네프」의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이란 美国과 英國의 後退에 代身하여 中共·日本·濠洲 등이 아시아地域에 進出하지 못하도록 이 地域諸國이 스스로의 安保體制를 確立하고 蘇聯이 그것을 支援하겠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美国과 英國이 이 地域에서 役割을 減縮해 감에 따라 생기는 힘의

眞空을 中共이나 日本에 앞서 蘇聯이 메우려는 것이고 中共을 앞 뒤에서 封鎖하려는 것이며 美國과 英國의 影響力下에 있던 弱小諸國에 接近함으로써 그들을 美·英의 影響圈으로 부터 完全히 離脱시키려는 底意를 갖고 있다.

이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 蘇聯은 다음과 같은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다. 먼저 아시아에서 中共에 對抗할 수 있는 日本과 印度에의 接近이다. 印度와는 71年 8月 友好援助條約을 締結한 바 있고 「파키스탄」과의 戰爭에서도 印度를 積極 支援하였다. 日本에 대해서는 基本的으로는 美·日安保体制의 廢棄와 軍事的 中立地帶의 形成을 꾀하고 있지만 그것이 如意치 않게 되자 72年에 「그로미코」外相을 日本에 보내 積極的인 接近을 圖謀하려 하였다. 北韓·越盟·蒙古등 中共周辺의 共產政權에 대해서는 無理한 壓力을 加하지 않으면서 經濟 및 軍事援助를 提供하여 中共에의 密着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其他의 自由 및 中立의 아시아諸國에 대해서는 經濟交流에 마르는 政治的 進出이라는 方式을 挾하면서 現實政權과의 交涉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 詳細 7 > 中共의 새로운 姿勢
2-2)-③

中共은 中·蘇國境紛爭으로 말미암아 北方으로 부터의 威脅을 받아 왔으며 美國의 封鎖網에 걸려 있었고 新興大國으로 登場한 日本이 次後 可能的한 對美·蘇關係에서 不利한 背後威脅要因임을 意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中共을 四面楚歌의 包圍網속으로 넣는 結果가 되는 蘇聯의 印度洋 및 東南亞에의 進出에 直面하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中共은 優先 兩面對決을 止揚하고 國內産業開發을 서둘지 않으면 안되었다. 中共은 이때까지 東南亞에 關心을 쓰

기 보다는 美·蘇의 保護地域 내지 利害地域인 南美·東歐 및 「아프리카」地域에 浸透함으로써 美·蘇의 関心을 分散시키는 迂廻戰略을 써왔다. 그러나 中·蘇國境紛爭의 惡化와 「닉슨·독트린」에 따른 美軍撤収後 日本의 役割代행에 不安을 느끼고 外交의 方向轉換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中共은 美·蘇間의 共存限界와 對立狀況, 美·日間의 安保体制의 虛實과 限界, 그리고 日·蘇間의 接近 可能性 등을 把握하여 對美平和共存, 對日關係正常化, 台灣의 平和的 解放을 위한 努力 등을 當面目標로 삼고 對美接近을 試圖하여 72年 2月 美·中共共同聲明을 發表하게 되었다. 中共은 對美和解로써 蘇聯의 包圍網을 弱화시키고 蘇聯의 挑發 可能性을 抑制하며 美軍撤収後 東南亞에 있어 日本과의 對立에서 美國의 支援을 期待할 수 있고 또한 日本의 核武裝 및 東南亞進出과 蘇聯의 東南亞進出을 抑制시킬 수 있는 하나의 契機를 만들게 되었다.

다음으로, 中共은 日本에 接近하기 始作하였다. 中共은 日·蘇平和條約이 締結되기 前에 先手を 써서 中·日關係를 正常化시킴으로써 亦是 蘇聯의 對中共包圍網을 牽制하고 蘇聯의 東南亞進出을 沮止하며 日本技術의 導入으로 國內産業開發을 圖謀하려 하였다. 72年 9月 30日 日·中共共同聲明에 의해 中共의 唯一合法성과 台灣이 中共領土의 一部임을 確約받았다.

中共은 全般的으로 現國際秩序의 現狀을 維持하는 동안 第三勢力을 擁護하여 새로운 勢力圈을 確保하는 第二의 반동接近을 摸索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은 平和5原則 支持國들과 外交關係를 樹立하여 平和共存路線을 指向하는 한편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의 抗美勢力을 支援하고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民族解放運動”을 支援하고 있다. 특히 東南亞에서 中共은 1,500萬 華僑를 利用해서 對美經濟8原則을 武器로 「이데올로기」를 輸出

하여 日本의 膨脹을 沮止하려 하고 있다.

< 詳細 8 > 日本의 政策轉換
2-2)-④

日本은 戰後 美國의 軍事的 保護와 經濟的 支援으로 平和憲法下에 世界第三의 經濟大國으로 登場하였다. 美·日安保體制를 基軸으로 「아시아」地域, 특히 韓國防衛의 發進基地로서 役割을 担当해온 日本은 美·蘇冷戰體制下에서는 別다른 独自の 길을 摸索할 수 없었다. 그러나 東西冷戰體制的 解氷과 政治的 多極化, 그리고 특히 美國의 政策轉換에 따라 日本도 새로운 政策方向을 세우게 되었다.

于先, 日本은 對美關係에서 經濟關係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美國의 軍事的 保護로 인한 日本의 對外政策上 制約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다. 日本은 沖繩基地의 施政權을 返還받았고 日本內의 美軍基地使用에 관한 發言權을 強化시켰다.

日本은 美國의 美·日安保條約의 要求를 들어주는 反面 美國은 日本의 對美貿易關係에서의 要求를 들어주어야 하는 立場에 있었는데, 이러한 關係가 69年 「닉슨」·佐藤共同聲明에서 나타났던 바, 佐藤首相은 國際情勢가 緩和되어 가고 對中共接近國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韓半島와 台灣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과도 關係가 있음을 밝혀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美·中共和解를 契機로 美國의 敵概念이 變更됨에 따라 日本도 對外關係를 根本적으로 再調整해야만 하였는데 이것이 中共接近으로 나타났다. 中共과의 修交를 통해 日本은,

첫째, 美·中共關係의 變化에 맞추어 나감으로써 美國과 對等한 外交的 地位를 確保할 수 있고,

둘째로 東南亞에 있어 日本의 圧倒的인 交易關係를 둘러싸고 中共과 일어날 수도 있는 摩擦을 미리 政治的으로 調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中共의 諒解를 얻는 경우 蘇聯과의 經濟協力도 推進할 수 있게 되었다.

日本은 이러한 有利한 點을 確保해 나갈 수 있는 길에 들어서서 이제 本格的으로 政治大國으로서의 行勢를 하면서 均衡體制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 均衡體制속에서 行勢하는데 있어 日本은 다른 3大國이 지닌 軍事力을 갖지 못하고 들어온 것이다. 通常的 軍事力은 第4次防衛計劃에 따라 進行되어갈 것이지만 當分間 核武器는 갖기 어렵게 되어 있다. 日本의 經濟力에 核武器까지 겸한다면 이것은 3大強國에 모두 威脅이 될 뿐만 아니라 現狀打破의 素地를 남기는 것이므로 3大強國은 모두 日本이 軍事大國으로 登場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日本은 蘇聯 및 中共의 核力에 대해 既存의 美·日安保體制에 의한 美國의 核保護를 받지 않을 수 없고, 또 실상 그 立場을 밝혀온 바이다. 따라서 日本은 그 새로운 地位에 따른 外交政策을 주로 經濟에 焦點을 맞추지 않을 수 없으며 經濟的 進出을 위해 더욱 注力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周辺強大國의 對外政策 轉換方向과 目標을 簡單히 보았는데, 今後 이들 強大國間의 勢力關係는 어떻게 될 것인가?

1972年 2月28日의 美·中共上海共同聲明과 同年 9月30日의 日·中共共同聲明은 兩者가 다 같이 “兩側 어느쪽도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主導權을 追求해서는 안되며, 또 兩國은 各各 그러한 主導權을 確立하려는 다른 어떤 國家 또는 國家集團努力에도 反對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美·中共共同聲明中에는 “兩側은 어느 主要國家든지 다른 主要國家와 共謀하여 其他 國家들에 對抗하거나, 또는 主要國家들이 世界를 勢力圈으로 分割하는 것은 世界人民들의 利益에 違背된다”라고 되어 있다. 兩聲明에서 中共은 基本的으로 蘇聯 또는 日本이 東南亞地域에서 今後 可能한 勢力圈形成試圖를 防止

하려는 것이고 美国과 日本도 蘇聯이나 中共의 將次 있을 수도 있는 勢力圈擴大企圖를 沮止하려는 것이었다.

4 大국은 一次的으로는 다른 두 나라가 自國에 對抗하는 聯合戰線을 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二次的으로는 4 大國中 어느 나라도 東南亞地域에서 自國의 勢力圈擴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美国은 中·蘇의 單一共同戰線을 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日本은 蘇·中共이 聯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中共은 蘇聯과 日本의 聯合을 防止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에 있어 4 大國間의 力学關係는 利害와 勢力이 얽히고 설킨 多角的 相互牽制體制로 될 것으로 豫想된다.

小單元 2. 世界속의 韓國

教 授 目 標

< 知 識 >

1. 韓半島는 海洋勢力과 大陸勢力的 교차지로서 周邇強大國들의 影響을 크게 받고 있음을 歷史的인 事實을 열거하고 說明할 수 있다.
2. 國家安保와 發展을 保障하기 위하여 國際環境속에 能動的으로 適應함이 重要함을 說明할 수 있다.
3. 周邇強大國들의 對韓半島政策과 國際政治의 最近 潮流를 利用하여 10月維新의 不可避性을 說明할 수 있다.
4. 國家發展과 平和統一課業 成就를 위한 韓國의 外交 目標를 열거하고 說明할 수 있다.
5. 6.23 宣言을 利用하여 最近 우리 外交의 現況과 方向을 說明할 수 있다.

< 態 度 >

1. 平和統一 成就와 國家發展을 위한 우리 外交目標를 理解함으로써 이의 成就를 위한 國家의 努力에 積極 參與하는 國民的 態度를 갖는다.
2. 國際環境에 對한 韓國의 自主的 對應 能力을 믿고, 이같은 國家의 能力의 伸張에 積極 協力하는 態度를 갖는다.
3. 國際平和와 人類共榮의 立場에서 韓國 外交 目標의 타당성을 理解함으로써 國際社會에 對한 韓國의 公헌에 自부심을 갖는다.

< 批判能力 >

1. 周邇強大國들의 對韓半島 政策을 分析하고 이에 對処하기 위한 韓國의 外交 方向을 說明할 수 있다.
2. 國際政治의 最近潮流와 周邇強大國들의 對韓半島 政策을 批判하고 6.23 宣言의 外交方向의 現實的 妥當性을 說明할 수 있다.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1. 國際社會와 韓國</p> <p>1) 地政學的 位置</p> <p>2) 國際環境에의 適應</p>	<p>地政學的인 位置</p> <p>① 中·蘇·日의 三角關係</p> <p>① 130 몽고侵略</p> <p>② 160 壬辰倭亂</p> <p>③ 190末 淸日戰爭</p> <p>④ 200初日露戰爭</p> <p>⑤ 6.25 動亂</p> <p>② 中·蘇·日 및 美國의 四大強國의 關係속에 韓國은 노여 있다.</p> <p>③ 점점 世界가 좁아지자 國際關係속의 韓國의 역할이 증대되고 동시에 韓國에 미치는 국제적 영향력도 증대</p> <p>國際環境에의 主体的이고 機敏한 適應의 必要性</p> <p>① 國家利益을 極大化하고 統一을 成就하기 爲하여는 不可避하게 결여있는 國際環境에 機敏하게 適應해야 한다.</p> <p>② 國際環境을 能動的으로 主体的으로 利用함으로써 우리에게 有利하게 國際環境을 이끈다.</p>	<p>地政學的인 位置로 보아 한반도는 海洋進出을 위한 大陸勢力과 大陸進出을 위한 海洋勢力의 완충지대로서 周辺 強大國들의 影響을 不可避하게 많이 받아들임을 歷史的인 事例들 들어 설명한다.</p>	
<p>2. 周辺 強大國들의 韓半島政策과 10月維新</p> <p>1) 周辺國의 韓半島政策</p>	<p>主要周辺 強大國들의 韓半島政策</p> <p>① 美 國 :</p> <p>韓半島基本政策: 현상유지와 소·中共과 함께 韓半島에서 共存하려고 하</p>	<p>周辺強大國들의 對韓半島政策과 國際政治의 潮流가 우리 韓國에 주는 不利한 條件을 克服하고, 國際環境</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10月維新의 國際的當爲性</p>	<p>는 政策추구</p> <p>② 소련 :</p> <p>㉠ 北韓을 혁명기지로 한 극동적화정책의 일단 퇴조</p> <p>㉡ 현상유지정책 추구</p> <p>③ 中共 :</p> <p>㉠ 對美關係改善과 함께 韓半島에서의 共存政策 추구</p> <p>㉡ 南北의 유엔 同時加入 지지</p> <p>㉢ 中共은 日本勢力의 韓國進出 봉쇄 策 추구가 예상됨.</p> <p>㉣ 中共의 UN加入과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됨으로서 UN에서의 韓國問題取扱에 크게 영향</p> <p>④ 日本 :</p> <p>㉠ 韓半島에 對한 日本의 영향력 증대</p> <p>㉡ 韓半島의 平和共存 현상유지 기대</p> <p>㉢ 北韓의 地位認定, 北韓과의 交流 增大</p> <p>① 周變情勢變化의 衝擊</p> <p>㉠ 強大國들의 實利主義와 列強主義는 弱小國의 運命을 犧牲시킬 可能性을 높이고 있다.</p> <p>㉡ 닉슨 독트린과 아시아에서의 美國의 役割縮小</p> <p>㉢ 韓半島를 둘러싼 列強들의 既存勢力關係의 變化는 直接 間接으로 韓國의 安保에 危險한 影響을 주고 있다.</p>	<p>을 最大로 利用하여 國家利益을 도모하고 統一條件을 成就시키기 위한 우리의 課題와 努力의 重要性을 認識시키는 데 力點을 둔다.</p> <p>國際政治의 새로운 潮流가 韓國에 주는 不利한 條件을 克服함으로써 國家生存을 보장하고 國際環境을 最大로 利用하여 國家發展을 기하고 統一條件을 成就시키기 위하여 10月維新은 不可避하였다는 點을 強調해야 한다.</p>	<p>2-1) (詳細1)</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韓國의 外交 目標 및 外交 現況</p> <p>1) 韓國의 外 交 目標</p>	<p>㉔ 國際的인 긴장완화조류에도 不拘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정하다.</p> <p>㉕ 이같은 國際潮流의 變化속에서 各國은 國家生存權을 保持하기 위한 자주적 安保體制를 確立하는 한편, 對內的으로 自國에 알맞는 能率的인 體制에 의해 政治的 安定과 國家發展을 위한 體制強化를 서두르게 되었다.</p> <p>㉖ 10月維新의 不可避性</p> <p>㉗ 격동하는 國際潮流속에서 國家生存權을 보장하기 위해 不可避하게 취해야 했던 자주적 安保體制를 위한 조치가 10月維新이다.</p> <p>㉘ 자국에 알맞는 能率的인 體制의 정비에 의해 安定과 發展을 기약함으로서 平和統一 기반조성을 위한 것이 10月維新의 조치이었다.</p> <p>國家의 當面 課題를 成就하고 國利를 極大化하기 위한 韓國의 外交目標</p> <p>① 國家安保의 維持와 強化를 위한 外 交 目標</p> <p>㉑ 友邦의 確保</p> <p>㉒ 軍事(武器 및 技術) 援助의 確保</p> <p>㉓ UN軍의 駐屯</p> <p>② 祖國近代化를 위한 外 交 目標</p> <p>㉔ 知識 情報의 輸入</p> <p>㉕ 物質的 資源의 確保</p>	<p>10月維新의 不可避性과 合理性을 周邊強大國들의 具體的인 對韓半島政策의 새로운 方向轉換을 具體的 例를 들어 說明함이 좋다.</p> <p>韓國이 追求하는 外 交 目標가 國際社會의 理想뿐만 아니라 國家發展과 平和統一 理念에도 合當함을 理解시키는데 力點을 둔다. 外 交 目標 追求를 위한 韓國의 努力의 成果는 北韓과 對比하여 說明함</p>	<p>2-21</p> <p><詳細 2 ></p> <p>10月維新의 國際的妥當性에 對한 說明</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韓國外交現 況</p>	<p>㉞ 技術 및 科學 ㉞ 輸出的 保障 ③ 南北統一을 위한 國際同調와 協調 確保를 위한 外交目標 ① 緊張緩和를 통한 南北間의 戰爭 可能性 減少 ㉞ 우리의 統一政策의 妥當性 說得 ㉞ 平和統一을 위한 國際的 協調의 獲得 ④ 韓國外交目標의 妥當性 韓國外交目標는 世界平和와 人類공 영의 目標에서 뿐만 아니라 國家發展 의 目標에서 妥當 平和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外交原則 과 努力은 다음과 같은 措置로서 具體 化되어 나타났다. ① 8.15 宣言: 現實적이고 國際主義 의이며 柔軟性있는 對北, 對國際政策의 追求. ② 南北赤十字會談 提案 ③ 7.4 南北共同聲明 ④ 6.23 宣言: 開放的인 平和統一外 交政策 申明 ⑤ 最近(1973) 우리外交의 現況: 自主的 實利外交의 展開(1973年 政府의 外交方向) ① 韓·美 紐帶의 強化</p>	<p>좋겠다. 우리의 外交目標追求를 위한 方向은 8.15 宣言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의 內容을 통하여 提示함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8.15 宣言과 6.23 宣言 이 國際的인 妥當性을 認定받고 各國의 환영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 北 韓의 UN의 權能을 거 부하는 外交 자세는 國際 的 地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비교 설명하면 더욱 效果的인 教授가 될 것이다.</p>	<p>3-1) - . <詳細3></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点	資 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日協力の 増進 ㉡ 中立国 및 非敵性 共産国과의 外 交強化 ㉢ 經濟外交의 拡大 		<p>3-2)</p> <p><詳細 4 ></p>

詳 細

< 詳細 1 > 周辺強大國들의 對韓半島政策 2-1)

1. 美 國

美國은 닉슨·독트린에 따라 利益의 보장을 積極 戰略에 의하지 않고 中共과 和解함으로서 確保하려는 소극 戰略에로 轉換하였다. < 韓國化 >의 推進에 따라 美國은 71年 駐韓美軍 2萬을 撤收시켰고 對韓 軍援을 삭감하고 있다.

특히 美國은 71年 駐韓美軍 撤收때 公약한 國軍現代化 5個年計劃에 所要되는 그 軍援額까지 大幅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駐韓美軍의 減縮을 추진하게 된 直接動機와 假定은 韓國이 軍事的으로 經濟的으로 成長하여 美國의 直接 支援없이도 防衛를 自擔할 수 있다는 것, 北韓이 가까운 장래에 증대한 軍事的 모험을 恣行하지 않으리라는 것, 中·蘇間의 自体事情으로 어느쪽도 北韓의 南侵을 使嗾하거나 支援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前提는 美國的인 樂觀論이며 우리의 安保觀과 相反되는 점이 없지 않다.

美國의 對蘇·對中共政策의 變更을 強要하는 것이므로 美國은 紛爭의 再發을 極力 막으려 한다. 紛爭의 再發을 막는 方法은 韓半島에 可能的한 限 軍事力을 적게 갖게 하는 方法을 構想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美國은 南北韓의 共存이 極東平和의 核心으로 생각하고 南北韓이 競爭的으로 共存하는 것을 願하며 統一에로의 接近과 交流를 歡迎하고 있다.

나아가서 美國은 南北韓의 共存을 前提로 한 美·中·蘇의 韓半島에서의 現狀維持와 共存關係를 公式化 또는 制度化시키려 할 것 같다.

美国의 政策樹立에 関与하는 学者그룹의 研究方向을 보면, 첫째 南北韓에 대해 4 大國의 影響力을 行使함으로써 分断現狀을 凍結시키고 現在와 같이 韓國만을 一方的으로 擁護하는 立場을 止揚할 것, 둘째 언커크를 解体하고 南北交流를 拡大시키며 軍縮을 위한 國際的인 压力을 加重하고, 세계 駐韓美軍의 撤収를 予想하여 오스트리아式 中立化統一方案을 摸索하고, 넷째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을 實現시켜야 한다는 方向으로 研究되고 있는 것으로 伝해진다. 이러한 民間学者들의 研究方向이 곧 닉슨行政府의 對韓政策은 아니라 하더라도 今後의 對韓政策 樹立에 相當한 影響力을 미칠 것만은 確實하다. 이 같은 美国의 對韓政策方向이 우리의 政策方向과 어긋나는 點이 없지 않는데 問題點이 있다.

2. 蘇 聯

第2次大戰後 蘇聯은 北韓을 蘇聯衛星化하고 「革命基地」로 만든 다음 北韓으로 하여금 南侵을 敢行케 하였다. 蘇聯으로서는 韓國戰爭이 現狀變更의 마지막 企圖였으나 美国과의 直接的인 衝突을 避하기 위해 軍事的 介入은 하지 않았다. 韓國戰爭을 통해 美国을 비롯한 自由世界의 強硬한 反擊에 直面하였기 때문에 1953年의 休戰成立 이래 蘇聯은 極東赤化試圖를 一旦 中止하고 韓半島와 極東에서 現狀維持政策을 實施하지 않을 수 없었다. 蘇聯으로서는 中共의 韓國戰參加가 結果적으로 中共勢力의 韓半島 上陸을 意味하기 때문에 損害를 본 셈이며 따라서 中·蘇間에서 北韓의 地位가 不安定하기 때문에 現在의 南北韓 分断狀態에 短期的으로는 滿足할 수 밖에 없다. 만일 北韓이 中共의 影響下에 들어가게 된다면 蘇聯은 北韓에 의한 全韓半島 占領을 反對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蘇聯은 北韓이 中共에 密着하지 않도록 努力하는 한편 現在 分断의 公式化를 통한 北韓地位의 合法化에 더 큰 關心을 갖고 있다. 北韓의 地位를 公

式化하고 合法化하는 것은 韓國에서 戰爭終結措置의 一環으로 提起될 南北韓 相互地位認定協定을 締結케 만들 可能性이 있다. 다시 말하면 蘇聯으로서는 韓國에서 戰爭終結措置를 취하게 되면 休戰協定이 消滅되고 그렇게 되면 中共이 合法的으로 韓半島問題에 關与하고 있는 狀態에 終止符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北韓地位의 公式化는 南北韓間의 敵對關係와 韓半島에서의 紛爭發生의 可能性을 줄어들게 할 것이므로 對馬島海峽의 安定에 寄与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아가서 蘇聯은 韓半島에 있어 紛爭發生 可能性의 減少는 日本의 武裝強化를 덜 刺戟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 같이 戰後處理問題인 韓半島問題에 깊숙히 코뮤티되어 있는 美國과 蘇聯은 對韓半島에서의 兩國間의 均衡을 考慮할 것이다. 万若 韓半島問題가 잘못 處理되는 경우 美·蘇의 世界外交 및 戰略態勢의 均衡을 깨뜨려버릴 可能性이 潛在해 있는 噴火口의 要因임을 認識하고 있으며, 때문에 蘇聯은 對北韓政策에 있어서 美國의 對韓政策과 비슷한 形式의 勢力均衡維持에 努力해 왔다. 具體的으로 그것은 政治·經濟·軍事上의 對北韓影響력으로 나타났다. 만약 蘇聯이 北韓의 軍事的 現狀打破에 대하여 支援公約을 할 경우, 美國의 對韓公約의 增大를 招來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蘇聯은 北韓의 軍事的 現狀打破를 過去처럼 積極 支援할 立場에 있지 않는 것 같다. 要컨대 美·蘇 兩國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 南北韓間의 衝突防止, 南北對話 및 交流를 통한 長期的 軍事安定 및 現狀維持라는 點에서 利害를 같이하고 있다. 이리하여 美國이 韓國의 國軍現代化計劃을 左右할 수 있는 關鍵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蘇聯도 北韓에 대하여 軍事戰略的인 制約을 가할 수 있는 影響력을 갖고 있다.

3. 中 共

文化革命이후 中共의 새로운 政治氣運은 對外關係面에서 脱教

條主義的인 現實主義와 現狀固定化의 傾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政策方向은 韓半島에도 適用될 것으로 보여진다. 韓半島에서의 現狀固定化란 具體적으로 말해서 現在의 分斷狀態를 認定하는 것이며 그 固定化를 위한 方案으로서 다음과 같은 點들을 考慮할 것으로 觀測되고 있다.

먼저, 中共은 對美關係改善과 時期를 같이하여 韓半島에서도 共存을 摸索하려는 것 같으며 그 方法을 韓國戰爭終結措置에서 찾으려고하고 있다. 中共은 이 韓國戰爭終結措置로써 北韓의 地位를 公式化시켜 중으로써 北國에 대해 影響力을 扶植시키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措置를 취하는 過程에서 韓半島問題處理에 美·蘇와 對等한 立場에 설 수 있으며 強大國으로서 威信을 誇示하려 한다. 中共으로서 는 美·蘇와 共存關係를 韓半島에서 公式化 내지 制度化할 수 있으면 中共政權樹立 以後 中共의 地位를 유엔 밖에서 確認하는 機會가 되며, 이것은 또한 中共의 對蘇地位를 強化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實際 中共은 韓國戰爭參加를 對北韓影響力形成에 最大限으로 利用해 왔을 뿐만 아니라 休戰協定の 署名當事國이라는 立場을 最大限으로 살려서 對蘇關係에서 強大國의 立場을 維持하려고 努力해 왔다. 둘째로, 中共은 南北韓의 유엔 同時加入을 推進할 것이다. 셋째로, 中共은 日本勢力의 韓國進出을 꺼려할 것이고 이에 대한 牽制策을 追求할 것이다. 現狀固定化를 바라는 中共側의 立場으로서 는 日本勢力이 韓國에 大挙進出한다는 것은 韓半島에서의 現狀을 깨뜨리는 契機가 되기 때문이다. 넷째로, 南北韓에 紛爭이 再發하는 境遇 日本의 核武装化 可能性을 包含한 武装強化와 北韓의 對蘇依存度強化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中共은 이를 막으려 할 可能性이 크다. 따라서 中共도 南北韓間의 對話와 平和共存狀態를 願하는 것 같으며 이로써 韓國이 美·日의 反中共軍事基地化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다.

그러나 中共의 유엔加入은 우리에게 큰 挑戰으로 되고 있다. 中共이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이 됨으로 말미암아 유엔에서의 韓國問題取扱에 影響을 미치게 된 것이다. 中共이 安保理事會 常任理事國이 됨으로써 韓國動亂時와 같은 유엔의 集團防衛措置는 期待하기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南北韓同時招請 및 統韓問題에 있어 中共은 韓國政府의 合法性을 否認하고 그의 保護下에 있는 北韓을 大韓民國과 對等한 地位에 올리려고 試圖할 것이다. 實際 中共은 유엔加入 一聲明으로 北韓의 赤化統一方式을 積極 支持하였을 뿐만 아니라 上海共同聲明에서도 中共은 「1971年4月12日 北韓이 提出한 韓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8個項目方案과 언커크의 解体에 대한 要求를 強力히 支持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또한, 中共은 短期的으로는 戰術上 現狀維持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窮極的으로는 美軍의 撤収와 美國의 國際的 孤立化 그리고 北韓의 勝利를 意味하는 共產化統一을 目標로 하고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4. 日本

日本의 韓半島에서의 利害關係는 共產勢力의 膨脹을 緩衝시키는 것과 經濟市場의 確保라는 두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이 두가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日本은 무엇보다도 韓半島의 安定과 緊張緩和를 바라며 南北韓의 勢力均衡으로 戰爭再發을 防止하려고 한다. 또한 日本은 韓半島內에 對日敵對勢力이 자리잡게 해서는 안된다는 政治的 利害關係를 對韓半島政策의 基本으로 삼는 한편, 現狀維持·分斷政策에 의해 南北韓의 日本을 둘러싼 競合關係를 利用하여 韓半島에 대한 影響력을 漸次 增大시키려는 試圖도 엿보이게 하였다.

1960年代까지만 하더라도 日本은 韓·日 國交正常化, 69年 닉슨·

佐藤共同声明등을 통해 韓國의 安保에 대하여 間接的이나 積極的인 姿勢를 보였다. 그러나 最近 美·中共和解, 7.4 共同声明 그리고 田中內閣의 出帆後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은 徐徐히 樣相을 달리하기 始作하였다. 즉 美·中共接近을 契機로 日本은 美國의 要求와는 달리 韓國에 대한 直接的인 軍事支援을 回避하려는 態度를 表面化하였고, 7.4 共同声明과 그리고 특히 日·中共 國交正常化 이후부터 日本의 對北韓政策이 아직 消極的인 一 方向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日本은 人的 交流 및 交易등과 같은 非政治的 分野에서의 事實上의 接觸增大에 의해 北韓과의 關係를 改善해 나가려는데서 北韓과 利害를 같이하고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南北等距離外交를 實現해 나가려 하고 있다. 實際 最近에 와서 日本과 北韓間의 關係는 民間베이스에서 準政府間베이스로 까지 發展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現在와 같은 國際緊張緩和, 共存關係의 普遍化 傾向 및 韓半島內的 狀況變化는 日本으로 하여금 對韓友好政策과 새로운 形態의 對北韓政策을 兩立시킬 수 있는 것으로 判斷케 할 可能性이 있으며 이것은 日本의 對北韓政策을 人道的 交流段階에서 政經分離政策段階로, 다시 나아가서 政治的 段階로까지 漸次 擴大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現在 日本에서는 南北赤十字會談, 7.4 共同声明에 의해 韓半島에서 緊張緩和傾向이 나타나자 對中共關係改善에 便乘하여 對韓政策에 대한 再調整要求가 現實的인 壓力으로 대두되고 있다. 野党들은 지금까지의 對韓政策을 非難하고 日本·北韓間의 自由往來, 유엔에의 南北韓同時招請을 主張하고 將來에는 韓·日基本條約을 認定하는 讓步를 하더라도 北韓과 國交關係를 樹立하라는 主張을 내세우고 있다. 如何든 日本에서는 南北對話에 의한 統一이 實現되려면 長期間을 要할 것으로 보고 平和共存體制下의 分斷固定化가 進行될 것으로 보는 것이 一般的 趨勢인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韓國이 南北對話에서 北韓

의 存在를 既定事實로 認定하거나 分斷固着化를 통한 平和共存을 認定하는 듯한 態度를 취할 境遇에는 앞으로 日本이 北韓을 承認할 可能性도, 없지 않다. 要컨대 4 大國중 가장 劣勢인 日本은 強大國間의 勢力均衡에 「이니셔티브」를 취하기는 어려우나 極東 및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現狀安定을 追求하는 方向에서 美·中·蘇의 現狀維持策에 大体로 同調할 것이다.

< 詳細 2 > 10 月維新的 國際的 當爲性
2 - 2)

1. 周邊情勢 變化의 衝擊

70 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심한 激變을 겪고 있는 韓半島周邊의 國際情勢는 우리에게 多方面에서 至大한 衝擊을 주고 있다.

먼저, 새로운 勢力再調整過程에서 浮刻되기 시작한 強大國들의 利己的인 實利主義와 列強主義는 弱小國의 運命을 犧牲시킬 可能性이 커졌다고 하는 것이다. 그 可能性은 이미 美·中共和解와 日·中共和國交正常化의 過程에서 台灣이 겪게된 悲運에서 實證되었거니와 越南戰終結過程에서 티우政府가 겪고 있는 苦難을 통해 充分히 엿볼 수 있다. 오늘날 多極化 列強爲主의 實利主義라는 國際情勢의 全般的 趨勢속에서 國際的 信義와 道義는 흐려지고 術數만이 支配하게 되었다. 어제까지의 同盟國을 오늘은 背信하고 어제까지의 敵이 오늘은 同志가 되는 義理不在의 時代가 到來하여 友敵觀念이 漸次 稀薄해져 가고 있다. 말하자면 오늘의 國際關係야 말로 이제까지의 同盟을 더 큰 實利를 위해서라면 當장 내던져버리는 變化無雙·表裏不同·朝夕變化의 非情한 社會로 變貌한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強大國들이 그들의 더 큰 實利追求를 위해서 韓半島問題도 우리 民族의 意思와는 關係없이 處理하려들 可能性을 결코 輕視할 수 없게 되었다.

더 現實的으로 우리에게 衝激을 준 것은 닉슨·독트린과 美國의 아시아에서의 役割縮小이다. 美國은 이에 따라 駐韓美軍을 減縮시키고 軍援도 줄여가고 있다. 닉슨·독트린에 의하면 美國은 同盟國에 대하여 核保護를 提供하겠다고 하지만 核抑制力이란 外交·軍事上의 威脅과 心理的 宣傳效果는 가질 수 있으나 條約上 公約의 實際 保證은 아니며 局地戰이 일어날 可能性이 如前히 存在하는 韓半島에서는 戰爭抑制力으로서의 効用度가 낮은 것이다. 또한 美國은 韓國의 安保를 위한 日本의 一部役割代行을 바랐지만 日本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美·中共接近을 契機로 韓國에 對한 直接的인 軍事支援을 忌避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닉슨」大統領은 共產侵略을 막기 위한 地域協力構想을 提示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共產侵略을 막겠다고 設立된 東南亞條約機構도 오늘날에 와서는 本來의 目的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經濟·文化的 機構에로의 轉換이 不可避하게 되었으며 「아스팍」도 解體論이 抬頭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 아울러 美·中共和解, 日·中共修交와 같은 韓半島를 둘러싼 列強들간의 既存勢力關係의 一大變化는 韓國의 安保에 直接·間接的인 危險한 影響을 끼치고 있다. 美·中共關係改善과 日·中共國交正常化的 結果는 「샌프란시스코體制」라고 불리우는 「아시아」·太平洋의 既存秩序와 安保體制를 變質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勢力構造를 抬頭시키려 하고 있다. 日本의 太平外相은 「美·日安保條約은 不變할 것이나 運用方法은 事態進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고 美·日安保條約의 性格變化를 말했거니와 이때까지 韓·美防衛條約을 뒷받침해오던 이 條約의 性格變化는 必然的으로 韓國의 安保에 影響을 미치지 마련이다. 따라서 從來에는 「韓半島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에 緊要하다」고 한 69年 「닉슨」·佐藤共同聲明이 美·日의 對韓半島政策의 基調를 이루어 왔으나, 日·中共修交로 台灣條約 처럼 事實上 廢棄되지 않는다고 할지

라도 相当히 褪色하리라는 것이 支配的 見解이었다.

또한 最近 日本의 動向은 우리로 하여금 懷疑感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日本은 앞으로 「두개의 韓國」을 固定化시키려는 政策을 採択하게 될지도 모르고 最近에 와서 急速度로 增大시키고 있는 北韓과의 交流과 아울러 南北等距離外交의 方向은 北韓의 地位를 向上시킬 뿐만 아니라 對南工作 能力을 增大시키며 韓國의 韓半島에서의 唯一合法性에 대한 挑戰을 結果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強大國間에서는 緊張緩和의 趨勢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列強들의 問題解決方式에 不過하고 不幸히도 韓半島에서는 이러한 緊張緩和가 아직도 定着되지 못하고 不安定要素가 存在하고 있다. 卽舊韓末 韓半島를 둘러싼 列強들의 勢力角逐을 聯想케 하는 오늘날의 列強들의 利害調整過程에서 南北韓의 勢力均衡이 破壞될 可能性이 엿보이는데 이는 韓半島에서 戰爭再發의 可能性이 없지도 않음을 示唆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닉슨·독트린」에 따른 美國의 아시아로부터의 後退, 아시아集團安保體制에 대한 日本의 消極的 내지 否定的 態度, 駐韓美軍의 早期撤収 展望, 美國의 對韓經濟·軍事支援의 減縮, 中共의 유엔加入과 對北韓支援, 日本의 對北韓接觸 增大, 北韓의 戰爭準備 完了 등이 우리에게 不利한 南北韓 勢力均衡破壞要素로서 浮刻되기 始作한 것이다.

韓半島에서의 勢力關係를 보면, 韓國은 美·日과의 協力關係를 骨幹으로 하는 三角協力關係에 의해 安保를 維持하고 있고, 北韓은 中·蘇와의 同盟關係를 骨格으로 하는 三角同盟關係가 安保의 主軸으로 되고 있다. 韓國의 경우, 日本과의 關係는 軍事同盟이 아니라 協力關係이나, 北韓의 경우에는 中·蘇 兩國과 軍事同盟關係이다. 다만 中·蘇 兩國이 政治·軍事的으로 對立하고 있는 점이 美·日間的 經濟競合關係와 다르나 大體的인 見地에서 보면 北韓·蘇聯·中共의 三

角關係 쪽이 地理的으로나 同盟關係의 内容面에서도 強力하다. 日本은 中共과의 修交의 余勢로 北韓에의 関心이 높아지고 있으며 現存의 民間貿易關係를 準政府間的 關係로 強化하려는 움직임이 東京과 平壤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美国記者의 北韓訪問이 始作되었다. 그러나 서울과 北京과의 關係는 좀처럼 改善될 徵候가 보이지 않으며 서울과 「모스크바」의 關係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北韓은 市場確保를 위한 資本主義諸國의 競争的인 接近을 最大限 利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狀況에 直面하게 된 아시아·太平洋地域의 諸國은 美軍의 撤収, 中共의 유엔加入, 美·中共和解, 日·中共修交와 같은 最近의 急激한 事態發展에 대해 한결같이 憂慮와 不安과 懷疑를 表明하고 있다. 이들 諸國은 드디어 自主·自助努力의 重要性을 切實히 痛感하고 對外的으로는 冷嚴한 國際權力政治와 外部威脅으로부터 國家生存權을 保持하기 위한 自主的 安保體制를 確立하는 한편, 對內的으로는 自國에 알맞는 能率的인 體制에 의해 政治的 安定과 國家發展을 위한 一大 體制整備強化를 斷行하게 되었다. 近年에 와서 泰國·크메르·越南·필리핀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一連의 事態들은 바로 그러한 體制改革의 不可避性을 잘 說明해 주었다.

2. 10月維新의 不可避性

이 같은 韓半島周辺情勢는 우리의 安保와 平和統一 展望에 直接 間接으로 危險한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오늘과 같은 勢力再編成의 流動的인 狀況下에서는 強大國間的 實利追求競争이 激化될수록 그 틈바구니에서 第三國인 中小國의 利益이 犧牲될 可能性이 커지고 또한 南北韓間的 勢力均衡이 깨어져 戰爭이 再發하지 않는다는 確固한 保障도 없다. 어느 意味에서 今日的 韓半島 周辺情勢는 帝國主義列強이 角逐戰을 벌였던 旧韓末을 방불케 하거니와 第2次大戰 前夜의 列強間的 勢力圈 다툼을 再現시키는 前奏의 情勢를 聯想케 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旧韓末에서와 같은 歴史的 恥辱을 되풀이하지 않고, 또 戰爭再發로 인한 同族相殘의 民族悲劇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안으로는 南北對話를 통한 平和統一을 뒷받침할 国力培養을 加速化하고 國民總和体制을 強化하며, 밖으로는 情勢變化에 主体的·能動的으로 対応하여 試練을 國運開拓의 契機로 轉換시킬 自衛·自助等を 講究할 수 밖에 없었다.

時間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며 우리에게만 有利하게 適用되는 것은 아니다. 今後 數年内에 強大国들의 對韓國政策이 定着될 것으로 予見되는데 美國과 日本의 對韓政策에 큰 變化가 없는 지금 必要한 措置를 講究해야만 했고 보다 적은 波動으로 最大의 體制改革이 可能하고 또 安定이 維持되고 있는 바로 이 時期를 놓치지 않고 歴史的 決斷을 내릴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美·日의 對韓政策 變化를 비롯한 國際情勢 變化에 의해 우리의 國家利益이 犧牲되거나 南北韓間의 勢力均衡이 우리에게 不利하게 기울어져 金日成이가 또 情勢를 誤判해서 戰爭을 일으키기 前에 有備無患의 對備策을 講究할 必要가 있었다.

10月維新은 激動하는 國際情勢에 能動的이고 彈力的으로 対応하고 南北對話를 통한 平和統一을 굳게 뒷받침하기 위해 國內体制을 먼저 改革·整備하여 우리의 国力을 組織化하고 国力培養을 加速化하려는 當面課業을 提示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轉換期的 狀況속에서 内外의 試練을 克服하기 위하여 밖으로는 民族主体性を 드높여 國運을 自主적으로 開拓해 나가고, 안으로는 우리의 歴史的 傳統과 文化土質에 알맞는 韓國的 民主主義를 土着化하여 國家發展과 繁榮을 促進시킴으로써 平和統一과 民族中興에 이바지할 것을 目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10月維新은 國家生存權과 民族自決精神의 宣言이요 平和統一에 대한 拳族의 意志의 表明이며 國家의 安

定과 發展을 위한 自主意識의 宣揚이고 民族中興의 劃期的 轉機와 基盤을 마련하려는 新秩序의 創造를 위한 努力이라 하겠다.

< 詳細 3 > 韓國의 外交 目標
3 - 1)

外交目標은 國家가 當面하고 있는 課題를 成就하기 위하여 要求되는 外交的 支援을 提供하는데서 찾아야 할 줄 안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살펴 볼때 다음의 三大外交 目標가 導出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國家安保의 維持·強化를 위하여 要求되는 外交的 支援의 提供
둘째, 祖國近代化의 早速한 成就를 위하여 要求되는 外交的 支援의 提供

셋째, 南北統一의 成就를 위한 國際的 同調와 協力の 確保와 動員
이 外에도 여러가지 外交目標을 들 수 있겠지만 위의 세가지가 가장 重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위의 目標가 다 우리 스스로가 잘 살려고 하는데 關係되는 것이며 他國家의 權益 侵害가 全然 介在되지 않는다는 點이다. 즉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의 바탕위에서 우리의 發展을 圖謀하는 것이며 利己害他的인 姿勢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 위에 列挙한 3大目標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國家安保의 維持와 強化를 위하여 要求되는 外交的 努力이란

- ① 友邦의 確保
- ② 軍事援助(武器 및 技術)의 確保
- ③ 유엔軍駐屯 등으로 具體化 된다.

國家安保를 위해서 될수록 友邦을 많이 確保하는 것이, 특히 軍事的 同盟國을 增大시키는 것이 重要하다는 것은 甚 說明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이와같은 友邦 乃至 同盟國의 確保는 雙務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多務的으로 集團的 同盟體制에 加入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國家安保를 國際的인 次元에서 살펴 볼 때 威脅의 源泉을 積極的으로 除去(쉽게 말해서 敵國의 無力化)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고 外的 威脅에 대해서 消極的으로 自體의 防衛態勢를 強化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韓國은 後者, 즉 防衛的인 方法에 置重하고 있다는 事實을 強調할만할 것이다. 韓國國家安保에 대해서 가장 큰 威脅의 源泉이 되고 있는 北韓에 대해서도 韓國의 立場은 어디까지나 防衛的이다. 國內的으로 武力 北進統一을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韓美防衛條約 같은데서도 防衛的인 姿勢가 明確히 나타난다. 또한 韓國의 軍事政略도 防衛的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보아서 韓國이 平和統一을 主張하는 것이 單純한 宣傳이 아니고 韓國의 基本安保姿勢와 一貫하고 있음이 分明해진다.

둘째의 外交目標인 祖國近代化를 위한 外交努力이 어떻게 具體化되어야 한다는 것을 判斷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近代化를 위해서 國外的으로 얻어야 할 것은 近代化 推進에 도움이 되는 ①知識 ②物質的 資源 ③技術일 것이다. 그리고 國家經濟力량의 持續的인 發展을 위하여서 ④國產品에 對한 海外市場의 開拓이 要求된다.

近代化의 成功的인 推進을 위해서 科學技術, 產業, 市場등에 대한 知識과 情報를 海外에서 들여오는 것은 아주 有用한 일일 것은 말할 나위 없다. 또 國內的으로 動員할 수 있는 物質的 資源, 즉 資本·施設材·原資材등이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無償援助나 借款의 形式으로 外國으로 부터 物質的 資源을 導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論理에서 특히 새로운 產業을 始作할때 外國의 技術者(知識뿐 아니라)를 招致하는 것도 아주 合理的인 것이다. 그리고 外換을 얻어 보다 많은 外國資源을 導入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生産하는 物品이나 原資材를 팔 수 있는 海外市場의 開拓이 決定的인 중

요성을 띠지 않을 것도 없다.

이와같은 目的達成을 위하여 한국은 소위 「經濟外交」를 펴오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必要한 것이 위에 말한 「安保外交」 및 「經濟外交」와 더불어 「統一外交」인 것이다.

簡略하게 要約하여 提示하면 統一外交의 課題는

- ① 南北間 緊張緩和를 통한 戰爭 可能性 減少
- ② 韓國이 主唱하는 統一政策의 妥當性 說得
- ③ 平和統一을 위한 國際的 協調의 獲得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南北緊張 緩和는 南北間의 直接的인 對話와 合意로도 어느정도 成就될 수 있지만 韓半島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國家들, 특히 美·日·中 蘇의 四大強國의 役割에 크게 도움 받을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主唱하는 統一政策(段階的 接近, 平和的 方法, 當分間 國際活動에 同時參與등)이 보다 妥當하다는 것을 海外에 說得하는 것은 거의 全的으로 外交的 課題일 것이다. 그리고 平和統一을 위해서 南北韓間의 合意와 努力뿐 아니라 國際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認定한다면 이와같은 國際的 支持의 獲得 또한 중요한 外交的 課題임은 말할 것도 없다.

以上과 같이 韓國外交目標를

- ① 安保의 強化
- ② 近代化의 促進
- ③ 統一의 促進으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같은 內容을 다룰 때 특히 留意할 것은 이와같은 目標가 한국 의 立場에서만 妥當性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國際社會의 共同目標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의 觀點에서도 妥當性을 지닌다는 點이다. 그래서

共産國家를 除外한 大多數의 國家에서 韓国外交 目標의 妥當性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詳細 4〉 한국의 外交現況과 6.23 宣言의 內容
3 - 2)

1. 한국의 外交現況

韓国外交가 한때는 固着的이고 我執的이어서 때로는 守勢에 물리기도 하고 또한 友邦國들의 立場을 거북하게 한적도 있었다. 그리고 이와같은 外交路線이 한국의 國際的 地位向上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 事實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國際的 孤立에 빠져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固着的인 外交政策으로 機動性을 어느정도 잃고 있었으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國際的 同調를 다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뿐이다.

그러다가 韓國은 1970년에 있는 朴大統領의 8.15 宣言을 하나의 轉換點으로 보다 現實的이고 國際主義的이며 柔軟性있는 對北 및 對外政策을 追求하게 되었다. 따라서 8.15 宣言에 대한 國際的 反應이 圧倒的으로 肯定的이었던 것은 當然한 일이다. 71년에 한국은 離散家族을 찾기 위하여 人道主義的인 次元에서 南北赤十字會談을 提案하여 世界輿論의 歡迎을 받았으며 1972년에 들어서서는 南北間의 懸案을 妥結하기 위한 韓國政府와 北韓當局間의 接觸과 對話를 主導함으로써 7.4 南北共同聲明을 發表케 했으며 이어서 南北調節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의 길을 터서 다시 한번 平和共存과 國際協調를 믿는 世界多數國家의 歡迎을 받았다. 73년에 있는 6.23 特別宣言은 8.15 宣言과 7.4 南北共同聲明에 담긴 平和統一 精神의 發展的 具現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이 宣言에 대한 世界輿論은 圧倒的으로 肯定的이었다.

이로써 韓国外交는 새로운 國際潮流의 交流에 들게 되었으며 韓国外交에 對한 世界諸國의 認識이 根本的으로 改善되었다. 또 한국의 合理的이고 正當한 提案을 拒否함으로써 北韓은 그들이 常套的으로 떠들던 平和攻勢가 虛偽와 欺瞞에서 나온 것임을 内外로 露呈시키는 結果를 自招하게 되었다. 이제 世界大勢는 그 어느때보다도 韓國側에 同調를 보이고 있다.

南北對話가 시작된 以後 北韓을 승인하는 國家의 수가 늘었으며 北韓과 外交 또는 交易을 연 나라가 늘어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北韓外交의 勝利나 成功이라고 評價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考慮되어야 할 點이 적어도 셋이 있다.

첫째로 世界的 潮流가 外交關係에 있어서 普遍性의 原則을 따르고 있어서 좋아하고 싫어함을 따지지 않고 될수록 모든 나라와 修交한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北韓과의 交易을 시작하거나 外交關係를 연다고 해서 北韓에 對한 國際的 同調가 높아졌다거나 北韓의 國際的地位가 높아졌다고는 보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로 南北對話가 시작되기까지 北韓은 심한 國際的 孤立狀態에 빠져 있었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世界諸國이 普遍外交의 原則을 따르게 되자 自然 北韓을 승인하는 나라의 數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北韓承認國의 急增은 그전까지 北韓을 承認하지 않은 나라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 된다.

세째로 6.23 特別宣言에서도 明白히 밝혀졌지만 韓国外交의 目的이 北韓의 國際的 孤立을 持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北韓이 「國際 孤立의 동굴」에서 벗어나 國際潮流에 깊숙히 뛰어드는 것을 勸奨하는데 있다는 事實이다. 緊張緩和, 平和共存, 國際協調라는 새로운 國

際趨勢에 접함으로써 北韓이 중전의 反國際主義와 挑戰性을 止揚하고 보다 合理的인 方向으로 政策을 轉換할 것을 한국은 바라고 있다. 그래서 6.23 宣言의 4項과 5項에서 北韓의 國際機構參與를 反對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6.23 宣言에 나타난 가장 合理的이고 正當한 韓國側의 提案에 反對하고 나옴으로써 또다시 世界潮流에 逆行하게 된 것이다. 對照적으로 한국은 그 어느때 보다는 많은 國家들로부터 同調와 支持를 받고 있는 것이다. 例를 들면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의 幅넓은 國際的인 支持를 받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서 北韓도 不遠間 無理한 固執을 버리고 6.23 精神을 受諾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予想된다. 아무튼 그때까지 韓國은 外交的으로 優位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北韓은 劣勢 또는 守勢를 免키 어려울 것이다.

2. 6.23 宣言의 趣旨와 內容

한국外交의 一般目標를 다룬 다음 朴大統領의 6.23 特別宣言의 趣旨를 說明하는 것이 有益할 것이다. 먼저 6.23 宣言에 밝힌 7個項의 政策內容을 아래에 적는다.

- 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우리 民族의 至上課業이다. 우리는 이를 成就하기 위하여 모든 努力을 계속 傾注한다.
- ②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維持되어야 하며 南北韓은 서로 內政에 干涉하지 않으며 侵略을 하지 않는다.
- ③ 우리는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立脚한 南北對話의 成果를 위하여 誠實과 忍耐로써 계속 努力한다.
- ④ 우리는 緊張緩和와 國際協調에 도움이 된다면 北韓이 우리와 같이 國際機構에 參與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 ⑤ 國製聯合의 多數 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우리는 國際聯合加入前이라도 大韓民國 代表가 參席하는 國聯總會에서는 「韓國問題」討議에 北韓側이 같이 招請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⑥ 大韓民國은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國家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이며 우리와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한다.

⑦ 大韓民國의 對外政策은 平和善隣에 그 基本을 두고 있으며 友邦들과의 既存 紐帶關係는 이를 더욱 鞏固히 해 나갈 것임을 再闡明한다.

위와같은 7個項을 담은 朴大統領의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관한 特別 宣言의 趣旨를 項別로 살펴보고자 한다.

1項에서는 平和統一을 우리 民族의 至上課業으로 못박았다. 여기서 특히 유의할 것은 武力統一이 아닌 「平和的 統一」을 강조했다는 點이다.

2項에서는 統一이 되는 날까지 南北韓間에 지켜져야 할 關係의 原則을 闡明했다. 이것을 ①平和 ②相互內政不干涉 ③相互不侵으로 要約할 수 있는 것으로 平和統一을 志向하는 立場에서 至極히 當然한 原則들이며 現今 國際趨勢와도 잘 符合되어 世界輿論의 支持를 받는 것은 事必歸正이라 하겠다.

3項에서 統一의 原則을 담은 7.4 南北共同聲明을 再確認했으며 統一을 위한 努力에서 취해야 할 姿勢로서 誠實과 忍耐를 강조했다.

統一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課題라는 點에서 誠實과 忍耐를 바탕으로 南北對話를 계속하여 착실한 成果를 쌓아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現實的이고 合理的인 態度이며 「당장 統一하자」는

北韓側의 虛偽的인 統一姿勢와 잘 對照가 된다고 하겠다. 여기서 參考로 7.4 南北共同聲明의 平和統一 三大原則을 요약하면 ①自主統一 ②平和統一 ③民族의 大團結이 된다.

6.25 特別宣言은 4項에서 緊張緩和와 國際協調라는 새 國際潮流를 支持하고 이와 같은 潮流에 副應하여 南北韓이 國際機構에 同時加入 함을 受諾하였다. 國際機構에의 南北同時 參與가 分斷의 永続化를 의미하지 않느냐는 質問이 가끔 있는데 이는 事態를 잘못 判斷하는 데서 오는 結論이다. 統一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統一이 될 때까지 南北間에 緊張을 緩和하고 戰爭可能性을 抑制하는 것이 高度의 重要性을 띤다고 할 때 南北關係의 現實化가 必要한 것이다. 즉 南北間에 相互 存在를 許容하는 것이 必要하며 이의 한 方法이 國際機構同時 參與의 相互 受諾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特別宣言에서도 強調했듯이 하나의 過渡的 또는 暫定的인 措置인 은 말할 것도 없고 統一이 되는날 韓國民族은 國際社會에 「單一」 또는 「統一參與」 해야 함은 自明한 일이다.

5項에서는 한거름 더 나가서 유엔에서까지 南北의 同時招請과 加入을 反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것도 4項에서와 같이 南北關係의 現實化를 圖謀하는 일이며 유엔에서 會員國들의 意思를 尊重하겠다는 國際協調精神의 表明인 것이다.

6項에서 理念과 體制를 越越하여 모든 國家에 門戶를 開放할 것을 闡明하는 동시에 他國들도 互惠平等의 原則에 따라 한국에 對하여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한 것도 平和共存·緊張緩和·國際協調를 志向하는 새 國際潮流에 잘 부합되는 일이며 平和愛護를 한국外交에 指針으로 삼고 있는 立場에서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7項에서는 友邦들과의 既存紐帶 關係를 維持·強化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平和共存·緊張緩和의 方向으로 흐르고 있

는 國際秩序속에서도 友邦의 중요성은 如前한 것이기 때문에 当然하고 賢明한 姿勢인 것이다.

위와 같은 7 個項의 外交政策에 담긴 基本 趣旨가 統一의 平和的 成就에 있고 또한 互惠共存의 原則을 友邦에게 뿐 아니라 모든 國家에 그리고 우리가 國家로 認定하지 않는 北韓에도 適用하는데 있어서 6.23 宣言에 대한 國際的 反應이 圧倒적으로 肯定的이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北韓은 至極히 妥當한 韓國의 提案에 反對함으로써 外交的 窮地에 빠지고 있으며 또한 國際的 孤立을 自招하고 있다는 事實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小單元 3 . 國際社會와 南北關係

教 授 目 標

< 知 識 >

- 1 . 國土分斷이 國際勢力 政治에 依한 他律的인 것이었다는 點을 證據를 들고 說明할 수 있다 .
- 2 . 祖國分斷의 國際史的 背景을 通하여 南北問題는 韓民族의 自主的 努力과 韓國의 主導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다는 點을 說明할 수 있다 .
- 3 . 祖國統一의 成就와 南北關係의 改善에 있어서 國際 協調의 重要性을 說明할 수 있다 .
- 4 . 國家發展과 祖國統一成就를 위한 韓國의 外交의 必要性을 說明하고 이의 成就를 위한 外交 政策方向을 말할 수 있다 .

< 態 度 >

- 1 .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위한 韓國의 自主的 努力에 信念을 가지고 이에 積極 參與하는 態度를 갖는다 .
- 2 . 國際環境을 能動的으로 利用함으로써 南北關係를 平和의 方向으로 改善하려는 우리 外交 努力에 協力하는 마음자세를 갖는다 .
- 3 . 國際平和와 人類共榮에의 目的에 비추어 韓國外交 目標가 妥當함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外交에 자신감과 , 國際平和에의 공헌에 대한 自負心을 갖는다 .

< 批判能力 >

- 1 . 統一成就와 國家發展을 위한 對中立國 , 對共產圈 外交의 重要性을 分析하고 이에 對한 우리外交의 方向을 말할 수 있다 .
- 2 . 國際政治 社會에 있어서 南北의 地位를 比較하고 우리外交가 優位에 있음을 實例를 들어 說明할 수 있다 .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1. 南北關係의 國際的背景</p>	<p>國際勢力政治의 所産으로서 祖国分斷과 國際問題로서의 南北關係問題</p> <p>① 祖国의 解放： 日本의 敗亡과 美国의 勝利</p> <p>② 祖国分斷： 美·蘇의 合意에 依한 38度線 成立-美·蘇의 利害關係</p> <p>③ 6.25 動亂</p> <p>㉠ 北韓에 對한 蘇聯의 軍事 支援</p> <p>㉡ 北韓에 對한 中共의 軍事 支援</p> <p>㉢ UN과 友邦의 南韓 支援</p> <p>④ 軍事分界線</p> <p>㉠ 國際勢力政治의 힘의 交叉線</p> <p>㉡ 特히 美·蘇·中·日의 利害가 얽힌 對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蘇는 北韓政權의 維持가 國利에 有利 · 美·日은 安保上으로나 經濟的으로나 韓國이 있는 것이 有利 <p>⑤ 解氷期를 맞이한 韓半島에 利害가 얽힌 強國들의 움직임： 南北의 關係를 軍事的 衝突이나 對峙에서 現狀을 固定하고 平和를 維持하는 方向으로 造成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p> <p>⑥ 南北統一은 祖国分斷 自体가 그렇듯이 國際政治의 影響下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립된 民族自体의 問題로만 把握해서는 解決하기 힘든 問題</p>	<p>国土分斷이 民族의 念願과는 關係없이 國際勢力政治에 의하여 이루어졌듯이 統一 또한 國際協調없이 우리 獨族 單獨으로만의 決定에 依하여 成就될 수 없음을 分明히 強調해야 한다.</p> <p>南北統一問題에 關聯된 強大國들의 利害와 勢力均衡의 問題를 깊이 洞察하고 이러한 洞察을 土台로 韓國의 外交가 追求될 때 國際環境을 우리에게 有利하게 이끌 수 있으며 平和의 인 方法으로 統一을 成就할 수 있음을 說明해야 한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南北統一과 國際的 協調</p>	<p>統一問題의 解決을 위한 國際協調의 必要性</p> <p>① 南北統一은 우리의 自主的 努力에 依하여 國際協調를 支援받아야 한다.</p> <p>② 우리의 統一은 強大國들間의 勢力 均衡을 安定해주는 方向에서 國際協調를 위한 外交活動이 展開되어야 한다.</p> <p>③ 統一에 對한 國際協調는 短時日內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的 統一方案대로 서서히 推進해야 한다 - 北韓의 主張대로 한꺼번에 成就하기는 어렵다.</p> <p>④ 強大國들이 勢力均衡을 維持하려는 立場때문에 眞實로는 우리 的 統一을 선뜻 願하지 않고 있다.</p> <p>⑤ 南北統一은 7.4 共同聲明대로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의 原則下에 國際協調를 얻어 이루어져야 한다.</p> <p>⑥ 國際協調는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에의 原則에 立脚하여 서서히 統一條件을 成就시키는 方向으로 展開해야 한다.</p>	<p>統一의 原則과 方法에 對하여는 8.15 宣言과 7.4 南北共同聲明을 中心으로 제시하되 이러한 우리 的 宣言들이 國際的으로 支持되고 환영되고 있으며 合理的이라는 것 을 반드시 指摘해야 한다.</p> <p> 我們的 統一原則과 方案에 의하여 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우리 外交의 方向 을 6.23 平和統一外交宣 言, 8.15 宣言內容을 中 心으로 제시한다. 8.15 宣言과 6.23 宣言에 稱 명된 우리 外交의 方向 이 國際的인 支持와 환 영을 받고 있으며, 이러 한 方向으로 우리 外交 가 結果를 맺으며 努力 해 나가고 있다는 것 을 事例를 들어 說明한다.</p>	
<p>3. 南北統一의 外交的 要請</p>	<p>南北統一을 위한 國際協調 成就를 위한 外交</p> <p>① 統一을 위한 外交目標</p> <p>① 韓國의 段階的 平和統一論이 가장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方案이라 는 것 을 國際社會에 알리는 것</p>	<p>統一을 앞당겨 成就 하기 위한 우리 外交의 方向과 目標을 分明히 하 고, 이러한 外交目標成就 를 위한 對策과 課題를 理解시키고 이러한 課題</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 北韓의 一時統一論, 聯邦制統一論, 軍縮案 등이 赤化統一을 위한 그들의 戰略戰術이며 非現實的이라는 것을 國際社會에 알릴 것</p> <p>㉡ 우리의 統一方案에 依하여 統一을 成就할 수 있도록 國際協調를 얻는 것</p> <p>㉢ 直·間接的인 接觸을 通하여 北韓이 赤化統一의 野欲을 버리고 真正한 平和統一方案과 國際潮流에 順應케 하는 것</p> <p>② 統一成就를 위한 外交強化를 위한 對策-合理化와 能率化</p> <p>㉠ 폭넓은 外交資源의 開發: 共產圈, 「아프리카」 등 地域의 外交專門家의 開發養成 等</p> <p>㉡ 外交政策決定体制의 合理化: 外交 研究機關, 外交情報의 迅速 提供</p> <p>㉢ 外交協力的 能率化: 外交豫算의 擴大와 外交人力의 補充</p> <p>③ 韓國의 外交努力에 對한 自信心과 自負心</p> <p>㉠ 過去의 外交成就: UN 外交, 中南 美外交 等</p> <p>㉡ 앞으로의 外交成就目標: 對共產圈 外交 等</p>	<p>解決을 위한 國家的, 國民的 使命을 鼓吹하는데 留意한다.</p>	<p>3-(2) <詳細1></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4. 國際平和를 위한 韓國의 役割</p> <p>1) 世界平和를 위한 韓國의 役割</p> <p>2) 人類共榮을 위한 韓國의 役割</p> <p>3) 韓國의 座標</p>	<p>平和守護思想을 基盤으로 世界平和, 亞細亞 및 韓半島平和建設을 위한 韓國의 積極的이고 主体的인 努力의 重要性</p> <p>① 韓國의 平和守護傳統</p> <p>② 祖國分斷: 排他的 國家利益追求가 支配하는 舊國際秩序의 犧牲物</p> <p>③ 平和的 祖國統一의 成就와 世界平和을 위한 韓國의 積極的이고 主体的인 努力의 重要性</p> <p>人類文化를 向上시키고 人類生活을 向上시키는데 韓國이 貢獻할 수 있다는 民族의 自負心</p> <p>① 韓民族의 創造的 優秀性</p> <p>㉠ 新羅時代의 遺物 (仏敎文化)</p> <p>㉡ 高麗의 青磁, 金屬活字</p> <p>㉢ 朝鮮의 한글창제, 性理學</p> <p>㉣ 오늘날의 發展: 世界最高度의 經濟成長, 民族藝術의 世界的 誇示</p> <p>② 民族의 優秀한 潛在能力의 發揮로 世界文化向上에 貢獻할 수 있다는 民族의 自負心</p> <p>① 自助·自立의 經濟發展</p> <p>② 自主的 國家安保體制의 確立</p> <p>③ 自主的 多角外交의 展開</p> <p>④ 自主的 統一努力의 追求</p>	<p>韓國의 平和愛護傳統은 積極的으로는 國際平和에 韓國이 貢獻하여 왔음을 意味하는 것이고 消極的으로는 國際平和를 고의로 깨뜨리지는 않았다는 意味로 解釋된다. 이러한 韓國의 平和愛護傳統에도 不拘하고 祖國分斷의 비극은 불가피하게 世界平和를 威脅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따라서 平和的인 統一의 成就를 위한 우리의 努力이 곧 世界平和를 위한 길임을 認識시키고 우리의 平和統一努力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留意한다.</p> <p>世界平和뿐만 아니라 人類文化의 發展과 向上을 위해서 우리民族이 크게 貢獻할 수 있다는 自負心을 갖도록 하는데 留意한다. 우리民族은 歷史的으로 우수한 文化 民族으로서 歷史와 傳統</p>	<p>4-21 < 詳細 2 ></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을 가지고 世界文化向上에 貢獻해 왔고, 貢獻할 수 있는 우수한 能力을 가진 民族이었음에도 不拘하고 지금까지 우리 自身이 우리 自身을 認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指摘해야 한다.</p> <p>자주성에 입각한 우리의 座標와 努力의 方向을 提示한다.</p>	

詳 細

< 詳細 1 > 南北統一을 위한 外交的 必要性

3-②

韓國이 主導하여 南北對話를 始作함으로써 北韓은 國際的 孤立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條件을 마련하였다. 또 6.23 特別宣言으로 韓國은 北韓이 國際的 孤立에서 벗어나 國際社會에 보다 活潑히 參與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뜻을 公式적으로 밝힘으로써 北韓이 國際舞臺에 進出할 수 있는 길은 더욱 열렸다.

따라서 韓國外交는 그 어느때 보다도 北韓으로부터의 挑戰을 더 받게 된 것이다. 北韓과 修交하는 國家의 數가 늘 것이며 보다 많은 國際機構와 會合에 北韓이 參與하게 되어 韓國은 北韓과 國際舞臺에서 맞서는 機會가 늘어 날 것이다. IPU (國際議員聯盟) 과 WHO (世界保健機構) 에는 이미 北韓이 加入되었으며 「유엔」 에도 73年 가을부터 「옵서버」 資格의 北韓代表團이 事務室을 열게 된다.

北韓은 아직도 眞正한 平和統一에 뜻이 없고 南韓의 共產化를 통한 赤化統一에 뜻이 있기 때문에 韓國은 外交를 통하여

첫째, 韓國側이 主張하는 段階的 平和統一이 가장 適當하고 現實的인 統一方案이란 點을 國際社會에 알리고,

둘째로, 北韓의 一時統一論, 聯邦制統一論, 또 軍縮案등이 宣言을 위한 偽裝이며 眞意는 赤化統一에 있다는 事實을 國際社會에 알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南北의 直接的인 接觸을 통해서나 間接的인 方法으로 時代錯誤的인 赤化統一野慾을 버리고 眞正한 平和統一을 政策으로 받아드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을 北韓으로 하여금 確實히 認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國際社會로 하여금 北韓이 合理的인 統一의 길

을 따르도록 說得 즉 韓國은 外交를 通하여 說得活動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前項에서 略述한 內容의 國際協調를 確保하는 것이 韓國 外交의 重大課題임은 말할 것도 없다.

韓國이 이와같은 統一外交의 要請을 充足할 수 있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條件이 많다.

먼저 外交資源의 幅넓은 開發이 要望된다. 韓國이 여태까지 密接한 外交를 펴오지 않은 地域과 國家를 「커버」할 수 있는 充分한 專門家의 養成이 時急하다. 특히 對共產圈門戶開放政策을 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소련을 비롯한 東歐共產諸國에 대한 專門家不足을 短期·長期計劃으로 確保해야 할 것이다. 外交資源이라고 할 때 이는 實務를 말할 外交官만 아니라 外交政策을 研究開發할 수 있는 專門家도 包含되는 것이다. 外交研究專門家들이 있어야 急變하는 國際情勢를 機敏하게 分析하여 長期, 短期政策을 概括的인 次元에서 또는 特定國家나 地域相對로 開發해 내게 될 것이며 이와같은 研究를 밑바탕으로 한 外交活動이라야 合理性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外交政策決定体制의 合理化가 要望된다. 보다 幅넓은 參與로 多樣한 意見이 檢討된 다음에 最終政策이 採択되어야 하며 이미 採択된 政策도 꾸준히 批判 評價받아서 보다 合理的인 政策으로 修正되는 政策決定体制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政府傘下의 外交研究機關뿐 아니라 私設外交研究團體에도 外交問題에 대한 豊富하고 迅速한 情報供給이 있어야 하며 活潑히 官民의 研究活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外交努力의 能率化가 要望되는데 이를 爲해 무엇보다 重要한 先決要件은 外交豫算의 擴大와 外交人力의 補充이라고 하겠다.

國家豫算이란 所要額이 많지만 오늘날 韓國과 같이 外交의 比重이

큰 때가 없는만치 어떤 非常的인 措置를 취해서라도 보다 有能한 人材들이 보다 많이 外交分野에 投入되어서 보다 넉넉한 豫算을 뒷받침으로 活動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같은 內容을 다룸에 있어서는 여기에 提示된 方案이 絶對적으로 採択되어야 한다는 態度를 取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代身 南北統一의 外交的 要請을 充足하기 위해서는 韓國 外交를 보다 더 合理化하고 能率化하는 것이 要望되며 그런 合理化와 能率化의 方案을 위해 진술한 것과 같은 方向에서 摸索할 수도 있다는 式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強調되어야 할 것은 韓國의 体制의 適應能力에 있어서 그때 그때의 政策的 要請에 따라 必要한 体制의 改善과 政策方向의 調整을 過去에도 해 왔으며 未來에도 할 것이라는 点이다.

그래서 韓國体制의 變化에 대한 適應能力에 自信을 가지게 하여 너무 심한 危機意識이나 悲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조심성있는 樂觀이며 積極적인 問題接近姿勢이다. 이와같은 姿勢가 있을 때 解決 못할 問題가 없으며 우리의 앞날은 国内的으로 國際적으로 밝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詳細 2 > 人類共榮을 위한 韓國의 役割 4 - 2)

韓民族이 人類文化를 向上시키고 人類生活을 豊富케 만드는데 크게 貢獻할 수 있다는 自信感을 가지는 것이 결코 妄想이 아니라. 는 것은 우리民族의 歷史的 成就를 吟味해보면 쉽게 納得이 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民族이 歴史的으로 이룩한 빛나는 業績을 일일이 다
들 수는 없으며 다만 記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몇개의 代
表的인 成就만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新羅時代의 仏敎敎理의 發展, 芸術文化의 아름다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계속 出土되는 그때의 遺物만 봐도 우리民族
이 이미 10數世紀以前부터 남을 능가하는 文化를 創造했었다는 사
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高麗時代에도 靑磁의 開發과 金屬活字의 發明이 있었다. 高麗靑磁
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금도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과 또 1234년에 있는 金屬活字의 發明은 獨逸의 「구텐벨그」보다
200餘年을 앞서고 있었던 사실을 想起해야 할 것이다.

李朝에 와서 한글의 發明, 李朝에 依한 性理學의 發展, 李舜臣將軍
에 의한 거북선의 發明등은 모두 世界的으로 자랑할만한 業績인 것
이다.

이외에도 우리의 歷史에서 자랑할만한 業績은 여러가지 찾을 수
있을줄 안다.

勿論 우리 歷史에 부끄러운 瞬間들이나 記錄이 있지만 그렇다고
否定的인 民族史觀을 가져야할 程度는 아니다. 韓國史를 보는데 무
엇보다도 중요한 觀點은 우리民族의 成就潛在力이 아주 크다는 사실
이 나타난다는 点이다.

韓國民族의 成就潛在力은 오늘의 韓國人을 보아도 알 수 있다.
現代學問的인 觀點에서 볼 때 그 基盤이 아주 弱하기 짝이 없었던
解放直後가 이제 不過 1世代以內의 일인데 지금은 거의 모든 學問
分野에서 韓國은 國際水準에 올라선 것이다.

이것은 國際的 學術會議에 가보면 뚜렷이 나타나는 現象이다.
芸術分野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音樂分野에서 鄭京和, 韓東一, 金永旭 등 世界的으로 認定받는 演奏家가 나왔으며 尹伊桑 등 國際的인 作曲家가 나온 것이다.

美国이나 西歐諸国에 가서 外國留學生들의 成就를 比較해 볼때 韓國 留學生들이 全般的으로 가장 優秀하다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다.

弱한 經濟的 基盤에서 오늘날 韓國과 같이 高速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해가는 나라가 드물다. 또 政府의 科學技術 振興政策에 힘입어 이 分野에서는 멀지 않아 先進隊列에 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즉 이것은 우리 民族의 優秀性을 보여 주는 일들이며 發展의 潛在力이 比較的 크다는 것을 立証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必要한 것은 「우리도 남을 따라갈 수 있다」는 消極的 自信을 벗어나 「우리가 남보다 앞설 수 있다」는 積極的인 民族의 自信感이다.

이와같은 自信感이 생길 때 커다란 創造力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文化, 藝術, 科學, 技術, 學問, 社會, 政治, 經濟 등 諸分野에서 人類發展과 繁榮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成就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強調할 것은 첫째, 우리 民族이 優秀하다는 點 둘째, 따라서 偉大한 民族이 될 수 있다는 自信感을 가져야 한다는 點 셋째, 우리 民族의 優秀性에 自信感이 添加될 때 거기서 民族의 創造力이 솟아 오르며 人類의 發展과 번영에 뛰어나게 이바지할 수 있는 成就가 可能하다는 點이다.

單元 VI

国家發展의 未来像과 国民의 使命

小單元

1. 国家發展의 要請
2. 国家의 当面課題
3. 国民의 使命

單 元 目 標

1. 國家發展에 대한 基本方向을 提示하여 韓國의 發展의 未來像에 대한 矜持를 갖게 한다.
2. 國家發展의 基本要件을 理解시키고 그 要件 成就를 위한 國民的, 國家的 努力의 重要性을 認識케 한다.
3.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위한 國家的課題를 理解하고 이를 成就하기 위한 國家的 努力에 積極 參與하는 國民的 態度를 기른다.
4. 統一後의 榮光된 祖國의 未來像에 대한 理想을 가지고 그 理想 實現을 위한 새 歷史創造者로서의 使命感을 鼓吹시킨다.

内 容 概 要

小 单 元	主 题	内 容 要 素
1. 国家发展的 要 请	1) 国家发展的 基本方向 2) 国家发展的 要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正統性的 繼承과 發展, 民主理念의 具現, 福祉社会의 實現 • 發展意志, 勤勞精神, 公益精神, 淸富思想, 安保確立, 社会秩序確立
2. 国家发展的 当面 課題	1) 韓 国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制度的 基盤 造成 2) 民族主体意識과 国家一体感 3) 統一基盤造成 4) 国力培養과 国家安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主体性에 의한 民主体制 確立, 国力의 組織化, 國際情勢에 能動的 対応 • 政治思想 教育의 重要性, 国民總和, 民族主体意識과 国家一体感形成 • 韓 国의 正統性確立, 国力培養, 總力安保 • 南北 經濟力量比較, 国力培養, 南北軍事力比較, 安保能力 強化
3. 国民의 使命	1) 祖国의 發展的 未来像 2) 統一後의 榮光된 国家 未来像 3) 民族中興의 使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 国 民主主義 정립과 發展, 平和的 民主統一基盤 確立, 經濟的 繁榮과 安定, 福祉社会의 實現 • 文化民族, 平和国家, 國際的 地位向上 團合된 民族 • 国家 發展에의 積極的 参与, 最善我 實現을 위한 自發的 努力, 民族正統性的 繼承과 새 歷史創造

小單元 1. 國家發展의 要請

教 授 目 標

< 知 識 >

1.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을 指摘하고 說明할 수 있다.
2. 國家發展의 基本 要件을 指摘하고 說明할 수 있다.

< 態 度 >

1.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을 理解하여 國家가 志向하는 發展의 未來像에 대한 矜持를 갖는다.
2. 國家發展을 위한 基本要件을 理解함으로써 이의 成就를 위한 國家的, 國民的 努力에 建設적으로 參與하는 態度를 갖는다.

< 批判能力 >

1. 國家發展과 平和統一의 成就에 沮害 要因을 分析하고 이를 改善하기 위한 方向을 말할 수 있다.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1. 國家發展의 基本方向</p> <p>1) 民族傳統의 繼承과 새 歷史 創造</p>	<p>① 우리의 民族傳統</p> <p>㉠ 平和守護의 傳統 — 北韓은 革命鬭爭의 傳統 樹立을 強調</p> <p>㉡ 人間性尊重의 思想傳統 (弘益人間思想, 民本思想, 人乃天思想) — 北韓은 人間을 革命의 手段視함.</p> <p>㉢ 民本的 政治傳統 (和白制, 신문고, 上疏文制, 暗行御使制等) — 北韓은 權力의 集中化, 個人獨裁化</p> <p>㉣ 獨創의 藝術文化傳統 (신라문화, 고려청자, 인쇄술, 한글창제, 측우기, 거북선) — 北韓은 藝術文化를 Marx-Lenin 思想 實現을 爲한 政治 手段化</p> <p>㉤ 民族自主性의 傳統 (거족적 國난 극복, 실학사상, 斥邪思想) — 北韓은 소련과 中共의 예속화 追從</p> <p>② 우리 民族傳統은 民主主義를 受容할 수 있는 基本要件을 갖추고 있었으며 우리 繼統的 努力으로 民主主義를 더욱 發展하게 하는 歷史的 使命을 지니고 있다.</p> <p>③ 北韓은 歷史의 斷切 내지 破壤을 획책하고 있다.</p>	<p>本 單元의 1)에서는 大單元 I에서 取扱한 內容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文化傳統의 長短點을 지적, 우리 的 좋은 文化 傳統을 創造的으로 繼承 發展시키는 것이 우리 民族의 歷史的 使命임을 強調한다. 그리고 한편 우리는 우리 的 民族文化 傳統을 繼承 發展시키려 하고 있음에 반하여 北韓政權은 우리 的 傳統을 發喪시키려 하고 있다는 點도 指摘하는 것이 좋 다.</p> <p>結論的으로 指摘해 들 것은 우리가 한동 안 가졌던 民族文化 傳統에 對한 否定的 態度와 소극적 民族矜持에 對해서 반성하고 잘못</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民主主義 基本理念의 具現</p>	<p>① 民主主義 基本理念: 人間의 尊嚴性 과 最善我實現</p> <p>② 基本理念의 實現過程과 方法은 社 會文化的 背景, 經濟的條件, 教育水準 等에 따라 多樣할 수 있다.</p> <p>③ 民主理念 具現의 阻害要因의 除去 와 더불어 주어진 條件에 알맞도록 民主主義를 適應시키면서 發展시켜야 마찰없이 理念을 實現할 수 있다.</p> <p>④ 10月維新은 民主理念 具現의 阻害 要因을 能率의 으로 除去하고 國의 與件에 알맞게 民主體制를 適應시키 으로써 效率의 으로 民主主義를 具現 하기 爲한 것이다.</p>	<p>된 歷史傳統을 가려 극복하고 좋았던 文化 傳統은 繼承 發展시키 는 創造的인 姿勢를 갖는 것이 더욱 바람 직 하다는 點이다.</p> <p>우리의 國是로 되어 있 는 民主主義 基本理念을 具現하는 일은 國家發展 의 基本的인 課題임을 認識케 함에 強調될 두 되 民主主義의 基本理念 에 關한 詳細한 內容은 大單元Ⅱ의 것을 參考하 도록 하고 그 요지만을 상기시키면서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爲한 效果的 인 體制 構築을 爲해 단행한 10月維新의 基本 趣旨는 充分히 說明되어 야 한다.</p>	<p>1-2)-(4) <詳細1> 阻害要素에 對한 補充說 明</p>
<p>3) 自由, 平等, 正義, 福祉의 實現</p>	<p>① 建設的인 自由의 實現</p> <p>② 平等社會의 實現</p> <p>③ 社會的 正義의 實現</p> <p>④ 福祉의 實現</p>	<p>여기에 提示된 發展目標 들의 概念에 對해서는 大單元Ⅱ에서 說明되고 있어 이를 인용하면 된 다. 이들 發展目標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具現하기 爲한 基本條件 이며 이들 條件이 어느 程度 갖추어지느냐에 따라</p>	

주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点	資 料
<p>4) 国力培養과 國際的地位 向上</p> <p>2. 國家發展의 要件</p>	<p>① 經濟力の 伸長 ② 科學技術의 向上 ③ 總力安保證勢確立 ④ 政治指導體制의 能率化 ⑤ 國家一體感의 形成 ⑥ 教育의 向上</p> <p>① 發展意志 ㉠ 發展에 對한 慾望 ㉡ 發展成就 努力에 對한 自信 ㉢ 必要한 努力에 對한 각오</p> <p>② 勤勞精神 ③ 道德的 社會規範의 確立 ④ 淸富思想 ⑤ 公益精神의 昂揚</p>	<p>理念具現이 可能해진다. 따라서 發展目標로서 基 本條件을 成熟케 하려는 것은 當然한 것으로 說 明되며 그 意味의 重要 性을 充分히 補充說明하 여야 할 것이다.</p>	<p>1-31-(1)(2)(3)(4) <詳細 2 > 補充說明</p> <p>1-41-1', (6) <詳細 3 > 補充說明</p> <p>2-①, ⑤ <詳細 4 > 補充說明</p>

詳 細

<詳細 1> 民主主義 理念 具現을 위한 沮害要素
1-2) - ④

- ① 貧困과 無知
- ② 社会的 紊亂과 不安
- ③ 形式에 치중한 政治 풍토
- ④ 國際 環境的 不安
- ⑤ 北韓의 南侵우려와 南韓에 대한 위협

이러한 沮害要件들을 除去하고 人間이 人間다운 生活을 영위할 수 있고 (人間的 尊嚴性), 人間 각자가 갖는 潛在的 可能性을 가장 창조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最善我的 實現), 個人과 國家가 効率的으로 進歩發展할 수 있는 民主社會를 이 땅에 하루속히 實現시키자는 것이 10月 維新의 基本 目的이었다.

<詳細 2> 自由, 平等, 正義, 福祉의 實現
1-3) - ①, ②, ③, ④

韓國社會가 追求해야 할 目標價值로서 民主主義의 理念 具現外에 自由, 平等, 正義, 福祉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目標價値의 實現은 곧 人間의 尊嚴性을 最大化하는 길이며 理念具現을 위한 基本條件을 구축하는 길이다. 여기서 共產主義가 本質的으로 이런 價値와 相衝한다는 事實을 大單元Ⅲ 「共產主義論과 實際」에서 다른 內容을 想起시키면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

1. 自 由

共產主義者들도 自由를 떠드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大單元

Ⅲ에서 이미指摘했듯이 그들의 자유란 바로 「共産党的 独裁를 받아드리는 자유」, 「拘束을 받아드리는 자유」, 「自己個性을 기꺼이 抹殺당하는 자유」로 자유의 本来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한국이 追求하는 자유는 人間의 尊嚴性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人間의 尊嚴性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社会와 國家에 害를 끼치지 않는 範圍内에서 個人이 自己人生을 自己가 希望하는 形式과 方法으로 營為하는 것이 자유의 본뜻이라면 그런 자유없이는 人間의 尊嚴性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人間의 本質은 자유이며 자유를 根幹으로 하는 民主主義야 말로 人間의 本質에 가장 合致되는 政治理念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유에는 責任이 따라야 하며 責任없는 자유는 곧 자유 그 自体를 無意味化한다는 점이다.

자유는 또한 自身에 대한 責任을 隨伴한다. 즉 個人이 当面하는 問題에 대해서 自主적으로 決定하고 自主적으로 對処해야 된다는 責任이다. 따라서 자유는 하나의 祝福인 동시에 무거운 負擔이 되기도 한다. Erich Fromm이 말하는 『自由로 부터의 逃避』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一部 心弱者間에 일어나는 現象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 부담은 우리 삶의 意味를 부여해주는 보람있는 부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人類의 歷史가 자유를 위한 鬪爭이었고 또 자유를 向한 前進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은 人類歷史의 創造的 原動力이 되어온 자유를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으로 삼아 우리 歷史를 보다 높은 次元으로 이끌고 가려는 努力을 傾注하고 있으며 萬人의 자유를 위한 基盤을 구축하고, 現在의 모든 努力은 그것을 目標로 삼고 있는 것이다.

2. 平 等

自由와 平等은 人間尊嚴性을 위해서 必要不可欠한 要件이 되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도 平等을 떠들고 있다. 그러나 事實上 「질라스」가 말하듯이 共產社會는 「階級없는 社會」가 되기는 커녕 「새階級」이 支配하는 社會가 되고 만 것이다. 小數의 支配階級이 있고 多數의 被支配階級이 있어서 大多數 國民들을 두고 볼 때는 「自由없는 平等」 즉 「노예로서의 平等」밖에 없는 것이다. 社會 全般的으로 볼 때는 多數위에 小數의 支配階級이 있기 때문에 共產社會를 平等 社會라고 하는 것은 오직 平等의 뜻을 왜곡한 다음에야 可能的한 말이다.

韓國이 追求하는 平等은 無條件的 平等이 아니며 다만 모든 사람은 法앞에서 平等하며 같은 業績을 낳았을 때 平等的한 報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地位의 高下나 貧富의 差異, 男女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모든 個人이 한 平等的한 人間으로서의 待遇를 받아야 하는 것을 意味한다.

이와 같은 平等이 韓國이 하나의 國家로서 追求하는 目標價值인 것이며 韓國은 國家發展을 이런 合理的 平等의 方向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志向해야 할 平等은 物質的인 의미에서의 無條件的 平等이 아니고 人間の 尊嚴性에 있어서의 平等인 것이다. 平等을 이와 같이 規定할 때 모든 個人이 最善我 實現의 意慾을 가질 것이며 社會와 國家發展을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기울일 意慾을 얻을 것이다.

3. 正 義

여기서 말하는 正義란 社會的 意味의 正義 즉 社會正義를

意味한다.

이것은 仏敎에서 말하는 因果應報의 원 칙과도 相通한다.

쉽게 말해서 善한 일을 하면 그에 適當한 果報가 있고 惡한 일을 하면 그에 適當한 果報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不正이 횡행하면 이와 같은 正義로운 果報가 깨어지며 惡한 일을 한 사람이 善한 일을 한 사람보다, 努力하지 않는 사람이 努力한 사람보다, 不正直한 사람이 正直한 사람보다, 能力없는 사람이 能力있는 사람보다, 파괴적인 사람이 建設的인 사람보다 더 좋은 報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社會의 不條理라고 할 때 다른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 社會正義의 失敗를 意味하는 것이다.

選舉不正, 情實人事, 公共事業의 不實, 뇌물의 수수, 사기, 入學不正 등 우리는 善한 正義失敗의 證據를 우리 周邊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不正은 우리 社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社會에서나 있는 普遍的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不正이 횡행하는 限 誠實하고 建設的인 努力으로 잘 되겠다는 생각을 弱化시키기 때문에 不正이야 말로 社會와 國家發展을 阻害하는 一大癌이 되는 것이다. 그런 故로 不正을 除去하고 正義로운 社會를 이룩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國家發展의 課題인 것이다.

社會正義가 이루어질 때 國民은 非生産的이고 反社會, 反國家的인 일에 머리를 쓰지 않고 生産的이고 建設的인 일에 에너지를 傾注하게 될 것이다.

被教育者들에게 社會正義實現의 重要성을 위와 같은 論理로 說得

시키고 이땅에 그런 正義로운 社會를 實現하기 위하여 國家는 努力하고 있고 또 이 努力은 반드시 成功하고 말 것이란 確信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4. 福 祉

아무리 自由競争을 社會生活의 原則으로 한다 해도 個人의 最少限의 福祉를 保障하는 것은 社會와 國家의 責任이다.

人間은 不完全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없이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社會的, 經濟的 窮地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資本主義體制를 根幹으로 하고 있는 美國도 近來에 와서 社會福祉面에 많은 資源配當을 하고 있다. 英國이나 스칸디나비아諸國들이 福祉面에서 美國보다 훨씬 앞서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人間の 尊嚴性이란 立場에서 볼 때 모든 사람에게 보람있는 生活을 영위할 수 있는 最低機會의 保障이 要求된다. 그래서 國家資源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無料教育을 國家에서 實施해야 하는 것이며 保健을 負擔해야 하는 것이다. 또 病이나 事故 또는 기타 原因으로 失職했을 때도 적절한 生活保障을 맡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老後에 經濟的 自担能力이 없을 때도 最低限의 生活을 保障하여 人間の 尊嚴性이 존중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韓國이 오늘날 이와 같은 福祉에 있어서 充分치 못한 것은 事實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國家資源의 制約때문에 오는 것으로 앞으로 國家資源의 增大에 따라 모든 國民에게 無知, 疾病, 失業, 老쇠에 대해서 社會保障을 增大함으로써 明朗한 福祉國家를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詳細 3> 国力培養과 國際的地位向上

1-4) - ①, ⑥

국력의 要素는 여러 가지이다. 政治的 統合, 指導力, 經濟力, 科學技術, 自然資源, 軍事力, 國民의 國家觀과 精神態勢 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平常의인 時局에도 国力培養의 必要性은 恒常 크다. 더욱이 韓國과 같이 여러 面에서 重大한 挑戰을 받고 있는 國家로서는 国力培養이 더욱 時急하고 중요한 課題가 되는 것이다. 国力培養의 길만이 共產主義의 挑戰을 克服하고 祖國統一을 우리가 願하는 方向으로 主導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国力培養이 소홀히 될 때 共產主義의 挑戰에 被動的으로 이끌리게 되고 自主平和統一의 機會를 놓칠 可能性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非常한 覺悟로 国力培養에 힘기울일 때이다. 科學技術의 向上, 經濟生産性的의 增大, 總力安보態勢의 強化, 政治指導體制의 能率化, 國家一體感의 增大 등은 国力培養의 立場에서 모두 時急한 國家的 課題인 것이다.

이와 같이 国力培養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國內的으로 安定을 期할 수 있고 國際的으로는 自主自立性이 強化되어 남의 나라의 壓迫을 피하게 되고 나아가서 그들의 우러러봄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国力이 強化되어야 國家安보가 보다 튼튼한 토대위에 서게 되며 오직 安보문제가 解決되어야 國家가 生存하게 되고 또 우리가 志向하는 發展의 機會를 確保할 수 있다는 점을 強調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詳細 4> 國家發展의 要件

2 - ①, ⑤

1. 發展意志

여기서 發展意志라고 함은 하나의 개으른 空想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指摘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發展意志는 적어도 다음의 세 要素를 갖추어야 한다.

- ① 發展에 대한 慾望
- ② 發展成就의 自信
- ③ 必要한 努力에 대한 覺悟

近來에 와서 韓國社會에 이와 같은 發展意志가 널리 퍼지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強調해야 할 것은 보다 더한 發展意志가 있어야 個人 및 國家가 指向하는 方向의 發展이 可能하며 눈부신 새 歷史의 창조가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2. 勤勞精神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게 된다」는 西洋俗談이 있듯이 能力과 資源이 같은 경우 부지런한, 個人과 民族이 보다 큰 成就를 얻는 것은 至極히 당연하다. 또 能力이나 資源이 모자라더라도 남달리 부지런하면 能力과 資源의 制約을 어느 정도 克服할 수 있다는 것은 토끼와 거북의 偶話에서 잘 나타난다.

지금 우리나라는 貧弱한 資源(物的, 人的, 技術的, 文化的인 諸面에서)을 가지고 남이 100年 걸쳐 成就한 近代化를 10年에 成就해야 하는 立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勤勞精神이 要望된다. 모든 國民이 맡은 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덟時間 일할 때 열時間 일을 하고, 열時間 일할 때 열두時間 일하는 姿勢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道德的 社会規範의 確立

社会規範의 倫理化는 正義와 他人尊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첫째, 不正이 除去되고 正義로운 社会生活이 이룩되어야 하며 둘째로, 모두가 남의 意思와 福利를 尊重하는 社会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남의 利益, 便宜, 기분을 고려치 않고 자기의 욕망을 充足하려고 해서는 國家發展이 있을 수 없고 새 歷史의 創造가 있을 수 없다. 다만 國家 쇠망과 歷史의 退步만이 있을 뿐이다.

道德的 社会規範의 確立은 큰데서 찾을 수도 있지만 작은 일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親切, 차례 지키기, 버스안에서 담배 피우지 않는 일, 길에서 칫빨지 않는 일, 公共場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는 일 등이 비록 하찮은 일 같지만 道德的 社会規範의 確立을 위해서 必要하고 중요한 始發인 것이다.

4. 淸富思想

過去에 淸貧이 우리 文化에서 높임을 받았다. 그러나 淸貧의 그 글자중에 強調되어야 할 것은 貧이 아니라 淸이라는 것을 理解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것이 美德이 아니고 生活이 淸廉한 것이 美德인 것이다. 거꾸로 돌려 말하면 致富하는 그 自体가 나쁜 것이 아니라 不正한 方法으로 致富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가난한 것보다 富裕한 것이 낫다면 - 특히 經濟成長을 통하여 国力을 早速히 培養해야 하는 이 마당에서는 - 오늘날 우리 社会가 勸奨할 것은 「淸貧」이 아니라 「淸富」일 것이다. 즉 깨끗하고 가난하게 남는 것보다 깨끗한 方法으로 致富하도록 모든 國民을 勸奨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淸貧思想이 過去 우리나라의 發展을 阻害한 重要 要因이 되어 왔는지 모른다. 淸貧思想은 發展意志를 抑制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淸貧思想을 우리 文化傳統에 있어서 하나의 脆弱點으로 보고 이를 淸富思想으로 代置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淸富가 淸貧보다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淸貧은 積極的인 行動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淸富는 行動의 積極性을 先行條件으로 한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특히 不正한 方法을 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부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正當한 方法으로 富者가 되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란 것을 강조하고 淸富思想만이 國家經濟 建設의 길이라는 것을 목박아야 할 것이다.

5. 公益精神

公益精神이란 공을 위해 私를 완전히 희생하라는 뜻은 아니다. 正當한 私益은 公益을 전제로 하며 私益과 公益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社會에서 個人이 갖는 相互依存性을 忘却하고 편협한 個人利益을 追求하는 行爲는 短期的으로는 目的達成이 可能할지 모르나 긴 眼目에서 볼 때 公益만 害치는 行爲가 되는 것이 아니라 私益까지 害치는 行爲가 되는 것이다.

損益計算을 떠나서 倫理的인 次元에서 생각해 볼 때 個人의 成就는 - 그것이 富든, 學識이든, 權力이든, 名譽든, 또는 社會的 地位이든 - 社會없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自身의 成就를 可能케 한 社會의 公益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非倫理的인 姿勢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여기서 分明히 指摘해 두어야 할 것은 私益의 追求 그 自体가

나쁘지는 않다는 点이다. 너무 편협한 方法으로, 또는 公益에 相
衝되는 方法으로 私益을 追求하는 것이 나쁘다는 点이다. 個人의
最善我實現은 적극 장려해야 할 일이다. 다만 最善我實現을 社会
와 国家發展과 調和시켜서 追求해야 된다는 점을 留意시켜야 할
것이다.

小單元 2 . 國家의 當面課題

教授 目標

<知 識>

1.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爲한 體制改革의 意義와 課題를 說明할 수 있다.
2.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의 精神的 바탕으로서 民族主體意識과 國家一體感 形成의 重要性을 指摘할 수 있다.
3. 統一基盤과 國家發展의 基盤을 造成하기 爲한 課題를 指摘할 수 있다.
4. 国力培養과 國家安保의 重要性과 課題를 說明할 수 있다.

<態 度>

1. 體制改革의 重要性과 課題를 理解하고 課題成就是 爲한 國家的 努力을 支持한다.
2. 統一基盤 達成을 爲한 國家的 努力을 信賴와 忍耐를 가지고 協助하는 態度를 갖는다.
3. 国力培養과 國家安保態勢確立을 爲한 國家의 努力에 協力한다.

<批判能力>

1. 國際政治의 潮流를 分析하고 이에 따른 國家發展의 課題를 指摘할 수 있다.
2. 國內的 社會問題를 分析하고 이를 改善하기 爲한 우리 의 努力 方向을 말할 수 있다.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点	資 料
	<p>㉞ 韓民主主義를 定立하고 發展시킨다.</p> <p>㉟ 国土와 資源의 綜合的 開發과 自助的 地域社会開發로 祖国近代化와 福祉均霑社会를 이룩한다.</p> <p>㊱ 社会的 모든 不条理, 非能率, 非生産性, 無秩序를 克服하는 社会革新을 이룩한다.</p> <p>② 主要課題</p> <p>㉠ 国權守護와 民族活路의 開拓을 위한 總力安保와 總和体制의 確立</p> <p>㉡ 韓民主主義의 定立과 發展을 위한 課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民族의 主体의 創造의 課題 • 韓民族의 歷史的 自立을 위한 過程 • 民族的 主体의 實踐理想 <p>㉢ 平和統一을 위한 課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對話의 積極的 推進 • 南北對話의 主導的 推進을 위한 民族主体努力의 確立과 国力培養 <p>㉣ 繁榮과 福祉를 위한 經濟發展의 促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国土와 資源의 綜合的 開發 • 自助的 地域社会開發: 새마을운동의 促進 • 重化学工業의 育成 • 輸出伸張과 國際協力 強化 • 都·農間의 격차 해소 		<p>1-21-(1) <詳細2> 補充說明</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民族主体意識 과 國家一體感</p> <p>1) 政治思想教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生活環境과 生活態도의 改善 • 經濟秩序와 經濟倫理的 刷新 ㉑ 福祉均霑의 社會保障制 補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會間接資本의 補充 • 國民生活水準 向上 ㉒ 不条理없는 信義의 社會秩序 確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意識과 國家觀의 確立으로 國家一體感의 形成 • 遵法精神과 維新的 生活態도의 涵養 • 勤勉, 自助, 協同으로 自己發展과 社會發展의 調和的 促求 ㉓ 民族文化의 暢達과 教育의 刷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思想의 定立과 民族主体思想의 確立 • 固有 民族文化의 계승과 外來文化의 主体的 受容 • 創造的 文化藝術의 暢達 • 韓民族 文化의 優秀性 認識 • 義務教育의 延長과 學制 및 教育內容의 改革 <p>㉔ 國民總和의 形成을 위한 教育</p> <p>㉕ 民族主体意識의 確立을 통한 民族國家觀의 教育</p> <p>㉖ 民族力量의 集結</p> <p>㉗ 國力의 組織化</p> <p>㉘ 平和的 祖國統一의 促進을 위한 民族同質性의 恢復</p>	<p>急變하는 國際情勢에 能動的이고 主体的으로 대처하고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促進하기 위하여 取해진 維新的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가장</p>	<p>1-21-(2) <詳細 3 > 補充說明</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2) 民族主体意識과 國家一體感의 形成</p>	<p>㉠ 民族主体勢力 形成을 위한 精神的 底辺 構築</p> <p>㉡ 民主主義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強化</p> <p>㉢ 民主主義가 現存하는 모든 理念과 體制중 가장 最善의 것임을 理念, 理念具現을 위한 現實的 制度, 그 運營에 있어서 再確認의 必要</p> <p>㉣ 韓國의 民族的 正統성과 韓國民主主義에 대한 信念</p> <p>㉤ 韓國의 發展的 努力에 대한 궁지</p> <p>① 民族的 結合力 民族的 同質意識에 바탕을 둔 民族的 結合력이 어느 民族보다 일찍이 統一國家를 形成할 수 있었던 要素였음을 再確認</p> <p>② 民族主体性에 바탕을 둔 韓國正統性의 確立 ㉠ 主体性: 民族의 文化史的 概念 ㉡ 正統性: 民族의 國家的 概念 國家正統性의 確立은 民族主体性確立의 先行을 要求한다. 또한 祖國統一의 成就와 韓國民主主義 發展은 民族主体性에 바탕을 둔 韓國正統性의 基盤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強調할 必要가 있다.</p> <p>③ 孥族의 國難克服 수 많은 外侵과 온갖 難關에도</p>	<p>重要한 教育的 課題로 民族主体意識과 國家一體感을 토대로 하는 國民 總화의 形成에 있음을 강조한다.</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3. 統一基盤造成 과 統一成就 努力</p> <p>1) 祖國統一의 基本原則</p>	<p>이거낸 民族의 力量과 主体意識 立 國精神의 優秀性에 대한 긍지와 이 의 계승발진을 위한 意志의 약속이 強調되어야 한다.</p> <p>(4) 國家一體成의 形成</p> <p>① 民族主体意識에 基盤을 둔 民族 的 國家觀 確立</p> <p>② 國家榮光觀 내지 國家에 대한 自負心의 形成</p> <p>(5) 國民總和</p> <p>國民의 總和는 國家安定과 繁榮을 위한 精神的 基盤이며 外勢와 難関 을 克服할 수 있는 團結의 基盤이 며, 國力의 基盤이며, 祖國統一의 基 盤이다.</p> <p>① 民族主体意識에 의한 總和</p> <p>② 思想的 總和: 民主主義 理念에 바탕을 둔 思想的 總和</p> <p>③ 共同目標 指向으로서의 總和</p> <p>④ 統一意識에 의한 總和</p> <p>⑤ 國家榮光觀에 의한 總和</p> <p>① 民主·勝共統一</p> <p>② 民族主体에 의한 統一</p> <p>③ 平和의 方法에 의한 統一</p> <p>④ 韓國의 正統性과 合法性에 의한 統一</p>		

주 제	교 수 내 용	方 法 및 留 意 点	資 料
<p>2) 統一의 基 盤造成</p> <p>3) 国力培養과 國家安保</p>	<p>① 民族主体意識과 國家一體感 形成</p> <p>② 韓國의 正統性 確立</p> <p>③ 国力培養</p> <p> ㉠ 民主力量</p> <p> ㉡ 經濟成長의 促進</p> <p> ㉢ 自主國防</p> <p> ㉣ 國際協力關係強化</p> <p>④ 社會正義의 高揚</p> <p>① 安保의 뜻 : 모든 侵略에 대처하기 위하여 國家의 모든 힘과 國民의 모든 힘을 합쳐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와 態勢를 갖추는 일</p> <p>② 安保의 課題</p> <p> ㉠ 自助精神</p> <p> ㉡ 自立意志</p> <p> ㉢ 自主姿勢</p> <p> ㉣ 協同行動</p> <p> ㉤ 努力하는 智慧</p> <p> ㉥ 自衛하는 勇氣</p> <p> ㉦ 自由에의 信念</p> <p>③ 國家安保없이 國家發展은 이룩될 수 없으며, 国力없이 國家安保는 維 持될 수 없는 相互依存性과 相互 補完的 關係</p> <p>④ 南北對話와 國家安保</p> <p> ㉠ 튼튼한 国力과 安保의 뒷받침 없이 對話는 持統될 수 없다.</p> <p> ㉡ 완벽한 安保만이 北韓이 武力侵略의 야망을 버리고 진정대 화에 임하도록 하는 길이다.</p>		

詳 細

<詳細 1> 維新의 意義

1-1)-②

1. 民族的 自我·發見

10月維新은 <依存>과 <模倣>의 脱避를 意味하는 消極的인 面과 民族的 新 活路의 自主的 開拓을 指向하는 積極的인 面을 지니고 있다. 이 民族的 自我·發見은 두가지 局面에 걸친 省察을 두드러지게 했다. 즉, 10月維新 宣言에서 指摘된 바와 같이.

① 現体制은 東西兩極体制下의 冷戰時代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韓半島를 둘러싼 情勢 變動에 비추어 새 時代의 要請에 適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② 一部 無責任한 政黨과 그 政略의 利用物이 되어 온 代議機構에 무작정 國家의 運命을 내맡길 수 없다는 憂우침을 들 수 있다.

事實 最近의 國際情勢는 모든 識者들이 見解를 같이 하듯이 從前의 兩極化代身 多元化, 過去의 冷戰對峙 代身 解氷對話의 到來를 實感케 했다. 나아가서 強大國들 간의 <어깨 너머 憧憬>까지 指摘되는 판국에 韓半島의 南과 北 사이에도 直接 對話가 必然的으로 現實化 되었던 것이다. <自主意識> 또는 <主體性>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었다는 事實은 依存의 時代가 이미 물러 갔음을 뜻한다.

2. 歷史的 使命

지난날 우리의 歷史에서 보는 수치스러운 否定的 要因의 除去

① 事大主義와 他律作用

② 黨爭

③ 自主主體意識의 貧困

④ 經濟向上에 對한 創意的인 意慾이 없었던 點

이들 요인뿐만 아니라 民族中興의 大前進 앞에 온갖 挑戰이 그치지 않았다. 經濟建設의 隘路, 共產 北韓의 好戰路線에 따른 韓半島의 緊張 狀態, 國際情勢의 激動뿐만 아니라 우리 內部에 自由의 이름으로 非生産的 混亂이 惹起되고, 國民意識이 分裂될 可能性이 尙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主體的 前進姿勢를 定立하고, 韓半島의 緊迫했던 危機狀況이 同族相殘을 避하려는 努力으로 平和統一-接近을 위한 <對話있는 對決>로 急旋回한 南北關係의 新局面이 우리側의 主導에 의해 展開하기 始作한 것이다. 이것은 ① 그 동안의 經濟開發과 自主 國防·建設에서 얻은 自信과 ② 歷史的 省察에서 우려 나온 民族 自主意識의 成長에 立脚한 것이다.

維新的 一大 전환기를 갖게 된 것은 歷史的 必然性을 洞察한 우리 民族의 슬기를 말해 주는 것이다. 事變에는 起伏이 있어도 歷史에는 中斷이 없다. 繁榮과 安定, 그리고 統一을 指向하는 우리의 歷史는 自主意識으로 각성한 우리 民族 스스로가 創造해야 하는 것이다.

3. 自覺的 自己革新

10月維新이 70年代 民族史의 一大 轉機를 마련하고 民族中興의 밝은 未來를 期約하는 躍進의 발판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안팎 環境의 變化에 견디어 낼 수 있는 對內體制의 強化를 위해 과감한 自己 革新부터 着手하지 않으면 안된다.

10月 維新의 政治哲學의 意義는 피나는 自己 革新의 決斷에서 우려나고, 그것이 近代化運動의 참신한 活力素가 되게 하자는 歷史的 英斷인데 있다. 오래 고인 물은 쉬 썩듯이, 政治 現象도 낡은 自

己를 脱皮하려는 과감한 自己維新의 끊임 없는 努力이 前提되지 않을 때는 必然的으로 衰退하고 早老症마저 걸들인다. 國家 發展에 新鮮한 大革新의 氣運을 일으켜 國亂 克服의 改革的 基盤을 굳히려는 데서 10月維新이 展開되었던 것이다.

모든 變革은 밖으로부터 自然發生的으로 일어난다는 낮은 觀念을 버리고, 真正한 改革은 自覺的인 自己 改革이라는 先覺者的 所信에 10月維新의 政治 哲學的 根柢가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10月維新은 그것을 決意하고 參與하는 사람들에게 <無限 責任>이라는 總體的이고 歷史的인 使命感을 賦課한다.

그러나, 하나의 改革意志는 過去의 經驗과 自信에서 우러나는 法이다. 10月維新은 지난 60年代 韓國經濟의 飛躍的 發展이라는 發展論的 體驗을 바탕으로 해서 70年代의 새 歷史를 開拓해 나가기 위한 <위로 부터>의 自覺的 體制 改革運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歷史的으로 볼때 10月維新은 지난날 壬辰倭亂을 앞두고 10萬養兵說과 아울러 漸進更張의 國政改革案을 내 놓았던 栗谷先生의 改革思想이라든가, 17·8世紀 實學者들의 經世學的 改革思想과 같은 改革意志를 오늘에 再現한 民族史的 命脈을 繼承한 運動이다.

그 점에서 10月維新은 말만의 愛國이나 感情만 앞세우는 憂國이 아닌 實踐的인 愛國心의 啓發作業이다. 그러므로 莫然한 憂國 忠誠이 아니라 近代化의 科學的·發展論的 戰略을 隨伴한 實學的·實踐的 改革運動을 展開하는 동시에, 指導層이 솔선 수범하려는 指導性이 加味된 近代化 改革으로 <愛國心の 生産化> 方向을 指向해야 할 것이다.

過去 20餘年間 우리는 民主主義 理念을 輸入하여 自由와 民主主義를 謳歌해 왔다. 그러나 不正·腐敗로 부터 멀리하고 스스로를 지켜 낼 수 있는 自強的인 民主主義의 土着化는 遼遠한 것이었다. 民主

主義는 <國民을 위한> 政治에 머물지 않고 <國民에 依한> 政治가 되어야 하며, 그 點에서 國民主權의 具顯과 동시에 同意와 合意를 위한 節次는 아무리 구차스러워도 省略되어서는 안되는 本質的인 것이다. 하지만 合意를 의해 民主主義 그 自体를 腐敗시켜서도 안되고, 民主主義를 살린다는 名分으로 合意過程을 省略할 수도 없다.

여기에 10月維新이 지닌 政治哲學的 難題가 內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分명한 것은 10月維新이 비록 <위로부터>의 決斷에서 비롯했다고 하더라도, 그 實現過程에서는 廣範한 國民的 合意와 自律的 參與의 幅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 要請을 滿足시키지 못할 때에는 砂上樓閣이 될 것이 分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그 政治哲學的 意義는 내가 嶄新해지지 않고 남에게 嶄新해지기를 強要할 수 없다는 自己更新의 行動이라는 點, 이와 같은 自己維新의 勇斷에서 問題解決과 難關克服의 열쇠를 얻으려는 劃期的 要件이라는 데 있다.

<詳細 2> 維新의 目標 1-2)-①

첫째, 政治面에서는 보다 더 能率的이고 浪費 없는, 生産에 直結되는 政治制度를 育成 發展시키고 깨끗하고 明朗한 政治風土를 造成하여 民主主義의 韓國的 土着化에 注力한다.

둘째, 外交面에서는 激變하는 國際情勢에 適應하는 能動的이고 伸縮性 있는 自主實利 外交를 展開하여 國家利益의 極大化에 努力한다.

셋째, 國防面에서는 裝備의 現代化, 軍의 精銳化, 豫備軍의 戰力化를 기하고 軍의 보다 經濟的인 運營과 組織的이고 計劃的인 科學化를 推進하여 人的, 物的 潛在戰力을 強化하므로서 國防에 절대 必要한 軍事力을 維持한다.

네째, 經濟面에서는 중단없는 開發과 建設을 통하여 祖国의 近代化를 推進하고, 企業과 個人등 모든 經濟活動이 私的 利益과 더불어 國家·社會利益의 實現에 主眼을 두는 經濟倫理를 確立하는 한편, 특히 物價安定, 科學技術의 革新, 物資動員의 極代化에 力點을 둔다.

다섯째, 教育面에서는 國民教育憲章의 범국민적 生活化로 愛國하는 價值觀形成에 主力하고 安保教育體制를 強化하면서 國民總和에 의한 自主力量 培養의 精神的 教育基礎를 確立하는 한편, 특히 民族史觀에 立脚한 國家觀의 定立과 國籍있는 教育에 力點을 둔다.

여섯째, 社會面에서는 國家安保와 國民의 團結을 해치는 社會의 모든 非能率, 浪費, 不條理, 弊習과 頹廢를 除去하고 失業의 解消, 生活의 向上等을 통하여 國民的 一體感을 啓導한다.

일곱째, 文化面에서는 健全한 言論·出版의 育成에 努力하여 國論統一에 寄與하고, 文化財 保護를 통한 傳統的 固有文化의 開發 普及과 國際文化交流의 增進으로 國民 文化生活의 向上을 期한다.

<詳細 3> 維新의 課題

1-2)-②

① 먼저 政治가 能率的이고 生産的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國力培養의 가장 큰 阻害要因은 國會의 非能率의 運營에 있었으며, 이로 因해 急變하는 內外情勢에 迅速하게 対処하기 어려웠다. 또 墮落選舉로 인해 社會氣風을 흐르게 하였으며 經濟建設에 있어서도 政治의 介入으로 非効率的인 投資가 往往 나타났다.

② 經濟面에 있어서 自由經濟體制를 維持하면서 高度成長을 이룩하는 것이다. 自由經濟體制로 高度成長을 持續하기 위해 重化學工業에 一次的 努力을 기울이고 農·水産部門에의 投資擴大를 통해 農·工隔差를 解消하는데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可用資源을 最大

限으로 活用하고 技術革新에 努力을 傾注하여 生産性を 높이고 雇傭을 擴大하여 온 國民이 安定된 일터를 갖도록 하며, 經濟成長을 沮害하는 모든 不条理와 非合理을 果敢히 除去하는 것도 10月維新의 課業인 것이다.

③ 社会的인 面에서는 모든 社会的인 不条理를 除去하고 國民紀綱을 確立해 나가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社會에는 奢侈, 浪費, 頹廢風潮等 많은 不条理 現象이 남아 있다. 經濟建設과 精神啓發은 別個의 問題가 아니라 經濟建設과 併行해서 精神啓發을 促進해야 하고, 또 精神啓發이 되어야만 經濟建設도 促進될 수 있는 것이며, 自我의 發見이야말로 精神啓發과 經濟開發을 加速化시키는 原動力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힘을 합쳐서 非能率과 不条理, 頹廢와 浪費가 스스로 자취를 감추고, 合理와 能率, 誠實과 勤勉이 뿌리를 박는 아름다운 生活風土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④ 10月維新은 스스로의 힘으로 民族의 繁榮과 平和統一을 이룩하는 것이다. 國際情勢가 急速度로 變貌하는 情勢속에서 強大國들 틈에 끼어사는 弱小國들은 그들 스스로의 平和를 追求하고 進路를 開拓하는데 있어, 그들 스스로의 슬기로운 判斷과 処身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民族의 繁榮과 平和統一을 이룩하는데 있어, 民族自主性이 強調되는 것은 當然하나 自主性を 強調하는 것이 國際적으로 排他的이거나 閉鎖적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美·日等 自由友邦과 互惠平等의 原則에 立脚, 友好關係를 增進하고 協調를 擴大해 나가야 한다.

또한 韓半島의 將來에 관한 問題는 결코 列強이나 國際潮流가 解決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主体的인 努力과 自主的인 決斷에 의해서만 解決될 수 있는 것이다.

小單元 3. 國民의 使命

教 授 目 標

<知 識>

1. 韓國이 指向하는 發展的 祖國의 未來像을 說明할 수 있다.
2. 統一後의 繁榮된 祖國의 理想像을 說明할 수 있다.
3. 民主國家의 理念具現에 있어서 最善我 實現의 重要性을 說明할 수 있다.

<態 度>

1. 統一後의 榮光된 祖國의 未來像에 理想을 갖고 그 理想實現을 위한 國家的 努力에 積極 參與하는 態度를 갖는다.
2. 民族中興의 새 歷史 창조자로서의 使命感을 갖는다.
3. 最善我 實現을 위하여 스스로 努力하는 態度를 갖는다.

<批判能力>

1. 國家發展과 個人發展과의 關係를 比較함으로써 健全한 國家觀을 갖는다.
2. 民主國家의 國民으로서 發展하는 國家의 國民으로서 할일을 스스로 設定할 수 있다.

教 授 要 目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및 留 意 點	資 料
<p>1. 韓國의 發展의 未來像</p> <p>1) 韓國民主主義의 정립과 發展</p> <p>2) 平和의 民主 統一 基盤의 確立</p> <p>3) 經濟의 安定과 繁榮</p>	<p>① 大統領中心의 指導體制：國政의 効率化와 能率化</p> <p>② 大統領과 國會議員 任期의 6年：政治的 混亂과 浪費防止</p> <p>③ 統一主體國民會議構成：國力의 組織化, 統一에 對한 國론統一</p> <p>① 南北緊張의 緩和</p> <p>② 武力衝突 可能性의 減少</p> <p>③ 對話의 與件마련과 推進</p> <p>④ 民主的, 民族的, 自主的 精神姿勢와 國力培養</p> <p>⑤ 平和統一外交의 強化</p> <p>① 1, 2次 5個年經濟計劃의 成功과 3次 5個年計劃이 完成되는 80年代</p> <p>㉠ 1人당 國民所得 1,000 \$</p> <p>㉡ 先進國에의 발돋움</p> <p>㉢ 100億 \$ 輸出國으로 伸張</p> <p>㉣ 農·漁村의 生活水準과 都市生活水準의 均等化</p>	<p>새로운 體制의 樹立과 그 效率的 運營 그리고 強力히 促進되고 있는 國家의 發展課業에 全國民의 努力이 傾注되면 韓國의 發展의 未來像은 分明히 榮光스럽고 밝고 希望의인 것이 될 것임을 前提하여 이러한 課業의 遂行을 爲해 國民의 總和的 意志와 불굴의 努力이 必要함을 強調한다.</p>	<p>1-1) <詳細 1> 補充說明</p>

主 題	教 授 內 容	方 法 及 留 意 點	資 料
<p>2. 統一後의 榮光인 國家 未來像</p> <p>3. 民族中興의 歷史的使命</p>	<p>㊦ 經濟安定의 基盤確立：物價安定， 換率安定，雇傭增大</p> <p>㊦ 福祉社會의 實現</p> <p>① 民族文化의 開花</p> <p>② 平和國家</p> <p>③ 福祉社會</p> <p>④ 韓國의 國際的地位向上</p> <p>① 民族文化創造，人類文化發展에 貢獻</p> <p>② 歷史的 使命意識</p> <p>㉠ 主體的 民族史觀의 確立</p> <p>㉡ 現代的 民族國家觀의 確立</p> <p>③ 國家的 發展에 總和的 參與</p> <p>④ 最善我 實現을 爲한 自助的 努力</p>		<p>1-3)-① <詳細 2 > 說明資料</p> <p>2-1)-④ <詳細 3 > 補充說明</p> <p>3-1)-④ <詳細 4 > 補充說明</p>

詳 細

<詳細 1> 韓國民主主義의 定立과 發展

1 - 1)

① 大統領中心의 指導體制 確立은 國政의 效率化와 能率化를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爲民의 責任政治가 具現될 것이다.

② 大統領과 國會議員等 代表의 任期를 6年으로 延長함으로써 代表選出을 爲한 政治的 混亂과 浪費를 防止할 수 있게 되었다.

③ 行政府의 爲民의 責任政治, 議會政治의 效率的 運營, 司法의 權威向上等 三權의 均衡있는 發展으로 民主韓國의 建設터전이 구축되어질 것이다.

④ 政治的 制度의 改革과 改善된 制度의 效率的 運營으로 爲政者들의 政治行態가 刷新되고 國民들의 政治意識이 고양되어 政治的 安定과 發達이 促進될 것이다.

⑤ 超党的으로 構成된 國民을 代表하는 統一主體 國民會議를 統治機構의 項点으로 하고 있어 國力의 組織化와 國論統一等 總和體制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詳細 2> 經濟的 安定과 繁榮

1 - 3) - ①

1. 1, 2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의 結果로 工業立國과 自立經濟의 基盤이 構築되었으며, 이를 基盤으로 한 3, 4次 5個年 經濟計劃이 完遂되는 80年代에는 自立段階를 넘어 自營의 段階, 豊요의 段階로 접어들 것이다.

2. 中進上位圈에 들어설 国民總生産

国民總生産과 一人当 所得

区 分 \ 年 度	61	66	71	76	81
国民總生産 (100萬弗)	2,400	3,800	8,029	16,163	33,221
成 長 率	4.2	13.4	9.8	10.0	10.0
一 人 当 所 得 (弗)	94.9	130.8	252.0	500.0	1,000.0

3. 高度化되는 産業構造

産業構造의 發展展望

(单位 : %)

産業区分 \ 年 度	61	66	71	76	81	備 考
農 林 水 産 業	43.8	37.9	26.3	20.8	16.5	(成長率) 72 - 76 : 4.8 % 77 - 81 : 5.0 %
鎡 工 業	14.9	19.9	23.8	29.8	38.8	72 - 76 : 14.8 % 77 - 81 : 15.0 %
社会間接資本및 其他서비스業	41.3	42.2	49.9	49.4	44.7	72 - 76 : 9.6 % 77 - 81 : 7.8 %

4. 輸出と 経済自立

㊶ 輸出構造

区 分 \ 年 度	61	66	71	76	81
1次産品(%)	78.0	37.6	14.0	9.4	5.0
工産品(%)	22.0	62.4	86.0	90.6	95.0
対象国数	25	74	108	125	140
品目数	100	445	983	1,120	1,200

㊷ 総輸出

(単位：百萬弗)

区 分 \ 年 度	61	66	71	76	81
総輸出	146	455	1,616	4,069	11,000
貿易	43	256	1,132	3,510	10,000
貿易外	105	205	484	559	1,000

5. 経済安定と 基盤確立

㊸ 物価安定

物価上昇率展望(全国都売物価)

(単位：%)

年 度	61	66	71	76	81
物価上昇率	13.3	10.0	8.6	3.0	3.0

㉔ 換率安定

外貨保有高展望

(單位：百萬弗)

年 度	61	66	71	76	81
外貨保有	205	138	535	974	2,379

6. 福祉社會의 實現

㉑ 教 育

① 義務教育年限의 延長

國民學校 6年에서 中學 3學年까지 義務教育年限이 延長될 것이다.

② 教育機會의 擴大

③ 教育의 平準化：量的，質的 兩面

④ 產學協同體制 擴張

地域社會의 特性에 맞는 專門教育의 實現

⑤ 就學率의 上昇

(單位：%)

區 分 \ 年 度	61	66	71	76	81
總 就 學 率	55.1	60.2	63.9	64.8	66.3
國民學校就學率	98.2	100.2	106.6	104.8	99.7
中學校就學率	37.5	41.8	55.5	75.2	83.4
高等學校就學率	19.7	24.6	30.9	41.5	51.2
大學校就學率	7.6	8.1	7.6	9.0	12.2

㉞ 文 化

- ① 傳統文化的 繼承
- ② 民族文化的 創造
- ③ 文化的 生活環境
- ④ 文化水準 平準化

㉟ 社 会

- ① 就業人口 增加와 失業率 低下

失 業 率 展 望

年 度	66	71	81
失 業 率	7.4 %	4.5 %	3.0 %

② 밝은 社会

法秩序와 社会倫理意識에 对한 安定되고 明朗한 社会秩序의 確立

③ 誠實한 社会

不正腐敗와 不条理가 없는 모두가 일하고 建設하는 誠實한 社会 建設

④ 勤勞者의 社会保障制 確立

⑤ 文化施設을 갖춘 住宅 建設

⑥ 自由의 極大化와 国民倫理의 自律化

⑦ 社会正義의 實現

<詳細 3> 統一後의 榮光된 國家未來像
2 - 1) - ④

우리는 韓國의 發展的 未來像을 여러 角度에서 展望해 보았다. 이러한 未來像은 꿈과 같은 理想이 아닌, 努力如何로 實現 가능한 未來像이며 그리고 想定된 期間도 원래한 長期間이 아닌, 80年代를 基準으로 한 눈앞에 둔 未來像이었음에 반하여 여기에서는 좀더 長期間을 展望하는 未來像이다. 어느 特定의 期間을 限定함이 없이, 그러나 統一後라는 期間을 豫想하여 우리나라에 있게 될 榮光된 未來像을 그려보면서 希望과 금지, 그리고 그를 向한 努力의 價値를 認識케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未來像에 투시되는 理想없이 現在의 努力을 값지게 여겨 보람과 禁지를 가질 수 없다.

1. 文化民族

우리나라가 如한 地政學的 條件 때문에 수 많은 外勢의 侵略으로 온갖 高난과 國權을 잃을 危機마저 당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4千餘年 동안 한번도 斷絶됨이 없이 이어 오게 된 韓民族은 또 다시 他律에 依한 祖國分斷의 高난을 당하고는 있으나 그 民族性을 回復하리라는 自信을 가지고 統一에의 努力을 繼續하고 있다. 過去의 우리 民族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民族的 主體意識으로 祖國의 分斷問題를 기필코 解決할 것이다. 비단 統一에의 길이 험난하고 온갖 어려움이 豫想되지만 우리의 民族的 主體意識이 存続되는 限 어떠한 他律的 壓力과 구속이 繼續되더라도 祖國統一은 可能할 것이고 또 可能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民族의 至上課業으로 이의 成就를 爲한 모든 努力을 繼續 傾注하고 있는 것이다.

分斷된 高難과 統一을 爲한 피땀나는 努力은 統一後의 榮光스러운

文化民族으로서의 勇態를 그리며 참고 繼續하는 것이다.

統一後에 우리 民族이 가질 榮光된 보람은 三國統一後의 것이나 日帝로부터 解放되던 感激에 비할 것이 아닐 것이다.

또한 統一後 우리 民族이 創造하게 될 文化는 찬란할 것이며 世界에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리 民族의 슬기는 過去에도 戰爭이 없이 平和로운 時期에 크게 發揮되어 世界史에 빛나는 큰 業績들을 남긴바 있다. 우리도 統一된 條件과 平和가 持續되면 祖上의 創業 以上の 것들을 우리는 創造할 수 있는 能力과 自信을 가진 民族임을 자부하게 된다. 이를 立證하는 事例들이 이 같은 現實的 惡條件에도 不拘하고 世界에 과시되고 있다.

2. 平和國家

수 많은 外侵을 받아 왔음에도 우리 民族은 本質적으로 平和愛護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 統一이 이루어지면 過去의 教訓으로 다시는 内部的 紛爭은 勿論 外國의 어떠한 侵略的 野慾에도 不服하는 態勢들이 갖추어질 것이며 民族의 本質的 特性인 平和的 性格을 基盤으로 온갖 文化와 밝고, 誠實한 國家를 建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統一後면 文化民族으로서의 긍지는 勿論 文化的 創業에 힘을 기울이며 平和守護를 爲한 온갖 努力이 傾注될 것이며 온갖 文化가 꽃피고 平和로운 生活이 繼續될 榮光스러운 國家像이 그려지게 된다.

3. 福祉社會

統一이 되면 그동안 分斷되고 北韓의 繼續的 武裝挑發에 의한 破壞와 苦難을 가진 惡條件에도 세운 經濟建設의 基盤위에 더한 豊요의 社會는 建設될 것이며 갖가지 種類의 社會保障制度和 福祉增進 事業들이 擴張될 것이며 國民生活의 向上은 勿論 生活環境들이

改善되어 社會正義의 實現은 樂觀視될 것이다. 이러한 福祉社會의 實現을 爲한 基盤은 現在의 여러 惡條件에도 不拘하고 構築되고 있으며 이러한 底力은 統一後면 더욱 發揮되어 어느 다른 先進國의 福祉體制보다 더욱 훌륭한 理想的 福祉體制를 갖출 우리 固有의 特性들이 構築되고 있는 것이다. 例를 들면 兒童 및 靑少年 福祉와 年老者의 福祉를 爲한 制度的 形態가 어떠한 것이던 年少者의 成人에 依存하는 것을 美德으로 생각하는 우리 的 傳統的 意識이나 敬老思想 같은 것이 뒷받침 되고 있는 限 制度的 運營은 效果的일 可能性이 많다.

4. 韓國의 國際的 地位

지금도 우리는 國力伸張과 國內安定 基盤으로 國際社會에 進出할 수 있는 基盤이 갖추어지고 있지만 統一後의 世界속의 韓國의 地位는 더욱 伸張될 것이 確實視된다. 過去에 한동안 그러했던 바와 같이 國力이 微弱하게 되면 國際情勢가 어떻게 소용돌이 치든 또한 南北關係가 어떠한 危機를 물고오든 다만 안타깝게 強大國間의 大勢의 推移에 被動的으로 휩쓸릴뿐 우리 自主的이고 主體的으로 世界大勢의 推移에 對処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構築한 世界속의 韓國의 地位를 統一後면 더욱 높여 國威를 높이 伸揚하게 될 것은 勿論 世界平和와 共榮에 우리 的 能動的인 힘으로 自發的인 貢獻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 韓國 國民이 世界 어느 곳을 가나 文化民族으로서 堂堂한 國籍있는 國民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品位있는 行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詳細 4>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

3 - 1) - ④

우리가 志向하는 새 歷史 創造의 方向은 民主理念을 우리 固有의 傳統的 民族主体意識과 價值樣式 그리고 現實의 基盤위에 具現하고 祖國統一을 實現하며, 國家發展을 促進하여 나아가 人類共榮의 世界를 建設하는데 寄與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기 爲해서 要請되는 當面한 課題들을 앞서 밝힌바 있고 또한 우리가 達成하고자 하는 發展的이고 創造的 未來像과 榮光된 國家像을 그려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理想과 未來像이 하나의 꿈이 아니고 우리의 現實 앞에 實現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불굴의 信念과 自信 그리고 繼統的인 努力 如何에 依하여 決定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理想의 實現可能性은 한 特定の 個人이나 소수인의 集團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領域의 指導者는 勿論 全國民의 努力에 依하여 可能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分明히 民族的 大課業을 完遂하고 後孫에 물려줄 榮光된 祖國을 建設할 歷史的 使命을 지고 있는 것이다. 現實의 잘못된 點을 우리는 흔히 祖上의 잘못으로 돌리는 習性을 갖는다. 우리는 이러한 習性을 버리고 도리어 祖上의 빛난 얼과 韓民族을 지켜온 그들의 투지력을 오늘에 되살려 길이 後孫에 물려줄 榮光된 祖國 앞날을 내다보며 當面한 課業遂行에 매진할 歷史的 使命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다음과 같은 使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1. 民族文化史의 創造的 役割

國力을 伸張하여 安定과 繁榮을 이룩하고 國權을 守護하며 民族의 念願인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達成하여 榮光된 祖國을 建設

하는 民族의 活路를 開拓하는 救國的 使命을 지금 우리는 지고 있다.

수 많은 難關과 苦難을 이겨 지켜온 우리의 民族國家를 조금도 損傷시킴이 없이 더욱 發展시켜야 할 歷史的 使命意識으로 現實의 當面課題를 遂行할 것이 要請된다. 이것이 民族을 지키기 爲해 犧牲된 祖上들의 業에 보답하는 길ियो, 愛國하는 길이며, 後孫에 물려 줄 民族意識이다.

우리는 四千年의 悠久한 民族史 위에 堅持되어 온 우리 大韓民國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對한 긍지를 가지고 이를 더욱 伸張 發展시키려는 使命感을 더 높이 가져야 한다.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사로잡혀 우리의 傳統的인 社會秩序를 破壞하고 階級鬭爭을 내세워 唯一思想體制를 住民에게 強要하는 北韓과는 달리 우리는 協同·總和로서 相扶相助하고 個人의 自由와 人權을 尊重하며 나라와 民族을 爲하여 融和하는 배달民族의 正氣와 正統性을 이어받은 民族史의 主體임을 깨닫고 이를 더욱 빛내야 할 막중한 課題들이 우리에게 지워지고 있음을 자각하여 民族文化를 더욱 빛내는 創造的 使命意識을 公고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創造的 役割에 앞서 다음과 같은 意識이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2. 歷史的 使命意識

① 主體的 民族史觀의 確立

② 近代的 民族 國家觀의 確立

西歐社會의 市民意識은 오랜 思想的 發展의 터전위에 育成된 基本精神이다. “民主主義의 成長過程”에서 論及되어 있듯이 自然法思想, 社會契約說, 宗教改革, 文藝復興等 일련의 近代的인 哲學이 市民意識을 育成할 수 있었던 精神的 바탕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近代的 市民意識을 擴大하기 爲해서 民族意識이라는 準拠基準이 必要하다. 우리의 傳統意識의 基本이 되는 民族意識을 基盤으로 하여 市民意識의 方向이 促進될 수 있을 것이다. 傳統意識을 저버리고 西歐的인 市民意識을 涵養하려 한 過去의 잘못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時急한 것이 主体的 民族史觀의 確立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市民意識의 涵養으로 近代的 國家觀을 確立하는 方向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主体的 民族史觀과 民族國家觀의 確立위에 歴史的 使命意識이 育成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民族史의 創造的 使命意識도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3. 國家的 事業에의 總和的 參與

安定과 繁榮과 統一을 志向하는 課題는 수 없이 많다. 이러한 수 없이 많은 課業의 遂行을 爲해 必要한 것은 自主, 自助, 自立, 自衛, 自決의 精神이며 이러한 精神의 結晶으로 民族主体性이 形成된다. 우리는 勤勉하는 努力, 自助하는 精神 그리고 協同하는 行動을 發揮하여 우리 民族의 主体的 힘과 主体的 精神을 確立하여 國民의 總和로서 國家的 事業에 參與할 것이 要請된다.

그러나 國家的 事業이라 하여 共產獨裁國家에서 처럼 參與를 強要하지는 않는다. 國民 各者의 自律的 判斷에 依한 參與가 권장되며 따라서 自主, 自助, 自立, 自決等의 精神的 姿勢를 強調하는 것이다. 새마을運動도 바로 이러한 精神姿勢를 強調하는 運動이다. 個人 스스로가 잘 살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爲한 努力이 권장되며, 이러한 努力이 뭉쳐 協同하면 더욱 效果的인 結果를 가져오리라는 信念으로 勤勉, 自助, 協同의 重要性을 새마을運動의 精神的 姿勢로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 推進中인 모든 國家的 事業은 國民 모두의 發展과 繁榮 그리고 福祉增進을 爲함이다. 그러나 少數인의 努力만으로 쉽게 完成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며 國民 모두의 團結된 總和的 參與에 依해서만 그 成果를 極大化시킬 수 있는 것이다. 部分的인 事業이 아니라 全般的인 革新이 要求되는 事業이며 따라서 國民 全體의 總和的 參與가 要請되는 事業이다.

4. 最善我實現을 爲한 自助的 努力

모든 活動의 主体가 되는 基本的인 單位는 個人에 있다. 더우기 民主主義의 基本價值가 個人의 尊嚴性和 個人의 最善我實現에 賦與되고 있기 때문에 國民된 個個人의 最善我實現을 爲한 自決的 能力和 努力을 民主主義는 믿는다. 만일 이러한 信念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民主主義의 값은 喪失된다. 그 말은 個人이 自己의 最善我實現을 爲한 自決的 努力을 게을리 하거나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態度나 行動을 한다고 하면 民主主義의 값은 喪失되며 民主主義 理念이 具現될 基盤은 무너지게 된다. 各自 個人이 스스로가 主体가 되어 自己의 最善我實現을 爲한 自決的 努力이 強하게 發揮되는 곳에 民主主義 理念의 具現은 可能할 것이며 그것이 底力이 되어 國家全體의 發展과 繁榮이 可能해질 것으로 믿는 것이다.

따라서 個人의 發展如何의 責任은 一次的으로 個人에 있고,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爲한 努力을 最大限으로 可能할 수 있도록 하는 與件의 改善은 政府指導者에게도 있다. 오늘날 國民의 總和的 努力이 要請되는 것은 이러한 모두를 爲한 與件의 改善에 있고 이러한 總和的 努力에 依한 與件의 改善은 結局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可能케 하기 爲함에 있다. 따라서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爲한 自決的 努力은 國家 全體의 發展을 促進하는 基本的 單位이며 同時에 總和的 努力에 依한 國家發展은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더욱 可能케 하는 基本的 條件이 되는 것이다.

